

정책자료 2008-10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 수도권·광역시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황조사자료 I
-수도권·광역시-

정책자료 2008-10-1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14,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63-3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김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1
3. 조사 방법	3
4. 조사대상자 특성	4
5. 조사문항	8
II. 조사결과	12
수급자 01	13
수급자 02	51
수급자 03	95
수급자 04	143
수급자 05	179
수급자 06	202
수급자 07	219
수급자 08	249
수급자 09	275
수급자 10	302
수급자 11	319
수급자 12	354
수급자 13	383
수급자 14	415
수급자 15	453

수급자 16	487
수급자 17	525
수급자 18	557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함께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

2. 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도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2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를 통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사는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급가구와 공급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정책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음.

- 정책자료는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소도시·농어촌',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자료'로 구성됨.
- 본 정책자료는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중 수도권·광역시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 본 정책자료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틀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연구자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와 2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함.
 - 면담은 연구진 2명 이상이 방문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함.
 -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 연구메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후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사용함.
 - 면담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함. 이 과정에서 본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함.
- 면담 장소는 수급자의 경우 주로 조사 대상자의 집에서, 공급자의 경우 업무 공간인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짐.
 -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면접 장소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업무환경, 조직분위기를 볼 수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줌.
- 면접은 1차 조사의 경우 2008년 8~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조사는 9~10월 까지 실시하였음.

4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4.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수급자 35가구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함.
 - 수급자는 수도권 10가구, 광역시 8가구, 중소도시 10가구, 농어촌 7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2명씩 구성함.
-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13가구, 단독가구 6가구, 부부가구 5가구, 한부모가구 9가구, 기타 2가구로 구성됨.
 - 수도권·광역시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9가구, 단독가구 3가구, 부부가구 2가구, 한부모가구 2가구, 기타 1가구로 구성되며,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4가구, 단독가구 3가구, 부부가구 3가구, 한부모가구 7가구, 기타 1가구로 구성됨.
- 가구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가구가 8가구, 노인가구가 8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가구 중 근로가구는 응답자 35가구 중 24가구임.
 - 수도권·광역시는 장애인가구가 6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8가구 중 근로가구는 12가구임. 중소도시·농어촌 가구원 특성은 장애인가구가 2가구, 노인가구가 4가구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8가구 중 근로가구는 12가구임.

〈표 1〉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지역별, 가구 특성별 배분

구분	지역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수급자							
			가구 구조					가구원 특성		
			일 반	단 독	부 부	한 부 모	기 타	장 애	노 인	근 로
수도권	서울·노원	1	-	1	1	2	-	1	1	3
	인천·부평	1	2	1	-	3	-	2	1	4
광역시	부산·북구	1	-	-	1	2	1	2	1	3
	대전·동구	1	2	1	1	-	-	1	1	2
중소 도시	전북·전주	1	4	1	-	2	1	1	2	6
	경북·안동	1	2	-	-	-	-	-	-	1
농어촌	강원·횡성	1	3	1	-	-	-	-	-	4
	전남·영광	1	-	1	2	-	-	1	2	1
계		8	13	6	5	9	2	35		

주: 한 가구 안에서 가구원 특성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구원 특성의 총합은 전체 조사 대상자 수보다 큼.

6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표 2〉 수급자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

사례	연령	지역	가구 유형 (가구원 수)	가구 특성	수급 유형
01	3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장애 아동/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2	40대		한부모가구(3)	편모/ 무직	일반수급
03	80대		부부가구(3)	노인부부와 아동(조손가구)	일반수급
04	50대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5	30대		일반가구(5)	남편질병/ 아내일용직/ 아동3	일반수급
06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7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장애6급	일반수급
08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장애2급/ 무직	일반수급
09	40대		한부모가구(2)	편모/ 자활사업(자활공동체)	조건부수급
10	30대		일반가구(4)	부부 모두 질병/ 아동 2	조건유예제시 (질병)
11	60대	광역시	부부가구(2)	노인부부	일반수급
12	50대		일반가구(3)	자활사업참여/ 장애6급	조건부수급
13	50대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4	50대		일반가구(4)	부부 질병/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조건유예제시 (질병)
15	40대		한부모가구(4)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유예제시 (질병)
16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17	50대		부부가구(3)	부부와 모친/ 남편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8	90대		기타(2)	아들과 노모	조건유예제시 (장애6급)

〈표 2〉 조사 대상 가구의 특성(계속)

사례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원수)	가구원특성	수급유형
19	30대		한부모가구(4)	편모/ 취업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0	40대		한부모가구(3)	편모/ 부업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1	7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일반수급
22	70대		기타(3)	조손가구/노인과 손자2(사촌지간)	일반수급
23	30대	중 소	일반가구(5)	일용직/ 장애아동(정신지체2급)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4	40대	도 시	일반가구(3)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5	50대		일반가구(3)	남편 근로활동불가/ 부인 자활공 동체	특례수급
26	50대		일반가구(4)	남편 자활사업/ 부인 질병	조건부수급
27	40대		일반가구(4)	남편 택시/ 부인 파출용역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28	40대		일반가구(4)	부부 근로능력미약/ 딸 취업	조건부제외
29	50대		단독가구(1)	여성단독/ 농사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30	40대		일반가구(4)	공장 운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31	60대	농 어	일반가구(3)	남편 농사/ 부인 자활사업과 농 사	남편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부인 조건부수급
32	40대	촌	일반가구(4)	실제 근로	조건유예제시 (장애)
33	60대		부부가구(2)	노인부부	일반수급
34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장애1급	일반수급
35	40대		부부가구(2)	남편 간헐적 근로/ 부인 장애4급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주: 1)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2) 사례 29는 녹취가 불가능하여 본 자료집에 담지 않았음.

5. 조사 문항

가. 수급자 조사 문항

□ 수급자를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한 주요 내용은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떻게 삶을 꾸리고 있으며,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임.

- 따라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 제도의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모니터링 대상인 수급자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급여를 신청한 이유

-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원인 파악

2) 일상생활의 모습들

- 단순 생계유지에 급급한지, 수급 탈피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역,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식, 궁핍의 결과

3) 일

- 직업력,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하고 싶은 일, 현재 하는 일 등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대한 생각

-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수급의 효과 등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 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

장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

〈표 3〉 수급자용 질문 및 질문 내용

구분	쟁점	질문내용
	빈곤 원인	-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신청결정	권리 vs 낙인	-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수급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청과정	제도 접근성	- 신청할 때 느낌은? - 제도를 어떻게 알고 신청했는지? - 신청을 결정할 때 어려웠던 점? - 전담 공무원의 태도는?
선정과정	기준의 적절성 및 실행 부합성	-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수급 정도는? -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지? -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 (신청 탈락) 사유에 대한 수급 여부는?
사후관리	갈등	- 추정 소득 부과 등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지 및 발생했다면 대처 방식은?
	사례 관리	-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었는지? 만족하는지? - 전담 공무원과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만나는지?
급여	수준의 적절성 및 내용의 적절성	- 급여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쓰는지? - 부족분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법? - 급여별 사용처를 아는지? 실제로 그렇게 쓰는지?
	빈곤 완화	- 수급 이후 경제생활의 변화는?
제도효과	자립 기반 조성	- 수급 이후 가족을 포함한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서 복지 자원 활용도 등의 변화는?
	의존성	-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아닌지? 그 이유는? - 일에 대한 생각은?
	전망	- 미래에 대한 생각 및 계획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 문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실제로 이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됨.

-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제도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확인 방법 및 확인의 난이도 정도

- 소득 기준의 확인 방법, 재산 기준의 확인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확인 방법

2) 15일 조사의 실제적인 의미

- 신청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긴급급여의 활용 여부

3)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 방식 및 수행 정도

- 사례 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4)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여부 및 방법

- 어떤 자원의 활용이 가장 쉬운지

5) 시군구와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한 평가

- 전달 체계 개편의 효과, 조사 업무의 중복은 없는지, 어떤 점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졌는지

6) 전반적인 일처리의 방식

- 관료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시되는지, 아니면 수급신청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는지, 조작 문화 등

7) 수급자들에 대한 인식

- 수급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표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쟁점 및 질문내용

구분	쟁점	질문내용
일반 현황		- 담당 업무는 무엇인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 비중? - 업무 분장 및 담당 수급자 수
	사각지대	- 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 사례 발굴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결정 - 신청과정	권리 vs 낙인	- 상담 환경은 어떠한지 - 신청하러 오는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지 - 신청하러 오는 수급권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도 접근성	-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선정과정	기준의 적절성 및 실행 부합성	-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왜 그런가? -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는 부분은?
사후관리	갈등	- 추정 소득 부과, 소득인정액 등 탈락 처리 이후 갈등이 발생할 때 대처 방식은?
	사례 관리	- 사례 관리(사후 관리)의 방식과 내용은? - 신청 탈락된 가구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정 수급	- 어떤 유형(가구 상황, 가계 수준)인지? - 발견하면 그 대응은?
	제도 개편	- 개편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II 조사결과

□ 본 자료집(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은 수도권·광역시 수급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사례	연령	지역	가구 유형 (가구원 수)	가구 특성	수급 유형
01	30대	수도권	한부모가구(3)	편모/ 장애 아동/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02	40대		한부모가구(3)	편모/ 무직	일반수급
03	80대		부부가구(3)	노인부부와 아동(조손가구)	일반수급
04	50대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5	30대		일반가구(5)	남편질병/ 아내일용직/ 아동3	일반수급
06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07	60대		단독가구(1)	노인단독/ 장애6급	일반수급
08	40대		한부모가구(2)	편부/ 장애2급/ 무직	일반수급
09	40대		한부모가구(2)	편모/ 자활사업(자활공동체)	조건부수급
10	30대		일반가구(4)	부부 모두 질병/ 아동 2	조건유예제시 (질병)
11	60대	광역시	부부가구(2)	노인부부	일반수급
12	50대		일반가구(3)	자활사업참여/ 장애6급	조건부수급
13	50대		단독가구(1)	남성단독/ 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4	50대		일반가구(4)	부부 질병/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조건유예제시 (질병)
15	40대		한부모가구(4)	편부/ 간헐적 근로활동	조건유예제시 (질병)
16	30대		한부모가구(3)	편모/ 자활사업	조건부수급
17	50대		부부가구(3)	부부와 모친/ 남편일용직	조건부제외 (현재취업창업)
18	90대		기타(2)	아들과 노모	조건유예제시 (장애6급)

□ 수급자 01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근로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생활보호제도부터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응답자본인)	38	여	자활사업(근로유지형),	근로능력있음
딸	11	여	초등학생	
아들	10	남	초등학생	자폐, 발달지체2급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월계2동 영구임대아파트. 12평정도. 작은방 1, 큰방 겸 거실, 화장실, 작은 부엌. 큰방에 아들과 딸이 함께 잠을 잠. 작은 방에는 책상 1, 컴퓨터가 놓여있고 한쪽 벽면에 작은 책장이 있음.</p> <p>아파트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 활발한 편. 동사무소와는 15분 정도 거리. 교통편의시설 이용에 용이한 편.</p>

14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수행됨.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혼과 이혼후 자녀양육에(자폐 아동있음)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했고, 현재는 자신과 가족에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교육을 통한 극복)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었음.

(앞부분 좀 잘립)

A: 부모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시켜요.

Q: 아 예 ..

A: 그 선생님 교육방식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 한다 아이한테 아무리 해줘봤자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애 1학년때는 부모교육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Q: 아..

A: 애 학교보내고 마땅히 뭐 이렇게 시간이 마땅히 애 쫓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애가 발달장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모교육 받고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도 배우고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Q: 어떤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요?

A: 컴퓨터.. 워드 .. 뭐..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이렇게 세가지 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대에도 공부하고 있고

Q: 저기 지금 녹음을 좀 할게요 저희가 다 받아 적기가 힘들어서

A: 어휴 이거 챙피해요

Q: 아 이거 공개되거나 이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녹음을 좀

A: 상관은 없는데 어떨 때는 막 제가 떠드는게 챙피하기도 하고

Q: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안해주시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해봤자 설문지 이렇게 하거나 이게 다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A: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공부 시작한 게 그..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애가 장애고 뭐 이런거 표시내고 사실 너무 챙피하고 싫더라고요. 그

래서 안하려고 하다가 그 방학동에서 담당 직원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아이 핑계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 데리고 가서 보이고 얘기했더니 그럼 등록을 하지 왜 안했냐고 나중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등록 이라면?)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등록을 하면서 부터는 이 아파트로 6개월 후에 이사를 오고 그다음에 바로 월계 복지관하고 연결이 됐어요

Q: 그러면 처음에 수급을 받았던거는 도봉구에서?

A: 거기서는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급은 안받았고, 그래서 애 입학하기 전에는 계속 다녔거든요 애 데리고.. 여기와서도 1년 넘게 직장생활계속 했어요

Q: 그럼 수급받으신거는 언제부터예요?

A: 애 입학하면서부터 한 2년.. 한 삼학년쯤 되니까 2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봐야 하나요? 제가 버는거 제외하고 이십 얼마정도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 그래요 그런걸 주면서도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땀에 그 언어치료다 뭐다 다니다 보면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되고 정말 엄마가 듣고 다녔던 해야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 욕 많이 먹고 여러사람이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거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부터는 이쪽이 참, 그런 건 잘되었는 거 같아요 연계도 잘되었고 그래서 입학하면서부터 동사무소에서 직원 담당분한테 침은 정말 동사무소 청소 생각해봤어요. 나 애 애가 수업 끝나면 그 장애인만 모아주는 데가 수유리에 있어요 너무 멀리있다보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오후에 움직여야 되는데 애를 그냥 놔둘수는 없고 오전에 끝낼수 있게 청소같은거좀 시켜달라고..

(아이와 대화중)

그랬더니 좀 접수만 해놓고 6개월정도 지나서 애 입학하고 9월지달부터 제가 요 구르트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수급도 입학하고나서 한참 있다가 된거 같아요 수급도..

Q: 처음에는 청소일이라도 얻으려고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수급을 신청해보 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건가요

A: 그 제가 직장 못다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되니까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Q: 그럼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해서요?

A: 그럼 신청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조금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은 따로 안했고 액수가 올라간거죠

Q: 보조금? 어떤 보조금이요?

A: 그러니까 그 최저생계비같은 경우도 제가 벌고 있으면 제가 45만원 벌고 있으면 그 최저생계비가 75만원이니까 그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식으로 받았었어요.

Q: 언제부터요?

A: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애.. 그..(장애) 하고 그런건지 어쩐건지 그.. 제가 직장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하는 동안은 못받은걸로..

Q: 그럼 직접 가서 신청은 안하셨나봐요

A: 그런거 잘 모..지금 잘 기억이 안나요

Q: 여기는 이사를 언제 오신거예요

A: 애가.. 3년..4년 된거 같거든요. 4년정도 그리고 애는 애가 100일 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편모가정으로 되가지고 계속 그게 연결이 됐던 거 같아요.

Q: 아 그러면서 영구 임대 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A: 영구임대주택으로 애 자기 신청을 하니까 6개월 있다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냥 월세내고 그러구 살았었는데..

Q: 그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A: 방학동이요

Q: 그때 일반주택에 사셨어요?

A: 예 월세로.. 처음에 이혼할 때 2300 전세금 있었는데 일단 애가 자폐라는 걸 많이 상태가 되니까..이젠 진단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간 이 전세금으로 치료를 애를 해가면서 치료할때는 그런마음이었죠. 하다가 안되니까 셋이 같이 죽자 애 누나도 있거든요. 누나는 지금 캠프가서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애가 그래도 좋아지는 상태가 있으니까

Q: 지금은 모르겠어요..

A: 그러니까 힘이 생기더라구요. 아이가 6살 때부터 말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와 아이가 잠시 대화중)

Q: 저 포스터 .. 그래서 일부러 붙였나봐요

아.. 말아톤은 저희가 세 번을 봤어요. 저걸

Q: 아.. 아드님이랑 같이요?

A: 예 그냥 희망이죠 뭐 그냥 엄마로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사회가. 저도 아이들과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혼도 많이나고 욕도 많이 먹고.

(어머니와 아이가 잠시 대화중)

Q: 그러면 남매 놔두고 일하시기 참 그러셨겠어요. 직장다니실 때

A: 그런 얘기하면 정말 눈물나죠. 지금은 웃으면서 살수 있지만. 그때는 밤마다 울었죠. 애들 불쌍해서.

Q: 어디 맡기셨어요?

A: 놀이방이요.

Q: 누나는 몇 살이에요

A: 연년생인데 누나는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거든요

Q: 놀이방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A: 편모가정은 보조가 됐어요. 그 저희가 그게 97년부터가 됐나보더라고요. 근데 애네들이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또 그게 됐어요. 처음에 누나 같은 경우 처음에 좀 안되다가 바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되더라고요

Q: 보육료..

A: 예

(대화 중..)

Q: 일은 어떤거 하셨어요? 직장다니시면서

A: 저는 기술이 있었어요 미싱일이요. 그러니깐 미싱으로 하는 일은 다했어요. 지금도 미싱일에는 자신이 있고 가죽옷같은 경우는 혼자 완제품 다만들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만 사실 아프지 않았으면 사는 건 걱정 없었어요. 그냥.. 제가 워낙 그쪽으로 자존심이 강해서.

Q: 결혼하시기 전로부터 계속 하시던 일이셨어요?

A: 예 전 13살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과 후에 계속 가서 미싱쪽에서 알바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사는 건 사실 걱정을 안했는데.. 애가 18개월째 되니까 놀이방 원장선생님이 아이가 이상하다고 빨리 병원가보라고..

(아이와 어머니가 다시 대화중)

Q: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런.. 자폐있었다.. 이런거 잘 모르겠어요

A: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요 .

Q: 여기.. 이거 잘그렸더라구요.. 어머. 잘 그렸다. 부채도 그린거죠 꼬마가

A: 우리 애 작품 엄청많아요. 제가 다 모아놨는데

Q: 어머니 그림 나중에 전시회도?

A: 아.. 나중에 그쪽으로 키울려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애는 동물을 무지 좋아하구요 캐릭터나 이런거... 토토로 작가가 엄마가 그렇게 그림을 다 모아놨다가 그 했다는 소리 듣고 저도 박스랑 우리 애 요거랑 저거랑 애 일기장이고 뭐고 처음에 말 배울때부터 다 모아놨어요

Q: 대단하세요

A: 그게 살길이에요. 아이도 그게 살길인거 같고

Q: 그럼 지금 배달 일 하시는거죠 얼마정도 받으세요

A: 요구르트 배달일은요, 지금 4명이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하는 날은 정확히 15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있고 안 할때있고 따져야 되는데 33만원정도 나와요. 평균정도 한달에 제가 버는게.

Q: 급여는 그만큼 깎여서 들어오는거예요 그만큼

A: 그러니까 생계보조금은 제가 얼마지 정확히 안따져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50얼마가 나오거든요 그게 50만원 매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Q: 얼마다요?

A: 예 그러니까 제가 배달하는 일이 하루라도 더 있으면 그게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50얼마가 나오구. 50만원 선이죠. 8만원돈에 그 자활후

원금이 나와요 그게 저희 한달 총 생계비에요 그리고 아이 장애수당 나오구.

Q: 부족하시죠 한달 생계비하기에?

A: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지금 전 너무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떨 때 이번 학기같은 경우는 책값이나 이런거 들어갈때는 조금 막 걱정되기도 하죠.

Q: 공부하시는 거요 그럼 그거 등록금은 면제받으신거예요?

A: 생활보호 면제는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장학생이 됐어요.

Q: 와. .대단하시다 진짜 방송통신대 말씀하시는 거죠?

A: 예. 유아교육과. 예. 여기 나왔어요.. 제가 자랑할 때가 없어서.

Q: 보여주세요

A: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애가 자폐를 이겨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해가지고,

Q: 와 대단하시다..

A: 0원 처리된 게 뭐라고 나왔던데 장학생으로.. 여기요 장학. 그래서 0원 처리됐어요 잔액이. 그래서 책값이나 이런건 제가 부담해야되고 학부 대금이랑.

Q: 그것도 사진이라도 한 장찍어서 여기

(다같이 웃음)

A: 아.. 공부는 아이한테 보답하는 뜻에서 제가 남들이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폐를 이겨준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아이가 좀 더 나중에 좋아져서 현실적으로 됐을 때, 현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을 주기 싫어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진짜.

Q: 요구르트 배달일 하시긴 전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A: 요구르트 배달일 하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전기제품 조립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놀지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막 놀면 병이나는 성격이라. 그.. 했는데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하루종일 조립하고 앉아있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바로 동사무소 그 일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는 계속 봉제공장가서 시간제로 일하고 뭐.. 애를 이제

Q: 그럼 하루에 몇시간씩 일하셨어요?

A: 저는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 밖에 못했어요.

Q: 급여는 얼마나 받으신거예요?

A: 그때가 그렇게 해서 60만원 정도 됐었던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기술이 있어도 애 데리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받을 수도 없고 시간이 그러니까 텅길수도 없더라구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되니까. 써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런사람 안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술이 있으면서도 그런면에서는 되게 막 제 입장만 생각했으면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죠. 내가 막 그렇게 힘들게 배웠던 기술을 써먹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근데 아이를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Q: 애기만 어디 맡길 때가 있었어도 좋으셨을 텐데

A: 입학하기 전에는 까리따스 어린이집에서 아침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봐줬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안봐줘요. 또 방학이 있고 뭐하면 오후에 어디 맡길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제일 힘들게 그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그때 되면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또 옮기면 월급이 또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악순환이 되더라구요.

Q: 그럼 지금 배달일 하시는것도 애기보고 시간조절이 편하셔서 하시는거예요?

A: 예 애가 지금 오후에 미술치료를 정릉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오후가 다가요.

정말로 애 두시에 수업 끝나면 데리고 와서 정릉에 가서 미술치료 한시간 받고 그리고 다시 집에 오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면 여서 일곱시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같은 경우는 좋아지다 보니까 특수체육 선생님 학교에서 와서 가르치시는 분이 애 자기 센터에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일주일에 세 번정도 가거든요.

Q: 센터는 어디있는데요?

A: 공릉동이요.

Q: 왔다갔다 하는게 엄청나겠는데요

A: 저는 그것 때문에 이일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아이 이삼년만 진짜 열심히 하면 저렇게 좋아지는데 애가 보이잖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걸 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큰애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무 막 이렇게하다 보니까.

Q: 어머니가 동생만 챙기고 이래서 그런가보다.

A: 그것보다도 직장생활하고 이럴 때는 아이가 일찍오거나 이런날 또 어떨때는 토요일날 둘이만 맡겨놓고 일하러 갈때도 있고 회사라는게 그렇잖아요 그걸 아이한테 몇 차례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가 방과 후 생활 복지관에서 하면서도 동생 봐야 된다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이런 증상보여서 복지관선생님들이 이런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누나같은 경우도 신경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셋 다 다 받고 있어요.

전 한달전에 약을 끊었는데 저도 이제 애가 막 좋아지면서 애가 2학년때.. 작년 이쥬. 제가 좀 애가 좋아지니까 직장 좀 다녀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만두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서 그때는 한 한달 가까이 정말 눈물밖에 안나더라구요. 애들한테 들어갈건 너무 많고 미술치료도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건 많고 해줄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계속 다니던 병원 선

생님 찾아가서 제발 눈물만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게 됐는데.. 그걸 먹고 나서 안정은 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셋이서 뭐 셋이서 이겨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하고 다시 학교로 와서 공부하고.

Q: 대단하시다 그래도

A: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겨내더라구요.

Q: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시다 보다 이혼하시게 되신 건가요?

A: 저희는 아이 백일때 이혼했는데 연년생이고 하다보니까 애들 아빠가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한달에 5일도 집에 안 왔어요 근본적인건 물론 외도겠죠. 또 그 당시에 물난리를 겪었어요 저희가 반지하 살았었는데..

Q: 전세 사실 때?

A: 예 98년도였는데. 자다가 뭐가 이래서 깬데 물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둘다 데리고 잠결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아빠가 그런데도 와 보지도 않고. 이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죠 이리다가 우리 셋 다 죽겠구나 하는..

Q: 아예 연락은?

A: 연락은 해요. 예.. 지금 재혼은 안한 상태고, 사는 곳이 가까우니까 신일고등학교 쪽이거든요 애들 할머니도 계시고 애들 아빠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애들 아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쪽이고, 부모님들같은 경우 애네밖에 없다보니까 처음에는 끊고 살았는데. 아이가 말 안하고 뭐 할 때 제가 정말 빌었거든요. 아이가 제발 말만하면 뭐든지 다하겠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하겠다.. 그런 각오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말문이 트이고 하면서 시부모님 맘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절실한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싶을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래서 연락은 하면서 하고 살고 큰애는 한번씩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Q: 외할머니는 안계세요?

A: 계세요. 방학동에.

Q: 가까이 계시네요

A: 다 가까이 있어서 애들이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Q: 다행이네요 할머니들이 계세요

A: 근데 사는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Q: 다들 좀 어려우세요? 경제적으로? 도움주실수 있는 분은 안계세요?

A: 사실 도움이라고 해봤자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못사니까. 언니들이야 형부들 눈치보고 제가 그런거 싫어하구요. 언니들은 그냥저냥 사는데 엄마가 못살고 남동생이 못사니까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럴 맘도 없고.

Q: 어머니 그 자활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A: 제가 하는 게 자활근로, 취로근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Q: 지금 하시는게요?

A: 예

Q: 어떤 요구르트를 어디서 배달하시는거예요?

A: 제가하는 구역은 이쪽이거든요.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Q: 아 독거노인분들 요구르트 나눠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

A: 그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거라도 일을 하니까 떼떽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그게.

Q: 네 맞아요. 노인분들도 많이 만나시겠어요

A: 그러니까 또 더 모티브가 된다고 해야되나요. 내가 늙어서 이런 모습이면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요구르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할머니들 중에서도 참 감사하게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불만도 많으시고 늦게 왔다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참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습관화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 어디든지 배울 점은 다 있는거 같아요.

Q: 아..그래서 아까 자활장려금 팔만원이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니까..

A: 그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이 동에는 4분으로 알고 있어요.

Q: 그 정도의 시간이면 아이 키우는 데 무리가 없으시겠네요

A: 지금 현재 그렇죠.

Q: 정말 기술 살릴수 있는 일만 있으면 딱 좋으실 거 같은데

A: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안 맞아요. 애하고 이 미싱일이라는게.

Q: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잖아요

A: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미싱일은 할 수 가 없어요. 좁아서 울리고 옆에 다 저기가 되고 처음엔 여기 미싱을 진짜 들고 왔다가, 그게 안되더라구요.

Q: 여기 작업장 같은데 없죠 반지하에

A: 예 반지하에 미싱으로 하는 작업장 같은 건 없고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들고왔다가..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싱일은 딱 들어와서 막해서 보내줘야 되요. 그래야 그게 연결이 되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처럼 애 데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피해를 주기 때문에.

Q: 그럼 혹시 복지관에서 아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런거는...

A: 제가 애 입학할 때 신청을 했었거든요. 애 학교 끝나면 수유리까지 애를 데려다 주는 일을 누가 맡아주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에 맞는 건 없더라구요. 처음에 신청을 하고 다 물어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연계되는 건 없더라구요.

Q: 그런 것만 해결되면 기술 살리셔서 더 좋은 월급 받으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A: 저야 뭐 미싱쪽일은 워낙 자신있으니까..가죽옷 무스탕부터 시작해서 다해봤어요 지금 이 바지도 그냥 못 쓰는 원단 있길래 그냥 해서 입고 다니는 집에서 입는 걸로 하는거고.

Q: 이웃분들하고 교류는 자주 있으세요?

A: 여기는요 다 생활보호대상자고 이러다보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고 결혼 가정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처럼 딱히 젊은 이런 엄마는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하고는 좀 제가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 할머니들이 답답한거 많잖아요 서류상 이런거 그럼 들고 와서 물어보시고 이런 건 많아요.

Q: 거의 복지사..

(다함께 웃음)

A: 그렇다기 보다, 그냥 설명해드리고 이런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건 좀 하며 지내요.

Q: 다른분들이 도움을 많이받으시겠네요 아주머니 덕분에

A: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할머니같은 경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설명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이것저것 날라오면 답답해하시면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저냥 조금씩 챙겨주는 편이고..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3년동안 한 번도 급식을 안 빼

놓고 가거든요 점심시간에.

Q: 아.. 따님?

A: 아니 애 학교.

Q: 자원 봉사하시는거예요 / 아니 엄마들 급식.. 엄마들 와서 급식해야되거든요.

A: 2학년까지는 여기와서 학교 돌아가면서 했는데 3학년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니까 가는건데. 가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막 그러니까 애 보러가는게 아니예요. 반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가는데.. 그래서 또 유아교육을 택했던거 같아요. 일반 아이를 알아야 내 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애를 학교를 보내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처음엔 애한테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 아이들한테 잘해야 애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 지금은 교문 앞을 이렇게 가다보면 선생님보다 저한테 인사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삼년동안 아침점심 열심히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도, 배울점도 아이들한테 너무 많고

Q: 미래에 이미 계획이 다 서계신거같아요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A: 저는 유아교육 졸업하면 정말 시험봐서 자격증합격해서 계산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로 일단 취직을 한 후에 편입학을 해서 특수교육을 하고 싶어요.

Q: 대단하시다

A: 특수교육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거라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반아이를 알고 특수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학교를 가면서 느꼈어요. 아이테리고 가서.

Q: 대단하세요

A: 창피해죽겠어요

Q: 이걸 하는데 이런 부분만 좀만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A: 제가 복지공부랑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데 정신지체 3급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2급까지밖에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수당이 2급까지밖에 안 나와요. 20만원씩 그것도 올해밖에 바뀌어서 그래요.

Q: 아 예예 장애수당이 2급까지만 그래요 맞아요 아드님이 3급이세요?

A: 지금 2급인데 애 다시 하면 3급 이상되거든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아져도 불구하고 전 정말 걱정이 되는거예요. 뭘로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애네들은 가르쳐서 하려면 가까운데가 없어요. 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정릉까지 가고, 공릉동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비용도 비싸요 특수는 일대일이라 여기도 이만오천원이거든요. 한 아이가 근데 선생님이 이만원해주 시더라고요. 우리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여러 명 중에 한명씩 끼워서 해주더라고요. 장애 아이들 미술치료. 근데 일 년하면 끝난대요 일년후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Q: 다시 들어갈 순 없어요?

A: 네 그리고 애는 이걸 신청해도 몇 년 걸려요. 그동안 아이가 배워야 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아이한테는 다 적절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해줘야 할 시기가. 그런데 기다리다 그걸 놓치니까 제가 정말 없는 살림에 막 이렇고 돌아다니고 하면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이게 다 적절한 시긴데.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런 용기라도 있고 알아서 하지만 다른 엄마는 그렇게 엄두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돈도 없고, 아이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거 보면 전 참 답답해요. 저는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건 너무 부러워하고 정작 본인은 그런 행동을 안해요.

그러면 이제 특수교육하면서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구나..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게 참 답답하고.. 그리고 정부 시책이 좀 이 시기에 가르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으면.. 나중에 예방차원 예방차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복지는 예방차원이다 뭐 이러는데 이대로 놔두면 예방 전혀 안되잖아요 지금 이때 고쳐 줘야지.

Q: 장애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이시죠?

A: 확대보다도 3, 4급 아이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그건 없어요. 1,2급만 있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좋아지는 건 좋은 반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되는데 일할 형편도 그렇고.

Q: 아까 왔다갔다 하시면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 같은데.

A: 많죠

Q: 얼마나 드세요?

A: 이번 달에도 애가 3만원정도 들어간 거 같고 교통카드 찍고 다니니까요. 제가 (오버)하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어제 찍을 때 나가는 거 보니까

Q: 상당히 가게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크겠어요

A: 교통비도 학원 비 이상이니까 이 근처에 있으면 그게 학원비가 되는 거죠.

Q: 그러네요, 생활비로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이 애기 교육비 ?

A: 예. 저는 지금 아이 장애수당으로 나오는 건 다 쓰고 있거든요. 큰애 피아노랑 애 거기랑. 그러니까 생계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계속 약관대출을 받아요. 약관대출을 500받았었나..? 1년에 100씩 빼서 쓰나봐요.

Q: 약관 대출이 뭘니까?

A: 보험들어 놓은 거에서 거기서 받아쓰는 거예요.

Q: 나중에는?

A: 찾을게 없죠 보장은 되는데 이제 만기되면 찾을 건 없죠 이제 다 썼으니까.

Q: 그럼 빚 같은건 따로 없으시구요?

A: 그 약관 대출받는데 빚이죠. 500만원 정도.

Q: 그럼 한달에 어느 정도가 오버되는거 같으세요?

A: 지금 저희 집같은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인거 같은데. 올해 제가 공부 땀에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남동생한테 100만원 빌렸거든요. 이제 약관대출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거 빌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오버는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안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Q: 졸업은 언제하세요

A: 제가 올해 입학했으니까 4년.. 우리 아이 졸업할 때 같이 해요. 그게 지금 목표예요. 딱 해서 중학교 들어갈 때 같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들것이고, 그래도 이 학교는 특수반이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건 참 좋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걱정되고.

Q: 돈 부족하실 때 즐기시는 건 주로 어디서 즐기세요?

A: 저희는 옷이나 이런 건 전혀 안사입죠.

Q: 다 만들어서 입으시는?

A: 다 어디서 얻어다가 꿰매서 입히고 뒤편에서 입히고 그런.. 의류 쪽은 돈을 전혀 안 쓰는 쪽이고 저희가 쓰는 건 교육비, 교통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건 다 얻어 와요. 엄마네 언니네, 뭐 해가지고 식권도 있고.

Q: 식권이요?

A: 방학에는 식권이 나와요. 복지관.. 점심시간.

Q: 그럼 근처 가서 먹게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반찬을 전화하면 갖다주는 데가 있어요.

Q: 그게 뭐예요?

A: 요즘에는 음식만, 반찬만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식권으로.. 이 근처는 좀 많아서 그런게 되어있더라고요. 또 애가 밖에 나가서 밥을 전혀 못먹어요.

Q: 엄마가 해준거 아니면 안 먹나봐요.

A: 아까 그 큰 대접하고 그 대접 숟가락이 있으면 안먹어요. 컵도 이 컵 아니면 물을 안 먹어요.

Q: 자기 것만 하는구나

A: 학교에서도 숟가락 젓가락 혹시 빼놓고 가면 아예 밥을 못 먹어요.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저희는 나가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 친정엄마한테 얻어다 먹는 거구 쌀은 싸게 오니까.

Q: 정부에서 사시는 거 말씀이시죠?

A: 네 그걸 사서 하니까 그래서 먹는 건 돈을 좀 아끼는 편이고.. 언니들한테도 가서 반찬 좀 얻어오고 그래서 교육비, 교통비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는 거 같아요.

Q: 그렇죠? 교통비가 좀 큰 거 같아요 절대 줄일수 없는건데.

A: 그래서 맨날 바뀌었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관에서 우리는 돈을 내도 안 받아 줘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받으면 법에 위배된대요. 근데 몇 명중에 한 두

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받아주잖아요. 미술치료든 태권도, 피아노.. 근데 대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2,3학년 때부터 그래서 일반학원보다 복지관 쪽이 싸잖아요. 5만원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8만원이에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 피아노가.. 그래서 복지관에 5만원을 내고라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쪽이 너무 안 되가지고.. 근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Q: 그럼 일반 가정만 지금 돈을 받고 하고 수급가정의 아이들은 딱히 배울 데가 없는 거네요.

A: 복지관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설학원밖에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3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면 5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복지관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막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부측에.. 그리고 대기자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우리 3년이 넘었는데.. 이사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피아노나 태권도 이런 거 계속 신청했거든요. 근데 수급자가 여기 워낙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학원은 일단 보내야 되고 레코드나 이런 걸 전혀 못해요. 애가 학교선생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피아노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결국 사설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Q: 방과후 교실같은 경우 이 근처에 뭐..?

A: 있어요. 근데 애는 또 안받아 줘요. 장애애니까.

Q: 거기서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A: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아이들과 있으면 사고가 날까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으니까 제가 직장을 다닐래야 다닐수도 없고. 누나한테 맡기다 보니까 누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같아서.. 법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Q: 그런 면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만족하세요? 시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A: 예.

Q: 그러면 정부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A: 빨리 벗어나고 싶죠.. 저는 우리한테 항상 하는 아이가 지금 감사히 받고 헛되이 하지 말자. 누군가가 내는 세금인데.. 빨리 일어나서 우리도 세금내고 살자. 그게 우리 목표.. 세금내면서 사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라는데 우리 집 가족 목표예요.

Q: 혹시 급여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설명이 해주던가요? 어머니 가정은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을 다 자세히 해주던가요?

A: 그게 신청한지가 하도 오래 되서..

Q: 그 사이에 가구실태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안 찾아오세요 공무원이?

A: 제가 매일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해서 그러나.. 그런걸로는 제가 이의신청한 적도 없고.. 지금 받는 것도 감사해 죽겠는데 '이거 왜이래요 진짜' 그런거 어떻게 물어봐요. 지금도 너무 사회담당자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Q: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시나봐요. 예전에는 잘 이해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A: 여기 이사오기 전에는 그랬죠. 싸우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었죠..

Q: 어떻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었나요?

A: 아이 보육로 면제.. 그 부분에서 담당자 분이 제가 미싱을 한다고 직업이 되었으니까 '나도 미싱해봐서 알지만 미싱사 월급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치료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바 식으로 일을 해서 많이 못 번다 했는데 그걸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답답해서 아이 데리고 가서...

Q: 그때는 가정방문 나오지도 않으셨나봐요

A: 예. 그 아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 후로 그 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숨기거나 하진 않아요. 저도 상처 받았지만 그분도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한게 미안해 하시는데. 아.. 나만 상처 받는게 아니구나.. 그분이 미안해 하는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숨기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사실 처음엔 창피했거든요. 아이가 이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싫었고.. 대부분 집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보는 시선 때문에 싫었고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아이가 그랬지만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패턴을 바꿨죠.

Q: 사회복지사..복지관 담당자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봐요. 공무원보다..

A: 저는 거기 모임을 계속 참석하죠. 저는 애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번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Q: 그런 건 어디서 받으세요?

A: 복지관에서요 책이나 이런 걸 나눠주시고.. 이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받은 책이거든요.

(다함께 책을 보는 중)

제가 시간이 있어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뭐든지 하거든요. 이때 이 사진이 우리 아이 6살때인데 말을 못할 때예요.

Q: 지금이랑 다르다 진짜

A: 겁스하고 있거든요. 놀이방에서 다리를 다치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했어요.

Q: 이 친구 눈을 안마주친다.

A: 이때 만해도 그랬어요. 사진 찍을 때도 식구들, 특히 형부가 성격이 독해가지고

애 때문에 사진이 지체되니까 눈을 안 마주치니까 사진사가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애는 빼고 찍어달라고 사정해서 찍었는데.. 이 때만해도 아프다 소리를 못했어.. 애가 안 움직이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Q: 지금 진짜 너무 많이..

A: 사람들이 지금 저기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이 아이 좋아진 거 보고는.. 그것도 행복한 소리죠.

Q: 부모님..

A: 예 저희 엄마 환갑사진인데, 저희 새아버지시거든요. 열 살때 돌아가셔서 이 때 결혼 겸 이렇게 사진을..

Q: 진짜 많이 좋아졌다 / 다복해 보이시는데요

A: 이쪽에 남동생이 잘살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못사니까. 이 동생이 정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애 이때만 해도 심각할 때였기 때문에 울케랑 7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뭐할 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오죽하면 '삼촌아빠' '삼촌아빠' 우리 딸이.. 아빠가 없으니까.. 이때만 해도 그랬지만 지금 저렇게 좋아져서 그리고 저가 이렇게 그림 모아놓고 하는 게.. 이거보세요.

Q: 진짜 잘 그렸다. 관찰력 있다 / 이거 찍어도 되요?

A: 예 찍어주세요

Q: 재미있기 !! 재미있기래요 !! 어땡해.. 재미있기!! 관찰력 있다..

A: 애는 그림을 정말 잘 하는데 색칠하면 그림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색칠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Q: 어머!! 선생님 이것도 좀 찍어주세요 !! 이게 진짜 작품인데.. / 와 대단하다..

A: 그래서 정말 제가 애 이런 소질이 있는데 뭐 못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게 이 프린트 용지거든요

Q: 용지값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A: 그래도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해줘요. 유캔도 만화영화보고 지가 보고 이렇게 한거거든요.

Q: 유캔도 !! 저 알아요 뭔지.

A: 예.. 이건 가보타크.. 그림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애 이런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Q: 선생님 이거 봐요/ 공룡 .. 아 정말 잘 그렸다. 와...

A: 앤 공룡을 너무 잘그려요. 근데 이 아이를 보낼만한 그런 것도 안 되었고.. 복지관에 신청을 해봐도 너무 오래걸리고..

Q: 안타까우시겠어요 진짜.

A: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Q: 어머니 그러면 공무원하고 많이 이야기 하세요 어떠세요 대하기가..어떠세요?

A: 저는 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라 해야되나

Q: 그러실거 같아요 성격이 워낙 활기차고 그러셔서.

A: 아니요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이쪽에 이사 오면서부터 그분들이 배려를 해주는 걸 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의심이 사라지는 거 같고

Q: 그럼 지금 일하시는 것도.. 사정도 아시고 그렇게 시간 조절할 수 있는 일

주신거예요?

A: 예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태능쪽 동사무소로 가셨대요 그 당시에 김 태환씨거든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 게 우리 아이 잘되면 초청하려고.. 우리아이 전시회에 오세요 하고..

(아이와 어머니가 대화중)

Q: 이거 잘 챙겨두셔야죠.

A: 예. 우리아이 나중에 그 쪽일 할 때 캐릭터 부족할 때 쓰라고 그러려구.. 딸릴 때..

Q: 따로 선생님이 뭐 찾아와서 지도해주시거나 이런건?

A: 없어요 저희가 정릉가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게.. 한번으론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걸 안타까워 하죠 그런데 형편상 더할 수도 없고 선생님은 아이 색칠이나 이런거 입히는게 잘 안되니까 그걸 많이 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복지 쪽 공부를 2학기 걸 미리 하다 보니까.. 하다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라면서 무슨 예방이야 정말 죽지도 않고 살라고 주는 정도밖에 더 돼?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Q: 지금 생계비가 전혀..

A: 그렇죠. 사실 밥이라도 더 해서 해먹고 이러다 보면 생계비가 사실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김치다 뭐다 얻어다 먹고 여기 작은 언니 같은 경우 아이가 우리아이보다 조금 한 단계 위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애들 옷을 다 갖다 입히고...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Q: 따님은 혹시 그런게 불만이거나

A: 우리애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냥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좋게 해야지 뭐. 이렇게 만들어 입으며 더 좋아하고 이런 쪽이고 그런 쪽으로 성격이 괜찮은 거 같아요.

Q: 좋으네요.. 요즘엔 사춘기가 또 빨리 온다고 해서..

A: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이하고 대화법을 좀 배우려고..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Q: 혹시 지금 계절별로 나가는 돈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A: 제가 공부시작하고 부터는 그거 같아요. 학비.. 학기별로..

Q: 그 학자금도 어떻게 좀 하면 좋은데 / 근데 장학금 받으시는데

A: 그래서 장학금을 받잖아요. 아니.. 생활보호 장학금을 탈 수는 있는데 1학기 때 신청하니까 되더라고요.

Q: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

A: 저희 방통대 같은 경우는 40만원이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 되는데 책값랑 이런건 안되죠. 그래도 저희한테는 10만원도 큰돈이니까 책값이다 뭐다 이렇게 들어가는게..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저냥 깨지더라고요.

Q: 그럼 당장 들어가야 할 돈은 세 가족 학비.

A: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애 정말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교육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이것이 살 길인거 같은데 지금 놓치면 안 될거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애가 여기 학원 다닌지 작년.. 딱 1년 되나봐요.. 그동안은 색칠 전혀 안했어요. 앤 색칠하는걸 되게 싫어했어요.

Q: 신기하네요 그것 참.. 잘 이해가 안되는..

A: 스케치만 하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여기 다니면서..그리고 우리애가 사람을 잘 안그리거든요. 이게 그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Q: 사람을 안 그려서 사람을 그리라고

A: 애가 참 웃긴게 한번 찍으면 사람을 그려서 갖다 해야되요. 종이접기 같은 것도 그렇게 잘해요.

Q: 손재주가 있나보다

A: 이런 미술 쪽을 잘 하는게 책보고 이렇게 접어요. 이걸 태권도 학원 갔다 와서.. 동물에 비해서 사람 참 못그려요. 이게 특수체육센터 가서 런닝머신하고 있는 거.

Q: 아 귀엽다.

A: 이게 농구 수업한거.. 이게 사람을 그리는게 학원 다니면서 생긴 거예요. 이걸 스승의 날 선생님 카네이션이에요.

Q: 선생님이 여자분인가? 머리 좀 봐

A: 애가 선생님이 이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 그때 묶고 있었거든요. 카네이션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 이제 거기 특수센터에서 같이 운동하는 애 3명이 TV를 보고, 자기는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걸 딱 그려서 보여주더라구요. TV에서 불나는 장면이 나왔나봐요 불나는 장면이..

Q: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요?

A: 애는 잘 어울려요 친구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보지를 않고 장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잘 어울리려고 아이들도 그러는 것 같고. 이걸 곱별래요..

Q: 한글도 다 쓰고 읽고 ..?

A: 예.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집에서 제가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하루에 날짜 정해서.. 이런 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안되잖아요, 미술이나 이런게.. 안되지만 그래도 글이나 수학은 조금씩 집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됐으면.

Q: 그 과정에서 더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애기 지금 다니고 있는 정릉요?

A: 이게 그 학원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려가지고 오라고. 애가 사람을 안그리니까.. 따른 미술 색칠이나 여러 가지 작업 이런 것들은 거기서 수업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미술 그림에 대한 스케치 그런 것들은 거기서 다 수업 받고, 대신에 이런 수업이나 한글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같은 경우는 저한테 집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런 쪽이고.. 그래서 글 읽고 쓰고 구구단 외우고 이런 정도는 되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내 아이를 평가했을 때 고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Q: 지금 일반 학교 다니는거죠?

A: 예.

Q: 특수학교는 왜 안 보내셨어요?

A: 보내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Q: 지금도 잘 지내니까.

A: 예.

Q: 거기가 프로그램이 더 풍부하고 이런건 아니예요?

A: 그 까리타스 어린이 집에서 우리아이 입학 때 그때 만해도 지금하고 또 틀렸거든요. 제가 고민을 막 했는데 선생님들이 특수 아이들한테 배울 점은 애가 없다. 애가 가르쳐주는 쪽이기 때문에.. 대신 일반학교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쪽이셨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학교를 가는 게.. 우리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아침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제가 학기 초마다 항상.. 아이 때문에 선생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일이 알림장이다 뭐다 다 챙겨줘

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시간이 뺏기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걸레질이라든가 쓰레기통 비우고 이런건 제가 도와드릴려고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급식을 가는 이유도 제가 점심시간에 조금 이렇게 뒷정리 해놓으면, 그 부분에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점심시간에 정리를 좀 해놓으면 아이에 대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1,2교시는 특수반 수업 나머지는 교실 수업이거든요. 될수 있으면 땡굴땡굴 안하고 가서 한 개라도 할려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하지 않았으면 공부할 생각도 안했을 거 같고.. 또 급식하러 오는 엄마들 보고도 많이 배웠어요. 그 엄마에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아이도 발전이 없겠구나 엄마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가 이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는구나 이런거 그제.. 일반아 특수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엄마로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이도 달라지겠구나..

Q: 학기 시작하시면 더 바빠지시겠어요 두아이다.

A: 저같은 경우는 방송이니까 바빠진 않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공부 못해요 앉으면 좋아요. 대신 막 들고다니면서 하는게 습관이 돼서.

Q: 혹시 활동보조인 제도 같은건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같은거?

A: 그게 있는 거 같아서 전 신청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 학교 끝나고 수유리 까지 통학하는거 신청하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전문 미술치료라던가 특수 운동하는 센터 이거 통학만 된다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Q: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짜라시가 있던데요. 아이고, 리플렛.. 리플렛 보셨어요?

A: 그런거 봐도 아이한테 딱히 맞는 그제 없더라고요.

Q: 아..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지.. 전화를 하면 공무원보다는 요즘에 후견기

관도 그렇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같은게 있거든요 시간당 얼마하면은 그걸 이렇게 내고 자부담비율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거 활용해보시면..

A: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 때는 해봤는데 없어서..

Q: 그게 요즘에 생겼어요 어머님.

A:그래서 신청 안했고 모르죠 알아봐야..

Q: 한번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그.. 지금 일하시는 거 소득이 다 잡히잖아요. 생계비로 잡히잖아요. 만약에 생계급여가 너무 부족하니까 혹시 동사무소에서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다면..

A: 그건 제가 하려고 했다가 큰애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애가 애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오후에 누가 봐주지를 않잖아요. 초과급여를 누가 해준다고 해도

Q: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몰래 일하시는 분 보셨어요?

A: 여기는 노인분들이 주로다 보니까 그런분 들은 못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오전은 힘들고 오후만이라도 가서 하려고 하다가..

Q: 공무원한테 얘기 안하시고..

A: 예. 근데 큰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후회 많이 했죠. 몇푼 벌려다 애 잡을 뻔했구나 싶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사는 게 진짜 불만도 많았어요. 열심히 일해도 어렵고.. 그런 것만 많고 그랬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내가 불만이 많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살고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아이들도 따라오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쪽이에요.

Q: 교회도 다니시나봐요?

A: 예.

(아이와 대화중)

Q: 혹시 지금 정부 지원받고 계신 거를 가족 분들도 아시나요?

A: 알죠.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사는지 다들... 그렇죠

Q: 교회 분들도 아시나요?

A: 저희는 애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누나만 다녀요. 애가 찬송을 못하게 해요.

Q: 노래하는 걸 싫어하는..

A: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성향이라는 게 웃긴게,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안 돼요. 아까처럼 옹가하고 이런게 안되고 학교에서도 화장실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져요. 아무화장실이나 못가요. 자기네 반앞에 있는 화장실 못가고. 저 끝에 있는 저기를 가야 되고. 1학년 때 같은 경우 실수해가지고 제가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고.

Q: 진짜 안 붙어있으면 안되겠다.

A: 애 데리고 차타고 다니면서도..말아톤 보고 그런게.. 지하철이나 그런 걸 타면 애는 꼭 자리를 앉자고 하는데 또 경로석만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애가 살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앉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애가 버릇없네 뭐.. 그렇다고 우리애도 장애에예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 못 앉으면 애는 이해를 못하니까 또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차마 부탁을 하기가 그렇더 라구요 .지금도 차타면 무조건 맨 뒤로 가서.. 어쨌든 거기는 쟁겨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앉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서, 막가서 '비켜요!' '비켜요!' 해가지고 앉아요. 근데.. 일부 이해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죠. 애를 버릇없이 키운다고 하고.. 차타고 다니면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Q: 동사무소에서 자활담당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세요?

A: 계속 바뀌어요. 일 년 간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바뀌더라구요.

Q: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옮겨서 왔다갔다 하기가.. 저희 처음에 여기 찾아왔다가 저기 걸어갔다 왔어요. 보니까 쪽 장애인 복지랑 아동 복지가 모여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랑 아동복지 사이에 활동보조인제도 서비스 그게 나와있어요.

A: 저는 계속 갔어도 그걸 안봤어요.

Q: 거기 앞에 놓여져 있으니가 가져다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화해서 1급이나 2급 중심으로만 지원을 하거든요 물어보시면 ..

A: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볼게요.

Q: 어머님들이 통학문제나 본인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부탁을 하신데요

A: 저 같은 경우 오전에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시간이 되니까 굳이 생각을 안 하는 쪽이었거든요.

Q: 혹시라도..?

A: 예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제가 만약 직장 다니고 뭐 한다면 누나가 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그게 작년 가을이었나.. 제가 운동장에서 정말 평평 울었거든요. 아이가 당시 우울증이란 이야기 듣고. 그래서 학교 복지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학교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눈물) 그리고 나서는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오후에 동생을 누나한테 맡긴다는데..

Q: 착해서 말도 안 했나봐요 따님이..

A: 우리애가 참 웃긴 게.. 저는 애들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거는 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10만원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 필

요 없는데 그게 5원이 너무 싸서 사도 그건 낭비지만 필요해서 사는 건 낭비가 아냐 항상 가르치는 데..얼마 전에 학교에서 캠프를 가더라구요 그게 6만원이 조금 넘어갔나 봐요. 무서워서 자기는 못가겠다고 막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갔더니 지금 캠프가 30만원 좀 넘어가나봐요. 그거를 담임선생님이 유희(아이 이름)를 신청을 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유희가 돈 때문에 안 간거로 생각을 하셨더라구요. 아이 평상시 성격이나 이런걸 보면서 유희가 이리이러해서 캠프를 안간 거 같은데.. 그래서 유희한테 보통 이렇게 돈 비싼 건데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거야.. 갈래? 했더니 얼른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면서.. 유희가 그런 걸로 혼자 판단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런 내색 하는지.. 그런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아이가 그렇게 하는게 정말 속상한 게 먼저였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한테 하고 싶은거 다해라 뭐라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또 틀리구나..

Q: 그런 일 있을 때 이야기 나누거나 하실 분 있으세요?

A: 없죠. 없죠. 하물며 우리아이 키우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언니나 형부나 뭐 이런.. 아이 치료한다고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식으로 바뀌어서 직장생활하고 할 때도 언니들이 제일 뭐라고 했어요. '너만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싸우고 하다가 이제는 제가 연락을 끊고 사는 쪽이죠. 그리고 이런 걸 아예 설명 안하는 쪽이죠. 그래봤자 나 상처 받고 애 상처받고.. 특히 형부들 한마디씩 '집(시댁)에 좀 애 갖다 줘!' 힘들단 소리를 못해요. 갖다 줘 소리가 먼저 나오니까. 못해요.. 또 큰애가 이리이러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면 바로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에.

Q: 여기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

A: 없죠. 저는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걸 얻어서.. 없죠. 저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 보다 제가 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Q: 여기가 얼마가 나오죠? 월 임대료랑..

A: 겨울에는 10만원이 좀 넘어가고 여름에는 7-8만원 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에어컨 키니까 조금 더 나오겠죠.

Q: 꼬마 때문에 키셔야 겠어요.. 많이 더워하기도 하고.

A: 예. 이게 저희 막내 동생이 작년에 시집가면서 사준 건데 나 시집가면 못하니까.. 애 다이어트 해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언니 내가 이거 해주고 갈게' 하면서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주고 간거예요.. 알아주고.. 그래서 애 움직이라고.. 무조건, 너무 안 움직이니까.

Q: 여기 방이 2개잖아요 어머니가 따님이 같이 쓰시고 아드님이 따로 쓰세요?

A: 우리는 셋이 다 같이 ..

Q: 아 그래서요.. 근데 이제 좀 자라면은 방 때문에 걱정되진 않으세요?

A: 그 때는 딸이 저쪽에서 쓰게 될거 같아요. 애는 안 떨어지는 쪽이라..

Q: 아.. 혼자 안자나봐요?

A: 큰일나죠. 애는 다른데 가서 밥도 못먹는 데다가 지금도 남의 집을 못들어가요 친구집에 가도 안 들어가요. 집을 남의 집을 전혀 안들어가요.

Q: 학교는 혼자 잘 가요?

A: 학교는 제가 매일 데려다 주죠. 데려다 주고 자리에 앉혀 놓고.. 책이랑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못하죠.. 뭘 못한다 그러면 핑계 갖기도 한데..

Q: 못하겠네요 정말.

A: 그런 것들.. 이제 책이나 그런 것들은 자기가 찾아서 못하기 때문에 시간표별로 해서 책상위에다 순서대로 놔주고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다 옆에다 해서 짝궁한테 이야기 해놓죠. 애겨 여기 여기 있으니까 니가 좀 도와줘.. 그럼 아이들이

도와주고.. 줄넘기다 뭐다 이런거 갖다봐도 몰라서 애가 안 꺼내썩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요. 애꺼 여기 여기 있으니까 해주라고.. 아이들이 보고.. 그러니까 학교 자주 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게 되고 아이들이 또 (제가) 가서 친한 척 하다보니까 사명감으로 해주고..

Q: 학교는 영구임대나 일반 주택이나 섞여있나요?

A: 예

Q: 그 안에서 따돌림이나 이런 건 없었던가요?

A: 일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자주 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건드리죠..(웃음)

Q: 따남도.?

A: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 같애요.. 영구 임대 살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일반 아이들도 왕따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 엄마들은 애가 장애라서 놀림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대하는 것도 틀린 거 같애요. 저도 장애애를 키우는 엄마지만 장애애를 키우는 엄마는 일반학교 보내도 준비물이나 이런걸 안 챙기더라고요. 내 애는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먼저 차별을 하는 거 같애요. 저는 그런면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준비물이고 뭐고 하든 안하든 다 챙겨요. 1,2교시에 특수반가서 안하더라도 다 챙겨요. 그래야 애들 혼날 때 애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혼내잖아요. 그래야 다른 애들이 생각할 때 피해의식이 없는데, 다른 애는 안갖고 왔는데 장애애기 때문에 안 혼나고 애는 혼나고, 그럼 애가 미운가보더라고요. 나는 왜 혼나고 재는 안 혼나고. 그래서 그런거는 제가 노력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형평성이나 좀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걸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쪽이고.

Q: 부모님들끼리 모임은 없으세요? 저렇게 자폐아동 가지고..

A: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엄마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나뉘더라구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런 경우죠.. 그렇게 되더라구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일반 학교 보냈으면 일반 아이들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놀림당하고 뒤흔을 때도 아이들이 나빠서 내 애를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는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들한테 '애네들은 오히려 다른 애들이 안 건드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쪽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그래요. 자기 또래 비슷한 애들을 괴롭히지, 약자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아요

Q: 자기가 더 비난받는 다는 걸 알아요

A: 예. 알아요 애들도. 그러다 어쩌다 트러블이 조금씩 있고 뭐 한거를 엄마들이 확대해석 해버리면 그 아이들도 상처 또 엄청 받아요. 이렇게 하면 또 엄마들한테 욱먹죠.

Q: 어머니 그러면 지금 바라시는 일은 일.. 계속 하셔서 이렇게 뭐..

A: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4년 정도만 공부한다면 이대로 한다면 생활보호에서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아이도 지금 미술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애는 앞으로 이걸 직업삼아서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야기 쪽이 좋거든요. 상상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짠 게 이거예요. 너는 책 쓰고 상훈이(아이 이름)는 그림 넣고 엄마는 스폰서가 되어서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나중에 시사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 애 도와주신 분들 다 초청하자. 그래서 다 기록해놔 초대하고 싶은 사람 다 기록해놔. 그래서 우리끼리 모든 걸 다 계획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만 가면 되요.

Q: 어머니 유아교육하니까 동화책 같은거 하셔도 될거 같아요.

A: 그래서 아이랑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유치원을 하게 되더라도 너는 그런 쪽.. 뭐 아이들 이야기 해주는 이런 쪽. 상훈이는 미술 선생님 하고. 이러면서.. 우리 셋이서.. 우리는 해도 뭐든지 해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거 같아요.

Q: 꼭 그렇게.. 4년 뒤에는 학사모 쓰시고.. / 저희도 초청해 주세요

A: 그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전화번호.

Q: 저흰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A: 그래도 자라는 해야 되니까..(웃음) 그리고 잘 반영해 주시면.. 원래 복지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한데 모아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3,4급 아이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Q: 감사합니다. .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해요 어머니님.

□ 수급자 02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1년부터 총 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48	여성	무직	
딸	14	여성	중학생	
아들	11	남성	초등학생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 스케치 혹은 경우에 따라 허락이 되면 사진촬영을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는 응답자의 주거지 근처(아파트 정자)에서 이루어져서 정확한 주거시설에 대한 묘사는 가능하지 않음. - 주거면적은 약 17평(56㎡)이고 방2,거실1,화장실이 있음. - 응답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함. 건축된지 10년이 안됨. 주변 환경은 청결하고 조용함.근처에 녹지(동산)이 형성되어 있음. -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월계역)이 있고, 마을버스가 아파트 정문에서 출발하여 역까지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음. -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와 전문대학(인덕대)이 있음. - 응답자가 사는 아파트 동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 본 조사는 아파트 정자(외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음 파일 청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응답자가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조사는 어렵지는 않았음. - 제도에 대한 생각을 여과없이 말씀해 주시고, 감정을 확연히 드러냄. - 따라서 면접자가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본 면접은 신뢰하다고 평가할 만함 - 하지만, 면접 당시의 환경과 응답자의 상황, 다음 면접 예약에 따른 시간적인 부담으로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못함. 따라서 필요시 재조사 가능.(응답자에게 양해도 구했음.)

(음질이 좋지 않아 - 특히 수급자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음 - 누락되거나 잘 못 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녹취록의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Q: 여기가.. 근데 제가 처음 와서 그런데, 임대단지 인가요?

A: 예. 임대예요.

Q: 1단지만?

A: 예. 1단지만..

Q: 혹시, 영구임대인지..

A: 장기임대라 그러거든요..

Q: 아~ 그럼 30년 동안 계신..

A: 아뇨 아뇨.. 50년 장기라 그러구요.

Q: 들어오신지 몇 년 안되셨죠?

A: 99년이요..

Q: 8년정도 계셨구나.. 여기 지어진지 오래됐나요?

A: 저희가 99년 6월에 들어왔는데.. 작년에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Q: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A: 아뇨. 저희가 99년에 들어왔는데, 98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비었었어요.. 우리가 들어올때만 해도, 많이 비었었는데.. 그 뒤로 많이 찼어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하고..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같은거.. 여기 보러 왔었어요. 여기를 추천받고, 한 4월달인가, 3월달인가 한번 보러왔었거든요. 근데 시내에서는 그때 완전 봄기운인데, 여기는 완전히 공기가 겨울이더라고요.

Q: 냉랭했었나봐요? 주변환경이..?

A: 주변이요? 어우.. 이런 곳에서 살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저 건너 인덕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은 좀 화려하잖아요? 풍경도 좋고.. 근데 그때는 나무들이 무성하지 않았었고, 그때 3월달에 왔을 때는.. 겨울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해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 옛날부터 여기가 좀 '안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Q: 지금은..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A: 지금은 나무가 무성해졌잖아요. 경치가 좋더라고요..

Q: 죄송한데.. 자제분들이 몇분 계시나요?

A: 중 2딸하구요, 6학년 남자..

Q: 이웃분들하고는 잘 지내고 계세요?

A: 그냥 그래요.. 별로 터치를 안해요 서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곳하고 틀려서 그런지.. 여기는 임대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임대니까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많아요.. 탈북자들? 그 사람들이 올해부터 많이 왔나봐요.. 예.. 근데 주로 그게 여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Q: 예. 영구임대쪽으로.. 우선권이 이탈주민들에게 많이 갔어요.

A: 우리집 좌우로 다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라,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드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같아요(웃음..) 나는 그사람들 친구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왔잖아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폐로 몰려다니더라고요.. 많이 왔다갔다하고, 친구도 많더라고요.

Q: 모르시고 다니시면, 좀 남자분들이 몰려다니면 위험하다거나 그런생각이 하

실수도 있겠네요..

A: 주로 여자들.. 주로 여자들이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일 안하나요? 북한사람들은?

Q: 몇 년인가는 5년인가? 아니 1년인가? 그 기간은 정착기간이라고 해서 일을 안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일자리 알아보는..

A: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사람들은 매달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Q: 예. 조금씩.. 재정적으로 처음 일년간은 그렇게 지원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지원은 하되 일을 해야 되고..

A: 내가 볼 때는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남한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남한에서 살면 교육도 되게 치열하잖아요.. 못먹어도 학원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은 교육받아야 할 애들이 없는거 같아요. 젊은 부부가 산다던가.. 애가 있어도 한명? 그것도 어린애가 아니라 조금 컸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시기가 아니라.. 중학교? 이 정도를 다니게 해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왔다갔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사람들 여유있게 사나보다..

Q: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제가 조사를 다녀보니깐.. 전 외지인이라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임대 아파트에 알콜릭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A: 그런 사람 있죠.

Q: 보신적 있으시고요?

A: 예. 봤어요. 어떻게 아시고 왔는지.. 우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잖아요?

Q: 아~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A: 예.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눈물나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임대라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이들 아빠가 직장다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수가 없으니까 (보훈처에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여기로 왔지요. 임대도 그런거 같아요. 다른사람이 그러는데 보통사람이 임대를 하는 거와 우리같은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게 동수가 틀리더라고요.

Q: 배치가 달라지는군요.

A: 예. 우리도 잘 몰랐는데, 106동은 다 그런 사람들인거 같아요.. 유족들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에서 인식이 안좋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Q: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A: 몰라요.. 좀.. 인식이 안좋구요..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유족자들이 있는 동이)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구요.. 더 잘 싸운다는 인식이 있구요. 동네 사람들 보면, 싸우는 것도 참 많아요.. 잘 싸워요.. 조금도 양보심 없는.. 그런거 같아요. 그런 인식도 참 있구요.. 그렇게 한 것이 (동을 분리해 놓은 것이) 참 맘에 안들더라고요.. 똑같으면 똑같이 임대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유공자들.. 어디서 온 사람들.. 그 동을 딱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참 안좋죠.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커서.. 성인들이라든가.. 이처럼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다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아무능력이 없다가요..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질 수 없고, 나빠지려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근데 수급자라고 평생 1년에 한번씩 조사가 나와요.. 그게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아질려고 해도 좋아질 수 없고, 애들이 크면 클 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1년에 한번씩 온다는 게 아주 스트레스예요. 좋아진건 하나도 없고, 나빠진 것 뿐인데 더 돈을 많이 써야되니까..

Q: 소득조사나 이런거..

A: 항상 온다구요.. 그게 아주 비참하고요..

Q: 자제분들이 혹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조사하거나 할때..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손들어 봐라 이런 식의 것들은 없나요?

A: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항상 뭘 보내더라구요..

Q: 가정조사서 이런거..

A: 애들이 초등학생일때는 몰랐었는데, 중학교가니까 조금 눈치를 채는 거 같더라구요. 애네가 항상 줄때마다 내가 항상 써가지고, 편지를 붙여가지고 보내죠. 폴로 부쳐가지고 선생님께 갖다드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주 저기 해요.. 아이들이 크면서.. 크는 애들이 그런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겠죠. 크는 아이들이니까..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 이제 조금 아는 것 같구요, 남자애는 그런 면에서 아직 잘 모르구요..

Q: 혹시 죄송한데 따님하고 아드님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고 있나봐요?

A: 아니요. 제가 애들 클 때까지는 숨겼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숨겼어요. 애들 저기할까 싶어서.. 그런 마음에.. 위축되고 그럴까봐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한번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Q: 아~어머니께서요?

A: 네.. 애들이랑 상담하고 해가꼬..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애들이 좀 크면 말해줘라..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난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6학년 되니까 어쩔수 없이 알려줘야 겠더라구요.. 중학교도 가니까.. 유공자.. 어찌구가 뭐 그런게 오나봐요.. 알게끔 되는 그런게 되나봐요. 그래서 어차피 알려줘야 되는구나 싶어서, 6학년때 처음으로 딸한테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6학년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6학년 되니까 알려줬죠. 애들한테도..

Q: 죄송함 말씀인데..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하셨는데 부군께서 어떤 일을 하셨

나요?

A: 철도청에 지방청에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간이 나빠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Q: 산업재해나 이런 처리가 되신건가요?

A: 순직으로.. 철도청이니까 순직이라고 하더라구요..

Q: 그럼 죄송한데 수급을 받으신지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A: 글썄요.. 그거 철도청에서 해준거거든요. 아니아니, 보훈청청에서 해준거거든요. 2001년부터..

Q: 그럼 돌아가신 건 그보다 좀 전인가요?

A: 예. 9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Q: 90년도요?

A: 예. 그때 돌아가셨고 그거 받은지는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임대살면서 따로 따로 해 놓은게 불편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 자꾸 낳으라고, 장려하라고 그러잖아요?

Q: 예.. 출산장려.

A: 근데 그게 조금 그런 것이 전.. 아이들의 아이디어가(인적자본을 말하는듯).. 우리나라는 능력이고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있는 아이들한테 쏟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수급자들.. 불쌍한 애들은.. 지금 있는 애들만 잘 가르켜도 충분이 될거 같아요. 자꾸 애들을 낳으면 뭐주고 뭐주고 장려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있는 애들을 우선 잘 가르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제가 했었어요. 수급자애들은, 수급자애들 뿐 아니라 못사는 애들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

큼 배운 애가 더 잘해요.. 배운 애가 절대로 잘하지.. 학원 많이 다닌 애가 공부 잘해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 안나요.. 요즘 시대에는요.. 많이 배워야지 공부 잘해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밀어줘야지~ 왜 자꾸 애를 낳으라하고 장려만 하지, 있는 애들은 보살펴 주지도 않느냐구요. 그리고 솔직히 시책이 학교에서만 잘해라잘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아닌 거 같아요.. 학원 공부가 더 많이 우월한거 같아요..

Q: 어머니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더 커가니까요..

A: 참~많이 부담이 되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차라리 괜찮았다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없어도 이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집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애들 중학교 되면서부터 사교육비가 꼭 필요하구나~ 애들 과외를 가르켜야 하는 구나~ 그리고 옛날시대 때.. 없는시대 때 애들이라서 개천에서 용 난다.. 또 없는 애들이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공부과라면,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여기저기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구요. 공부만 공부만 파고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구요.. 이거해라 이거해라 딱딱 이렇게 해줘야지~ 없어도 나는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된다.. 뭐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되었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구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서 공부해라, 저기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끌어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는 안되는 것 같아요..

Q: 혹시, 동사무소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지역공부방이라던가 이런거 알려주거나.. 혹시 모르시나요?

A: 지역공부방? 아~우리애들 옛날에 그런건 참 많이 했죠. 예전에 여기 월계 복지관이라고 여기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때까지는 아이들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예능.. 뭐 피아노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개인.. 개인교습을 가야지 피아노든 뭐든.. 나

아진다는 그런말들을.. 지도하고 뭐 해도 늘지 않는다.. 늘지 않는다~

Q: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신거예요?

A: 예. 주변에서.. 하는 엄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아무리 해도 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사립으로 학원을 다니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니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때 월계복지관에 많이 다녔죠. 지금은 거기 안 다니죠..

Q: 그럼, 2001년도 경에 수급..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그럼 그 전에 부군이 순직하시고 난 뒤 수급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A: 그때는 들을게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사실 별로.. 많이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 유치원때고 그래서.. 저희 큰 애가 2000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로 저희가 온거예요.

Q: 그럼 아버지에 대해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A: 예. 못하죠..

Q: 혹시 다른 데서 도움을 받거나 재정적인 거라던가...철도청에서 유족연금 나오지 않습니까?

A: 예. 유족연금은.. 저희가 그게 10년 이상 되면 연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채 못되가지고.. 그렇게 안되었어요. 그래서 일시불로.. 다녔던걸 퇴직금으로 .. 그렇게만 받았어요.

Q: 그럼, 그걸로만 수급받기 전까지 생활하신 거예요?

A: 예. 그러다가 수급받고 나서.. 보훈청가서 이야기를 하구요. 그리고 친정에서 있었죠~

Q: 그럼 생활은 친정에서 하시고, 그러다가 이쪽 아파트로 오신거네요?

A: 예

Q: 아파트는 어떻게 알고 오신건가요?

A: 제가 보훈청을 갔었죠. 친정은 서대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훈청이 떨어져 있어서.. 지역마다 틀리다면서요? 그때는 삼각지 그쪽 보훈청을 제가 다녔어요. 거기 가서 사정이야기를 했죠. 생활이 이러저러 한데.. 집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년이면 우리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때 선생님이 잘 생각해 주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침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구요.. 제가 한번 와봐가지고, 일단 아이들이 2명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우선 학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그렇다 여기라도 가야지.. 학교도 그렇고.. 집도 없고 하니깐..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Q: 저도 국가유공자 집안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연금같은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지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건 지원받으셨나요? 철도청 말고 보훈청에서 따로 지원같은 연금은 없으세요?

A: 아뇨, 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이런 가정이잖아요..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20만원을 매달..

Q: 지금도 나오나요?

A: 지금 해주고 있어요.

Q: 그럼, 지금 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매달 생계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랑, 보험 연금 20만원 들어오는 거랑.. 이걸로만 생활하시는 건가요?

A: 예. 그렇죠.

Q: 다른 거는 혹시 더 없으세요?

A: 다른 거는 없구요. 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런 것을 알고서.. 자기가 좀 괜찮을 때는 돈을 좀 보내주죠. 자기가 힘들때는 '다음에 또 해줄게~' 하고 알게모르게 돈을 조금씩 이렇게 해요. 나는 그거 참 몰랐어요. 나도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다니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전문직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어떤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떠돌이 직장이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거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저는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직장을 다니다가.. 다니긴 했지만 많은 돈을 안받았어요. 거의 50-60만원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가 초등학교때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작년에 직장을 다니던거를 그만두게 됐어요.. 어렵다는 걸.. 제가 월급도 못받았어요. 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못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걸 모르고 처음으로 동사무소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좀 알아봐 달라'..

Q: 동사무소에서 일을 알아봐줬나요?

A: 아니, 그때는 제가 했었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근데, 동사무소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해준다는 거는 사실 좀 육체적인 일인거 같아요. 힘든일이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프진 않고 건강했었는데.. 제가 좀 힘든 일은 할 수가 없다고 느껴요. 근데 어디가 많이 아프고, 차라리 움직이지 못하고 많이 아프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생계급여 그거를 준대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병명이 없고 아프면.. 여기저기 아픈데 있다구요. 그런거 가지고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Q: 한 6개월이상 되야되니까.. 치료가..

A: 네. 그러니깐 그건 아주 큰병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 아프고 앓을 수가 없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참.. 이야기할 수도 없는거고.. 속으로만 불만이 항상 차있었고 그랬었어요. 그

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번 갔었더니 직장 좀..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 나 지금 돈도 못받고 있다.. 말했더니 사회담당 직원분이 그러면 직장 알아봐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때까지 생활자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난 몰랐는데.. 그 다음날 통장에 7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왔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Q: 그럼 생계급여를 작년에 처음 받으신 거네요?

A: 그렇죠.

Q: 아.. 그러면은 여기 계시면서 보훈청에서 나오는 20만원 하고 벌어가지고 쓰시는 돈이랑 그걸로 쓰신거네요?

A: 예. 그런 받는거 방법을 몰랐어요.

Q: 그럼 실제로 지원받은 거는 1년정도 밖에 안됐네요?

A: 1년은 아니에요. 그것도 끊겼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너무 오랫동안 봐줬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일을 해라' 그 이야기죠.. '차라리 어디가 많이 아프고 그러면 해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대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집이 친정이 흥은동 연신내예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엄마가 막내동생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엄마도 지금 연세가 74센가 그렇게 되셨어요.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고 그러신데.. 거기에 조카가 있어요. 개를 봐야되는데 저희 엄마가 보기가 힘드시다구요.. 그 조그만 아이를.. 부모는 직장생활, 맞벌이 하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개를 .. 집이니까 매일와서 보진 않더라도, 불편하고 아프니까 일주일에 3, 4번 와서 같이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 저기 아프고, 일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니까, 힘든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이 더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정형외과하고 한의원 계속 다니거든요.

Q: 죄송한데 특별히 지병이.. 장기적으로 치료 받는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A: 그런게 아니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힘드니까 계속 다니는 거죠. 애매해서 명목이 하나도 안된다구요.

Q: 진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A: 네. 말해봤자 되지도 않는거구.. 이런 얘기 해봐야 자존심만 상하고.. 거기가서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뭔가 또 알아보러 갔어요. 직장인가 뭔가 때문에.. 옛날에 뭔가 이야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나..

Q: 동사무소에 가신거예요?

A: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것 같다..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것 좀 해달라 싶어서 갔던건데.. 내가 원한다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그게 자리가 있어야지만 되고.. 뭐가 있어야만 되고.. 그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담당자가 그동안 내가 많이 봐줬다 그 이야기예요. 70만원 받는 거를..

Q: 그게 70만원씩 몇 달 받으신거죠? 근 1년 받으신건가요?

A: 예. 근 1년 받은 거 같아요.

Q: 제일 처음 받은 게 언제세요?

A: 지난 6월달부터 받은 거 같아요.

Q: 2006년 6월이요?

A: 예.

Q: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01년 수급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떤 거.. 2006년 70만원 지원받기 전까지는 어떤 걸 지원받으신 건가요?

A: 그때는 조금씩 나오더라구요

Q: 생계 지원이 조금씩 나와요?

A: 예.

Q: 얼마정도 나왔었나요?

A: 십 몇만원도 나오고, 팔만 몇천원인가도 나왔고..

Q: 거의 십만원 내외..

A: 그랬던 거 같아요.

Q: 그러니까 이게 보훈청에서 나오는 거 말고, 동사무소에서 나온게 한달에 십 몇만원씩 나왔다 이건가요?

A: 예.

Q: 아.. 그러면 수급자 신청을 그전에 하신거예요?

A: 수급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여기저기서 받잖아요. 직장에서 50만원 받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밖에 안된다 그 얘기죠..

Q: 그러다가 일을 그만 두시니까 작년 6월부터 70만원씩 들어왔다 이거죠? 그 전엔 일을 쫓 하신거고요?

A: 그러니까 그 전엔 그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돈도 못받고 못살고 이러니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말 안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가서 일 때문에 가서 말하니까 '그러냐~' 그러더니 그 기초연금(국기법을 얘기하는 듯) 그게 딱 나오더라구요. 어머 이런것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내가 몰랐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그걸 받고요 내요.. 아무 걱정이 없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거 같아요. 돈걱정 안하

고.. 내가 일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Q: 일을 하라고요?

A: 예. 너무 많이 봐줬다 그 얘기죠.. 아프지도 않고 일 못할 나이도 아닌데.. 근데 난 여기저기 많이 아프거든요 정형외과도 다니고 한의원도 침 맞으러 다니고.. 또 내과도 다니고.. 그렇게 항상 병원을 다녀요.. 근데 명목상에 그렇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말해봤자 먹히지도 않는거..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현재 25만 5천원 나와요..

Q: 아.. 다시 깎여서 나오는 거군요?

A: 예..

Q: 일을 하신다는 것이.. 뭐가 드러난다는 소린데?

A: 저희 동생이 30만원씩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Q: 아.. 매달마다. 그럼 실제로 매달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근근히 들어오는 건가요?

A: 근근히죠. 거의 매달은 아니고.. 그리고 보훈청에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년 이렇게 해가지구요..

Q: 그럼 이율도 몇 퍼센트?

A: 그건 싸서 연 4%.. 그걸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것도 두 번인가 몇 번씩 받았었구요..

Q: 그럼 부채가 있으시겠네요? 대출받은 것도 있고.. 얼마 정도인가요? 대략이라도..

A: 그게 한번 해줄 때 300만원씩 밖에 안해주거든요. 한번은 다 갚구요. 한번은 여기 들어올 때 집을 주택으로 해가지고 한번 받았었어요. 우리집 다 받고 7년 했었거든요. 이번 3년짜리는 아마 올해까질 거예요. 내년 3월정도 까지 받을 거예요. 매달 10만원씩 나가요. 이자랑 원금이 같이 나가요.

Q: 사적 이전 소득이 소위 말해서 친인척분들 통해서 받는 돈이 30만원인 건가요? 일은 안하시나요?

A: 일을 한다는 거죠. 거기가서 친정에 가서..

Q: 아~ 친척 집에 가서 며칠씩 일을 해주면서 30만원 받는다~ 그래서 나머지만 채워주는 거군요..

Q: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A: 남동생 둘 있구요. 한 사람은 연신내 살고 한사람은 용인이요.

Q: 그럼 시대는 어떠세요?

A: 시대는.. 왕래 안해요.

Q: 명절때도 안하세요?

A: 네.

Q: 왕래 안하신지는 오래되셨나요?

A: 처음부터.. 순직하고 난 뒤부터..

Q: 연락도 안하나요? 자제분들 보고 싶다고 하실 것 같은데..

A: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엄마가.. 그 때부터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아이들한테도 아무도 없다고.. 다 사망했다고..

Q: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지출을 어떻게 하세요? 관리비나 생활하시는 것

도 있고 학원비가 다 얼마큼 나가세요?

A: 30만원, 50만원 받는 걸로..

Q: 실제로 쓰시는 거요..

A: 예.. 그렇게해서 그렇게 했죠. 가끔 저기 만나가고.. 가끔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건 동사무소에 이야기는 안하는데.. 친정에 나가는 것만 이야기 하고.. 그렇게 썼어요

Q: 보훈청에서 20만원 받으시는거,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신거 30만원 받으시는거, 그리고 기타 아르바이트 이런 건 소비에 포함이 안되었을 테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25만원.. 총 75만원.. 그정도 나오시겠네요.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A: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깐.. 우리가 이러니깐, '애들도 그대로만 키워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더라구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걸 몰랐는데, 뉴스에 그런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우리같은 그런걸 이야기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만큼은 직장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꼭 가르켜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걸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과외비를, 사교육비를 없애라 없애라.. 없애야만 된다, 없애야만 된다.. 라고 말만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Q: 교육비 지원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A: 그렇죠.. 교육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Q: 지금 동사무소에서 학기마다 통장으로 교과서 라든가 학원비 비용으로 조금씩 나오거나 그런건 없나요?

A: 학기초에 몇만원 나오죠. 5만 몇 천원.. 그렇게 한번 나오더라구요..

Q: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죠 ?

A: 안되죠.. 제가 애들을 잘못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켰으면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아저씨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키웠기 때문에.. '아프시다~ 미국에 계시다~'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소박하지가 않거든요.

Q: 씹씹이가 좀 있나보네요?

A: 아니, 씹씹이라기 보다.. 그런데 가서, 그런데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복지관 가서, 저소득층만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데 가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학원가서 하는데, '나도 거기 갈거야 나도 거기 가서 할꺼야..'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Q: 따님은 어떠세요? 그런거 웃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이런거 신경쓰죠?

A: 아우~ 딸이 훨씬 더 빨라요.

Q: 뭐 사달라고.. 메이커 있는 것들..

A: 아니, 아직 그건 몰라요.. 메이커 주위에는 있겠죠.. 메이커를 찾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안 그러는데.. 그런건 있어요.. 학원같은 거는 있어요.. 다행히.. (녹음기를 인식한 듯 쉬쉬하는 태도를 보임).. 저희 같은 경우 충분히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는 안된다 싶어.. 하지만 우리는 다 가르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잘하지는 않아요. 다 잘했으면 하는 데 다 잘하지 못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시책이 그렇듯이.. '다 못하면(다 못하더라도) 한가지만 잘해라' 그게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켜요

Q: 어머니가 직접이요? 아님 학원?

A: 학원 보내는 거죠.

Q: 큰 학원인가요?

A: 우리 딸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윤선생을 제가 가르켰었어요.

Q: 집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A: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애가) 커지니까.. '학원이 더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아이가 기본기가 잘 다져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잘해라.. 그런 생각에.. 그래서 학원을 보내요. 이 달에도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영어학원 하나만 해도..

Q: 그게 얼마입니까? 한 이십만원씩 하죠? 한 과목당..

A: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요일 나뉘는데요. 근데 또 저희 애는 학교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월계중학교 다니는데.. 여기에서는 좋은학교 만들긴가 뭐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구요 학교에서도 과외시키고..

Q: 아.. 방과후 학습 이래가지고 영어선생님이 찾아와서 교육하고.. 얼마 씩 내고요?

A: 아뇨. 학교 선생님들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안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하니깐, 시험 보면 그게 점수도 괜찮고.. 그게 참 좋드라구요.. 근데 그걸 내가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한건데.. 그게 괜찮았어요. 영어학원 다니면서도 적어도 월수금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받아야 되는데, 학교 그걸 받다보니까 두 번밖에 시간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2일하니까.. 그래도 19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는 거예요.

Q: 크게 부담되겠네요?

A: 크게 부담되는데.. 그래도 이틀이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3일 하면 더 많이 늘어나요.. 비용이.. 3번하면 거기에 원어민 교사가 끼가지고 더 비싼 거예요. 2번하면 원어민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만겨 이걸 해라 했을 텐데.. 다행히 학교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2번밖에 하지 않아서.. 그게

17만원인가 19만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또 과외를 또 해요. 여름방학때도..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마침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커니 잘됐다 하고 영어학원을 뗐어요. 학교다니니까 시간이 안되니까.. 또 자기도 두 가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달 동안은 학교만 다녀라..

Q: 외부학원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A: 아니 학교만.. 영어학원 안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있거든요.

Q: 그럼 한달에 얼마정도인가요?

A: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급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난 번 이야기 들을 때는 한 4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Q: 옛날 보충수업비슷한거네요?

A: 예. 그렇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전 내질 않고 있어요.

Q: 그럼 학원은 안다니는 거네요?

A: 네. 딸은 학교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Q: 아드님은요?

A: 아들만 영어학원 다니고 있어요. 같은 학원일요.. 그래야 5% 5% 씩 할인이 또 되더라고요

Q: 그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시겠네요?

A: 예.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Q: 교육비가 제일 부담이시겠어요?

A: 예.. 부담이 항상 있죠.. 그래서 직장을 알아 봤는데.. 직장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그런 거를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빨래방이라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걸 할 수가 없으니까..

Q: 좀 체력적 부담이 덜한 그런 일자리를 골라 달라 했군요?

A: 네. 그런거 하려고 그랬어요. 제 다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걸 못해요. 지금 침맞고 이래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쪽에 기골인가 뭔가 안좋대요. 그래서 2달을 치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진 거예요.

Q: 어머니 죄송한대요, 지금 국가유공자라서 의료보호가 1종으로 되어 있으시죠?

A: 예. 1종이에요.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병원 많이 다녔거든요. 돈이 없으면 못다니는데, 병원에 부담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도움이었던 거 같아요.

Q: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서.. 약간은 내셔야 될거예요? / 근데 수급자 분들한테는 돈으로 들어오니까..

A: 예. 6천원이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한 병원마다 6천원이 아니라, 한번에 6천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형외과 하고 한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원갔을 때는 네 번을 6천원어치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1500원씩을 내고 받는 거죠. 정형외과 다닐 때는 항상 돈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다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 때는 앉는 것을 잘 못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은 (진료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또.. 60%를 혜택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멀잖아요. 보험병원은 위치가.. 그래서 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도 안갔어요. 근데 제가 한번 너무 아프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위탁병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위탁병원의 정형외과를 알아보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가서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 700원인가 900원이더라고요? 혜택을 봐서.. 그런데 이쪽 가니까 1500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위탁병원은 그냥 100% 다 받는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만 혜택되지, 가족은 100%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음파도 받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보험병원에.. 초음파나 검사 받는 것은 거기가서 해야 될 꺼 같다 싶어서 거기다 예약을 해 놨죠..

Q: 그럼 한달에 교육비 이런 명목 다 해서 실제로 지출되는 게 한달에 얼마정도세요?

A: 어.. 그러니까 다 쓰구요.. 우리는 저축이라던가 이런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구요.. 전에 있을 때 그걸 들어놨어요.. 예.. 보험을 들어놨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관대출이라 그래서 돈을 써요.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내고서.. 그러니까 현금서비스를 썼을 때 보다는 이율이 낮은거죠. 보험을 들면, 넣은 돈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그걸 보증금 삼아서 대출을 조금씩 해주는거죠. 지금 다 빼서 썼어요.

Q: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고 싶은게, 한달 생활비가 실제 얼마정도 들어가시나요?

A: 고것 뿐이에요 과외비, 학원비 ..

Q: 대충 30만원 정도?

A: 네.. 30만원 정도..

Q: 아 교육비는 그럼.. 그럼 식비나 이런거 있을 거 아니에요?

A: 예. 식비는 몰랐는데 식비.. 식비는 예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이야기 해가지고 쌀은 달라고 그랬어요 20키로 짜리..

Q: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안알려줬나요?

A: 그건 안 알려줬어요.

Q: 월계 2동 사무소죠?

A: 네..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옆집한테 먹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먹어요?' 그랬더니 우린 싸게 먹어요. 그러더라구요. 요즘은 쌀값도 비싸잖아요.. 4만5천원.. 그것도 안 좋은게 그래요. 비싼건 5만원 이상씩 하고 그래요..

Q: 20키로면 세달에 한번 주는 건가요?

A: 매달.. 2만원씩.. 20Kg.. 옆집에서 알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거기 쌀 달라고.. 그래서 세달 됐어요 그 쌀 먹은게..

Q: 그럼 대충 식비가 얼마되세요?

A: 한 30만원 하고요, 아이들 그거랑 해서..

Q: 아이들 용돈도 있잖아요? 옷사주는 것도 있고..

A: 옷사주는 거는 주로 할머니하고 삼촌들이.. 동생들이 착해서 다행히 어린이날이라던가, 명절날이나, 무슨날이라 그러면 돈 꼭 보내요.

Q: 죄송한데 동생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렵거나 그렇지 않나봐요?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이 좀 있으세요?

A: 아니요.. 동생이 자동차 딜러라고 하나요? 그걸 해요.. 여유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거기서도 '동생들이 착하다'고 하시더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들이 참 착하다고.. 옛날에 내가 가족한테 한 그런 것도 있고, 누나가 잘못하지 않고, 그런것도 자기가 좋았다는 그런 기억도 있고 뭐 했는지 동생들이 참 잘해요.

Q: 그럼, 옷이나 이런 것에는 비용이 부담이 덜하신가 보네요?

A: 네.. 아직까지 그런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교복을 입잖아요..

Q: 교복은 두 벌 있으세요?

A: 아니요. 동복, 춘복, 하복 각 1벌씩..

Q: 교복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A: 나오지 않아요. 그런건 나오지 않아요.

Q: 구청마다 차이가 있나보네요.

A: 그런건 다 삼촌들이 해줘요.

Q: 식비는 대충 얼마정도 나오나요?

A: 학교에서 다 그런것도 하나까.. 학교에서 거의 다 안내고 있어요.

Q: 식당.. 밖에서 밥먹는 거는..

A: 네 그런 건 다 해주고 있어요

Q: 식비는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세요?

A: 적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적고 하긴 뭐해서..

Q: 대략적으로.. 15만원 그정도 드세요?

A: 그렇죠.. 먹는 거는 우리는 애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Q: 아끼시는 ?

A: 아끼는 것 보다, 아끼긴 않죠... 잘먹여야 하는데.. 아이때니까 잘먹여야 하는데
싶어도.. 그래도 없으면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
지를 잘 못먹어요.. 편식이 많아 가지고요..

Q: 고기종류라던가 소시지 이런것들 위주로..

A: 소세지나 햄 이런거는 안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아팠었고.. 그래서 사망을 한거고.. 신경을 많이 쓰죠 제가..

Q: 계절별로도 다를 수 있는게.. 기본적으로 나가시는 게 교육비랑 식비랑 각종 공과금.. 전화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도.. 겨울과 여름이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엔 난방비들어갈거고.. 어떠세요?

A: 근데 우리는 낮에는 없으니까.. 낮에는 거의 없죠. 별로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Q: 겨울에두요?

A: 한여름에는 선풍기를 많이 틀죠.. 집에 있어야지만이 좀 많이 쓰는데.. 방학같은 경우, 이럴 땐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꺼 같아요..

Q: 중앙난방인가요? 개별난방인가요?

A: 여기서 지역난방이라 그래요.

Q: 관리비 안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A: 예. 관리비 안에 다 포함되요. 근데 난방도 시간 걸려 줄 때가 있잖아요? 준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켜야지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난방이 아니구요.. 여기서 보일러를 켜면 다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내가 키고 싶지 않으면 안 키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많이 비싸거나 그런거 같지 않아요..

Q: 그럼 관리비 부담은 크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신가요? 관리비는 얼마나 되세요?

A: 여기에 그것을 조금 냈어요. 여기 넣는 돈을.. 제일 처음에 보증금.. 영구임대 들어올 때.. 그리고 지난 번인가 5만원인가 얼마가 또 올랐었거든요. 2-3년전에..

그때는 그걸 넣지 못했고.. 넣지 못하니까.. 임대료가 37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깐 올랐을 때 못내니깐, 임대료가 37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린 다른 임대료는 거의 없잖아요.. 보증금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관리비만 있는 거..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Q: 매달 6만원?

A: 예. 6-7만원..

Q: 많이 모자라시는 건 뭐가 있으세요?

A: 많이 모자라요. 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부족해요..

Q: 교육을 더 하고 싶으신데 못하시는 거지요?

A: 예. 보내고 싶어요.. 저도 꾸준히 보내고 싶어요. 영어 하나만큼은 꾸준히 보내고 싶어요.

Q: 최대 관심사는 이제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교육쪽에 투자라고 해야 되나 교육쪽에다 이렇게 하고싶으신 거네요?

A: 예.

Q: 다른 거는 없으시구요?

A: 다른 거는.. 집을 늘려야 되겠다, 뭘 더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구요.. 교육을..

Q: 애들이 클 동안 특별히 어떻게 움직이시기도 힘들테니까.. 커야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것을.. / 동사무소 찾아가실 때 그 때 좀 여쭙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씩 가셨잖아요? 거기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어떻게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투라던가 행동이 어떤 편이에요?

A: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Q: 사회담당.

A: 훌륭하시죠..

Q: 잘 도와주려고 노력하세요?

A: 전으로부터 그런걸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에는 남자분이 하셨어요. 이쪽으로 동사무소가 이사왔거든요? 우체국쪽에 있다가.. 그때는 어떤 남자분이 하셨는데,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지.. 알려주지도 않지.. 또 내가 가서 말하는데 조금.. 좀 비굴하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상냥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죠..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여자로 바뀌더라구요? 아무래도 여자고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괜찮죠.. 그런데 담당자 얘기도 그래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더 지원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도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려오는 것 대로 자기들도 하는 거 뿐이기 때문에 더 봐줄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해주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Q: 공무원분하고 싸우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마음이 상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A: 그런 거는 안되죠.. 싸우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약잔데요..

Q: 보통 느낌이 어떠세요? 상담을 받거나 하시면? / 동사무소 찾아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A: 처참하죠.. (울음) 가고싶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어쩔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누가 그걸 받고 싶어서.. 내가 절대 안받아요. 지금 내가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해준다니깐.. 병원같은 데서도 당당하게 돈을 내고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다니고 싶지,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다

니는 건데,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 정말(강조) 죄더라고요. 말로는 가난은 죄가 아니다 어찌구 그러는데.. 정말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떳떳하게 돈내고 다니면서 하고 싶죠. 병원다닐 때도 떳떳하게 다니지 못해요.. 사실 그 사람들 다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자기 돈을 내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저기한 것처럼 하고..

Q: 주변분들도 사실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어머님이나 동생분들은 아세요? 수급받고 계신다는거?

A: 정확하게 얘기는 안해요.. 이렇다는 거는

Q: 그냥 나라에서 조금씩 준다 그 정도까지만?

A: 예. 그렇게 해요.

Q: 어차피 보험 그것도 받으시니까..

A: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집도 집주위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도 다 따로따로 살더라 그 이야기에요.. 같이 살 수 있는데, 사람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 따로따로 살고.. '그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인데도 다 받더라.. 얼마씩, 수십만원씩 받는대더라'.. '너는 왜 그런 거 못받니~?..' 아까도 전화가 왔었어요.. 이번에 집에 한번 와라.. 뭐 가져가라 라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못간다 했더니.. 엄마가 그러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주위에 다 있대요.. 다 잘 사는데.. 다 따로따로 살아가지고 이사람 70만원 받고, 저사람 70만원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너는 왜 못받냐 그러더라고요..(흐느낌)

Q: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국가가 주고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생활이 어려워하신 분들한테는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된 거니까.. 하나의 권리로써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 되요. 가서.. 그 동안에 세금을 다 내셨으니까.. 세금낸거 가지고 국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A: 근데 저는 정말 이 제도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요.. 그렇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Q: 그건 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세요?

A: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거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 많이 다녔거든요. 보험료라든지 그거 정말 잘 받았어요.

Q: 의료혜택이요? 혹시 자활사업 같은 거 하라고 이런 이야기 안들어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자활센터라든지.. 여기서 만약 일을 계속.. 거기서 하시면 상관 없지만, 애들이 커서 못하시면 다른 일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혹시 동사무소 이런데 자활근로라고 있거든요. 매일 나가서 조금조금씩 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 보셨어요?

A: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어요. 얘기도 안해주시구..

Q: 그럼 동사무소에서 일을 해라만 이야기만 하고?

A: 그런 일은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노동이에요..

Q: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는 설명해 주셨어요?

A: 어떤 일을 했음 좋겠다 하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출력해서 뽑아주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했었죠. 공공근로사업 그거 했었죠.. 근데 그건 또 수급자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Q: 자활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A: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된대요. 그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노원쪽에 노원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결핵실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

때 애들이 위염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다 오잖아요? 많이들.. 학교에서 엄마들 올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딸이 그래요.. 엄마가 보건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어느 사무실에 있다.. 그냥 사무실에서 경리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지 아이들이 모르는데.. 저희딸이 이제 컸으니까 그래요.. '엄마 엄마는 보건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던거 같애.. 그 일 다시 또 하면 안돼?' 그러더라구요..(흐니김)

Q: 그럼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오신다는거?

A: 모르죠.. 몰라요.. 그냥 엄마가 회사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Q: 어디 가서 말도 못하시고 참..

A: 몰라요.. 나만 그런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키우면서는 아이들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보통 가정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 기분을 맞춰야 되고, 위축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눈치를 참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주길 바라다 보니까..

Q: 혹시 일을 많이 찾으신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종류를.. 동사무소에 물어 보셨어요?

A: 나이도 많고, 기술 있는 것도 없고, 사무실에서.. 잡다한 일하고..

Q: 아까 말씀하셨던 경리.. 비서.. 이런 종류를 말씀하세요?

A: 그러니까.. 경리, 비서 이런거 아니어도..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거.. 이것저것 그런 일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

Q: 신체적으로 많이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A: 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홍은동에 있을 때, 홍은동에 사회복지 보시는 담당자분이 좀 젊으신 남자분이시던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로 일을 해달라고..

Q: 아~ 동사무소에서~ 복사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A: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좀 했었어요. 차트정리 이런 것도 많고.. 하여튼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좀 낱 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2000년돈가? 1999년돈가봐요.. 친정에 살았을 때.. 거기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제가..

Q: 그때 그런 수급받기 전이셨네요? 2000년도, 99년도면..

A: 수급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아~ 이런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저보고 보조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거.. 그런 일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몰라요.. 근데 여기와서는 그런 일이 없나봐요.. 이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딱딱 프린트해서 나눠는 주시는데..

Q: 그러니까 끌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A: 예. 내가 건강하면 하겠어요.. 앓았다 일어났다 이걸 자신있게 못하니까.. 무릎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난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픈곳이 있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아 보질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걸으론 멀쩡해도 그런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구나.. 걸으론 멀쩡하다고..

Q: 그쪽에서는 근로능력 기준표라고 행정적인 서식표도 있고 하니깐..

A: 예.. 그런 것을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가고 그런 거니까.. 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게 괜찮더라구요.. 빨래방인가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거 해주세요.. 내가 동사무소에 했더니.. '전화하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2007년) 8월 1일 날인가.. 아니 7월 31일인가 보다..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동안 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번에도 이것저것 있다고 해서 한번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내가 이야기했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싶다~ 그런 데서 일했으면 좋게다~라고 했더니, 그런 걸 뽑아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창동인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일하는 거.. 애들 간식챙겨주고, 공부하는 거 돌봐주고, 이런거 였어요.. 근데 그게 돈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를 해야되잖아요. 돈이 그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못받아도 70만원을..

Q: 한달에 70만원 정도 받으면 잘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A: 잘살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힘들어도.. 최소가 그 거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 데 전화를 했더니 원장이.. 나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하는 데 방과후니까 오후만 필요하대요.. 1시부터 6시까지인가? 2시부터 6시까지인가? 그렇대요.. '단, 돈이 좀 적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한달에 40만원인가? 오후만 하니까, 40만원인가 얼마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거리도 괜찮고, 우리아이들 있으니깐 그런 것도 해본 것이고..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4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으면.. 40만원이어도 도와주는 거죠? 그건 안 도와주는 거예요?

Q: 도와주죠. 그러니까 3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7만원인데, 그 중에서 아까 연금 빼시고.. 그러니깐 보훈청에서 나오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시면 공제되는 게 있거든요.

A: 근데, 그게 될지 안될지.. 그건 모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받고 이러는 거 때문에 저한테 조금 준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받는 것도 16만원 넣어주

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 70만원 받는 동안은 제가 1년동안 너무 편하게 생활했어요.. 근데 4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거길 다니지 않았어요..

Q: 이게 끊어질까봐? 거길 다니게 되면 지금 그나마 받는 것도 못받을 까봐요?

A: 아뇨 아뇨.. 그때는 받지 않았던 때였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받았을 때 내가 전화했던 거 같아요.. 내가 거기 안 다니면서 지금 후회는.. 직장도 지금 구하기 힘들니까, 거기 다녔으면 참 좋을 뻔 했다..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40만원 받으면 나머지를 여기서 조금 지원해 주셨을 텐데.. 나는 그걸 모르고 40만원 받는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안 다녔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길 다녔으면 참 좋았을걸.. 내가 그걸 모르고 안다녔었구나.. 그게 지금 후회가 조금 되더라구요.

Q: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해 본 기억은 없으시죠? 99년도나 98년쯤에 보훈청에 신청을 하셨겠죠. 보훈청에서 해서..

A: 이쪽으로 이사 와서 신청했죠..

Q: 신청하러 가셨어요?

A: 신청하러 간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지도 몰랐어요.

Q: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받으시려면 임대 아파트 증명서라든지..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다 밝혀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 다 봤으셨었어요? 2001년도나 그때에?

A: 그때도 내가 직장을 좀 다녔었죠.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그 때도 수급상태였거든요.

Q: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바뀌기 전에.. 이게 2000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으시다가..

A: 안받었다구요..

Q: 99년도엔 안받으셨어요?

A: 예..

Q: 2001년도에 처음 받으신거예요?

A: 예..

Q: 그럼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이..

A: 몰랐어요.

Q: 보훈청에서 대신 해주신 건가요?

A: 보훈청에 가서도 몰랐는데..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야기 하다가 울음이 나왔어요... 애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구요.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알았다고.. 그러니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20만원씩 매달 들어오는 거, 그거를 해주시더라구요..

Q: 그건 보훈청에서 해주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건..

A: 이렇게 대주는 건지 몰랐어요. 동사무소에서.. 그 땐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50만원씩.. 얼마전에도 직장다니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 이런거 뭐 조사도 안 했었던 같고.. 그래서 이만큼 씩 돈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도 몰랐었구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런것만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 또 많이 아파서 직장 못다니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만 지원이 되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Q: 그러다가 처음 동사무소에서 돈이 들어온 건 언제인가요?

A: 그러니깐 8만 얼마가 들어왔었고.. 16만 얼마가 들어왔었고.. 13만 얼마가..

Q: 그제 2001년도란 말씀이신건가요?

A: 네. 그때부터 들어왔던 때가.. 16만원 얼마인가는 그 후에 그렇게 들어왔었던 거 같구요.. 처음에는 몇 만원 돈 그렇게 됐던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통장을 봐야 알겠지만... 아~내가 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밖에 안되는구나.. 고거에 제가 만족을 했었던 거죠.

Q: 신고서 이런거 작성해보시진 않으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어떤 서류같은 거 작성 안해보셨어요?

A: 아니요. 그런건 안하구요.. 그런걸 하더라구요 직장다니니까 직장에서 뭘 받아오래요. 그것도 정말 비굴한 거예요

Q: 아..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A: 네. 얼마를 받는 가를.. 어휴~ 그런 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비굴해요.. 다 나를 그런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그런 것 모르고.. 뭣뭣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까지 다 알리면서 다닐 수가 없는 거라구요.. 사실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까지 다 받아오래요..

Q: 그걸 언제 하셨나요? 그거 받아오라고 한 때가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세요?

A: 2004년도인가 받아오래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를 받는냐를 받아오래요. 그때 받을 때도 사장이 여자였었어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 딱 그거 받아오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심을 했죠 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를.. 그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장한테.. 우리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우리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걸 해오면.. 급식 지원받는 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좀 받으려고 하니깐 이것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때가 오십만원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더라구요.

Q: 제 생각에 보훈청에서 그걸 받으시니까 자동으로 생활보호로 가셨다가.. 아마 그것이 기초생활 대상자로 바로 넘어오신 거 같은데.. 그러면서 중간에 2004년도 쯤에 고용임금확인서를 떼고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왔을 것이고..

A: 예. 그렇죠.. 50만원인데.. 그것을 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때 아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여자사장이 주위에서 다 들은 게 있겠죠.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러더니 ‘그거 잘만하면 70만원씩 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구요. 어휴.. 난 숨기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본 적도 한번도 없었고.. 그래서 나도 ‘어머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와요? 어머~ 내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사장님한테 한번 쓸게요’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아휴~엄마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데 아니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지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어머 그래~’ 그래요.. 그 때 내가 조금 비굴한 것을 그 아들 때문에 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으면서 그러면 몰라도, 내가 받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받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Q: 그럼 이 수급신청 한거 기억이 전혀 없으시겠네요? 본인이 직접 안하시고 보훈청에서 했다면..

A: 예. 그렇게 했었구요.

Q: 그럼 집에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오기도 하셔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시나요?

A: 항상 저기서 와서 해요.. 보훈청에서.. 작년에 와서 해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항상 담당자가 틀려요.. 담당자가 내가 항상 대하는 사람이면, 날 다 아니까 괜찮겠는데.. 항상 올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똑같은 말을 항상 해야지 되는 거예요.

Q: 재산이나 소득 파악을 동사무소가 아닌 보건청에서 하시나 보네요.?

A: 정말 화가 나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되요. 작년에는 내가 그 여자한테 이야기 하면서 눈물이 나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좀 말라고 했죠 내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 하라.. 우리 애들이 경제활동 하는 나이도 아니고, 내가 뚜렷한 직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거긴데 애들이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못하면 못하지 더 나아지진 않는데, 왜 항상 이걸 갖다 조사하느냐고.. 와가지고 항상 비굴하게 똑같은 말 해야되고.. 제발 좀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고 전화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구요.. 나 그때되면 노이로제예요.. 9월이예요. 9월달.. 비참해져요.. 내가 얼마나 잘살고.. 숨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쩐 건지..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실정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 돈버는 것도 아니고.. 학교다니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아요.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정말..

Q: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되었으니까.

A: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하는데.. 그래도 사람 사정 보고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고..

Q: 만약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라면 사정을 잘 아니까 유연성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데.. 보건청은 워낙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니깐

A: 아니.. 자기들도 할일이라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에서 내려온 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 정말 아파요 정말.. 그럴때마다..

Q: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아예 안나오세요? 한번도 못보셨어요? 직접 찾아오거나..

A: 아니.. 동사무소에는 그것만 해요.. 수입이 얼마냐고 받아오라고..

Q: 그거 하나만 딱? 원래 동사무소 직원은 수급자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봐라..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거를 국가가 동사무소 직원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생활이 더 위험에 처할수도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사는 지 봐서 만약 생활이 어려우면 더 지원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 보고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A: 그러니까.. 일을 해도 돈을 주겠다 그 이야기 잼아요? 그죠? 50만원 받쳐주는 것도..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해라 그럼 돈을 주겠다 그 이야기 잼아요?

Q: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일을 하고 안하고와 관계 없이 현재 생활이, 혹시 갑자기 돈이 나갈일이 많다던지..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받으시는 것도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계속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급자 본인이 가서 말을 하면, 말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못하게 되면 알수가 없잖아요. 국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생활이 어떤지 확인을 해라.. 혹시 아프셔서 누워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A: 그럴 때는 제가 전화를 할꺼예요.. 자신 있게..

Q: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노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A: 이제.. 제가 좀 알아요. 이런 걸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가지구요.

Q: 누구한테 주로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제도같은 걸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계신건가요?

A: 아뇨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친구엄마한테 들어서 알게 된거구요.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은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더라.. 내가 그 소리 듣구요. 까무라쳤어요

정말.. 야~ 이렇게 못사는 사람 있는데.. 정말 그사람이 미워졌어요.. 옆집 그사람들 편하게 사는 거 보구요.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이런 힘든 사람이 남한에도 많은데, 그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남한까지 힘들게 한다..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해먹고 살아요. 그렇게 편하게 널널하게 사는 데.. 돈 쓰는 거 그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고.. 키울 자식들도 없고 그러니까..

Q: 그 사람들 외부지원이 또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도..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니까..

A: 예... 아주 편안하게 살더라구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애들 교육도 힘들고.. 애들도 아픈곳이 많아요. 치과를 많이가요.. 애들 크니까.. 치과를 가는 데, 이번에도 충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남자애는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났대요. 유치 다음에 영구치가 나야되는데, 우리 아이는 영구치가 없대요. 유치가 썩어서 빠지면 영구치가 나야되잖아요? 근데 사진찍어봤더니 우리 아이는 영구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뭐 인플란트를 해야된다던가? 그걸 하던가.. 또 하나를 걸으면 세 개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정을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한 삼백만원 정도 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아래위가 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구요.. 지금 치료중인데 치료 끝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보훈병원에다가 예약은 해놨어요.. 그때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30%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약을 해 놔구요.. 그럴 때마다 보훈청에서는 대출이 된대요.. 치아를 한다던가, 어디가 아파서 목돈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만큼의 대출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싸게 해도 이자를 내고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큰 꺼리가 그게 남았어요.. 이가 아래위가 다 그거라고.. 변형된 걸.. 비정상이란 걸 뭐라고 하더라구요..

Q: 만약에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신고를 하세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그 만큼 빼서 돈이 더 나온다고요. 얼마가 될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부채가 있다 거기에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하시면 거기서 부채만큼

공제를 해줘요.

A: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생계비 돈 받은 거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Q: 부채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서 그만큼 공제를 해서 주니까.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가 될진 저도 장담 못 드리겠지만... 그럼 당장은 그게 가장 급하신 일인가요?

A: 예.

Q: 지금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몇 가지만 더 여쭙보고.. 혹시 일을 동사무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시려고 하신 적 있으셨나요?

A: 그렇죠. 저는 일이 필요하니까..

Q: 어디어디 다녀 보셨나요? 벼룩시장 이런거 보시나요?

A: 벼룩시장 보죠. 주로 벼룩시장을 봐요. 그리고 동사무소.. 근데 이번에 담당자분이 일주일 휴가라 그러셔서.. 그런 일은 아파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분이..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고 하려고..

Q: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A: 예. 동사무소에서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빨래방인가 뭐가 그거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일이나 하지 못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뭐 병명을 떼어주는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Q: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일을 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랄까.. 나는 일을 해가지고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A: 아우~ 있죠. 있어야죠.. 우선 아이들이예요. 아이들 공부 잘 가르켜야.. 대학교 보내고,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그냥 영어만을 가르키겠다 해가지고 영어만을 가르킨다고 그랬잖아요.

Q: 그러니까 애가 커야지만 가능하다..

A: 예.. 커야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Q: 빨리 크는 수밖에..

A: 예.. 그래서 잘 가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Q: 일은 어떻게 해서든 꼭 하고 싶으세요?

A: 일은 꼭 해야죠..

Q: 혹시..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받으시는지 아세요? 제도에 대해 조금 아시겠지만.. 재산이 얼마큼 되어되고, 소득이 얼마큼 되어되고.. 기준들이 있거든요?

A: 그런거 하나도 몰라요. 우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모르는데.. 가끔 엄마한테 들어요. 친정엄마한테.. 주위에서 그런걸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엄마가... 괜찮대요. 집도 있고.. 하여튼 부자래요.. 그런데 그런걸 받기 위해서 속이고 따로따로 산다고.. 이번에도 한 집이 그랬다.. 따로 따로 살더라.. 근데 넌 왜 못받냐..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넌 왜 못받느냐고..

Q: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으시고, 판매서는 들으시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A: 예

Q: 동사무소에는 가기가 좀 그렇고요?

A: 동사무소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이게 한(하나의) 방으로 되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가지고 그런거잖아요.

Q: 상담하시는 공간에서 안하시나요?

A: 아니죠 한복판, 한가운데서 하는거죠.. 꼭 죄지은 사람 같구요.

Q: 동사무소가 일을 잘못하고 있네..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 원래 거기 상담실이 따로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데..

A: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고, 난 못난 사람이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죠.. 가기 싫죠.. 볼 일 있어 가야 될 때는.. 남이 볼까봐.. 주위사람들이잖아요 동사무소가.. 그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나를..

Q: 이 일대에 다른 수급하시는 분이 있으실텐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A: 몰라요.

Q: 수급자분들끼리 아시면,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게 있는데.. 이웃분들하고 교류가 없으신가요?

A: 그런거 원하지도 않구요

Q: 죄송한데 종교가 있으신가요?

A: 예. 우리는 다 천주교예요.. 안다녀요..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정치인들은 종교를 다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런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착한사람을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 같아요..

Q: 아파트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A: 17평이에요.

Q: 17평에 실평수는 그거보다 작고 이런식 인가요?

A: 아뇨아뇨. 평수는 19.3인가 얼마 나왔더라구요.

Q: 방이 두개고 거실 겸 부엌겸 하나 있는 건가요?

A: 예. 근데 거실도 아니고.. 부엌이죠..

Q: 예.. 세명이서 앉아서 밥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고요?

A: 예. 세명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요.. 제 첫째 바람이 제 직장이구요. 그다음에.. 아이들 끝까지 교육이구요. 그리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아이들이 크니까.. 같은 여자만 둘이면 괜찮은데 남자구 여자니까.. 아이들이 어릴 땐 몰랐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어우~ 엄마 우리 다른데로 좀 이사가'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더라구요.. 딸이..

Q: 그럼 죄송한데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어머니하고 따님이 같이 주무시나요?

A: 아뇨..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얘기라서.. 그렇게 따로 자고 싶긴 한데.. 아직도 얘기에요. 엄마결을 못떠나요..

Q: 그럼 한방에서 3명에서 같이 주무시는 건가요?

A: 아니요. 딸만 따로.. 자기방.. 아들하고 저하고 자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 말 들 어보니까.. 20평짜리 방으로 가면 방은 2개지만 거실 좀 넓대요.. 이사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딸도 '엄마 우리도 그런 데로 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왕십리에 그런 임대방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20평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옛그제 어떤 이사간 엄마가 왔었는데.. 거기가 그렇대요. 거실이 좀 넓은 데가 있는데.. 아주 거기 참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번 그쪽에 알아보려구요.. 동대문 쪽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구요.. 거기 온 엄마가.. 그래서 그런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Q: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좀 더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구요..

A: 괜찮아요..

Q: 괜찮으시겠요?

A: 예. 괜찮아요. 저를 아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다 말씀드리고 싶지..

□ 수급자 03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조손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_____년부터 총 _____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84	남	무	무
처	80	여	무	무
손자	11	남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 (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 반지하 다세대 주택/ 방 2, 거실 겸 부엌 / 공동 화장실(실외)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인터뷰 시 면접자에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솔직해졌으며, 인터뷰 마칠 쯤에는 가족 이야기 등 많은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함.-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기억력이 떨어져 같은 질문에 대해 모두 다르게 대답하여 모니터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할머니의 기억력이 더 좋은 것 같아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려 하였지만, 할아버지의 저지로 대답을 듣지 못함.- 추후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음. 만일 재조사를 한다면 다른 가구에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Q: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국가가 주는거..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잘되고 있는지.. 이런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시는 게 어떠신지, 부족한 게 없으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저희가 나온 겁니다.

A: 네, 알겠습니다. (손자가 집으로 들어옴)

Q: 손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A: 걱정이 많죠. 할머니도 거동이 안 되고, 누가 거두는 사람이 없자나요. 식사, 빨래도 내가 다 해야 하고.. 남자로서 이런 거 할 할 때는 가끔 짜증이 나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고,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못 걷게 되고, 아기 아빠가 작년 7월에 세상을 떠나고(을지병원에서) 나서 할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 졌어요.

Q: 저희가..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려 그러거든요. 이걸 어디다 떤 데 쓰는 건 아니고 저희 제도나 급여 나가는 것을 더 좋게 만들려고 도움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녹취를 해야 되거든요. 녹음을 해야 되는 데 괜찮으시겠어요?

A: 괜찮아요

Q: 저희가 녹음기가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와 대화 중)

A: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엄마 아빠 가운데서 커야만 정상이에요. 근데 할머니 나, 솔직하게 말해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참으로 어쩔 때는 내가 재보 다 슬픔을 느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인데.. 육이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 육이 이제 피곤할 때는 신앙도 떨리가요. 자꾸 재가 나 속 썩이고 할미가 나 속 썩이고... 아유 빨리 갈 사람은 가고 ... 재네 엄마가 재 낳은 지 7달만에 갔어요. 9년 동안을 키우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Q: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A: 아뇨, 아빠가 그러니까 나간거예요.

Q: 아 집을 나가신 건가요?

A: 그럼요

(아이와 대화 중)

A: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죠. 어떤 때는 의식주 문제도 심각하고... 우리집은 영세민인데 원래는 2종인데 재네 아빠 죽고 나서 1종이 됐어요. 그래서 동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Q: 그럼 우석이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A: 간경화요..

Q: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A: 작년이지 작년.. 그러니까 2년 됐어요.

Q: 그럼 아까 영세민 1급 됐다고 하신 말씀은 2년 전이라는 말씀이지요?

A: 그쵸 2년 전에는 1종이었고 지 아빠 죽고 나서는 2종이 됐고.. 1종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서 쌀.. 정부미.. 한푸대 주면 먹고 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줘서 한 50만원 나와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씩 딸들이 오죠... 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찌다 조금씩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Q: 세분이 얼마나 되세요?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A: 5남매..

Q: 딸넷? 아.. 딸넷에 아들.. 귀한 아들이네요.

A: 개가 6대에요..

Q: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A: 그래도 재(손자) 엄마가 재 뇌농고는 행방불명.. 재 아빠가 좀 속을 썩었죠.. 재 네 아빠가 속을 썩었죠..

Q: 아프시기 전예요?

A: 예.. 아프기 전에도 속을 썩었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Q: 그래도.. 손자가 참 밝게 커서..

A: 이만큼 큰 것도 어휴.. 내가 재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학교 다니면.. 뭐 해줘야 된다고.. 투정을 막.. 웬만하면 재 3살 먹었을 때도.. 웬만하면 어디다 입양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되더라구요. 하나님께서 네가 키워라 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좀 괜찮으면 제가 좀 괜찮은데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되니 힘들어요.

Q: 건강이 원래 안 좋으셨던 것은 아니죠?

A: 원래 안 좋았었어요.

Q: 원래 안 좋으셨었어요?

A: 원래 안 좋았어요

Q: 원래 장애가 있으셨어요?

A: 다리가.. 관절염.. 그리고 등허리 여기 디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Q: 아이구.. 할아버지가 힘드시겠어요

A: 그래서 저기를 기어 나가요. 화장실도 기어 나가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이와 할아버지가 대화 중)

A: 지 엄마가 간지가 9년 됐어요. 9년이요.. 재가 9살이에요. 지 아빠가 죽은 지 2년째고.. 할머니가 저래도 약도 제대로 한번 못.. 그냥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 하니까는.. 근데 무료로 하는 치료는 의사들이 대수롭게 얘기해요. 저도 한번 찻간에서 싼고 가다가 찻간에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2군데나 금이 가고 그래서 주사 맞고.. 똑같이 할머니도 한달, 나도 한달 .. 그렇게 있다가 나왔어..

Q: 따님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따님들한테 도움은 안받으세요? / 자주 찾아오시나요?

A: 재 아빠있을 때 이거(술)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간경화지.. 이거(술)를 얼마나 했냐면 3년 동안 계속 술만 먹었대요. 건축업자였어요. 건축업자.. 부산, 포항,, 대구 이런데 아파트.. 한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건축 그거를 잘 알아.. 그 사람들 하고 어울려.. 어휴.. 양주를 하루도 몇십통씩 먹고.. 처음엔 모르지 그땐날 먹으니까.. 병들잖아요 그럼 죽죠.. 그걸로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의사한테 가서 진단은 간경화지만 다시 나가서 술먹으면 이제 나가서 다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의사가 옆에 있는 아버지께 불효하는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해.. 나가서 한달 못 되서 또 먹어요. 그 친구가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또 데리고 나가요.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또 죽었대요. 그러니까 술이요 (음주대로 가지만)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죽는 거예요.

Q: 따님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A: 딸들은 다 괜찮게 살아요. 가끔씩 와요..

Q: 가끔씩 찾아오세요?

A: 엄마가 드러누우니까.. 병원에 있을 때도.. 장사들룰 하니까는.. 이 장사를 하면요.. 휴우.. 옛날과 사람이 달라져요. 장사 안할 때와 할때가.. 무슨 소린 줄아세요? 한푼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사위가 있잖아요 하기가 우리 사위는 저 불광동서 수퍼를 하는데 일절 한푼 용서가 없어요. 그런 사위들이니 뭐 가지고 가고, 친정가면 가져가 고.. 친정가면 도와준다고 하고.. 그럼 난 절대 올때 일절

한푼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요 딸들이 있어두요 개들이 뛰
어쩌다가 병원이나 가고 경사나도 뭘 경사가 있겠어요 그냥 경사날 때 와도..
어저께도 딸이 들이나 왔다가.. 할머니가 저러니까.. 들이왔다가 내곁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좀 뭐하니까 고기도 좀 사다 잡수고 기력을 좀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또 4,5만원.. 없어요.. 장사하면 인색하다고..
우리 딸들 다 장사해요.

Q: 네분이 다?

A: 예 전엔 안 그랬어요. 아주 인색해요 자기들도 그러대요. 아버지 조금 달라졌
고 생각하래요 대단해요.. 둘째도 대학생있고 고등학생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
이 많대요. 그리고 지오빠가 처녀때 술을 많이 먹고 맨날 돈 없으니까 '내, 동
생 좋은 게 뭐냐, 돈 내!' 그렇게 너무하니까 질렸어요 친정이라면..

Q: 아드님이 계속 그러셔가지고..

A: 그쵸.. 사위들도 그래요. 우리 둘째사위는 아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내동생 데려
가서 내말도 안 들어줘?' 이러면서...

Q: 그럼 아드님이 계속 건축업을 하신 거네요?

A: 애..

Q: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A: 나와가지고.. 키가 아주 장대같죠. 술먹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잘못됐어요. 술친
구를 만나가지고.. 본처는 술먹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3,4년 살아도 애기를
안나요 저 여수서 온 아가씨인데.. 시골인데.. 어떻게 3,4년 지나도 애기를 안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질투하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거에
요. 4년 지나니까 친정와서 가지고 왔던 거 싹 쓸어가지고 갔어요.. 혼자 이제..
될 대로 되라.. 안 그래요? 집에 가야 누가 있냐 .. 한 1년 인가 반 있다가 어떻
게 여자하나 데리고 왔어요. 경상도 여잔데 어디 일하는 데서 데리고 왔나봐요.

애(손자) 엄마죠. 한 1년 6개월 얼마 안 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어쩔 때 술 잔뜩 먹고 뭐라고 하면 '야 낙이라는 게 떨어질 낙자야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는 게 뭐가 좋아서 낙이다. 저게 낙이야?' 가 만히.. 가고 나서 보니까 나이가 말이야 40, 50 이 넘도록 안 나니까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흔 아홉에 낳어.

Q: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귀한 아들 .. 손주시네요 / 아까 5대라고 하셨어요?

A: 6대.. 우하하하하

Q: 여기 들어오다보니까 옆에도 집이 있고..

A: 여기도 다 이런 집들

Q: 아.. 여기 이웃분들하고 잘 지내세요?

A: 공기 나쁘구요 지하잖아요 지하..

Q: 반지하라 습기도 많죠?

A: 네, 이런데도 물이 차서요

Q: 이웃들하고는 잘 지내시는 거죠? 관계 좋으세요? 도움도 서로 주시고.. 할아버지가 워낙 좋으셔서 관계 좋으실 거 같아요.

A: 애가 공부를 곧잘 해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뭐해가지고 저런 아이들을.. 애가 초청을.. 당선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것도 거기서 온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보낸 건지 저렇게 하는 거예요

Q: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셔야지 / 컴퓨터 써? 컴퓨터 써 우석아?

(아이와 대화 중)

Q: 주로 병원도 입원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병원 입원하시고, 할머니도 그러셨으면 그동안은 누가 도와주셨어요?

A: 켈 억지로 고모네 갔다 맡겼죠. 싫어도.. 어쩔 수 없지. 싫어도 갖다 맡겨서 한 달 동안 거기 갔다 왔어요. 싫어도.. 할 수없지 뭐..

Q: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번도 생겼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 생기셨을 때 주로 도움을 어디서 받으셨던 거예요? 고모나 딸들? 아님 이웃들?

A: 그쵸 딸들.. 그렇게 병원에.. 한달.. 오면 똑같지. 그전에도 내가 다쳤거든.. 후.. 그래서 한달 동안 들이 갔다 왔는데 뭐 병원비도 얼마 안나와.. 1/3밖에 안나와.. 먹는 거 한달에 하나.. 정부미 알죠? 후.. 어떤 때는 냄새가 나는 쌀이예요.. 담뿔다가.. 담뿔다가..

Q: 여기 아까 병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A: 노인들 가서 물리 치료 받는 데 있어요

Q: 복지관?

A: 아니.. 저런 병원에서 물리치료

Q: 하고 나면 좀 시원하세요?

A: 잠깐은 다리가..

Q: 그럼 여기 복지관이나 이용하시는 건 없어요? 노인정이나.. 안가세요? 아니요 근처에 노인정이나..

A: 아 거기 안가요. 원래가요 노인정 그런데 안가요.

Q: 왜요? 가서서 만나고.. 싫어요?

A: 아휴.. 그런데 가면요

(아이와 할아버지가 대화 중)

Q: 그럼 주로 평소에 만나시는 분은 어떤 분을 주로 어떤분이세요? / 아까 노인정도 안가신다고 그러구.. 복지관도 안가신다고 그러구..

A: 교회를 가서 이야기 하고.. 경로당에는 안가요.

Q: 교회가 근처에 있으세요?

A: 돈암동..

Q: 여기서 멀잖아요?

A: 전철타고 가니까.

Q: 원래 거기 돈암동에 사셨어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A: 한 십년 됐어요.

Q: 아.. 애기 나오기 직전에 오신 거군요? / 근데 아직 돈암동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 교회 주일에 가시고 또..?

A: 삼일예배가고..

Q: 그럼, 다른 분들하고 왕래를 안하세요?

A: 안해요

Q: 잘 안하세요? 그럼 옆집은?

A: 거기도 교인들이예요. 망우리 본당교회.

Q: 교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A: 아니예요. 도움은 별로 없어요.

Q: 한달에 정부로부터 50만원 정도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A: 네.. 근데, 적지를 앓으니깐..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데 안들림)

Q: 자주 오세요? 공무원분은?

A: 아. 나하고 자주 만나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Q: 같은 교회 다니세요?

A: 아니..

Q: 아~ 그럼,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만나세요?

A: 같은 종씨(宗氏)라고 그러잖아요.

Q: 그러면, 자주 오세요?

A: 예. 자주 만나요 저 뒷길에서도 만나고, 고 위에 가다가도 만나고..

Q: 잘 아시더라구요? /예 바로 아시더라구요.. 그럼 아까 한달에 5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 동사무소에서 통장으로든 뭐든 들어오잖아요?

A: 그러는 거 없어요.. 생활비만 매달 나오는 거지..

Q: 생활비만 매달?

A: 네. 정부에서..

Q: 생활비만 매달 50만원이고, 그리고 의료급여 받으시고?

A: 네. 의료보험 1종.

Q: 교육비가 나올 텐데 같이 나오는 거구나.. / 교육비 나와요?

A: 애요? 예.

Q: 나오죠 할머니?

A: (할머니) 교육비 돈으로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니까 무료로..

Q: 수급은 언제 처음 받으셨어요? 언제 정부에서 돈 받기 시작하셨어요?

A: (할머니) 그게 아마 4년 됐어요.

Q: 그럼 그 전에는?

A: (할머니)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받았어요. (할아버지)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근근하니까 좀 벌어먹고, 아들도 좀 벌어먹고..

Q: 그럼, 그 때까지는 일을 계속 하신거예요? 4년 전까지 할아버지가?

A: (할아버지) 뭐든 조금씩 하죠.

Q: 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A: (할아버지) 노동이지 뭐..

Q: 아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A: (할아버지) 지금은.. 뭐.. 예전엔 했어요.

Q: 아니 4년 전만 해도 여든인데..

A: (할아버지) 그때도 했죠..

Q: 정말요? 와.. 굉장히 건강하시다..

(아이와 대화중)

Q: 소싯적엔 필하셨어요?

A: (할아버지) 저요? 노동했어요.

Q: 계속 그냥 쪽?

A: (할아버지) 그럼요.

Q: 힘드셨겠네.. 그걸 여든 되실 때 까지 했던 말이에요?

A: (할아버지) 예.. 여든 전까지 쪽~ 했어요.

Q: 엄청 건강하신 거 같아요

A: (할아버지) 지금은 골골해요

Q: 아니 여든에 이정도면 건강하시죠..

A: (할아버지) 걸모양만 있죠.. 나가면 까딱하면 엎어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뒤로 가도 앞으로 고꾸라져요. 다리 이런 데도 막.. 떨리고.. 금방 여기다 두면 다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하고..

Q: 눈은 괜찮으세요?

A: (할아버지) 눈도 안경 쓰잖아요.

Q: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것은 없으세요?

A: (할아버지) 그런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백내장 수술했어요. 저는 그런건 없어요. 저는 뭐가 아프냐면 관절.. 관절이 아프고 가끔씩 머리가.. 열이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픈 병이 있어.

Q: 병원 가보셨어요?

A: (할아버지) 가보고 말고

Q: 병원에서는 뭐래요?

A: (할아버지) 뇌가 침몰이 됐는데 터지면 죽는데 피가나오면.. 다행히도 그때 의사

를 잘 만나서 어떻게 약으로 돌렸어요.. 어떨때는 지금도 머리가 막 아플때는 열이 막 나고 그래..

Q: 그러면 4년 전에 신청하러 가셨잖아요? 그 전에는 아드님께서 돈도 버시고, 할아버님께서도 돈 버시고 해서 안받다가 4년전에 처음으로 거기 가신거 아니에요.. 그 때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누가 하셨어요?

A: (할머니) 동사무소에서요? 우리아들이 몸이 온전치 않았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Q: 간경화 진단을 받고.. 받으시고 나서 가셨어요?

A: (할머니) 통장이.. 우리 살림이 너무 어렵고 저거하니까..

Q: 통장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A: (할머니) 예. 통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에서 직접 직원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화중 ==> 그 전에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고 할머니를 구박하심..)

Q: 통장님이 소개를 해서 가신거예요?

A: (할머니) 예.

Q: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A: (할머니) 알기는 알죠. 그 통장님이 이 위쪽에 살았으니까.. 보다보다 딱하니까 동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Q: 그 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알고계셨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돈을 주는 제도가 있는 지를 알고계셨어요? 통장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A: (할머니) 몰랐지..

Q: 통장님이 알려주신 거네요

A: (할머니) 예.

Q: 통장님한테 고마우시겠어요. / 지금 공무원이 그 때 공무원이에요?

A: (할아버지) 바뀌었지..

Q: 그분이 4년 있었다고 그러시길래..

A: (할아버지) 이 분은.. 먼저 전에는 여자들이 많이 갈렸죠..

Q: 아까 오셨던 그분..

A: (할아버지) 그분은 아마 3,4년 됐을 거야..

Q: 4년 정도 되셨대요

A: (할아버지) 여자들이 많이 갈려서..

Q: 그럼 아까 오셨던 그분이 신청하러 가셨을 때 계셨던 분은 아니구요?

A: (할아버지) 아니에요

Q: 아.. 그럼 그 땐 다른 분이 계셨구요?

A: (할아버지) 여기가 다 한번씩 갈려요(바뀌어요)

Q: 신청하실 때.. 그 때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 때 누가 가셨
있어요? 할머니가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A: (할머니) 동네 직원들이 직접 와서 보고 갔어요.

Q: 보고 가서 서류랑 이런거.. 만들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A: (할머니) 몰라요. 누가갔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동에서 오라그래서 갔어요..

Q: 그러니까 동에서 오라고 하셨을 때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아님 할머니가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A: (할머니) 지금은 오래 되어서 몰라요..

Q: 그럼,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A: (할아버지) 예. 귀를 못들어요

Q: 아~ 이쪽 귀를 못들으세요?

A: (할아버지) 예. 이쪽 귀를 원래 못들어요..

Q: 오른쪽이 안들리세요? 그럼 이쪽에서 이야기 해야 되겠네... 그럼 왼쪽귀는 괜찮으신 거예요?

A: (할아버지) 바른쪽귀가.. 다른 쪽 귀는 괜찮은데..

Q: (할아버지) 아.. 오른쪽은 아프고.. 왼쪽은 괜찮고..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되요? 여기서 얘기하면 잘 들리요?

A: (할아버지) 잘 들려요.

Q: 4년 전에 가셨을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오고 또 동사무소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가신 거맞아요?

A: (할머니) 몰라요. 누가 갔는지..

Q: 할머니가 간게 아니네 모르겠다고 하는 거보니까..

A: (할아버지) 제가 갔어요

Q: 가서 서류같은거 작성하시고 그러셨죠? 직접하셨어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A: (할아버지) 거기서 다 해줬어

Q: 공무원들이 다 해줬어요?

A: (할아버지) 어..

Q: 불편하시거나.. 서류 뭐 떼오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통장도 가져와라.. 뭐도 가져와라 막 많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때 뭐 가져오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A: (할아버지) 안그래요.. 아는 데로 써서 가져가고.. 모르면 또 동에가서 물어보고..

Q: 그 때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A: (할아버지) 예. 어떨때 공무원들은 대여섯씩 와서 그러면.. 이 방에 가득이에요..

Q: 왜.. 와서 뭐해요?

A: (할아버지) 사는 동향도 좀 보려그리고..

Q: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도 공무원이 여기 자주 오세요?

A: (할아버지) 아니.. 안와요. 그 이후로는.. 한번 왔다 하면 안와요

Q: 아.. 그럼 아까.. 이분은 자주 오세요?

A: (할아버지) 이분도 자주 안와요. 한번 왔다가고 나면.. 와서 봐줄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아는 데..

Q: 그렇긴 하죠 근데 원래 공무원들이 와서 어떻게 사시는 지.. 봐야 되거든요

A: (할아버지) 그전에 있던 여자가 자세히 다 알아요.. 사회복지과를 다니고..

Q: 그 여자분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안하세요?

A: (할아버지) 지금은 새로 모두 와서 모르잖아요

Q: 공무원들이 잘 만나오시는 구나.. 그럼 일이 있으면, 주로 할아버지께서 찾아가세요?

A: (할아버지) 그럼요

Q: 하긴 가까우니까../ 그럼 찾아가셔서 필요한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세요?

A: (할아버지) 응.. 물어보고.. 그래요..

Q: 그럼 많이 도와주세요?

A: (할아버지) 그 분이 다 도와줘.

Q: 잘 도와주세요? 친절하게?

A: (할아버지) 응. 아~ 같은 종씨인데 그것도 안해주면 어떡해..

Q: 그럼 돈받는 거 외에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는 있으세요?

A: (할아버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Q: 그럼 그런 거를 공무원이 가르쳐 주고 그러지 않아요?

A: (할아버지) 몰라요. 그런거..

Q: 그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거 외에는 다른게 없으신거네요?

A: (할머니) 예. 그것밖에 없어요..

Q: 그럼 그거는 모자르지 않으세요?

A: (할머니) 절약하고 살아야지요(반복).. (할머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없는 걸 뭐..

Q: 아니.. 이진 국가에서 최소한 주는 거잖아요? 제일 적게 주는 거거든요..

A: (할아버지) 50만원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 다해서 사는 거예요..

Q: 여기 월세세요?

A: (할아버지) 전세예요..

Q: 그나마 좀 낮네.. 전세 얼마예요?

A: (할머니) 2000만원.. (할아버지) 전세니까 이렇게나마 살지, 사글세 같으면 못살
아요.. 감사하지..

Q: 근데 50만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실 거 같은데 어떠세요?

A: (할아버지) 어휴~ 어렵죠..

Q: 이게 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자르지 않으세요?

A: (할아버지) 뭘 남아요.. 모자르죠..

Q: 그럼, 모자르면 어떻게 하세요?

A: (할아버지) 그냥 사는 거예요.. 모자르면 모자른 데로 산다구요..(웃음)

Q: 하긴 뭐 병원 갈 때는 돈이 안드시니까..?

A: (할머니) 1종이라.. 우리가 의료보험은 1종이라 병원비는 안 내요.

Q: 하지만, 겨울이나 이런 때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A: (할머니) 예. 그건 우리가 물어야지요 다 내지요..

Q: 여기 기름이예요?

A: (할아버지) 도시가스 전기, 수도료 안내는 게 어땠어요..

Q: 그러면 겨울에는 도시가스료로 많이 나가니까 돈이 많이 모자르실 거아니
요?

A: (할머니) 모자르지.. 그러니까 절약을 해야지요.

Q: 어디서 절약을 하세요?

A: (할머니) 먹는 것도 절약을 하고.. 다 해야지요.. (질문자 : 먹는 걸 줄이시는구
나)

Q: 주로 먹는 걸 줄이세요?

A: (할머니) 우리가 예수믿으니까.. 이양반 담배도 안 피지요, 술도 안 먹죠 ..

Q: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5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돈 쓰는데
무엇이세요?

A: (할아버지)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료.. 많이 나가요..

Q: 그게 얼마나 되요?

A: (할머니) 도시가스가 겨울에는 한 8만원..

Q: 우와.. 한달에?.. 50만원 받는데 한달에 8만원을 도시가스비로 쓰시는 거에
요? / 사시는 건 겨울이 나으세요? 여름이 나으세요?

A: (할아버지/할머니) 여름이 낮죠..

Q: 여름에는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겨울에는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근데
애도 이제 자꾸 크니까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A: (할아버지) 그럼요.. 소소하게 들어가는게 많아요..

Q: 학원같은 거는 못가고요? 저기.. 복지관이나 이런데 가면요.. 애기들 학교 끝
나고 학원처럼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그거 공무원한테 물어봐서 학

원대신 거기 보내시면 되요. 복지관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럼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A: (할아버지/할머니) 학교 끝나고 방과후 교실있어요. 학교에서..

Q: 이거 받는 거를 주변 다른 분들이 알고 계세요? 다른 데서도 알고 계세요? 딸내분들도 알고계세요?

A: (할아버지) 알지요. 비밀 없어요. 동에서 다~ 비밀이 어딴어요 지금..

Q: 여기 옆집분들도 정부에서 지원받으세요?

A: 잘 몰라요.. 그 (집의) 내막을..

Q: 이웃은 잘 모르시는 거세요?

A: 몰라요. 여기 네 식구(가구)가 다 차 있는데.. 다~ 몰라요..

Q: 잘 모르시는 구나.. 그럼 교인분들은 아세요?

A: 본 교회야 알죠..

Q: 정부에서 지원받고 계신다는 거를 아세요? 근데 그 외 다른 도움은 안주세 요? 교인들이 도움을 안주세요?

(아이와 대화중)

Q: 그럼 아까 다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A: (할머니) 우리야 감사한 거 뿐이지요.. 고마울 뿐이지요.. 몸을 이렇게 못쓰니까..

Q: 혹시 저축은 하세요?

A: (할아버지) 저축이 어디 있어요~(웃음) 생활비도 안되는데..

Q: 제말이 그말 이에요.. 생활비도 안내는 데.. 겨울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 그 때 먹는 걸 즐기시고요?

A: (할머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사는데.. 감사한 것뿐이지요..

Q: 동사무소에 다른 지원은 없으세요? 지역에 보면 쌀지원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그런다던데?

A: (할머니) 그런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건 안 받고 있어요.

Q: 그런건 안 받고 계세요?/ 아까 할아버지 정부미 받는 다고 하셨잖아요?

A: (할머니/할아버지) 정부미를 한달에 한번 해줘요 20키로 짜리..

Q: 그거 말고 주는 거 없어요?

A: (할아버지) 없어요 다른건

Q: 한달에 쌀 20키로..?

A: (할머니) 네. 정부미..

Q: 근데 법에 보면요 수급 받으시는 분한테 집 도배도 해주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들어 보셨어요? 그런거 안해봤어요?

A: (할아버지) 안해봤어요~

Q: 왜 안해봤어요?

A: (할아버지) 청소도 해주고.. 어저께도 여자들이 왔는데.. 싫어요 그런거..

Q: 왜 싫으셨어요?

A: (할아버지) 싫어요.

Q: 다른 사람이 자꾸 오는 거 싫어요?

A: (할아버지) 할 것도 없잖아요? 뭐 와서(그 사람들을 오게해서)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요.. 안해요~ 어떤 사람은 복지관에... (돈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데 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내놈들이 주욱 나란히 앉아서.. 밥얻어먹으려고.. 그게 뭐예요? 난 그렇게 안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거 절대로 ..

Q: 그런거 싫어하시는 구나

A: (할아버지) 그리고 경로당 모여서.. 이러구 저리구..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봐서.. 그 양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Q: 교회 안가시는 날은 보통 댁에만 계신거예요?

A: (할아버지) 교회 안가는 날? 교회안가는 날은 집 봐야죠~ (웃음) 빨래하고.. 이 양반(할머니) 보호해야지요.. 어디 나가면 얹어질까봐 겁나고.. 그런 거예요..

(아이와 대화중)

Q: 근데 아까 병원비요.. 병원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A: (할아버지) 병원비야 1/3을 제해요..

Q: 그래도

A: (할머니) 이번에도 적십자 병원에 입원해서 한 20일 있었어요. 우리 둘째 사위가 다 병원비 물었어요..

Q: 아.. 그렇게 하시는 구나.. 아까 생활비 50만원으로 사실 병원비를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는데..

A: (할머니) 둘째 사위가 물었어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할아버지) 1/3.. 차가지고 와서 실어가고.. 다시 (집에) 실어다주고.. 그런 봉사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

Q: 그렇죠.. 딸가져왔는데 .. 그거 해야지..(웃음)

A: (할머니) 처음에는 2종이었거든요.. 2종 때는 우리 아들이 을지병원에 입원했는데, 별 도움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요. 혜택을 받으려면 1종이 되어 한다고.. 그때는 2종이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보름있었나?.. 한 40만원.. 나왔더라고요..

Q: 병원비가?

A: (할머니) 예.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재발이 되가지고 병원에 또 갔어요. 중환자실에.. 열흘만에 갔는데.. 그때는 동에서 직원이 와서 봤어요.. 빨리 와서 입원시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1종 해줄테니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라고.. 1종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을지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잖아요 중환자실에 한 열흘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한 10만원 조금 못되게 나왔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때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 장례식하는 것도 동에서 50만원 부조해줬지요. 영구차도 대줬지요. 동에서... 이렇게 장례 지냈지요..

Q: 수급신청 하실 때 이해 못하시거나 이런건 없으셨어요? 처음에 수급 신청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와서 보고 가고.. 가서 뭐 가져가고 그러셨잖아요? 이해 다 하셨어요?

A: (할아버지) 예..

Q: 이해는 다 하셨어? 머리 좋으시네.. 머리 좋으셔..

A: (할아버지) 가서 뭐 짜야지요(보채다는 의미)~ 배고픈 사람이 가서 짜지 뭐~ 목 마르니까.. 뭐 해달라고, 뭇도 해달라고.. 안해주면 섭섭해 하고.. (공무원에게) 왜 안해줘요 왜.. 어? (웃음)

Q: 가서 그렇게 하셨어요? 공무원들한테 가서?

A: (할아버지) 어쩔 땐 내가 화도 내고 그러면.. 늙은이가 화낸다고 그러지요~ (웃음)

Q: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화도 내보셨어요?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안해주면 그렇게 화를 내야돼요(웃음)

A: (할아버지) 1종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동직원들이 다 와서 사실인지.. (보고).. 그러니깐.. 아들이 죽고 드러니깐.. 아 1종으로 해줘야 겠다.. (그런 모양 이에요..)

Q: 아드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1종이 되신거예요?

A: (할아버지) 그럼

Q: 그럼 그때 보다 생활하는게 나아지셨어요? 2종일때 보다.. 1종으로 바꾸셨을 때 생활하신게 나아지셨어요? 아드님이 어차피 그 때는 병원에 있었을 테니까.. 생활이 그 때가 제일 힘들셨을 텐데..

A: (할머니) 힘들었어요.. 그때가..

Q: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셨어요?

A: (할머니) 예

Q: 주변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다른 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A: (할머니) 모르겠어요..

Q: 잘 모르세요?

A: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때는 우섭이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선물같은 것도 오더라구.. 교회에서도..

Q: 그럼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하면 살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일 못하시죠?

A: (할아버지)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막 벌벌벌~ 떨리고..

Q: 병원갔다와서?

A: (할아버지) 그전도 아프면 꼬꾸라져요.. 머리가 다 깨져요.. 꼬꾸라져..

Q: 그럼, 지금 제일 걱정이.. 우섭이세요?

A: (할아버지) 하루 바빠 가야지..

Q: 아유~그러시면 안되죠.. 건강하게 더 사셔야죠..

A: (할아버지) 재를 봐서 더 살아야지.. / (할머니) 재가 걱정이예요. 애가 지금 9살 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니까 애가 걱정이예요.. 살면 몇 년 살는지.. 애가 걱정이지요.. 엄마 아버지도 없으니.. 애가 걱정이예요.

Q: 당장 돈이 필요하신 곳이 있으세요?

A: (할아버지) 없어요.. 아침저녁 먹고, 뭐 사먹는거 밖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가... 많죠~ 근데 절제해야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Q: 그러면, 우석이 학교에서도 수급사실을 알아요?

A: (할머니) 학교에서도 알아요

Q: 알아요? 이렇게 사는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거?

A: (할아버지) 다 알죠.. 동네를 통해서 다 조사해가고..

Q: 수급을 4년전부터 받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4년 전하고 돈 받고 있는 지금 하고 생활이 어떠세요?

A: (할아버지/할머니) 더 낫지요.. 나아졌어요~

Q: 지금이 더 나요?

A: (할아버지) 예~ 많이 나아졌어요

Q: 그럼 수급받기 전에는 더 힘들셨어요? 그때는 할아버지 일하셨다고 하셨죠?

A: (할아버지) 그래봐야 하루 정일 해도 돈 만원도 못버는 거 뭐..

Q: 그럼 그걸로만 생활을 하신 거예요?

A: (할아버지) 아니요~ (할머니) 그때는 제가 몸이 좀 괜찮아서.. 내가 땀기면서 고물주워다가 팔고 .. 그거 보태서 쓰고 그랬어요.

Q: 그럼 몸이 안좋으신 거는 언제부터세요?

A: (할머니) 한 2년 됐네요..

* 수급자의 손자가 지금부터 말을 쉬지 않고 하여 수급자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음

Q: 그럼 그 전에는 파지 주어러 다니셨던거예요?

A: (할머니) 예. 걸음을 못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골이 다 빠져서 없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Q: 연골이 다 빠져서.. 연세가 드시니깐..

A: (할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까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또 안과에.. 백내장이 있어요.

Q: 우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우석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거 때문에 힘들어 하고 그런건 없어요?

A: (할머니) 힘들어 하지요

Q: 뭘 힘들어 하는 거 같아요?

A: (할머니) 애 장래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요~ 학교 단들이 가가지고 학교가서 이야기도 했어요..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애를 보

관해야지 하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Q: 그럼 돌아가시면 애는 어떻게 해요? 고모도 있고 그런데..

A: (할머니) 우리 막내가 그래요.. 얘기를 하니깐 고아원이나 같은 곳에 애를 보내면..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애가 상처가 된다고.. /(할아버지)죽을 때까지는.. /(할머니) 우리가 죽으면.. 그 때가서 데려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Q: 그러니까.. 막내딸이 (할아버지, 할머니)돌아가시면 애를 고아원에다 데려다 주겠냐?

A: (할머니) 예. 서로가 짐이 되니까.. 저 살길도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애를 맡겠어요? 안말지..

Q: 따님이 생활이 어려우세요? 많이?

A: (할아버지) 막내딸이 장사해요.. 딸들이야 그렇지만.. 사위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아니에요..

Q: 지금 돈 받으시는 거에서 의료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그런데.. 다 아세요? 뭐뭐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나오니까 나오나 보다 하는거예요? 그거 공무원한테 가서 안 물어보세요? / 왜 이만큼 받아야 되는지./ 설명안 해주세요?

A: (할아버지) 다 아는 걸 왜..

Q: 아니 할아버지가 알아야지요?

A: (할아버지) 나도 알지요~

Q: 뭐뭐 나오는지 안다고요?

A: (할아버지) 다 알아요. 나도 알고 그사람도 알고..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또 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다 알지..

Q: 근데 그 돈이 생활비도 있고 자활, 무슨 비도 있고.. 돈이 나오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A: (할아버지) 다 다르지

Q: 그 이름들을 다 알아요? / 공무원들이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A: (할머니) 아니요

Q: 돈 얼마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 말고..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생계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있거든요? 항목별로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예전에 들으셨어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 못들었어요?

A: (할머니) 예 못들었어요?

Q: 그냥 50몇만원 나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A: (할머니) 처음에는 40몇만원 나오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오고..

Q: 그거야 매년 조금 조금씩 오르게 되었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얼마 나갑시다~ 이런식으로만 하셨구나.. 왜 50만원이 나왔는지는 모르시겠네요?

A: (할머니) 그냥 생활비로 나오는 줄로만 알지요..

Q: 그 전에 일 하실 수 있을 때, 공무원한테 나 일자리 구해달라고 얘기해본적 없으세요? 왜?

A: (할머니) 예전에도 새마을(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시는 듯) .. 그것도 감당을 못해요

Q: 지금은 안되는데..

A: (할아버지) 그 때도 했어요..

Q: 했어요? 뭐했어요?

A: (할아버지) (신청했다가) 떨어졌지 뭐.. 나이가 많아서..

Q: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도?

A: (할아버지) 아니.. 당장도 가다가 쓰러지면 죽을 판인데.. 뭐~

Q: 아주아주 쉬운 일이라면.. / 경비나 가만히 앉아있는거라면?

A: (할머니) 기억력이 없다구요.. (할아버지) 저기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여기다 갖다놔도 전부 다 잊어버려.. 이 양반이 오늘 시장가서 뿔도 사고, 뿔도 좀 사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런데 가면 다 잊어버려..

Q: 적어가야지..

A: (할아버지) 적어가야지.. 그런 사람인데.. 요즘 머리를 두드려 봐요.. 그러면 다 비었거든~(웃음)

Q: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제일 꼭 바라는거.. 지금 소원하는 거 있으세요?

A: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어.

Q: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A: (할머니) 지금 이 집을 내놨는데..

Q: 집을 왜 내놓으셨어?

A: (할아버지) 판데로 간다고.. (할머니) 딸들이 이번에 우리가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냥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모른다 이거예요~ 먼데서 죽으니까.. 이웃집이 아니니깐.. 그러니깐 방을 빼서 딸네 근처로 가려고.. 근데 방이 안나가요 /(할아버지) 안나가요.. 왜 안나가냐 하면, 여기 화장실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안나가.. /(할머니) 화장실이 너무 적고, 지하가 평수가 적고 하니까.. 안나가

요 잘.. 그래서 그냥..

Q: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네 근처로 이사 가시겠다는 거죠?

A: (할머니) 예. 우리 둘째 딸이 정릉 살아요. 근데 거긴 방세가 비싸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안되지.. (할아버지) 적어도 3000만원은 가져야지..

Q: 그럼 어떻게 가시려고요?

A: (할머니) 그러니깐 못가지요 우리가.. / (할아버지) 나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Q: 근데 집 내놔야하죠?

A: (할머니) 내놔도 안나가요.

Q: 그러다 집 팔리면 어떻게 할건데요?

A: (할아버지) 팔리면 나가야지~(웃음) (할머니) 몇 년 후에 재개발 .. (할아버지) 그건 몰라~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Q: 그런데, 재개발 하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돈은 주겠지만.. 그럼 어디로 가시게요?

A: (할머니) 그때 가봐야 알지~ (할아버지) 그때까지 살지~ 몰라요~(웃음). 저희는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양반이나 나나 80고령 아니에요? 그러니깐 잘가야... 그러니깐 몰라요~ 그렇게 아세요~(웃음)

Q: 근데 당장 집 아까 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장 내일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할머니) 팔리지 않아요.. (할아버지) 팔리면 주인네가 돈 때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돈 2000만원 있으니까는..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집을 내놨냐면, 여기 나가면 계단 있죠? 거길 기어올라 가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화장실도 계단 있어서 기어가고..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건데 안나가요~

Q: 수급신청 하실 때,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A: (할머니) 동에서 다 알고 해줬겠지요 뭐..

Q: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하고, 또 공무원이 그냥 수급자 신청 되셨습니까~ 이렇게 와서 이야기 해주고 그랬어?

A: (할머니) 거기서 해줬어요..

Q: 그냥 알아서 다?

A: (할머니) 사회복지관에 사무보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해줬지요..

Q: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 기간 .. 몰라? 모르나? 기억 못하나? /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나서 지나고 한참있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A: (할아버지) 한달이상 됐죠 / (할머니) 한달이 뭐예요.. 몇 달 걸렸어요~ (할아버지) 지나간 일이라 잘 몰라~

Q: 기억 안나 그지?

A: (할아버지) 아까 처음부터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한거 다 잊어버렸어.

Q: 다 잊어버렸어 벌써? 큰일났네..

A: (할아버지) 내가 그래서 허수아비라니깐~

Q: 만약 돈이 더 들어 온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A: (할아버지) 돈이 더 들어온다면? 돈이 더 나오면 방이나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 할머니 때문에 그래~ 저기를 기어나가잖아요.. 지하라.. 아파트로 가면..

Q: 아.. 그런데 가고 싶다 이거죠? 거동이 좀 편한 곳으로요? / 그럼 지금 받고 계신게 생활비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 대주고, 쌀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꼭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된다 그런거 있어요?

A: (할머니) 그런건 없어요~ 집이나 방이나 널찍하고 편한 곳에 있고 싶은 거 밖에는..

Q: 그럼 나라에서 집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지?

A: (할머니) 그렇지요

Q: 그쵸 나라에서 집도 좀 지원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A: (할아버지)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데)~

Q: 근데 여기 임대주택아파트도 있잖아요 거기 왜 안하셨어요?

A: (할아버지) 거기 가면 사글세를 내야지..

Q: 아~ 월세를 내야 하나까요?

A: (할아버지) 나가라 그래요.. 석달만 안내면 내 쫓아요. 그러니 세상에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Q: 보통 한달에 월세를 얼마나 내라 그래요?

A: (할아버지) 한달에 얼마? / (할머니) 거기 처음 들어가면 한 5-6만원 더나와요. / (할아버지) 지금은 올라서 한 8만원-9만원 이었지..

Q: 그게 부담스러우신 거네요?

A: 그때는 더 궁색하지요~

Q: 아니 근데 아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듯이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A: 저런 아파트...

Q: 그러니까 내가 말한게 그거야.. 임대주택 아파트 왜 안들어가시냐고? 7-8만원 그 월세가 안되서? 전세도 있잖아요?

A: (할아버지) 올라가지.. 한달에 8만원씩 모으면.. 1년에 얼마야.. 아이고~

Q: 아니 전세는 달달이 사글세 안내잖아요? 아파트 가면..

A: (할머니) 13평, 15평 그런데.. 관리비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13평 짜리는 아
마..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Q: 매달 관리비가 6만원씩 나온다 이거죠..?

A: (할머니) 예 그러니까 3개월 못내면 바로 나가라고 그래요.. / (할아버지) 그래
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요..

Q: 주위에 쫓겨나온 사람 본적 있어요?

A: (할아버지) 그럼.. 안쫓겨나는 천하장사가 어딴어? 나가라는데.. 벌써 한 두해 됐
어요.. 저기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3달만
에 한번이면 가라..

Q: 관리비 못내서?

A: (할아버지) 그럼..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세만 내는 줄 아세요? 전기세니 뭐니...

Q: 세금이 많아서?

A: (할아버지) 그게 1년만 있으면 얼마야~

Q: 그럼 50만원이 한달에 나오잖아요? 그 돈을 어디 어디에 보통 쓰세요?

A: (할아버지) 생활비죠..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 화장실세, 그렇게 쓰고 병원
또.. 남은건.. 그냥.. 쓰고

Q: 먹는거 사먹는거..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전기세, 물세, 오물세, 가스세, 이런게 총 얼마나 들어가요? 한달에.. 보통?

A: (할머니) 우리가 수도세가 한집에.. 식구수 대로 따지는데.. 그게 한달에 총 7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쪼개야 되잖아요?

Q: 아.. 여기 전체가 7만원 나오는데 사람수 대로 쪼갬다 이거죠? 그럼 50만원 중에서 그렇게 나가는 돈이 1/3, 1/4 ? 그렇게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요. 전체에서? /50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요? 한달에..

A: (할머니) 모두가? 전기세값이랑.. 그렇게 되지요..

Q: 한 10만원?

A: (할머니) 예. 겨울에는 더 되지요

Q: 겨울에는 한 20만원 나오겠네요

A: (할머니) 예

Q: 그럼 1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먹는 걸로 조절을 하시겠네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조달을 하세요?

A: (할머니) 슈퍼.. / (할아버지) 그냥 김치한가지랑.. 밥이면 그거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들어요 / (할머니) 우린 노인들이라 얼마 안먹어요..

Q: 김치하나에 반찬 한두가지 해서 드시는 구나.. 애는 그래도 잘 먹어야 될텐데요?

A: (할아버지) 그냥 라면이야~ 밥을 안 먹고..

Q: 라면 먹으면 안되는데?

A: (할아버지) 아침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Q: 그럼 큰일나 / 키안커..

A: (할아버지) 못산데.. 내가 그렇게 말해도요..

Q: 라면만 먹는 구나

A: (할머니) 라면을 좋아해요

Q: 어릴 땐 라면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했는데 / 라면 많이 먹으면 안돼 우석
아..

A: (할머니) 아침은 밥을 먹이죠

Q: 갑자기 지난번처럼 사고가 나거나, 급하게 아프게 되면, 그래도 딸네들이 도
와주긴 하는 거죠?

A: (할머니) 예

Q: 딸들이랑 사위가.. 그런일 아니면 별로 도움 주는 일이 없고요?

A: (할아버지) 보통 아프면 병원에 약을 먹잖아요~ 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Q: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 있는 돈으로 쓰시고, 갑자기 더 안 좋은 일이 있으
면 딸네 집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네.. 딸이 넷이나 있는
데..

A: (할아버지) 제가 얘기 했잖아요(웃음)

Q: 할머니 이가 다 빠지신 거예요?

A: (할머니) 이를 했는데, 맞질 않아서 그래요 맞질 않아서..

(손자와 수급자가 대화중)

Q: 애가 빨리 크는 거 밖에는.. 변화가 없으시겠네요?

A: (할아버지) 애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벌써 90인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게 꿈속에서 사는 거요~ 우리는.. 내가 50만 되도, 60만 되도 걱정을 안해.. 고등학교라도 자기 앞길을 위해..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Q: 우석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거 좋아요?

A: (할아버지) 애 특기가 있어 말 안하는거..

Q: 말을 잘 안하네..

A: (할아버지) 말을 잘 안해요. 학교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나 나한테는 말을 안해.. 누가와도 말을 안해..

Q: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좀 해주고 그러지..

A: (할머니) 해요~ 왜 안해요~

Q: 혹시 공무원들한테 살다가 필요한게 있으면 한번 신청 해보셨어요 뭐좀 해달라.. 부탁해 보신적 있으세요?

A: (할아버지) 안해요

Q: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A: (할아버지) 안해요. 성격때문예요..

Q: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시면, 거기서 뭐든 해줄 수 있을 텐데..

A: (할머니) 몰라요.. 애기 해보지도 않구요 /(할아버지) 쌀주는 거 하고 돈 50만원.. 그게 제일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이상은 바랄 것도 없어요.. 주면야 물론 받지요~ 받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달라고.. 염치없이..

Q: 염치 없어서 말을 안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권리잖아요. 할아버지한테는 돈 받으시는 것도 권리에요~ 안주면 동사무소가서 왜 안주냐 ~이렇게 하면 되요..

A: 받아먹을 건 다 받아오는데, 어디다가 또.. (웃음)

Q: 그게 외에도 마련된 것들이 있는데.. 집수리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한데.. 도배도 해주고.. 거기서 뭐 해주겠다 해서 해준 적도 없고요?

A: (할아버지) 복지관에서 와서 청소도 해주고 .. 청소할게 뭐가 했어요?. 어쩔뻔 밥도 먹으려.. 아이구~

(아이와 대화중)

Q: 돈 받는 것은 만족 하세요? 그거 갖고 만족 하세요?

A: (할아버지) 만족이 어딴어요 선생님.

Q: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A: (할머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잖아요

Q: 그래도 조금만 더 주면 생활이 그만큼 낫겠더라 이런 거 없으세요?

A: (할아버지) 조금만 더 주면 우리가 방을 옮겨요. 그게 소원이예요. 한 3천 정도만 해도 ...

Q: 그렇게 천만원씩 주지는 못하더라도, 달달에 얼마씩 좀 더 줄수도 있잖아요?

A: (할아버지) 그것도 이 양반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나는 괜찮아요.. 이 양반은 여기를 기어 나가잖아~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Q: 돈이 많이 모자라면.. 아까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 때문에 먹는 걸 줄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보다 조금 더 주면 굶이 먹는거 안 줄이셔도 되잖아

요? 근데 별로 그런 생각도 안 드세요?

A: (할아버지) 안들어요~

Q: 저축하고 살려면 얼마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해요?

A: (할아버지) 선생님들 웃기는 말이야~ 돈이 있어야 저축도 하고 ..

Q: 얼마 더 있으면 저축 하겠어?

A: (할아버지) 저축하면 애 한테 뭐한다고.. 들어올게 있어야지~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해..

Q: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더 있으면 저축을 하겠어 ?

A: (할아버지) 안해~안해~

Q: 돈이 더 있으면 저축 할 거 아니에요?

A: (할아버지) 있으면 뭐.. 쓰는게 한(상한)이 있어요?

Q: 그러니까 한 10만원만 더 있으면 저축하고 살 수 있을 거 같으세요?

A: (할머니) 그 정도 있으면 보태지요 보태.. / (할아버지) 우리가 생활이 100만원만 되도요.. 어려울 게 없어.... 쉬울 거예요..

Q: 100만원 정도만 되면 저축도 하고, 먹을 것도 안 줄이고 살 수 있을 거 같다고..

A: (할아버지) 솔직히..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오고 가고.. 다 차비랑..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없어요~

Q: 그런 거를 못하고 계신 거네요?

A: (할아버지) 교회가도 마음은 있어도 못하지요~

Q: 100만원 정도 되야지 그걸 할 수 있다?

A: (할아버지) 1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차태워서 이 양반이 걸어 올라가지 않게 하지..

Q: 할아버지는 그게 가장 소원인가 보다.. 할머니..

A: (할아버지) 예. 얼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그걸 돈 5만원 주고 사다가 그걸 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거든.. 거기다 이걸 이렇게 대고 내려오고..

Q: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A: (할아버지) 내가 생각안하면 누가 생각해?

(아이와 대화 후 조사자와 대화 중)

Q: 나라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거 있어요? 그런거 없어? 그런걸 이야기 해줘야 도움이 되는데요?

A: (할아버지)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염치가 있죠.. 난 어떨때는 동에가서 말할 때도 부끄러워요~

Q: 여기 집에 다른 분들은 잘 안들어 오시겠네요?

A: (할아버지) 저녁에면 다 와요. 옆집도 저녁에 오고.. 다 맞벌이 하고..

Q: 지금 이 집을 들락날락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네요? 딸네들이 어찌다 한번 오는거.. 공무원은 안 온다고 하셨죠?

A: (할아버지) 공무원이 여기 뭐하러 와요? 필요하면 전화해서 오라 그래요..

Q: 전화해서 오라그래요?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해놨으면, 이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그게 잘 안되잖

아요 그쵸? 어떤거 같으세요?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게 난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잘 못 살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A: (할아버지) 못살아서 그렇죠~ 뭐 (웃음)

Q: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한건 아니잖아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젊었을 때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대도 참 집 좀 넓혀가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A: (할아버지) 미안하죠..

Q: 왜 미안하세요?

A: (할아버지) 사실이 미안해요.. 왜냐.. 내가 젊어서 좀 돈을 벌어서 집이라도 장만하고 나 살지.. 왜 이렇게 못 살아서 국가의 도움을 받나~ 어차피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Q: 근데 젊었을 때 일 하셨잖아요?

A: (할아버지) 미안하게 생각하지요~ 내가 새마을을, 새마을도 몇해 했어요.. 구에서하는 새마을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많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그거 못하면 쓸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니깐 쓸주는 거예요..

Q: 그거 하실 때는 쌀 안받으셨어요? /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거 같아요? 일 하실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도 없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게.. 참.. 우석이 빨리 커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 그래도 건강하게 크니까 다행이죠.. 안아프잖아요 그쵸? 우석이 아픈텐 없죠? 그러니까 다행이지..

A: (할아버지) 애요? 잘 커요.. 있는 사람처럼 잘 먹이진 못해도.. 내가 못먹어도.. 참 괴로운 세상 사는 거야..

Q: 아유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니까 편찮으신데 없고..

A: (할아버지) 사람은요~ 어디가든지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구실을 못 해요.. 저도 젊어서 회사에도 취직해 봤고.. 여기도 저기도 장사도 해보고.. 더군다나 고모 덕분에 공부도 좀 해봤고.. 제 복이 없어요.. 딸이 넷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없고. 사위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그래도 원망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출세못하다고 공부못했다고.. 좋은 남편 못얻어서.. 대학교 나와야 공부잘해야.. 신랑을 잘 얻지요.. 그렇게 말해요.

Q: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나온게 잘 나온게 아닌가요? 저희 고모도 중학교 나오고 어머님도 그러신데?

A: (할아버지) 우리 넷째딸은 이화여고 나오고, 둘째딸은 상명여고 나오고 상명여고 나오고, 상명여고 나온 애가 대학교 2년제 했어요.

Q: 저도 상명여고 나왔는데..

A: (할아버지) 옛날에 상명여고는 저기 서대문 바깥에 있었어

Q: 아니요 저는 그건 몰라요 새검정에 있는거..

A: (할아버지) 요기.. 조금 내려가서.. 옛날에 서대문 거기 있었어.. 저두요.. 옛날에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이렇게 고생안했어요. 머리는 괜찮은데.. 무식하니깐..

Q: 되게 지혜로우신거 같은데..

A: (할아버지) 말도 못했죠.. 나도 나 잘났다고..(웃음).. (그런데) 나이가 한 80되면 고정(?)이예요~

Q: 그때 예전에는 사시는 게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보내실 정도면?

A: (할아버지) 예. 이 양반도 그때 고생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참..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살아보려고 애써도, 자기 몸에 베어있지 않은건 억지로 못해요.

Q: 그렇게 열심히 사려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잘 안되더라 이거죠?

A: (할아버지) 안되죠.. 복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도 복이 없어요.. 이 양반도 이북에서 왔어요.. 만주서.. 만주에서 살다 나왔어요.

Q: 할아버지도?

A: (할아버지) 저도 만주서 이 양반하고 결혼하고 왔어요..

Q: 그럼 고향이 북쪽이시네요

A: (할아버지) 아니요. 나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이 양반이 거기가 고향이에요. 평양.. 친정이 평양이요..

Q: 만주에서 만나서가지고 결혼하셔서 여기로 오신거군요?

A: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서 여기 나오느라고..

Q: 언제 나오셨어요?

A: (할아버지)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죠? 그달부터 여기 나오려고.. 거기서 못사니까는.. 소련사람.. 못살죠..

Q: 그리고 학교도 못다니셔서 직장을 좋은 곳 구하기도 어렵고..

A: (할아버지) 나는 아버지 세 살 먹어서 돌아가시구.. 어머니도 없이 고아로..

Q: 혼자 자라셨어요?

A: (할아버지) 혼자지.. 누님은 있었고..

Q: 누님이 계셨어요?

A: 누님 때문에 만주에 간거요.. 누님이 만주에 있어서..

Q: 누님이 몇분이나 계셨어요

A: (할아버지) 하나..

Q: 누님이 한분, 할아버지가 한분 이렇게 계세요?

A: (할아버지) 이복누님이지.. 아버지는 딴 사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만주 들어가서 한 20년만에 들어오라고 편지가.. 동생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Q: 그때가 몇이셨어요 연세가?

A: (할아버지) 그때 열 대여섯살 됐나? 그때는 거기도 내맘대로 못가요..

Q: 그쵸 통행증이 있어야 되니까..

A: (할아버지) 여행권이 있어야.. 지금 여행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전부다 왜정때.. 왜정치니깐 무슨 비밀 뭐~ 아니면 그런데 못갔죠. 그래도 우리는 특수하게 고모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봤자 공부좀 하려해도 전부 중국사람 세상이고..

Q: 그때 가셨을 때가 열다섯?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세살 때 돌아가셨으면 열 네 살까지?

A: (할아버지) 여기서?

Q: 아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에.. 고아가 되신게 세살때라고 그러셨잖아요? 열네살까지 어디서 지내셨어요? 누님이 부르실 때까지..

A: 한국에서 있었지.. 그때는 우리 이모님 집에 살다가..

Q: 그럼, 제대로 교육받으실 기회가 없으셨네요?

A: (할아버지) 없죠.. 그때는 절간에도 가 있어보고.. 고아로 있어보고.. 아~고생 많이 했어요~ 무지무지 하게 고생했어요.. 그렇게 부모없이 굴러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래도 내 머리는 중국가서 한글도 좀 배우고.. 중국은 한글이에요 전부.. 한글 배우고, 여기 남한, 한국 있을 때 이모님 집에도.. 왜정치하에.. 일본사

람.. 국민학교 들어가면 일본사람.. 한 2년인가.. 2년 땡기다가 중국에 갔어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Q: 국민학교 2년 다니다가 만주로 가신거네요? 거기 가서 계속 공부는 하신거요?

A: (할아버지) 거기 가서 공부 좀 했어요. 중국가서.. 중국학교.. 거기서 우리도 한국 사람하고.. 학자라고 하는데.. 한국사람이 힘이 있어요? 중국사람 주체인데... 그래서 우리도 한자를.. 한 3년동안 공부했어요 한문을 좀 많이 알죠.. 그런데 늙으니까 한문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Q: 그러면 여기 내려 오실 때 연세가 얼마셨어요?

A: (할아버지) 18살..

Q: 그럼 다시 우리나라, 남한에 오실 때 ..

A: (할아버지) 18살 먹어서 나한테 왔어요.

Q: 연세가 같으세요? 두분이?

A: (할아버지) (할머니는) 80, 난 83.. 근데 저 양반이.. 18살. 난 22,, 24살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누님이 결혼시켜줬어요. 저 양반도 엄마 아빠 없어요.. 고아로.. 불쌍하죠 참..

Q: 나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겠네요?

A: 여기 와서도 누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 누가 도와줘요.. 별 장사를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맥을 못춥요.. 그래도 우리 딸들 다 공부시킬라고 별 일을 다했어요.. 그래서 미장일까지 했어요..

Q: 당시에는 다른 분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고 그럴 때인데.. 그렇잖아요?

A: 그래도 난 머리가 괜찮아서.. 교회에서도 머리가 좋고 하니깐.. 친구약 66권을 한 30대에 다 통달했어요... 야간신학교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배우는 거죠.. 교회일도 개척교회에 가서.. 지금 말로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거지.. 개척도 나가서 하라고.. 경상도 전라도.. 1,2,3,4년 나가서 6년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Q: 개척활동하러 다니신거예요? 6년동안? 그럼 밥벌이는 누가 하시고?

A: (할아버지) 그때는 교회에서 다 밥은 먹여주잖아요 다..

Q: 아~교회하시는 분들이.. 교회일을 하시니깐.. 그럼 같이 다니신 거예요?

A: (할아버지) 아니 혼자만.. 이 양반은 장사하면서 딸들 다 키워야지..

Q: 아.. 그럼 할아버지가 다 키우신게 아니네요?

A: (할아버지) (웃음) 그러니깐 시골교회에 가서.. 광주..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전도사 하면, 한달에 그때 돈으로 2000원.. 3000원 해서 조금씩 나는 도와주는 거고.. 이 양반은 맨 장사를 해요.. 이 양반이 장사수단이 좋았어요~

Q: 무슨장사를 하셨어요?

A: (할아버지) 뭐~별거 다했죠.. 나중엔 장사가 안되서 걸어 치우고.. 건축계로 들어갔지..

Q: 할머니가 건축 일을 하셨어요?

A: (할아버지) 예. 거기 들어가서 별거 다했대요.. 도끼다이라고.. 미장하는 거.. 이런데다 칠하는 것도 했죠.. 그걸로 벌어서 딸들 다 졸업시켰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잘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세월이랑 지금 세월이랑 다르잖아요..? 이 양반 나한테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봐요.. 그래서 저기~돈암동 산꼭대기에 무허가로 살았어요.. 그러면 개발한다고 헐잖아

요? 그래서 갈데가 어딴어요? 여기로 왔지요..

Q: 아~ 돈암동 재개발 하면서 이쪽으로 오신거군요?

A: (할아버지) 그게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여기와서도 집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 저기 어디에서 열 몇평인가 그거 줘서.. 근데 그거 줘가지고 살아요? 못살지.. 그래서 그것도 팔어..

Q: 아.. 거기서 보상금으로 준 돈을 가지고?

A: (할아버지) 응.. 돈을 천만원인가.. 얼마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난민들이 와서..

Q: 그쵸 여기는 그때 허허벌판이었으니까..

A: (할아버지) 저쪽에.. 피난민들이 저쪽에 많은데.. 우리도 그쪽으로 왔어요.. 열 몇평인가.. 그것도 또 팔았어요.. 그fork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세로 된데가.. 여기로.. 여기 들어온지가 한 20년 됐어요..

Q: 아드님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A: (할아버지) 일 했죠. 건축 일 했죠..

Q: 아드님은 돈 나름대로 버시는게 있을텐데..?

A: (할아버지) 자기 살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살았어요..

Q: 아드님이 따로 사셨으면.. 그럼 그 집은요? 아드님이 사셨던 집은?

A: (할아버지) 아들이 뭐.. 세를 들어 살았는데.. 뭐..

Q: 병원비 쓰고 하고 뭐 없었겠네요..?

A: (할아버지) 결혼을 세 번 했어요 아들이.. 세 번한 다음에.. 끄트머리에서 애가 났어요(애가 태어났어요).. 아이고~기구해요.. 우리 운명이.. 아주 기구한 사람이

예요.. 우리가.. 저사람하고 나하고.. 만주서 나올 때.. 아이고~ 고생을... 입안이 다~ 헐고.. 그 영향을 지금도 받아요.. 발이 전부~ 얼어가지고요.. 그게 얼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귀도 이거 다 얼고.. 지금도요~ 다리 얼은데가.. 또 무슨 병이 들어왔어 이거.. 전부 이게 똑살(굳은살)이래요.. 얼은 것이.. 나왔는데.. 전부다 똑살이 되어가지고 막 터져요.. 이렇게 되요. 이것도 병이라 이거야..

Q: 일종의 무증인가요?

A: (할아버지) 무증.. 이런데도요.. 지엄마도 그렇고.. 전부 다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아주 그.. 예전에는 얼굴도 이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저 양반도 그래요.. 하나도 성한데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교회나가서.. 거기 나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천당가는 건 둘째죠.. 누가 가봤어요? 성경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거예요.. 뭘해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많이 도움 받아요.. 어쩔 때는 무슨일 났으면 교회에서 돈 10만원씩 대주고요..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많이는 못주고..

Q: 많이는 못주겠죠.. 급하면 조금씩 지원해 주면..

A: (할아버지) 우리 딸들도 시집갈 때 다 조금 씩 도와주고.. 개들 다 거기 나가잖아.. 지금도 다 교회다니고.. 집사고 그래요.. 착해요.. 내가 그 산꼭대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에도.. 그 때에는 천막에 가마니 깔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지.. 이북에서 온 사람이야.. 이북에서 나왔는데.. 그 양반하고 나하고 손잡고.. 그 때부터 같이 교회를 했는데.. 이제는 커져서 한 천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죠..

Q: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서 도움을 안주시나요?

A: (할아버지) 아니요.. 교회도 틀이 잡혀서..장로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 수급자 04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근로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56	남	일용직(술집 아르바이트)	장애등급은 없으나 심장질환, 허리통증 등 몸이 허약하다고 함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방 1개, 화장실과 부엌이 딸려 있는 집. 상계역에서 5-10분 거리.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주거급여에 대한 욕구 및 수급자 사이의 정보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특히 조사 대상자는 독신가구의 어려움-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한 불만 표출.

다만 조사 대상자의 이야기와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자료 간에 불일치되는 측면이 있었음. 대상자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조 선족과 결혼하였고, 현재 부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또한 현재 일하는 것에 대해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올해 7월, 일에 대 해 파악하고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20만원). 현재 급여는 모두 월세로 지출하 고 있음.

*(조사자의견) 보충급여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함.

(앞부분 조금 짧렸음.)

A: 아니 뭐 공개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죄진 것 도 아니고...

Q: 예...(웃음)

Q: 통계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한거는 비밀보장 될거고.. 저희가 그걸 따르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Q: 여기 지금 혼자사시는 거예요?

A: 예, 혼자..

Q: 아... 뭐 가족 분들은 따로?

A: 아니, 결혼을 안했어요.

Q: 안하셨어요? 아... 미혼이십니까? 아...

A: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기초(보장)... 받는게 좀 힘들죠. 내가 물어보니까 힘들더라구요.

Q: 음... 음... 그런 이유로 안하신거예요? 그건 아니죠?(웃음)

A: 아이... 그건 아니죠...(웃음) 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못났으니까 못하는 거지...

Q: 근데 뭐 결혼하시면, 생활도 더 편해지고 좋으실 수도 있는데...

A: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뭐. 틀렸다고 봐야죠.

Q: 음... 제도는 언제부터...

A: 예?

Q: 그,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A: 처음... 받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내가 년도는 모르겠네. 오...

Q: 옛날엔 생활보호?

A: 제가 그동안에 택시운전을 했었어요. (아, 네...)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허리도 좀 다치고 뭐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제가 손을 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쪽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내가 아, 아시는 분이 이제 너무 보니까 체력도 약하고 뭐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시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럼 뭐 요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니깐 뭐 병원에서 또 건강진단서 떼어 와보세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떼어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제 뭐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통과 되가지고 이제... 근데 뭐 혼자 사니깐 그렇게 또 지원금이 많이는 안나오고,

Q: 네...

A: 이게 또 이제 20만원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이제 월세로 살다보니까. 이게 월세로 20만원. 뭐 이렇게 하고나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이 인제 술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뭐 바쁠 때만 좀 거들어주고... 뭐 그러하다 보면은 이제 그 형님께서 뭐 만원씩도 주고, 어떤 때는 손님이 없고 그러면 장사가 안됐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사먹으라고... (웃음) 그런 실정이에요.

Q: 음...

A: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해서 연명해나가고 있습니다.

A: 다른 방도는 없고..나이도 있고, 힘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이리저리 연명하고 있는거죠.. 뭐.

Q: 그럼 그 아는 분이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제도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A: 아니 뭐, 확실히는... 제가 이런 거에는... 있다는 거는 확실히는 몰랐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저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면서... 뭐 나이가 이제 먹고 좀 혼자 살고, 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뭐 해당하는 그게 있다는데, 딱히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무슨 이렇게 그걸 해서 뭐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 자꾸 아는 사람들이 뭐 이런 제도가 요즘은 뭐 제도가 또 있다 그러고, 정부에서 요즘 뭐 참 그런거 잘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Q: 음... 그럼 허리를 다치시면서 이제 택시..

A: 아. 지금 뭐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들한테 엄청 얻어맞고 다녔어요. 이... 저, 술 먹은 손님들이 타면은... 제가 또 이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술 먹다 술 취하다 보면 뭐 눈에 보이는데 있습니까? 덩치 큰사람 한테도 뭐 이새끼 저새끼 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젊은 사람도 타면은... 저번에도 한번 그래갖고 택시비를 안주고 뭐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지다가... 나를 잡고 그냥.... 뭐야 그 뭐, 포장마차 이 길거리에서... 그래놓고 도망가버리고. 그래갖고 그게 뭐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허리가 뭐. 그 뒤부터 무슨 병신도 아니고, 허리가 쪼끔만 거 하면 허리가 아프고, 쪼금 또 힘든 일 하면 좀 아프고...저번 때 여기도 다쳐가지고.

Q: 장애등급은 없으신거죠?

A: 등급은 없습니다. 등급은 없고... 장애는 뭐 안 되는 모양이던데. 장애는 뭐 어디가 뭐 완전히 없어지고 뭐 이래야...(웃음)... 난 그런거 모르겠는데 그런거 알아 보지도 않았습시다. 장애자는 아니니까

Q: 택시 일을 그만두시고...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을 하셨습니까?

A: 그만둔지가 지금... 한 3-4년 됐나?

Q: 아... 그만두시고 이제 그 완전히 그러시고 이제 신청을...?

A: 예.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또 심장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저를 뱃속에 임신 했을 때 몸이 아팠어요. (아...) 당뇨에다가 뭐 합병증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인제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났지. 태어나다보니까 이제 제대로 형성이 인제... 골격형성이라든가... 뭐 이런거 여러가지로 형성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심장이 좀. 이게 막 나빠갖고 초등학교 다닐 때 뛰고 이러면 막 심장이..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큰 이상이 없다 그러고... 거 뭐야 저 옛날 애네들, 요즘 뭐 저번에 보니까 심장 뭐 판막증인가 (예...) 그런 현상인가 싶어서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그런거는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임신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못 먹고 몸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모든 자체가 인제 좀 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심장도, 거기 준해서 약하게... 너무 심한 그걸 하고 하면은 심장이 이제 좀 그러고. 또 이발소에서 이게 머리 감을 때, 머리 감고 눈, 코에 물이 들어가면... 어저께 추석 다가와서 머리 깎았는데... 아 갈수록 이제 머리도 못 감겠더라고. 내가 혼자 감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발소에서 감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발하러 갈 때 머리 감는 사람한테 내가 미리 부탁을 하지.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좀 물도 살살 부어주고 되도록 코에 물을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심장이 나쁘니까...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것도 저도 뭐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갖고, 이 이발소 가면은 뭐 참 몇 달에 한 번씩 가요. 자주는 못가고...

Q: 예. 저도 그래요(웃음)

A: 예. 그러다 보니까 다행이지, 자주 가게 되면 아마 숨 넘어 가겠더라고...(하하)

Q: 아 그럼 처음부터 택시운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시다가...?

A: 아, 옛날엔 제가 직장에 한 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우연찮게 면허증을 따게 되가지고 택시를 하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또 다른 것 하다가, 하다가 또 없어지고...

Q: 아, 사업하시다가요?

A: 예. 아,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좀 하다가 또 엎어지고. 또 그 와중에 누가 또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 어찌다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 가가지고.. (아...) 그거 다 빵꾸내 버려가지고, 내가 또 그거 막느라고(***)이 빠졌어요(힘들었다는 의미...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들림).

Q: 음...

A: 나중에는 이제 뭐 점차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택시회사에서도 잘 안받아주고.

Q: 아...

A: 당신 뭐 택시 운전하다가 죽겠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우리가 겁이 나서 어떻게 쓰냐고. 또 내 자신도 또 택시하게 되면은... 택시는 그래도 좀 오래했어요. 그래도 먹고 살거라고. 내사 또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까딱하면 그냥 못나오겠다고 빠지고 이러면 뭐 월급에서 다 제해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거지. 힘은 들고.. 힘도 든데 뭐 또 어떤 때는 재수 없으면 손님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직업을 돈도 못 버니까 어떻게...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때려치웠어요.

A: 치우다가 그냥 뭐 해볼까 하다가... 뭐 이렇게 궁리하고. 한 뭐 거의 한 1년 이상 쉬었어요. 좀 체력도 좀 보강해야겠다 싶어서. 좀 실검하고. 뭐 그러다보니까 이 방조차도 이 보증금 걸려있는 것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Q: 아...

A: 그래서 주인이 2층에 사시는데 내가 사정을 했어요. 여기 내가 지금 한 5년째 정도 살고 이러니까... 주인 아줌마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이래갖고 택시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쉬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내가 저걸 등록을 했는데 아마 집세

정도는 나올겁니다. 이 집세가 20만원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주인아주머니가 그 다음에 사시는걸 보니까 뭐 사람이 참 점잖고 안전하고 뭐 시끄럽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그냥 저거 하니까 그게 좋다고, 앞으로라도 그냥 집세를 꼬박꼬박 넣어주면은 나가란 소리 안 할테니까 앞으로라도 좀 잘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겁니다.

Q: 그럼, 한 달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세요?

A: 생활비는 뭐, 이제 거기서 오는거고. 내가 이제 아는 형님 집에 가서 조금씩... 급할 때마다 부르면은 돈 만원 받을 때 있고, 오천원 받을 때도 있고...뭐.

Q: 그걸로 생활이 힘드실꺼 같은데...

A: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연명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아는 사람 또 집에 가고 그러면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거죠 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좀...이제 나이 더 먹어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56인데... 60넘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그때 가서 가봐야 아는거고...

Q: 그러면 집세가 이제 20만원이고...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A: 뭐, 이제....

Q: 병원도 가시는지...??

A: 뭐, 병원도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병원 뭐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뭐 딱히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체력이 딸리고 힘이 없고 그것뿐이지. 병원에는 뭐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어쨌든 한번 두 번 갔지. 자주 가기도 그렇고. 뭐 다른 건 이제 무슨 겨울이 되면은 (아, 난방비요...?) 난방비나 도시가스비가... 아 도시가스비가 뭐...방은 코구멍만해도 한 달에 뭐 5-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하고 뭐 핸드폰... 전기세는 뭐 내가 아예 불 끄고 어차피 TV볼 때 TV만 켜놓고 하니까 뭐. 전기세는 뭐 20%인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세는 한 오륙천 원 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크게 부담 안 되는데...이제, 가을철 들어가고 그러면 도시가스가 제일 크기는 큼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그거는 뭐 한 2-3만원 안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Q: 그리고 (핸드폰은?)요금 감면이 안 됩니까?

A: 아직까지는...장애자는 되던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뭐 그런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세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또 기초수급자고 해서 물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이 뭐야 그거...

Q: 임대아파트...?

A: 아, 임대아파트가 뭐 그런거 안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 혼자라서 식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순위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준다는데. 뭐 가봐야 힘들꺼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또 정부에서...뭐 뭐 뭐라 그러더라? 뭐 또 다른 제도가 또 있단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Q: 장기 뭐...?

A: 그게 아니고 뭐 대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몇 천 만원까지 대출해가지고, 그걸 집주인하고 뭐 이렇게 등기설정 해가지고 이래서 이자만 주고 이렇게 하다가...뭐 그것도 있다고 하던데. 뭐 모르겠어요. 난 안된다고 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고...

Q: 그니까 한번 동사무소 가서 한번 상담 안해보셨네요 일단?

A: 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담 안 해봤습니다. 뭐, 안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식구 있는 사람도 뭐 안 되가지고 밀려 있다는데. 글썄.. 뭐 내가 하면, 여기가 조금 있으면 언젠가 될 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뉴타운 개발지구기 때문에... 그땐 뭐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뭐 그거 끝나

고 나서 안 되면은 어짜피 그때는 나가야 되니까, 그 때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나 아니면 미리 알아보나 그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알아봐야지 뭐. 보증금이 없으니까.

Q: 그러면 월세가 제일 걱정 되시는거죠?

A: 아... 지금 그럼. 그렇죠. 집세가 제일 걱정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집세가 걱정이지만, 뭐 다른 것도 물론 걱정이겠지만은 다른 사람이야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애들 교육문제, 무슨 다른게 무슨 그런거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니까 집세가 제일 걱정이지만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집세가 걱정이고... 다른 문화비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안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뭐 담배야 가끔 피우지만은 술은 전혀 안하니까... 뭐 그런데는 돈 들어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일 걱정이 제일 많은 게 집세니까. 집세 외에는 이제 뭐 의식주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그거고 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별로...

Q: 그럼, 돈 부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A: 돈 부족할 때는 뭐 또 주위사람들 아는 사람한테 뭐 조금씩 빌리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누가 돈 빌려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위사람들한테 평가가 좋게 나 있으면은... (아...) 주위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몇 만원이라도 꾸고 이러면은 나중에라도 또 갚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누가 돈 함부로 꾸어줄려고 하나. 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누가 돈 꾸어줄라고(웃음). 그거 언제 받을라고...

Q: 형제분들은 안계세요?

A: 예?

Q: 형제..분들.. 안계세요...?

A: 아, 형제분도 있는데 형제분도 다 뭐 그렇죠 뭐. 형제분들은 많이 있지.

Q: 아. 다 어디 다 서울에 계신가, 아니면은... 고향이 어디 이쪽이 아닌 거 같은데...?

A: 서울 계신분도 있고, 또... 미국에 (음...) 또 계신분도 있고, 또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형제분들도 지금 다 그렇고 그래요. 뭐 잘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Q: 음...

A: 그리고 또 뭐 요즘 세상에 형제분 잘산다고 그래서 형제 도우려고 그래요? 아유, 절대로 안도와주지. 내가 누가 뭐 자기 뭐 부모가 뭐 잘살고 뭐, 형제가 잘살고. 거 하나도 믿지 말아야 되요. 요즘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누구한테 기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형제분이 잘 산다고 그래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들도 처자식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거 없다고 내가 그래요. 형제들한테 뭐 조금 거하고 돈 뜯고 뭐 어찌다보면 싸움만 나고, (네...웃음) 잘못하면 막 형제간에 뭐 돈 때문에 막 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형제간에 손 벌려갖고 돈 안 갚으면은 의리상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끊어지고. 그러지. 저도 뭐 물론 이 명절 때나 이렇게 가끔 이제 형 집에 가면은 애처롭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돈도 몇 만원 주고 그래요.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형이라고 가서 손 벌리기 참 이상한거고, 또 형이 알아서 이렇게... 요즘 뭐 어렵지 어떠냐... 하고 그러면서 몇 만원 주면 또 받아오고 그러는거지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형제간한테 그거 하고...

Q: 옛날에 그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카드 가져가가지고... 그거는 다 이제 부채는 어떻게 다 청산된겁니까?

A: 아, 그거는 내가... 한 5-6년... 내가 그게 95년도에 터졌어요. 95년도에 카드가 터져가지고...그걸 힘이 드니까 퇴사하면서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몇 백 만원 갚는 것도 참... 이... 내가 이천... 이거 들기 전... 기초생활수급 되기 전 일꺼예요. (음...) 한 2-3년 전인가? 그때 내가 억지로 해서 다 갚았죠.

Q: 지금은 이제 뭐 부채는 없으시고?

A: 지금은 뭐... 저거 밖에 없어요. 저 조금 남아있는게 한 뭐 백? 한 돈 백 되갈꺼예요. 아직까지 신용불량자로 올라가 있지(웃음).

Q: 아..

A: 그거는 다른... 카드라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갚고, 그 뭐 지금도 저기서 뭐 맨날 날라오는게 다 거기서 날라오는 거야(웃음). 그리고 주소 있으니까 내가 동사무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에유,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조금씩이라도 갚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런 거 못치고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 만약에 치고 들어오면은 자기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더라구요. (네...) 그 저 정부에서 들어간 돈은 못 빼간데요, 은행에서. 함부로 카드에서 못 빼가니까 그거는 걱정하지마라 그러더라구요. 따로 돈이 또 다른 은행에 많이 더 들어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 생계비로 넣어주는 돈은 못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만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뭐 놔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한 돈백만원 되는 거 뭐 내가 여유만 있으면 한 달에 몇 만원이고 이렇게 갚아준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소리를 내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자꾸 저게 날라오더라고요.

Q: 제도 처음에 신청하러 가셨을 때 여쭙볼게요. 그때 어떠셨어요? 뭐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A: 아우, 요즘 뭐 동사무소 가면 복지과에서 이제 그 따로 하더라고요. (아, 예...) 상당히 뭐 참 친절하고...주로 여자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아프신데 있으면은 이... 제가 의료보험을 먼저 내드릴 테니까, 그럼 아프시면은 의료보험부터 먼저 하고 병원에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뭐 어디 나쁜데 있으면은 건강진단서 좀 첨부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상담할 일이 있으면 복지과로 종종 찾아오라 그러고..." (아...) 뭐 친절하게 요렇게...옛날 같으면 뭐 그렇게 어땠어요? 저 얹혀 놓고 본체 만체지.

Q: 제도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주시구요? 자세히...?

A: 아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근데 좀 이제 제가 조금 서운...하다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썸 이제 그런거는, 이제 생활수급자한테 뭘 일이 있다던지 뭐 정부에서 해준다든지 뭐 해주면 전화를 해준다든가 공문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더라고...

Q: 아... 뭐 주기적으로 연락안하세요, 잘?

A: 잘 안해요. (음...) 그... 왜냐하면은 저는 내 또 아는 형 분이 그 뭐 이런 복지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너 이거 신청 안했나” 그래서 “이거 뭘데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 복지카드가 아니고 거 뭐드라? 무슨 마트. 마트 카드가 있는데 그걸 가져 가면은 한 달에 뭐 4개 품목에 대해서 (식품 쿠폰 어떤 거...?) (아...) 아, 그런 걸 준다고 그래서... “아 형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 뭐 그냥 연락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난 연락이 없던데”...

Q: 연락이 상계3동 사무소에서...?

A: 예, 그래서 뭐 나한테는 전혀 전화연락도 없고, 무슨 뭐 공문도 안날라오고 그래서 난 몰라서 안했다고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뭐 되면 해주겠지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이야기도 안했어요. (아, 해보시지...) 아,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다주는 게 아니고 뭐 나이가 있어야 준다는... 나보다도 더 먹었어야 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래서... 아유 뭐...주면은 믿고, 정부에서 서로 믿고 그거 하는 거니까 주겠지, 뭐 놔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Q: 그 자제분이 있어가지고 학교 급식 대신에 방학 때만 주는 거 아닌가요?

A: 아, 아니요. 매달. (매달 계속 나오는 건가요?) 매달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형님한테.

Q: 아, 주변에 같이 이렇게 그 수급자분들이 많이 아시나봐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A: 이제, 그렇지. 이제 수급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아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그... 하면은.. 뭐 저분이 뭐, 저분도 기초수급자니 이렇다 보니까 몇 명 정도는 지금 알고 지냅니다. 몇 명 정도는 알고 지내고... 그 외에는 뭐 다 잘 모르고. 뭐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애고 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Q: 아... 그럼 뭐 그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주로 그분들한테 얻으세요? 뭐 공무원이 연락하고 ... 이러는게 아니라...?

A: 아 뭐,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들었고, 임대아파트 준다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들었고(웃음)... (아...) 나는 이 계통 잘 몰라요. 원래가 내가.

Q: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서(동사무소)...

A: (주변 수급자들 이야기)..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까 오야모야,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일 나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찌다가 가끔 뭐, 저 돌아다니다 보면은... 서로 지나가다 보면은 만나가지고 거하고. 그러면 또 뭐 핸드폰 받고, 뭐. 그러다가 핸드폰... 또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그러다보면 한 며칠이든 간에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어찌다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서로 이제 바쁘니까. 먹고살기 위해서는 지도 뛰어야 되고 나도 뛰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웃음).

Q: 주변에... 그렇게 아시는 분 중에도... 일 하시는 분 없으세요?

A: 예?

Q: 비밀리에(웃음)... 몰래몰래 일하시는 분 안계세요? 동사무소에 이제 신고 안하고... 얘기 안하고...

A: 그런거는 없고, 내 아는 사람. 동생 되는 애가, 개는 신문 가판대. 그것도 뭐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청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마... 이번 10월 달인가 언젠가

끝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애. (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도 가면은 아침 뭐 6시나... 돼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남들 전철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에 신문 사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요 피곤해서. 뭣도 모르고 해봤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너무 일찍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요즘은 그것도 뭐 돈별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뭐... 나보고 “형 내가 이거 잘되면 형 소개해줄려고 그랬는데, 이거 형은 택도 없겠더라고... 이거 뭐 허리도 아프고 이거 뭐 보통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형은 이거 생각지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내가 개한테 자주 한번씩 만나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데 이거.

Q: 혹시 그럼 동사무소에 진단서 내신 상태세요?

A: 네?

Q: 그럼 진단서 이렇게 내신 상태세요? 공무원한테...?

A: 예, 진단서. 신고를 했죠.

Q: 아... 그럼 정기적으로 갖다 내시죠?

A: 아니요. 그냥 그 거 할 때... 그 기초수급자 이제 저거... 통과시킬때. 그때 뭐 은행 거래 뭐 그것도. 뭐 뭐 동의서인가 그것도 적어주고. 또 저것도 떼주고. 그래가지고 뭐 또 복지과 사람이 보더니... “아유. 보니까... 보니까 척 알겠네요.” 그냥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이제 형식상은 알겠는데 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류가 저거 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진단서로도 좀 첨부해달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 했죠. 근데 뭐 진단서에는 이젠 그거 하다보니까 크게 뭐 그래 된 거는 없고, 어릴 때부터 만성... 그 뭐야, 허약자. 뭐 이런... (음...) 그런 경우죠. 예.

Q: 그럼 뭐 공무원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셔라 뭐 이런 말씀은 전혀 안하셨겠네

요?

A: 그거를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뭐 몸이 너무 약하면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할라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로 사업이라나 그거 뭐... (예. 예...)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할라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뭐 허리도 아프고, 심장도 나쁘고 그거해서... 어떤 때는 막 모래도 들고 이렇게... 요즘 개천사업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들고 이렇게 막 그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Q: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뭐 주로 그것뿐만 아니고...

A: 아직까지... 뭐 다른. 뭐 일단 좋은 게 있으면, 내가 할 만한 게 있으면 연락 달라 그랬는데.

Q: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A: 예, 연락은 안 오네. 뭐 내가 할 만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힘 안드는 걸로 해야지 이제는 뭐. 거리에 다니면서 무슨 뭐 저런 것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전봇대에 광고판 (예...예)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슬슬 할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힘 안드는거 있으면은 내가 연락 달라 그랬고. 그럼 연락주겠지 뭐.

Q: 음...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이나 자활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이 어디 다른 일자리. 그냥 뭐 지금 좀 그냥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있으면은, 힘 안들고, 육체적으로 힘 안들고...

A: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해갖고 아는 형님 집에 인제 그거 가서 이제 거기서 술집입니다. 그 라이브카페인데... 가수들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 뭐 보통 때는 별로 필요없고, 그 또 좀 손님 많고 좀 거 할 때만 와서 좀 거들어달라고... 가서 이제 가면은 맥주도 좀 날라주고, 술도 좀 날라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손님이 좀 이렇게 "담배 좀 사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또 나가서 담배 사다주고 그러면은 잔돈 남으면은 또 가지라고 그러고 그

런 것도 있고.

Q: 예를 들어 그런 일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거를 하고 있죠) 뭐 좀 이제 만약에 별이가 돼서 월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별이가 좀 된다 그러면 기초보장 요거 지원금 이제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A: 아 글썄 제가 별이가 되면은 뭐 많이 안 받아도 되겠지만은 그건 보장이 되어 있는게 아니니까... (음...) 그런게 있고. 바쁠 때는 나가서 거들어주고...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는 뭐 내가 참 딱히 말하기가 곤란한거고... (예...) 그걸 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다 어떤 거다 뭐 할 수도 없는거고. (예...) 뭐 그것도 고용인이 뭐 나중에 필요 없다고 안 부르면 뭐 그것도 그만되어야 되는거고. 그런거니까 그거야.... 그 나와봐야 한 달에 뭐 한 십 만원이나 십 오만원 정도? 참 내가 몇 달 한번 나가 봤는데 그 수준밖에 안되더라고요.

Q: 그거 말고 정식으로 뭐 취직해가지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뭐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하실 생각이?

A: 아 뭐 그럼... 정식으로 뭐 힘 안들고. 내가 또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근데 이것도 참,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래 하는게 좀 힘들 거 같고. 뭐 정식으로 할 거 있으면 좋죠. 그래도 힘 닿는데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뭐 욕심이 넘어가지고 뭐 기력이 완전히 뭐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되면은 가서 그냥 그것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뭐 급한 거는 주거생활, 주거문제, 뭐 또 그런 불편한 삶 그런게... 뭐. 나는 지금은 뭐 빨리 빨리 도시가스나 핸드폰 이거 통신비나 이렇게 조금 절약이 됐으면... 지금 뭐 현재 우리가 피부로 닿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핸드폰비고 뭐 요런거, 참... 전기세처럼. 장애자는 뭐 30%인가, 내가 뭐 할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거 하고 뭐... 도시가스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할인해주고 그러면. 우선 피부로 닿는 게 뭐, 급한게 그거니까.... 그거죠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내가 정부에 “나 이런 사람이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웃음). 그건

정부가 알아서 줘야 되는거고. 그래서 뭐 딱히 그거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주위에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고, 돈이라도, 나가는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나가지 않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거 같으면... 제일 급한게 그거죠 뭐. 매달 나가는 거니까.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뭐 좀 되면 도시가스도 이제 또 켜야 되고 하니까. 매달 나가니까 그게 제일 바쁘죠. 뭐. 급선무가 그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주거문제 그렇고. 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문화생활 챙기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배재를 해야 돼(웃음). 그런거 다 저기할라고 하려면은 선수가 없는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Q: 지금 정부에서 지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글썄 제가 이게 지금 얼마 되지를 알아가지고. 제가 한 2년? 2년도 안될 거 같은데. 딱히 뭐 그걸 모르겠는데. 아이 그걸 뭐 사람 욕심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원 준다 그래도 적다고 생각할거고, 또 주는 사람 입장은... 사람이 그게 뭐야, 많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많이 주려고 하지는 않고 적게 줄려고 그럴거고. 뭐 사람 욕심이라는 거는 다 있는건데... 뭐 뭐 적정한... 그냥 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큰 일을 맡히고, 이렇게 일을 딱히 이렇게 맡힐 사람 같으면은 뭐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거 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뭐 크게 바라지는 않고. 그런거 뭐 이런 이제 저런거.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돈 나가는 거 이런 건 좀 할인 좀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 뿐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바랄거도 없는거고.

Q: 형제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받으시는거?

A: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Q: 근데 뭐, 여기 집주인도 물론 아시고? 이웃분들도 아시고 그러세요?

A: 예?

Q: 이웃분들도 아시고 그러세요?

A: 아, 이웃 분들은 모르죠. 뭐.

Q: 아, 이웃 분들이랑 별로 왕래가 없으신가 봐요.

A: 아예, 왕래가 없어요. 이 사람(옆집)도 뭐, 이사 다닌지 얼마 안됐는데 저하고 말 한마디 안해보고, 여자분이라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식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혼자 살다보니까 여자분이니까 불편하고 이래서 내가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웃에서 내가 뭐 일부러 다니면서 뭐 '나 이런 사람이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거 가지고 뭐 자랑이라고 그래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또 뭐, 참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또 동사무소에서 그렇디다. 주위에서 또 보고 (음, 얘기해달라고...) 당신보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또 모시고 오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애(웃음). 그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 주위에 보면은 진짜 또 불쌍한 사람 더 많습디다, 뭐." 참, 진짜 나보다 불쌍한 사람도 더 많죠.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은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아...) 정부에서는 뭐 그거(수급자)를 늘릴려고 그러는건지 어찌는건지 몰라도, 근데 또 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여기서 뭐 지금 상계동에서 오래 살고 있으니까, 83년도에 이사 와서 쪽 살았는데, (아...예) 이 동네 자체가... 옛날부터 그 자체가 이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아마 기초수급자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가, 의외로. (기침) 근데 이 기초수급자가 지방이 그 이상하게 더 많이 나온다 그렇디다.

Q: 돈이요?

A: 저,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 응, 지방에 가니까 그, 그 사람이... 뭐 얼마가 나왔더라? 지방이 의외로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 지방으로 이사를 오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근데 뭐 사람 생활 터전이란게... 무슨 뭐, 내가 취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생활 터전 기반 잡아놨는데... 그 뭐 선뜻 그 많이 준다고 그래서 내가 뭐 선뜻

가고 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 하튼 지방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내가 아는 사람이.

Q: 지방에서는 뭐 따로 주고 이렇게 있나보죠? 뭐 생보지원은 따로 주고있죠. 예...

A: 그 정부 지원이, 다른 거 하고는... 이제. 그것도 이제 경기도 용인으로 갔는데 뭐 여기 서울서 35만원 받았는 그 분도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35만원 받았는데 그 용인에 가니까 뭐 47만원이 나왔던가...?

Q: 응?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그건 이제...

A: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뭐 딱히 거짓말할 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너도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방으로 이사를 뭐 가라... 그러는데... 뭐 나는 아직까지 뭐, 쫓, 그거 돈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모르지 뭐. 먹고 살만큼 나올까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뭐, 거기 가서 뭐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생활기반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묻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내가 오래 사니까 아는 사람도 마이 있고, 또 누가 또 거 하면 와서 밥도 좀 먹으라 그러고 뭐, 또 일도 이거 좀 거 들어달라 그러고 그러면 담뱃값이라도 받아 오는 거고 그런건데. 거 가면은 만약에 그 사람 말 믿었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생활 터전이, 기반이 없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말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되나 뭐, 그것도 필요도 없는 거고...

Q: 그니까 이제 대도시하고, 뭐 작은 도시하고 (생활 기반이...) 농어촌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A: 예?

Q: 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

A: 예,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거는 모르겠는데, 그런거 같고 일부러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뭐... 그 쪼끔, 서울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그 사람은 뭐 일로 서울, 서울 도로 안 올꺼라고 그러고... 서울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Q: 지금 일하시는 건, 공무원 분은 모르세요? (예...?) 얘기를 따로 하신적은 없으시죠? 일 하시는거... 뭐, 아는 형님 가게에서 뭐 조금씩 도와주시는거...

A: 뭐 아는 형님 집에서 일한 거 뿐이고. 전이나 한번 뭐 제가..

Q: 물어보지도 않아요? 공무원이 그런거? 뭐 이렇게...

A: 아, 물어보기는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제가 가서 또 상담을 해봤고 그러는데. 몸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건 문한다 이거죠. 그니까 만약에 뭐 좀 쉬운 일이 나온다든지, 그런 일자리가 자꾸 인제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 뭐 제일 많은 일자리는 취로사업이고... 뭐 그런거 뿐이고,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자꾸 정부에서 개발을 하니까... 뭐 요즘 뭐 텔레비전 뉴스보면 뭐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자꾸 거 하게 되면은, 쉬운 일이 나오면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만 믿지 말고, 우리만 믿지 말고 또, 개인 자신도 뭐 자기가 참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해라고. 또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또 돈이 많이 나가는건 아니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테니까...

Q: 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A: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또, 또 맞는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또 마땅한 일 있으면 또 연락드릴꺼고... 그런거니까...” 우리만 믿고는 있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맞아야 하는 거니까. 안 맞은거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만약에 뭐 잘못되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니까 그것도 몸이 또 그렇게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거 취로사업 하는 이거는 어렵데요. 그것도 빠지면은... 착오가 생기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한데요. 컴퓨터에. (음...) 이런 사람들은 몸이 이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뭘 일 이제 들어오면은 그 컴퓨터에 찍어보고... '이렇게 아, 이걸 이 사람한테 주면 되겠다' 싶으면은 또 거 가고...그런거죠. 뭐 취로 사업 하는 이거는 뭐, 좀 나이는 적어도 좀 많이 걸을 수 있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하면은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Q: 그... 그니까 그거 말고 지금 이제 한번씩, 한번씩 이제 아는 형님 집에서 가게에서 일 도와주시고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돈 되면은 받아오시고 하는데... 그렇게 일, 그 일 한다는 거를 혹시 동사무소에 말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A: 그런거는...없고.

Q: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일 전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A: 그렇죠.

Q: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적도 없어요? 공무원이?

A: 어, 전에 한번.

Q: 아... 한번?

A: 한번 복지과에서도 한번 찾아 왔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재조사 한다고... 6월 달엔가? (예...) 6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서 보고... 그냥 뭐 아직까지도 더 이상 돈벌이가 없고, 뭐 그러고 또 소득도... 그것도 내가 써주고, 다시 또 해주고 그러니까. 돈은 또 똑같이 나오디다. 뭐 깎이는 것도 없고 더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그거니까... 똑같이.

Q: 그...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A: 통장에 찍히는 게...이 십...이 만원. 이십이 만 원 몇 천원인가? 뭐 근데, 한 달은 이십 이 만원 돈 그대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격달제로 그 다음 달에는 제

가 쌀을 신청해냈기 때문에... (예...아) 쌀은 이제 10킬로. 그것도 식..식구대로 나온다네. 한 사람 있으면 한 달에 10킬로, 두 사람 있으면 20킬로. 그래서 나는 10킬로니까... 10킬로를 받아오면 되니까 두 달에 한번씩 20킬로 한 포대씩. 근데 이제 어... 만 구천 원.

Q: 음... 그만큼 깎여서 나오구요? 그런 달은?

A: 예, 쌀을 그 만 구천 원에 줍니다. 돈, 난 공짜로 주는지 알았더니... (웃음) 돈을 이래... '얼맙니까?' 그러니까 20킬로 한포대가 만 구 천원에 나간데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쌀이 꼭 들어오면은 만 구천 원을 제하고. 그래서 만 구천 원 제할 때는... 이 십 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는 쌀 값 안 제할 때는 이십이만 원 들어오고,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없고. 그리고...

Q: 동사무소 말고요, 다른 기관에서 뭐 도움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뭐 복지관이나...

A: 어디, 어디에서요?

Q: 사회복지관,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는?

A: 다른... 다른 그...런데서는 내가 전혀 도움 받은 게 없는데... 다른, 지금 동사무소... 여기서만 나왔지. (음...) 뭐 정부에서 뭐, 뭐 그런데는 뭐 뉴스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하는 그거는 내가 전혀... 받아 본적도 없고 혜택 받아본 적도 없고.

Q: 그럼 주로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공무원이나...

A: 뭐 주로... 동사무소 쪽에서, 지금 현재는 나 같은 상황은, 지금 동사무소에만 전적으로 그거 하지 다른 뭐...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달 받은 것도 없고, 연락받은 거도 없고. 그래서 뭐 그저께가 언젠가 이렇게 전화가... 무슨 공무원인가? 연구원인가 그러는데 나는 거 뭐 잘못 걸었나 싫어가지고.

Q: 아, 그거 제가. 제가 연락 드린걸텐데?(웃음)

A: 아... 그쪽에서 했구나. 아, 나는 전화가 잘못 왔구나 해서 '거 뭐하는 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는걸 보니까, 이름을 벌써 이야기 할 때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냐고' 그래서, '아 기초수급자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그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이지. 그 이게 기초수급자한테 다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까?

Q: 아니요. 다할 순 없고...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구요. 지역별로 이렇게 몇 분씩 저희가 골라가지구요...

A: 아, 그럼 뭐 이렇게 온 것도 영광이네요(웃음). 그럼 또 제가 뭐 중앙... 뭐야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게 뭐 그럼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Q: 예. 정부에서... 예... 지원받아가지고...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A: 아... 제도가... 선임연구원이면 내가 알기로는 상당하신 거 같은데?

Q: (웃음) 아, 아닙니다. 저희도 말단입니다. 말단이고...

A: 뭐, 그래요. 기초수급자는 나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 다 많이 해주면 좋은 거고 적게 해주면 별수 없는데... 그것도 뭐 명절 때마다... 또 뭔 이 상품권이 나온 적도... 저번에 나도 상품권 오 만원 짜리를 받았는데... 그 뭐 명절 때마다 상품권도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잘해줄려고 노력은 하는 거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좀 보면 미미...한거 같기도 하고 (웃음).

Q: 그게 뭐 생활하실 때 그리 도움 안되니까..그쵸? (글세요, 뭐) 월세 빼면 소득이 없는 상태니까... (예...) 상황이니까...

A: 예... 크게 뭐 도움되는 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안되면 나는 이제 쫓겨 나가야 되니까. 쫓.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도...

Q: 지원 받으시는 거 계속 받고 싶으신거예요?

A: 아이, 뭐 지금 형편으로선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나중에라도 내가 뭐, 인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도움 안 받아도 되는거고... (네...) 지금은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아이, 될 수 있으면 이거 뭐 안 받는데 낫죠. 내가 먹고 사는데만 애로사항이 없으면은. 안 받는데 낫지. 이거 뭐 받을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받을라고 막 그거 하는 사람도 있기는...그런 사람도 내가 보기는 봤는데...

Q: 아... 그런 사람은 뭘 어떻게 해요?

A: 모르겠어요. 그냥 무턱 대놓고 그냥. 자기가 어려워니까... 자기가 어려워니까... 이 이 그게 있다고 너도 하는데 이거 뭐 나도 해야지 그러고 가서 받아오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요, 뭐 신랑은 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신랑 죽었다고, 이혼했다고 막 해달라고 그러고.. (아...)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Q: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 아 글썽요 뭐, 정부 돈이라고 무슨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다 주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한심스럽죠 뭐. 뭐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뭐, 당신 뭐... 이 내가 그렇게 입장도 못 되는 사람이고. “아, 뭐 되면은 가보세요” 내 그러는 거지, 뭐 어째고 뭐, “내가 보면 안 될꺼 같은데” 그렇게 할 입장도 못되는 거고. 내가 뭐 그거 하는 사람(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뭐 무턱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내가 거 다녀보면은, 이 그 요즘 뭐 이거 주면 임대아파트도 준다고 그러고, 뭐 어째고... 근데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알아지니까, 뭐 어디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알아가지고 뭐 임대아파트도 준다 그러고, 뭐 정부에선 뭐..뭐도 준다 그러고 뭐 쌀도 공짜로 준다 그러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 쌀은 공짜로 안주고 만 구 천원씩 주고 사먹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공짜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뭐 공짜로 준다는데요.” “한 , 동사무소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공짜로는 안 되고 난 항상 만 구천 원씩 주고 먹습니다.” 그랬지. 그거 뭐든지 다

거저 주는 줄 알고, 임대아파트도 뭐 주면은 뭐 거저 주나, 그것도 다 임대료 내야 되는 거고, 좀 또 저것도.. 보증금도 내야 되고...좀 싸게 준다는 거지. 뭐 그거 쫓짜로 다 주는 줄 알고 그냥. 뭣도 모르면서 막 그래갖고 또 뭐 누구한테 또 뭐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해야지, 소개해야지 하죠. 그럼 내가 그래요. 아 이 그런 거 있으믄 동사무소 복지과 가서 다 이야기 하고 알아보라 그래요.

Q: 음. 혹시 뭐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A: 글썄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혼자..사는..분한테 이거 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안 준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쫓끔..적은..거라도 지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Q: 주거 문제가 제일 걱정하시니까요... 지금.

A: 예, 주거 문제가 제일 걱정이니까, 주거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좀 그거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게 뭐 걱정이니까 그래서... 아, 혼자 사는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안주고 식구가 있어야 준다... 물론 그 사람 식구가 많을수록 속상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마는.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 이해는 하지마는, 그것도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쯧),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좀 적은 평수라도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뭐 제가 바라는 사항이에요. 바라는 사항이고. 뭐 동사무소 한번 가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어렵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예 신청도 하지마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혼자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기침) 얼마든지 또 그런 주택도 있을꺼고, 아파트도 있을꺼고 있을텐데,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뭐..이래 생각했어요. 누가 저 임대아파트 준다 그래서 신청하러 갔더니, 나보고 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도 이걸데.. 정부 저것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니까..." "아이, 혼자 살면 안된다고..." 아,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은 저거(수급자) 아닌가 내가 그랬어요(웃음).

Q: 일단 모르니까 한번 동사무소에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A: 예, 가서 한번 상담 한번 써야지 뭐. 그것도 뭐 신청 시각이... 이것도 지금 지

금... 사람은 대기자는 많고... 대기자는 많고 그러니까 그 순번에서 아마 내가. 뭐 주기 싫어서 안주겠습니까? 순번에서 밀리니까 안주겠죠. (흐흠...) 다 주고 싶죠 뭐.

Q: 그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만약에 자격되면 신청해보시려는...

A: 신청해보기는 해보는데... 그 말하기가 미안스러웁니다. 괜히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고 와서 큰소리 뽁뽁치고 그거 달라고... (웃음) 그것도 미안스럽긴 미안스럽죠. 쯤, 뭐... 그것뿐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걸 가지고, 뭐 뭐 문화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는 요구를 묻하는거고...

Q: 근데, 참 지금 문제인게 그죠. 선생님 지금 버시는 돈이 이십여 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인데, 그럼 딱 월세 빼고는 실제로 이제 생계급여 포함된 거는 이제 집값도 들어가고...

A: 그렇죠 지금, 현재 생활보장금으로는 뭐 집값 다 들어가고...의식주 생활에서는... 이제

Q: 그 다음에 이제 뭐 밥먹는 거 식료품도 들어가고, 먹는 거 들어가고, 옷 사는 것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실제로는 이제 요거 가지고 (먹는 것도 하루 두 끼로 이렇게 해서...웃음) 다른 거는, 다른 거를 이제 전혀 못하시는 상황인데... 아...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A: 아, 문화 그렇지. 문화.. 즐기는 그런 여가가 없으니까...

Q: 음... 뭐 세 끼 드셔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셔서 두 끼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부족하실 때는? (예?) (웃음) 원래 세끼 드셔야 되는데 (아...) 돈이 부족하셔서... 뭐 끼니를 줄이시거나... 그런 걸 막 줄이세요?

A: 아유... 그런 건 뭐 내가 이제 내가 농담 삼아서 하는 거고... (웃음). 세끼 뭐 두 끼로 줄여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다는 그건 뭐 참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뭐 별수 있겠습니까?

Q: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제도가 아니고 이제, 그 뭐 20만 원 받는 돈 안에 모든 걸 다 써라... 사실은 다 쓰십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이 드니까, 그게 비중이 높으니까... (그게 제일...) 지원금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월세쪽으로 따로 그냥... 주거비 보조금으로 따로 좀 나오고... (아, 그러면 좋죠) 요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A: 그래서 내가 이제 임대아파트라 얘기 하는 거는... 이게 20만원이면은, (예...) 내가 이제 그... 받은 사람들 이제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이 십만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 임대 보증금도 싸고... 또 임대료도 뭐 얼마 안하고...(그러니까 이제 한 오륙 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확실히 싸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하나 쫓으면 하는거지, 뭐 무턱 대놓고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개인 집이니까... 뭐 주인이랑 이제 뭐 월세도 더 받고 싶은게 주인 입장이고... 그래 이게 20만원에다가 도시가스에다가 핸드폰비... 요즘 세상에 뭐 핸드폰을 없앨려고 해도 없앨수가 없으니까...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삼십은 되지. (예...) 내 먹는거 빼고, 그거 드는 것만 해도 삼십은 되지. 그러니까 이 십 만원 돈 받아갖고 집세내고, 또 거 뭐 내가 벌어서 핸드폰 비 내야 되고... 거 뭐 나는 겨울이 없으면 싶더라고 어떤 때는. 왜, 겨울 되면 난방비랑 도시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름에는 도시가스비가 이게 뭐 (최소한 이제 해드시는 것만...) 그거 하는 것만 한니까 이제 23천원 아래로 나오는데... 겨울 되면은 뭐 5-6만원 돈 나와버리니까... 그게 지금은 일단은 절약이 되니까... 어떤때는 아유, 우리나라도 겨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웃음). 여름만 있으면 좋겠다구... 여름 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Q: 여름에 안 더우셨어요? 올해 여름에?

A: 아이 뭐, 별로. 더워도 참아야 되고. 뭐 집에 뭐 맨날 붙어있는 건 아니니까. 집에 붙어있으면 이런 지하에 사니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지하 살아보니까 몸이... (맞습니다. 예...예. 저도...) 몸이 많이 축이 났습니다. 내가 전에 그래도 여기 한 5-6년 살다보니까 굉장히 몸이 많이 축이 났어요. 막 그... 뭐라 그럴까. 이 저... (기침) 천식 비슷하게 막, 이 비염 비슷한 이게 생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코도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게. '야 이게 지하는 오래 살게 못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5-6년 살다보니까 아..유. 밤에 자다가도 목이 막 간질간질 하고 막 이래갖고 막 기침을 엄청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이게 누구한테 의사...한테도 내가 뭐 가서 물어본 적도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지하 생활을 오래하면은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온대요. (음...예) 그거 안오는 사람은 엄청 몸 건강한 거래요 (웃음).

Q: 그 뭐, 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부러라도 조금 뭐 외출을 좀 하시고, 뭐 여기 가까운 수락산이나 여기 도봉산에나 이렇게 해서...

A: 아 뭐 오늘은 내가 오신다길래... 내가 좀... 어제 사실 내가 새벽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누가 (아...) 친구.. 친구가 죽어가지고...

Q: 아... 그래서 아까 전화 하셨실 때 목소리가..

A: 내가... 상 당해갖고 그래서 병원 갔다와갖고... 그래서 아까 전화 왔는데 내가 말이 막, 목이 맥혀 갖고... 아침 한 8시 돼서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보내고. 그래 나 들어와 그때부터 자는데 전화와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내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았지, (네...아이 죄송해요) 약속 안했으면 내 전화를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선. '아 거기서 오는 모양이구나...' (네...) 하고 내가 전화를 받았지.

Q: 요 방은 그러면 지금 요 방 하나하고, 여기 이제 뭐 거실하고 (욕실하고 거 두 개 쓰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고, 여 썩크대 이제 있고 그렇네요... 예...

A: 예... 그건 뭐 원래 팔려있던거고. 뭐 엉망진창이지 뭐. 하기가 뭐 나보다도 더 조건 나쁜데서 사는 사람도 많습디다.

Q: 음식은 잘 해 드세요? (예?) 음식 같은 건 잘 해서 드세요?

A: 아이고 뭐. 어쩌다 가끔 해먹지 뭐. 나가서 그냥... 얻어 먹는게 더 많아 알고 보면(웃음).

Q: 아 그래도 주변에 친구 분들이 많으셔서...

A: 아 예. 아는 분들이 상당히 나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그 만나고 이러면은 뭐, 밥 한끼 같이 먹자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한 그릇 살 테니까 사먹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사람이 또 그런거는 있습디다. '아 사람은, 사람은 참 좋고 봐야 되는구나.' (웃음) 아, 사람 나쁘면은 누가 만나기도 귀찮아서 그냥 피해서 가고 그러는데, 난 뭐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는데 멀리서라도 막 불러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커피라도 한 잔 하자 그러고...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러는지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그러고, 뭐 이야기도,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도 좀 나누자고 그러고 뭐 그러고 만나고... (음...) 그 뭐 뭐, 나는 보편적으로... 뭐 그런게 좀 많..많아요.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성격이 좀 어릴 때부터 좀... 체..체..체구는 이래도 좀 외향성이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막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사귀는 걸 남보다 좀 빨리 사귀고... 그래갖고 이제, 상계동에 88년도에 이사 들어와갖고... 그래도 사람은 많이 사귀었어요. 뭐 사귀는 중에 또, 나를 또 등쳐먹는 사람도 있나하면은(웃음), 그 뭐 카드 갖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거 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은 나만 만나면은 뭐, 아 밥 한끼,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밥 한끼 하러 가자 그러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기침). 뭐, 그래요. 나를 이제 등쳐먹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보다도 더 안 된 사람인지...(흐흫) 아 뭐 그 사람은 아주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찾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그거 뭐, 몇 백 만원 그거 뭐. 물론 받으면은 큰 돈이 되죠 나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마는...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가 스스로 와서 뭐... 주고

가면 몰라도. 포기해버린 거죠 뭐. 이게 뭐 벌써 오래됐는데...

Q: 주변에 이제 도움 주고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가까이, 가까이 계시니까 좀 멀리 계신 형제분들보다는 더 좀 뭐 도움이 되겠다... 그죠?

A: 아, 그렇죠. 그래도 뭐 크게 도움은 안되도 뭐. 내가 일단 급할 때는 수습이 되는거고.

Q: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다음주 추석인데 뭐, 어디 저... 그 명절 때 형님 댁으로 가신다고요?

A: 아 예... 제가 막내기 때문에...

Q: 아, 막내분이세요?

A: 예, 형님댁에 가서 차례지내고 와야죠.

Q: 예... 그럼 지금 부모님들은? (예?) 부모님은?

A: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Q: 그럼 이제 막내시면 좀...

A: 막내라... 부모님이 뭐 살아계시면 연세가 너무 많죠. 내가 늦게 태어난 걸... 늦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마흔여덟에 나왔어요. (아...그러시구나) 마흔 여덟. 마흔 여덟에 나온데다가... (...? 네..) 거기다가 또 당뇨. 해필 내 또 임신했을 때 당뇨병에다가, 또 합병증 생겨갖고... 여러 가지 몸이 최악 상태일때 날 임신해 갖고 놓기 전에 죽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또... 애기는 잘 나왔어요. 나왔긴 나왔는데, 뭐 나올 때 뭐 이거만(주먹 정도) 하다 그러더라구요. 몸무게가 완전 미달이 되가지고, 이 뭐, 뭐야 뭐 (인큐베이터요?) 응 인큐베이터 거기에 들어가야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었고...

Q: 아...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잘 사셨나봐요? 그런... (웃음)

A: 예, 그때... 예,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삶이 좀 괜찮게 됐을 때고. (아...아버님이 사업을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랬는데 후반전에 와서 뭐 쫓딱 그냥... 다... (음...) 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갖고... (예...) 또 우리 큰 형님도 지금 장애자고. (아, 그렇습니까?) 한쪽 팔을 못 쓰니까 (아, 아...). 어릴 때 철봉 하다가 떨어가지고 여기를 다쳐가지고. 이 후유증이 와갖고... (음...) 장애자고. 또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내 국민 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 그 우리 큰 형님이 장남인데 장남분이 그러다보니 철봉에서 떨어져갖고 뭐... 공부도 참 잘 했데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늘상 전교에서 1-2등 할 정도로... (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고향이 우리 마산이거든요. (아...) 마산인데, 마산고등학교 다녔었는데.

Q: 아, 마산고 명문이잖아요?

A: 큰 형님이 그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국민 학교 때부터 늘상 우등생이었는데요. 공부를 참 잘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거 우리는 반도 못 따라가는데. 그 머리가... 내가 봐도 평상시 보면 머리가 참 좋아요. 뭘 하더라도 보면은 빨리 빨리 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장남이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그 그... 원래가 또 아주, 그게 앞날을... 아주 중학교 때부터 목표를...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이 원자력 고... (아이고)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를 딱 목표로 잡고 공부했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참, 철봉 하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철봉을 하다가 딱 떨어졌는데 머리를... 다쳤는데 그게 몇 개월 있다가 식물인간이 됐어. (아? 음...) 완전히 그냥 전신마비가 오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 그... 나는 뭐 그때 어릴 때라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형제분들한테 이제 또 이야기를 다 들은거죠. 또 형님한테도 직접 듣고. 그래갖고 식물인간 됐는데 뭐, 병명이 만나타나가지고... 뭐 그때 이 서울까지. 그때 옛날에는 메디컬센터라고 여 국립 의료원 이게 최고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명이 만나와갖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다 포기각서도 쓰고, 포기각서 도장찍고, 그 래 연구 대상으로 (아...) 그렇게 까지도 그거 해서... 나중에는 뭐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몸이 다 돌아왔어요(허허) 이 뭐 신경 마디마디가 안 찢어진데
가 없네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네요. (아...에) 다... 이래 찢고.

Q: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고...?

A: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 그 뒤로 몸은 다 돌아왔는데 이게 한쪽 팔이 (네...) 딱
마비가 되버린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그 옛날 거 부산 재활원에서 오래동안
재활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갖고 거기 한 6년 동안을 재활을 시켰네요. (음...) 우
리 아버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다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건 안된다고... 그니까 이제 포기하시라 그러더라구요.

**Q: 결국 이제, 그렇게 까지 막 하시기 위해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있으
시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좀 이제 있으셨겠네요. 되게
잘사셨나보다...**

A: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환이 생기니까. 어머니는 국민 학교 6학년 때 돌아
가셨지. 또 그 무렵에 형님이 그랬지... (음...)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쫓... 또
잘 안됐어... (에...) 또 어머니도 국민 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버리고... 또 그 형
님은 형님대로 그렇게 해서 또... 그 형님이 참 사람이 자립심이 강해가지고
(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 형님이야. (음...) 내가 이 나라 대통령도 존
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존
경하는 것도... 물론 뭐 자기 아버지 존경하지 안하는 사람이 어딴겠어요? 그거
는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은 우리 큰 형님. 장애
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닦치는 대로 (음...) 다른 사람 장애인 같은데,
뭐든 지 다... 어디 가서 공짜를 바라고 뭐 하고 이러는데, 우리 그 형님은 안
그래.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한쪽 손이 불편해도 뭐든지 자기가 할라고 남한
테 안 맡기고.. 다... 뭘 뭘... 라디오 뭐 꺼내가 뭐 수리를 하는 것도 다 자기가
해요. (음...) 밤샘을 해서도 다 하고 있어요. 옛날 저 또 학교. 공부 할 때 그랬
네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밤새서라도 풀어놓고 잔데요. (음...) 그런 성격 소유자
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했으면 아마 박사가 됐을 텐데... 하하(웃음). 딱 박사타

입이거든... (공부하시기 좋아하시고...) 예, 머리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가고... 공부를 포기할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기 이제 장가도 일부러 그래 늦게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들... 우리 조카 애들한테 이야기 하는 게, 늘 상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빠는 어릴 때 원자력공학과 가가지고 그런 계통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내가 못 했으니까 너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뭐, 아들은 없고 딸들이라 전부다. (음...) 딸만 셋이 있는데, 그 딸들은 또 그런 머리가 안돌아가는 모양이지. 안돌아가고 뭐 하나는 간호사고, 뭐 4년제 뭐 어디야 거, 카..카톨릭에... 카톨릭대가 어디. 강남성모병원 그 학교.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그 뭐 지금 삼성의료원에 근무 한다 그러는데. (음...) 하나는 간호사로 나오고 하나는 뭐 뭐야, 약대 나왔나? (아, 그래도 다 잘 풀리셨네요) 그리고 미국, 미국으로 시집갔고. 또 하나는, 막내는 뭐 쫘 약간 둔해가지고 대학 나오기는 대학 나왔는데 저 신통치 않은데 나와 갖고 뭐, 뭐 어디 취직했다던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취직) 취직 하는것만해도 다행이지요? (웃음)근데 자기... 자기 아버지만큼 머리는 딸들이. 아..아들이 됐으면 또 모르는데. 글썄 딸들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만큼은 머리는 안돌아가는 모양이에요.

Q: 그 당시에 마산고 나오셨으면 굉장한 건데..

A: 지금도 마산고는 최고죠. 나..나야 (대학도 나오셨어요?) 간 꿈도 못꾼텐데...

Q: 아, 대학... 대학도 나오셨어요, 혹시?

A: 누가?

Q: 선생님께서 대학도 나오셨어요?

A: 제가요? (예...) 아유, 저는 공부도 안했어요. 대학은 뭐 대학이에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왔는데(웃음)

Q: 이제 뭐 좀 그 이후로 가세가 좀 기울어지셔서... 어.. 기울어가지고 힘들

으셔서...

A: 예...그래갖고. 어렵게 좀 그래 됐죠. (예...) ... 쯤, 그것 뿐입니다. 뭐,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 해도 참.. 고맙고...

Q: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A: 나는 뭐, 이렇게 오길래 전부다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하고 뭐...

Q: 다 그리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예...

A: 시간이 엄청난... 걸리죠. (예...) 다했으면 물론... 그 아마... 다른 사람도 아마 나와서 엇비슷할겁니다. 내 자신도 이렇게 그 해보니까.. 뭐 임대, 것도 받은 사람들 이야... 뭐, 주거문제는 해결 됐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일 거고. 우..우리 같이 못 받은 사람은 주거 문제가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러겠지. 뭐 아마 좀... 비슷한... 아마 다 상황이 그럴겁니다. 아마.

Q: 네... 아무튼, 뭐. 도움이... 저희는 저희는 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A: 예?

Q: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예,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아, 많이 주셔서 뭐가 문제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이 좀 된 거 같고...

A: 그래, 도움이 뭐 많이 됐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Q: 당장에 뭐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A: 아이, 그거야 뭐. 정부에서도 다 뭐 해결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개선이 되어 나가면 좋은 거지 뭐.

Q: 예... 우선 뭐, 피곤하실텐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텐데... (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A: 아이, 뭐 괜찮습니다.

Q: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되면 뭐 밤새도록 잠자면 되죠. (예, 감사드립니다) 딱히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Q: 감사합니다.

□ 수급자 05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근로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	40대	남	무직	간경화, 위암 등
부인(응답자본인)	35	여	판매직(마트)	
자	16	남	중학생	
자		남	초등학생	
자	5	남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갈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응답자의 남편이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집 앞 공원에서 조사가 진행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수행됨. 조사대상자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보충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의료급여 및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음. 조사를 통해 일하는 가구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Q: 지금 가족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A: 지금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애들 셋..

Q: 셋이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예요?

A: 이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 14살이구요.

Q: 와.. 결혼 되게 빨리 하셨나보다.. 되게 젊어보이시는데..

A: 작은애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구요 막둥이가 5살.

Q: 실례지만 결혼 언제 하셨어요?

A: 결혼이요.. 좀 빨리했어요.

Q: 지금 연세가?

A: 지금 34이요.

Q: 아 20살에 했구나.. 와 부럽습니다. 근데 통화로 남편분이 아프시다고..

A: 예...

Q: 많이 아프세요?

A: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어디 한군데가 안 좋은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처음에는 회사 직장생활하다가..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했는데.. 간염하고 당이 있다고 나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만성간염을 좀 지나서 이제 간경련이다 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검사를 계속 했는데... 위암도 발견이 됐고.. 지금은 이제 간 경련이 간암으로 진행중이라서.. 이제 아빠는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 이제 그때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전에는 이런 제도를 잘 몰랐는데 이쪽에 단지가 작다 보니까 주위에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알게 되고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해봐라 해서 그때 신청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혜택을 받게 됐죠..

Q: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A: 그때가 저희 막내가 태어났을 때거든요.

Q: 5년 전쯤..

A: 예.. 4년 조금 넘은..

Q: 그럼 한 2003.. 2002년 정도?

A: 2003년정도..

Q: 여긴 어떤 입주자격으로 들어오시게 된거예요?

A: 그때는 시어머니가 여기 살고 계셨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온거죠. 일반인들은 이제 못들어오는거죠.

Q: 예전에는 들어왔었는데.. 자제분이 그럼 성별이 어떻게 되요?

A: 다 남자예요.

Q: 그럼 생활은 크게 불편하진 않으시겠어요. 성별이 다를 경우는 힘들어하더라도요.

A: 아무래도 뭐 방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가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점은 못느끼는데..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평수가 작으니까 그런점에 있어서는 불편해하죠.

Q: 큰아이는 지내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A: 뭐 그렇지는 않아요 여자애들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거는.. 잘 못느끼니까.. 조금 이제 좁고 동생들이 있다보니까 그런점에 있어서는 짜증이 나고 그렇기는 한데 겉으로 크게 내색을 하는 애가 아니라..

Q: 그때 신청하러 가셨을 때 기억하세요?

A: 예.

Q: 어떠셨어요? 공무원 태도라든가..

A: 그때 조금.. 이제.. 그때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조금 무덤덤 하셨던거 같아요. 무덤덤하시고..

Q: 일 위주로..그냥,,

A: 예 그냥 뭐 '적어내세요 연간 소득 적어내세요' 사무적으로..그냥 이렇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실사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서류 위주 쪽으로 해가지고 되면 연락이 될거예요. 그런식으로.. 사무적이었던 거 같아요.

Q: 아 그럼 실제로 신청하고 나서 와서 보거나 그런게 없었네보내요.

A: 예. 그런거는 없었어요

Q: 신청하시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A: 조금 젊고 그러다보니까 챙피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그런거는 진짜 못사는 사람이나.. 그런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없으면 못살죠. 워낙에 저희는 병원비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그걸 그나마 혜택이라 해가지고 많이 받으니까 그나마 유지를 해나가는 거지, 그걸 일반인들처럼 내가 다 부담을 하면 솔직히 받는 돈도 생활하기가 솔직히 빠듯하거든요. 아빠 병원비는 2-3개월에 한번씩 돈 100씩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 동사무소에서는 주위에서.. 저는 가서 이야기 안했는데 주위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런거는 이제 워낙에 사무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세요. 일단 무조건 일을 하면 내 월급이 80만원을 받는데 혜택 100만원 받는다. 이러면 80만원 받으니까 80만원 빼고 20만원만 지급을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 하면 겁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애들도 셋이 있고, 남편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럴때마다 어디가서 뭐..돈을 쌓아놓고 사는게 아니니까 계속 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Q: 한달에 수입이 어느정도 되세요? 총 액으로 하면.. 정부지원금이랑 일하시는 거랑..

A: 총액으로 하면은..230에서 많이 나올 때는 250까지도..

Q: 그럼 거기에는 정부지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A: 지금 정부지원금이 저희가 받고 있는게 120..

Q: 120만원이요.. 그럼 나머지는..

A: 제가 버는거..

Q: 어떤 일 하시는데요?

A: 마트 나가면서.. 이제 뭐..알바.. 이런거.. 시식행사 하는거..

Q: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거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A: 근데 솔직히 알고는 있겠죠. 젊고 저기한테 집에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아는데..이제 서류적으로 끊는게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신거 같어요..

Q: 그럼 총 수익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병원비고(예,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떤게..

A: 그 다음으로는 식생활비가 많이 나가고.. 애들이.. 아낀다고 해도 많이 먹으니까..

Q: 남자아이들이라서..

A: 그렇죠..

Q: 한달에 얼마나 일하시는 거예요?

A: 한달에 고정도 벌려면 20일 가까이 일 해야 되요.

Q: 6시간씩 해서?

A: 아니 9시간씩.

Q: 9시간씩 해서 20일.. 아이는 어떻게 돌보세요? 막내는..

A: 막내는 학원에 다니다가 여름에 집이 조금 그래서 잠깐 친정에.. 주로 학원에 다니죠.. 아빠가 장시간을 못 보니까..

Q: 친정은 여기서 가까이 있으신가요?

A: 아뇨 지방에 있어요.

Q: 떨어져 있네요 막내가.. 친정에는 어머님 아버지 다 계세요?

A: 아니, 친정엄마만 계세요.

Q: 혼자 살고 계신가요?

A: 예..

Q: 할머니한테 좀 들 적적하시긴 하겠네요.

A: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힘들죠. 좋은 것도 좋은거고, 예쁜 것도 예쁜건데..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애들이..돌아다니고 하니까 쫓아다니려면 몸이 좀 힘드시겠죠.

Q: 원래 형제분들이 있으세요?

A: 예.

Q: 몇남매나 되세요?

A: 위로 오빠들이..

Q: 아.. 3남매.. 오빠분들하고 연락 주고받거나 하지 않으세요?

A: 잘 살면 그것도 좀 제가 찾아가고 하는데..이제 오빠들도 거의 자리잡고 있는 상태라 거의 기반이 비슷비슷하니까..뭐 솔직히 도움 청하고 그럴 입장은 못돼요.

Q: 시댁은.. 시댁은요?

A: 시댁은.. 시어머니는 원래 없으셨고, 원래 가진 게 없으셨고.. 누나분들이 있는데, 누나분들은 이제 뭐 사는건 잘하는데..솔직히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움 청하려는 자체가 좀..

Q: 이웃에 보면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A: 그렇죠. 여기는.. 대부분 여기는 연세있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

Q: 왕래가 좀 있으세요? 이웃분들이랑..

A: 아니 뭐.. 말은 하는데..거의.. 저도 나가고 하니까 거의 왕래는 안하고..

Q: 복지관은 좀 이용하세요? 아이들 가르치거나 이럴 때 / 도시락이라든가..

A: 전에는 공부방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아빠가 집에 있고 하니까 아빠가 별로 맘에 안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Q: 복지관 가는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A: 썩 그렇게 저기도 뭐 그렇게 솔직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저쪽에서 이제 아빠 수술하고 할 때 일을 못할 때 부업으로 저쪽에서 갖다 한적이 있으니까 눈으로 좀 보잖아요. 근데 봐준다는.. 저쪽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집에 있기가 뭐하니까 와서 시간을 때운다는 개념밖에는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같은 경우는 집에 부모가 안 계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런 제도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일단 집에 있으니까 밥같은게 조금 해결만 되면, 저기보다는 되려 집에 있는게 제 생각에는 나올거 같아요. 그때부터는 안보냈어요.

Q: 아이들.. 또래 친구들 사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세요?

A: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도 보면 새터민이라고 해가지고 탈북자 애들도 많고 그래요. 가서 눈으로 안 볼때는 이제 저도 계속 보냈는데.. 일단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자식도 나가면 누구를 욕하고 때리겠지만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저기는 가면..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힘있는 애들이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거 이제 내 입장에서 볼때는 내가 마지못해 내가 집을 비우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게 저희는 해결이 되니까 안보내고 싶더라고요.

Q: 아이도..안 가도 아무말 안해요?

A: 예(웃음)

Q: 학원같은데 보내시는 거예요? 큰애는?

A: 아노 지금 그냥.. 학교하고.. 솔직히 그런거 보내려면 저희가 여력이 좀 딸리죠.. 보통 뭐..학원 알아보면 보습학원 같은 데도, 중학교 정도면 교재비까지 해서 20만원 좀 넘게 들거든요. 단과반도 솔직히 뭐..일주일에 2번인가 3번가고.. 교재비까지 해갖고 18만원 정도 넘게 드는데는 영어학원 같은데는 28만원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고 가르키고 싶은데.. 밑에 동생들도 있고..일단은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좀 엄두가 안나요

Q: 속상하시겠어요. 중학생인데..

A: 그렇죠. 속이야 많이 상하죠 하는거 보면요..

Q: 아버님 수술 경과는 어떠세요?

A: 수술한거는 잘 됐는데,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Q: 금방 완치되고 이런거 아니시니까..

A: 위암같은건 수술이 잘 됐는데 위낙에 당뇨다 간이다.. 질병이 좀 많은 상태라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식을 받지 않으면 특별히 치료방법이 없으니까.. 관리를 잘 하는 거 밖에 없죠.

Q: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몸이..

A: 저희는 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보균자셨다 그러더라고요. 간염.. 저희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간염은 모계유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분들은 솔직히 지금처럼 주사를 맞거나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다 모유 수유를 했는데, 자식들이 다 검사를 했는데 다 보균자더라고요.(누나들도..?) 누나들은 아무래도 술같은걸 안하시니까 발병시기가 늦어졌는데, 아빠같은 경우는 술먹지, 담배하지, 직장생활하니까 발병시기가 빨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Q: 아버님 어떤 일 하셨어요?

A: 건축일했어요.

Q: 그러니까 많이 드실 수 밖에 없네요.. 건강하셨을 텐데..

A: 그때는 건강했죠.. 진짜..발병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줄 알았죠.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서 치료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많이 말랐죠.

Q: 몇 살차이 나세요? 남편분하고..

A: 나이 차이는 13살.

Q: 와.. (웃음) 너무 이쁜 분을 일찍 데려가셨네요. 결혼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A: 그냥 어떻게 빨리 했어요.

Q: 지금도 아가씨라고 하시겠어요. 밖에 나가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아이 셋

을 가진 엄마라고.. 그거 외에 관리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되시는 건가요? 관리비도 꽤 뭐 동절기에는..

A: 동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구요. 지금 이제 그런거는 뭐..개인주택에서도 살아봤는데 그게.. 큰 저기는 아닌데..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게..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병원비고, 둘째는 요즘 그..통신비 같은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애들이 크다보면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도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면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집 전화에다가 핸드폰이 식구별로 있으니까 그런 통신비 부분.. 좀 많이 부담스럽고 솔직히.. 월급의 10%정도.. 통신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Q: 지금 조건부 수급이신가요?

A: 조건부는 아니구요 일반수급..

Q: 아이가 어려서 그러신거예요? / 가구주가 몸이 안좋으셔서.. 자활사업 참여 하라고는 안하세요? 어머니한테는?

A: 작년에 한번 했는데.. 어떻게..용케 피했어요(웃음)..

Q: 좀 제외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신거예요?

A: 그런거는 안 통하죠. 무조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활사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못 별면.. 저희는 병원 치료비는 그나마 다 빚으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빚을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솔직히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뭐 담보거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 하는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활사업해라 뭐해라 그러면 저는 저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제가 자활사업을 해서 밖에서 못 별면 돈이 확 줄고.. 진짜.. 그야말로 받는 돈 병원비로 낸다 하면 관리비가 밀린다는가..진짜 뭐가 한대든가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실정을 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참작을 해주면 좋은데, 워낙에 서류적으로만 처리를 하시는 분이라.. 가끔 가서 좀 말하는 것도 꺼려지고.. 이제

자꾸 피하는거죠 눈을 피하는거죠. 저기 근처 갈때는 나는 안갈테니까 당신이
가 애들이 가.. 그런식으로 좀 많이 무서워요. 솔직히 왜 젊으신데 집에서만 놀
고 계세요 그럴까봐..

**Q: 실제로 나와본적이 한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편찮으시고 누워
있거나..**

A: 아뇨 그런적은 없었고 이제 진단서만 계속 요구를 하는거죠.

Q: 아..그래요? 전화도 안하세요?

A: 가끔 가다가 명절때 되면 쌀 나왔다..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전화는 해도, 뭐
실태조사나온다 공고 붙어 있는 건 봤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은 방문을 할
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한번도 안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유드리있게 인정적으로
참작을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오로지 원하는 거는 서류적인거. 서류적인것만
원하시니까.. 저희도 서류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편하기는 하죠 솔직히..

Q: 의료급여를 지금..받으시는 상황이잖아요. 2종 ..

A: 아니 1종..

**Q: 예. 일반 수급이시니까.. 의료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치료
받으시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A: 아뇨. 근데 그게..저희는 원래부터 받고 있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병원 입원하셔
가지고 병원비 내는 거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더라구요. 지금은 그렇게 암환자
들 10%해서 일반인들도 다 저희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솔직히 당뇨약이나 이
런거는 10%가 아니잖아요.

Q: 잘 몰라요 의료급여 쪽은...

A: 근데 저희가 이거 받기 전에, 아빠 아플 때 병원 다니면 6-7만원씩 쓰고 다녔거

든요. 근데 지금은..되려 차비가 더 들어가요 병원비는 생각을 안하고 차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있다가 의료급여를 받는 상태니까.. 저는 좀 많이 느껴요. 저게 없으면 저희는 진짜..

Q: 병원이 어디 멀리 있나봐요.

A: 예 간하고 위는 여의도로 가구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고.. 이제 당뇨는 인천 성모병원..

Q: 여의도까지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때 일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하루 종일은..

A: 예 그때는 못하는 거죠.

Q: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게 일급으로 받으시는거예요?

A: 예예..

Q: 그럼 그런 건 세금 붙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건가요? 일용직들도 왜 고용보험 받을 수 있고..그런 제도가..

A: 아뇨 저는 이제 그런 건 받으면 서류상으로 뜯다 그러더라구요. 저도 솔직히 그런거 안하고 어디 진짜 공장이면 공장 어디 딱 들어가서 취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서류적으로 떠서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깎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죠.

Q: 조마조마 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A: 아무래도 그렇죠 동사무소가 가깝고 저기하다보니까.. 또 주위에 눈들이 많잖아요. 주위의 눈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어디가세요? 맨날 나가시는거 같어요. 예 요즘 일이 많아요 이런식이고 솔직히 그 사람들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다 아는데... 서류적으로 낼거는 다 내니까 말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Q: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A: 일자리는 전에 일하던 분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이제 할인매장에 계시더라고요
그 분 통해서..

Q: 아는 분 통해서.. 그전에도 계속 일하셨나봐요?

A: 그 전에도 이제 일은 했죠.

Q: 어떤 일을 하셨어요?

A: 그전에도 특별히 기술이 있는게 아니니까 백화점에서 판매..

Q: 학교는 어디까지 마친 거예요?

A: 고등학교.

Q: 능력이 있으시네요.

A: 아니 근데 뭐..솔직히 인문계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특별히 기술이 없으니까
어디 경리로 취직하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거 밖에 없어요.

Q: 계속 맞벌이 하셨던 거예요?

A: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빠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말다 다니다말다 하니까.. 안나
갈때는 제가 나가서 잠깐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렇죠.

Q: 앞으로 뭘 하실 때도 계속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하셔야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A: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제 처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저도 어
쩔 때는 쉬고 싶어요. 일 안하고 싶은데... 제가 일손을 놔버리면.. 한달을 안 별
면 그마만큼 여유가 없어지고, 병원비 걱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진짜 가가지고 인정을 해주면 어느 정도.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뭐..100만원 받는데 80만원만 받으세요 하고 어디가서 제대로 취직을 하세요..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가서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죠.

Q: 다 깎이니까..

A: 예 제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깎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니까..인정을 못하죠. 그런 부분을 유드리있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나와서 이 가족은 생활비가 이마만큼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좀 유들있게 해주면 좋은데 전혀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되시고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하시려면 삭감들어가고 집에서 아예 쉬세요.. 그런 식이니까 가서 말을 못하죠 감히..

Q: 계속 그랬어요? 여기 살고 계신 이후로?

A: 그렇죠. 갈때마다 의료급여증이나...가끔 가다가 영구장애가 아니잖아요, 지금.. 1년에 한번씩 진단서가 들어가요.

Q: 1년에 한번이예요 진단서가?

A: 예.. 6개월에 한번씩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1년에 한번 요구했던 것 같아요. 자주는... 지금 의료급여 때문에 바뀌어서 지금 자주 떼다 내기는 하는데.. 그거 하는 거는 1년에 한번씩 냈던거 같은데.. 그것도 웃긴게 뭐냐면 영구장애가 아니면 계속 진단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솔직히 간 부분에 대해서는 완치가 없잖아요. 완치가 없는 거를 그 사람들도 뻔히 아는데.. 법이 그렇다는 이유 하나에 꼭 개월수가 들어가야 된대요. 개월수가 들어가야되는데, 의사선생님한테 진단서를 끊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할 때는 개월수가 꼭 고지가 되어 돼요. 그러면 '아니 이게 개월 수 고지한다고 해서 낮은 병이야?'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쑤를 하세요. 애네들 완전히 바보 아니야?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정이 필요한 거구요.

Q: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쓰세요?

A: 생활비는 조금.. 이제 8월달 같은 부분은 방학하고 그래서 많이 썼는데.. 관리비 하고 병원비 안 들어갈때는..저기 알뜰하게 쓰면.. 솔직히 저기(급여)에서 나오는 돈 120에 제가 버는 돈 (20만원 해서) 추가로 해서 쓰구요. 조금 이제 뭐..경조사 사 있어서 나간다 하면 더 나가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번다 하면 저 돈이 다 들어가죠 한 250정도..

Q: 돈이 그러면 부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충당하시는 방법..

A: 그걸 할 때는 솔직히 통장 잔고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만만한게 친정이라고,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형제들한테 손을 벌리죠. 오빠들이나 엄마 솔직히 줄때는 받으려는 생각을 안하죠. 아예 목돈이 아니니까.. 이제 그때마다 미안하기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식들이 커나가는데 아예 안 모으고 살수는 없잖아요. 적금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Q: 저축도 하고 계신가요

A: 저축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애들이 컸을때.. 무슨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불만인게 먹고만 살아라. 이돈 줄테니까 먹고만 살아라 너 일하면 이 돈 깎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노인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커서 대학을 간다고 치면은.. 대학 등록금이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꺼예요? 자기들이 보조해줄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가서 못사는 사람들 돈을 선뜻선뜻 돈 천만원씩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이 그런 거 같아요 못사는 사람들 돈 줄테니까 너네는 계속 먹고만 살고 잘살지 말고.. 그모양 그꼴로 살아라..이제 그런식인거 같아요. 통장에 만약에 잔고가 있으면 1년에 한번씩 계좌추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해주고.. 한번은 진짜 그런적이 있었어요. 동부화재에다 보험을 하나 들었었어요.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거예요. 와라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래요.

Q: 얼마짜리 보험 드셨는데요? 월 불입금이..?

A: 그때 종신보험이라 제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15만원 4천원인가 얼마짜리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아니 수급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보험은 어떻게 들었냐는 거야.. 할말이 없잖아요. '그거 든 거 문제가 되면 해제할게요' 그 소리 밖에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해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먹고 살기 빠듯해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이런거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런식이니깐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뭐하나 하기가 솔직히 겁나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은행에서 적금 10만원 하나 드는 것도 저희 가족 이름으로 된거는 다 개네들이 맘만 먹으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거 아니야 너네 먹고 살기 빠듯한데 적금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럴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부분 기분 나쁘고 자존심상하고 어이가 없고 그런 부분이죠..

Q: 지금 월 저축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A: 월 저축액은 많지는 않고, 20만원 정도.. 솔직히 그거 얼마 안되죠 1년 해봐야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되는 돈이죠.

Q: 자체분들 키우시는 데는 수급이 도움이 되나요? 이거 외에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A: 그런거는 이제 뭐.. 학교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Q: 교복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가 있던데.. 여긴 아니에요?

A: 야노 저는..

Q: 지역에 따라 다른가보다.. 서울같은 데는 교복비도 지원해주는 데도 있대요.

A: 장학금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장학금 제도가 있대요. 구청에서 해주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있고. 한번은 돈 욕심에 해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초등학교에서 떼어와라 해서 요기를 가서 떼어달라고 하니깐...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건 우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중학교 들어갈 때 배치고사 보잖아요. 그 성적을 내야 될 것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2번인가 3번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셨으니까 그랬겠죠. 했는데, 힘들게.. 힘들게 갖다 냈는데 안됐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또 날라온거예요. 이런 장학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더 신청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거 전에 했는데 안됐잖아.. 그거 잘못해가지고 또 날라왔나 보다 했다 전에 한거는 동사무소고 이걸 그거하고 별개인 구청이래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14살이면 어느 정도 솔직히 알거는 알잖아요.. 갔을 때 좀 친절하게 하고 했으면 애가 할텐데..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그리고 뭐 같은 거 지원을 할 때도 선생님 땀에는 배려라고 너네 다 눈감아 하고 손들어 그런식인데.. 그런식이라고해도 솔직히 눈감는 다고 해서 30-40명 되는 애들이 솔직히 다 눈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등록금이라든지 육성회비라든지 이거 20-30만원 정도 되면 자존심 감안하고 그냥 해! 그러겠는데, 지금은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 솔직히 그런 건 많이 없거든요. 그런 혜택 받는거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가 하기 싫음 하지만 엄마 버는 데 뭐 그거 하나 못해주겠어 7-8만원 하나 못해주겠어'. 애가 자존심 상해하니까 솔직히 그런것도 힘들죠. 크니까.. 그래서 보면 정책쪽으로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안 되어있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도가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면 구체적으로 브리핑이라도 해서 설명이 잘 되면 괜찮은데.. 막상 뭐가 있어서 가가지고 물어봐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었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일 다시 오면 안될까? 저쪽에 가가지고 알아보면 안될까?' 미루는 식이니까 저희도 어쩔 때는 짜증나서 하기 싫어요.

Q: 혹시 직업 훈련같은거 받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기술 배우시는 거..

A: 한번 받았어요.

Q: 어떠셨어요?

A: 제과 제빵 배워서 받았는데,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선택을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잘못 선택 했던게, 결혼을 안하고 나이가 어렸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빵 만드는데 일반 제과점에 취직을 하려니까, 빵이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출근 시간이 45시예요.

Q: 새벽이요?

A: 예. 일단은 그때부터 반죽을 쳐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구워서 내놓으면 그게 8-9시니까.. 그렇게 해야되는데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쪽에서 요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크라운 베이커리 이렇게 본사 와가지고 굽기만 하는 빵집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를 취직을 하려고 알아 봤는데, 기혼 여성은 안 받아요.(그래요? 금방 그만둘까봐?) 그만두고 그런데는 본사에 가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2달, 3달 굽는 거를 배워야 되네요. 몇 도에서 우리는 어떤 색깔이 나와 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기혼여성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정에서 인정을 많이 안한다 이거지. 솔직히 그 사람들도 귀찮잖아요. 와서 일주 있다가 이 주 있다가 남편이 안된대요, 뭐가 안된대요, 저 그냥 갈래요. 그런 식이니까 아예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취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아서 아예 포기를 했죠.

Q: 그동안의 경험에서 좀 좌절을 겪으셨나 봐요 그런식으로.. / 직업 훈련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A: 그때도 마트에 나가면서 빵집 그때는 시간제 6시간 하트타임 알바를 했는데.

Q: 일을 2가지 하신 거네요.

A: 예 빵집에 나갔는데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알아보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아봤는데,(굉장히 적극적이시다) 그런 제도가 있다 해서 제과 제빵 해당이 되냐 그랬더니 학원 전화번호를 그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배웠죠.

Q: 제빵사시잖아요.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자격증이 / 그런 여건들만 되시면 일하시면 좋을 텐데..

A: 좋은데.. 솔직히 들어가도

Q: (소득이)잡히고..

A: 예. 걱정이 되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Q: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라고 제도에서 많이 이야기가 돼서요. 2008년도부터는 아까 다 깎이는데 아니고 조금만 깎이고 이런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긴다고는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 근데 그것도 솔직히 지금처럼 서류적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실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그것도 저는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면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회사로 자꾸 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고용주도 고용주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럴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진보고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Q: 소득 신고 하실 때는 이거 밖에 안 버냐고 하지 않던가요?

A: 좀 그렇기는 했죠. 남자고 대졸인데 이거밖에 안되냐고.. 그래도 운이 안 따라줘서 큰 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고 거의 막노동식.. 좀 유드리있게 거짓말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보니까 솔직히 이거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때는 일반 수급이 된게 아니고 그땐 조건부였죠.

Q: 처음에 신청할 때는..

A: 예 처음에 신청할 때는 회사를 다니는 상태였으니까 별이가 있었으니까..

Q: 그때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이신거네요?

A: 그러니까 아프기는 한데.. 일을 나가는 하는데..그때는 내가 버는 돈으로 다 충당을 해야되니까..저는 이제 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2종이었는데 20얼마가 나왔던 거 같아요. 돈은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찍으니 돈이 들어와 있는거야.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같이 나간대요. 이제 그러면서 1년 정도 그렇게 받다가 아빠 수술하고 회사 그만두고 진단서 갖다 내고 하니까 1종으로 바뀌 주셨죠..

Q: 정부 지원받는거 가족분들이 아세요? 친정이나 시댁..

A: 친정은 제가 이야기해서 알구요. 시댁은 아직 모르죠..

Q: 친정분들 보기가..

A: 조금.. 뭐..그런거는 없어요. 엄마는 빛 안지고 살면 되는 거지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딘데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식이죠.. 그런데 시댁은 조금 그래요 아무래도.. 아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초에 결혼해서도 자주 왕래가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조금 많이 꺼려지죠.

Q: 정부지원 계속 받고 싶으세요?

A: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제가 버는 게 180정도만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안 받고 싶어요. 의료비적 인것도, 지금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차피 뭐지 그거? 암환자 10%가.. 병원비는 솔직히 일반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는 안가요. 10%혜택을 저희는 받기 때문에 .. 그런 부분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솔직히 많이 상하고.. 어디가서 떳떳하게 일도 못하니까.. 안받고 싶죠.

Q: 그럼 혹시 하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A: 지금은 특별히 하고 싶다가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죠. 일용직이 아니라.. 그냥 어떨 때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 보면 병원 입원을 해서 이제 항암치료 간색정술(?) 하는 날에는 하고 나서는 못 움직이니까 소변같은 것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그거를 솔직히 남잔데 솔직히 누나가 있

다고 해서 누나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일을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쉰다는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일이 떨어지는거야... 재는 맨날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 재는 쓰면 피곤해. 그런 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간병인 아주머니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 되고..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또 내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에요. 와서 못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직장생활하면서..유드러지게.. 누구처럼 월차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나도 월차 내고 하루 쉬고 싶고 주말에도 쉬고 싶고 좀 그렇죠. 애들하고 주말에 쉬면서 어디 가고 싶고.. 쉬고 싶고..계으름도 피우고 싶죠. 그런데 유통일이라는게 가다보면 주말에 바쁜 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못 쉬어요 평일에 어쩌다 한 두번씩 쉬는 거고 주말에는 못 쉬니까.. 조금 많이 힘들죠. 일하는데 있어서.. 물론 제가 배운게 없어서 그런일 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Q: 제과제빵일을 하면 어느 정도 버나요? 취직하게 되면..

A: 초봉이.. 파리 바게트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20정도 가능해요. 처음나가서..

Q: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면?..

A: 거기에서 많이는 안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직급이 특별히 있어서 저기하는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봐야 뭐...10-20만원이고 많이는 안 올라가요..

Q: 친구분들이나 뭐 이렇게 만날 여유가 없으시겠어요.

A: 예. 거의 못 만나죠.

Q: 답답하시거나 그러실 때 주변에서 이야기 나눌 분들도..

A: 한 두분 정도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어렸을 적 친구들하고 이야기 하기는 좀 많이 꺼리구요. 여기 와가지고 복지관.. 그 때 부업갔다 하면서 아시는 분들 있거든요. 한 2-3분. 처지가 거의 비슷하시니까.. 그분들 하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Q: 앞으로 혹시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이다.

A: 지금 당장 걱정은, 이제 들킬까봐 걱정이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들킬까봐 걱정이고. 애들이 크니까 조금 엄마 아빠가 못 버니까.. 많이 뒷받침을 못해주시니까.. 부모 원망할까봐, 비뚤어질까봐 그런게 걱정이예요. 당장의 걱정은 그래요 차후에 누구처럼 미래를 설계한다거나 솔직히 그런 여유는 없어요.

Q: 희망이 혹시 있으시다면?

A: 희망이 있다면 조금 여유있게 살고 싶은게 희망이죠. 아빠는 완치를 바란다는건 기적이니까.. 조금 그나마 애들이 어리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애들이 어느정도 커줄때까지만 집에서 저렇게 있어주면서.. 조금 이제 내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거죠. 솔직히 아빠가 너무 아파서 몸져 누우면 저희집은 막말로 개판이거든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나마 아빠가 저렇게 집에 있어주면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이라도 챙겨주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거지, 안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몸이 고되고 마음이 고되니까.. 지금 솔직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몸만 고되거든요. 심적으로 안힘든거는 아닌데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나 그런 걱정은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빠가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옆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그러면 좋죠.

Q: 대단하세요.. 아픈 남편 이렇게 돌보시고..애들도 셋이나..

A: 대단한 게 아니고.. 닥치면 다 해요. 닥치면 다 해요..

Q: 애들 학교는 가까이 있나봐요?

A: 예 초등학교 작은 애는 여기 다니고 큰 애는 진산 중학교 걸어서 10분 거리.. 어떻게 얘기 한 게 도움이 많이..?

Q: 그럼요 솔직하게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수급자 06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3년부터 총_4_년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35	여	단란주점 주방일	
아들	9	남	초등학교 3학년	ADHD(주의력결핍)
아들	7	남	초등학교 1학년	구순열, ADHD(과잉행동)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p>
<p>응답자가 가정방문을 원하지 않아 부평 시내의 커피숍에서 면접을 진행함 / 전세 3500만원의 주택이라고 함.</p>

- 조사평가

<p>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p>
<p>양육에 대한 부담을 친척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월 생활비로 50만원, 교육비로 50만원이 지출되며 기타 잡비 까지 포함하면 소득 초과로 보임.</p>

Q: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A: 집에서요? 마을버스 타고 오면 한 30분 걸려요.

Q: 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A: 예.

Q: 아이는 몇 살?

A: 10살, 8살

Q: 두명이예요?

A: 예, 아들만 둘이예요.

Q: 남자아이는 키우기 힘들다고 하던데

A: 무식해져야한다던데...

Q: 결혼전에 여성스러운 사람도 남자아이 두명 키우다보면 거칠어진다던데..

A: 장난아니예요~ 본성이 드러나요.

Q: 어때요? 아이들 공부는 잘해요?

A: 저같은 경우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걱정이고 작은아이는 작은아이대로 걱정이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는거니깐

Q: 큰아이는 어떤점이 걱정이예요?

A: 10살짜리 큰애는,, ADHD 약을 먹고 있어요. 둘다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2년 3년 됐는데... 큰애는 주위력결핍장애고, 작은애는 과잉행동장애... 종류가 틀려요. 큰애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엄마 말들어보면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개 걱정이 되는거예요. 자기 책가방도 못챙기고 어제

도 다 챙겼다고 해서 봤더니 시간표를 보면서 챙기는데 엄한 도덕이 들어가 있고,, 물건 다 잊어버리고 ..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약을 먹어서 그런지 .. 개는 그런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작은애 같은 경우는 구순열(언챙이)로 태어났어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이번에 6월달에 수술했거든요. 그때 대개 걱정이 많았어요.

Q: 수술 받을 때 의료보호 1종이셨어요?

A: 2종이요.

Q: 나라의 도움 있으셨어요?

A: 그런거 전혀 없었어요.

Q: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A: 성형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한번만 보험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의료비 혜택이 없어요. 1종이든 2종이든.. 성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6월달 수술의 부담이 있어서 여파가 아직도 있는거죠.

Q: 그렇게 지출이 많으면 어디 도움을 받으시나요?

A: 전 도움을 주고 살아야합니다. 주위여건상.. 도움을 받을 땐 없어요. 그때도 6월달에 수술했는데 그나마 크게 다른사람처럼 심하게 수술한게 아니라서 그래도 의료혜택이 안돼서 4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거..

Q: 저축해둔 돈을 사용하신 건가요?

A: 저축못하고 살죠. 카드로.. 빚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빚이 생긴거잖아요. 머리 나빠서 카드 돌려막기 못하는데.. 그러고는 큰 용자는 없는데..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은 제가 4년 됐는데 큰애가 6살, 4살 이때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거예요. 직업도 밤에 일나가고.. 여기서는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솔직히 살수가 없었어요. 한달에 80만원이상 벌면 지원

되는 금액이 없잖아요.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면 받을게 없다고 하잖아요. 80만원까지도 어떻게 살어 ~ 그래가지고 참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부분이 켈 힘든거 같아요. 제도상 그런거..

Q: 혹시 지금 소득이 80만원이 넘으셔서 도움을 받고 계신게 없으신가요?

A: 아니요. 10만원 받아요.

Q: 생계비면목으로요 ?

A: 예. 또 뭐받나? 보호2종 되어있고, 학교에서 애들 급식비 면제받고..

Q: 가끔씩 쌀 같은거 받으시나요?

A: 쌀 두 번 받아봤어요. 10KG짜리 두 번

Q: 수급받으신지 4년정도 되신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신건가요?

A: 그렇게 된거 같아요. 주위에서 신청해라~ 모자가정 신청해라 그러더라구요. 동사무소 가서 하려고 했더니 모자가정 하지말고 이걸 해라 해서 하게 된거예요.

Q: 주위 어떤 분들 통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

A: 친구,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 애가 가르켜줘서 알게 됐어요. 이사 올 때 재산이 있으면 안되고 어찌고 ...

Q: 어떻게 혼자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이혼사유를 말씀하시는거예요 ? 잠시만요...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문자중) 이혼을 하게된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야하지? 얘기하면 1시간인데.. 마음도 안맞고, 사고방식이 전혀 틀리고 그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이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외도까지 있어서...

Q: 지금은 전혀 도움을 안주시나요? 아이들 교육비 같은거..

A: 한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Q: 연락도 안하시나요? 가끔씩이라도..

A: 연락은 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사람이 회사도.. 찢리는거 반.. 남자들 이혼하고 나면 대개 성실하고 그랬었는데 평가가 안되서 그랬는지 찢리고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자리를 못잡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보태줘야죠.

Q: 어머니 밤에 직장에 가시니깐 아이들 방과후에는 어머니께서 돌보시나요?

A: 지금은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그전에는 대개 많이 힘들었..그래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애들이 하도 번잡스러워서 엄마가 안봐주려고 해서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엄마가 쳐다도 안보셔가지고 대개 많이 힘들었는데.. 막내 동생이 지금 저 때문에 회사를 못다니고 있어요. 아직 미스라서.. 그래서 제가 10만원씩 용돈을 줘요. 좀봐줘라.. 재가 개인생 각아 먹는 느낌이 들죠? 개도 몸도 안좋고 해서.. 동생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어요. 예전에 동생이 싫다고 나간 적이 있는데 쇼를 했죠. 밤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냐 그러면 엄마 공판장이야.. 나와서 슈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아저씨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학교 입학시켰을 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이들을 혼자서 돌볼 수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깐 맨날 길에 돌아다니고 밖에 나와있고 슈퍼아저씨들 먹는거 얻어먹고 있고..

Q: 집을 나가서 안들어온 적도 있나요?

A: 아뇨, 그런적은 없죠, 애들이 아직 어린데.. 그냥 엄마 기다리느라고 경비실에서 나가서 앉아 있고..

Q: 저도 어릴적에 그런적 있어요.. 엄마 기다린다고 밖에 나와있고 그래서 길도 잃어버려서 경찰서 까지 갔어요

A: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일 안다니면 안돼? 그리고.. 눈물로 살았죠. 제가 동생이 많아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개도 같이 살아요.

원래 거제도에 사는데 제부만 혼자 떨귀놓고 저랑 같이 산지 1년 됐어요.

Q: 집에 몇 명 살고 있는건가요?

A: 동생 애까지 해서 7명이서 살고 있어요.

Q: 집이 비좁지 않으세요? 넓으신가요..?

A: 전세 그 돈가지고 어떻게 큰집에 샅니까? 21평인가 그래요. 전세 3500 인데 운 좋게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 재개발 들어와요. 그래서 몇 년 밖에 못살아요.. 삼산동.. 이번에 재건축들어와서 심난해요. 수입은 일정한데 집값은 오르고 3500 만원 가지고 이사를 가려면 몇 년후에는 갈때가 없는거예요. 지금도 걱정이 그 건거죠.

Q: 아이들이 ADHD면,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되셨나요? 그게 6개월 이상이 되면 혜택이 되는데.. 정신 질환은 혜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 혜택이 되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혜택이 되는데. 아니요 검사하고 하는 건 혜택이 안되는데 판단된 후로부터 되요. 가면 3천원정도 내요. 다른사람은 만원 정도 내는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힘들고 그런건..

Q: 심리치료는 안받으세요?

A: 처음에,, 처음에만.. 큰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골때리게 그려 놓은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애 심리가 어떻게 저떻고 혼자서 막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대개 좀 이상하게.. (그림설명->) 엄마 이 나무는 .. 여기 도화지가 있잖아요.. 그림 가운데 다가 나무를 이따 많이 그려놓고 가지를 막 얹히고 얹히게 이렇게... 사과한개 나뭇잎한개 나이테는 혹시 그렸나요? 나이테는 안그리고 나무에 상처난것처럼 막 이렇게.. 이게 머야 그랬더니 나무에 보면 꺾이기 벗겨진거 있잖아요.. 엄마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미가 지가 던져준 음식 메고 가고 잠자리 한 마리를 그려놨는데 이따마시하게 눈은 새카맣게 이쪽에 잠자리 한 마리가 또

있는데 애랑 애랑 술래잡기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지금 꼭꼭 숨어있는 거라고.. 꽃이 있는데 잎파리가 없는거예요 이거 왜 잎파리가 없어 그랬더니 엄마 이거 꽃 아니야 네잎클로버야 그러더라고요....

Q: 수입 중에서 어느 쪽에 지출이 많이 나가세요?

A: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반반씩 내고 있어요.

Q: 동생분도 따라 소득활동을 하시는건가요?

A: 아니죠. 그냥 아이들을 길러주는거죠..

Q: 아까 동생 두분 계신다고..

A: 막내는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이..

(음악이 시끄러워서.. 그 사이에 면접자가 실습 때 ADHD아이에 대해 설명..)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ADHD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Q: 정신과 약에는 약간 그런 성분이 있어요~ 오래먹으면 안되거든요 오래먹으면 만성이 되가지고..

A.그래서 고민했어요. 끊어야되나 말아야되나.. 너무 오래먹은거 같아서..

Q: 한 3~4년 먹었으면..

A: 아니 2~3년..

Q: 2~3년 먹었으면 오래된거죠.. 될 수 있으면 사회적응훈련이나 복지관에서 하는거 하면서 약을 줄여가시는게.. 근데 아시다시피 비싸잖아요.. 이제 많이 부담이 되죠

A: 그런거 있는 줄도 몰랐네..

Q: 병원에서 그런거 안알려주나요?

A: 아뇨 그냥 약만 먹어보라고..

Q: 어떤 병원다니세요? 개인병원?

A: 네.. 계산동 아시죠? 거기 개인병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Q: 거기 사회복지사가 없나봐요?

A: 심리치료사도 있고 놀이치료사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저희 아들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선생님은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답답해요.

Q: 분담해서 내는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신 건가요?

A: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학원을 보낼 돈이 없지. 집에 50만원 내놓고 남자아이들이라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정말 식비로 많이 들어가요.

Q: 동생 자제분도 남자아이인가요?

A: 저는 남자아이 둘. 동생은 남자아이하나 아기 하나.. 그렇게 있고 그 집 식구들은 잘 안먹어요. 우리 집 식구가 많이 먹죠. 제가 하루 먹을 양을 한끼에 다 먹으니깐.. 너무 많으니깐..

Q: 수급 신청하러 직접 가신 건가요?

A: 예.

Q: 수급 신청하러 가셨을 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공무원들 태도나 면접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셨어요? 근무하신 그 자리에서 면접하신거예요?

A: 동사무소에 가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있는 테이블에서 면접하고, 다 말씀드리면.. 저는 삼선동 동사무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불친절해서 진

짜 성질나서 한번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Q: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태도가 불친절하는데..

A: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나..? 인상 팍 쓰고.. 정말 거지가 동냥 온 것도 아니고 요즘엔 안가놓으니깐.. 1년에 한번 가니깐 갈때 마다 그런걸 아니간 안부딛칠려고 그냥 내고 오고 하는게 다니깐.. 크게 그런건 없어요.

Q: 서류신청하실 때 잘 설명해주었나요?

A: 잘 생각안나는데 그렇게 했으니깐 했겠죠.

Q: 수급신청하시고 확정 받으실 때 까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직원분들이 방문하고 하는건..

A: 가정방문을 따로 안했고,, 그대신에.. 아 그랬다.. 제가 이혼을 했으면 시택과 상관없이 없잖아요. 근데 시택에 재산이 있으면 안된대요. 이혼해서 재산분할까지 다 했는데 시택에 재산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시택에 재산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친정에도 재산 있으면 안된대요. 근데 친정에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깐... 그것도 안된다 그러고 뭐도 안된다 그러고.. 그게 좀 제일 이상하더라구요.

Q: 그 후에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찾아가 물어본 적 있으세요?

A: 아뇨. 전혀 없어요.

Q: 전혀 없으세요 4년동안? 필요함이 있으실 걸 같은데 ...

A: 필요는 하는데.. 수술할 때,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고, 단체에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Q: 알아보주시거나 연계해주시지는 않고 직접 알아보라고 했나요?

A: 예, 직접 알아보라고 하고. 안되는 이유가 수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안되는거
래요.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안되실거라고..

Q: 근처 복지관에는 도움 안받으세요?

A: 아뇨. 한번도 그건 어딴지도 모르는데.. 안찾아가봤어요. 복지관 뭐하는지도
몰라요~

Q: 종교생활 하시나요?

A: 얼마 전부터 아이들 때문에 성당 다니기 시작했어요.

**Q: 지금은 아이들 키우시면서 자매 분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시겠어요? 성
당 도움은...**

A: 그렇죠, 제가 아직 믿음이 없다보니깐... 그냥 아이들 때문에 예쁘게 자라라고
보내는건데 크게 도움은..

Q: 수급자가 되기 전이랑 되고 나서의 어머니 기분이랑 달라진 것이 있나요?

A: 참엔 안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집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싹 다
정리하고 돈 얼마가지고 나와서 수급자 신청한다는게 용납이 안되는거예요. 나
자신도 용납이 안되고.. 괜히 그런느낌 있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오니깐 신청을 하고나서 느꼈던게 뭐냐면요~ 학교
에서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항상 선생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해야해요. 얘기
를 안하면 선생님 모르시니깐..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걸 모르니깐..학년이 바
뀔 때마다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깐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
는거 자세히는 존심상해서 못하고.. 안해도 다 해주시더라.. 소풍같은거 갈 때
돈 안받고 가고.. 반에서 한두명..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찍히는거예요. 선생님
들이 보는 시각도 틀려지더라구요. 우리 규석이 2학년 때 육십 넘으신 할머니
였는데 ADHD도 있고 가정환경도 이러다보니깐.. 그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괜
히 신청에서 애들 편견 받는 건 아닌가.. 지금은 그런거 없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시범학교라고 해서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 저희처럼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순위로 해서 다녔었는데 이걸 그냥 제가 하는 소리지만 그 때 '세상피플속'으로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생님을 찍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천사같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 규석이 처음엔 어둡고 어찌고 저저꼬~ 그랬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아주 활기차졌네.. 뭐 이런식으로 동의도 없이.. 첨엔 동인천 방송에 나온 줄 알았는데 공중파에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친구가 전화와서 규석이 티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 건의를 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그런식으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다니는 애들.. 하루에 간식 500원으로 뭘 먹으라고.. 하여튼 그런식..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Q: 방과후 교실 다니면서 애들이 변하는 것 같으세요?

A: 지금은 안다니죠. 제가 안보내 버려서.. 그 후로 좀 다니다가 선생님과 한바탕 아닌 한바탕을 해서..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편이라서 참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동생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서 그렇게 자꾸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못해서 참았는데 제 동생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Q: 얘기하셔야지요.. 참으시면 안되지요..

A: 선생님 애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좋게 좋게 얘기를 했죠. 교장선생님도 와서 왜그러시냐고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누가 될까봐 그냥 거기서 끝내고 방과후 안보내고..

Q: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시나봐요

A: 저는 화를 잘 안내는 편이거든요. 유일하게 애들한테 화내요.

Q: 남자아이들이니까..

A: 그런게 마음 아팠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런생활 하는게 힘든게.. 애들 학원을

못보내니깐.. 제 동생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이번 달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Q: 어떤 학원인가요?

A: 보습학원. 애들 3학년인데 알파벳도 모르고 해서 학원선생님은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저희 사정을 모르시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학원을 안보내는 사람이 있냐고.. 웃으면서 하시는 거죠.. 저희 자존심 상하니깐 일부러 안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보냈어요. 안보내면 너무 늦는 거 같아서. 그러니깐 이제 더 힘들죠

Q: 학원비는 한달에 어느정도 드세요?

A: 두 아이 합해서 50만원.

Q: 학원이 50만원이요?

A: 태권도를 하나 보내요. 친구가 없어요. 애들이 다 학원가니깐 나갔다가도 그냥 들어오고 해서 친구들 다 태권도학원 가니깐 보내달라고 해서.. DC DC 해가지고..

Q: 생활비 50만원 내고 학원비 50만원..그것만 해도 100만원이잖아요..

A: 그렇죠. 동생이 좀 보태주기도 하고 솔직히 여기를 다니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제 .. 요즘 월급 80만원 받는 사람이 어딴어요? 솔직히 올리는거 다 가라잖아요. 우리 같은 여자들 일해봤자 100만원이예요 .12시간 벌어야 100만원이예요. 올리는 것도 약간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 몇십만원 안받으면 더 들어가는게 얼마나 많은데..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정책이 도대체 도대체 살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이런생각이 들어요. 제부가 안도와주면 학원도 못보내요. 한마디로 보낼때가 없는거예요 밤에도 니들끼리 있어라 이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예전에는 쓰리잡 했죠. 안그러면 살수가 없어요.

Q: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주방 설거지 아르바이트 시급 4천원. 요즘도 하죠. 시간 날 때마다 해줘라 해줘라 해서, 밑에 동생이랑 살기 전에, 토요일은 아르바이트 잠깐하고. 운 좋게 연결 되어서 청소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 바가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녹즙배달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설거지하고.. 파출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리잡을 했었어요. 아니면 살수가 없으니깐. 지금은 몸이 아파서 그렇게 못하고.. 9월 10월 많이 아파가지고.. 큰병원을 갔더니 보호2종을 바로 줄 수가 없대요.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어서 갖다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상해서 신경외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갔죠. 병원가는게 겁나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깐.. 그때 많이 아지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아픈데가 없으니깐. 몸도 안좋고 하는데 몸으로 하는 일을 했으니깐 그때 많이 울었죠.

Q: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A: 일안했죠. 미스때요? 미스때는 일했죠.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제가 도로공사에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하다가..

Q: 지금까지 하셨으면 돈 많이 벌었을텐데..

A: 그때 고민을 많이했죠. 도로공사 본사로 들어가느냐 결혼하느냐 고민을 막 하다가.. 결혼을 택했죠. 안택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Q: 결혼 후에는 일 안하셨어요?

A: 안했죠. 여자들이 제일 겁나는게 그거예요. 제가 고졸이니깐 특별한 전공이 없으니깐 애만 키우고 집에만 있다가... 여자들 이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딱 그거예요.

Q: 나중에라도 아이들 크고 여유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A: 지금도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어서..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집 팔아서 할 수도 없고. 여성.. 창업.. 이런데 많이 쫓아다녀봤어요. 지원을 어떻게해주고.. 들뜬 마음

으로 가서 들어보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요.

Q: 조건이 까다롭죠?

A: 진짜 그런 정책들이 자기네들이 내 놓은거지 현실적으로 되는게 없어요.

Q: 내라는 프로포절 같은게.. 하시기 힘들시다고 하더라구요..

A: 그런건 들췌치고 자금이 안돼요.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면 가능한 자금이 아니예요 몇 번 알아보다가 포기했어요. 제일 힘든게 그거예요. 길이 안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지..하고 사업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게 많은데.. 길이 딱 막힌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것들이..

Q: 지금 하고 계신일은 적성에 맞으세요?

A: 안맞죠. 저는.. 음식하고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차라리 앉아서 연구하려고 하면 하겠지. 설거지하고 이런거 안좋아해요. 그런데 가면 찢려요 비실비실 거러 가지고. 제 동생이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일하고 있는거지 아니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식당 취직도 못해요. 진짜 막말로 공장 다녀야 되요. 그럴수밖에 없어요.

Q: 아이들이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못하고 계시죠?

A: 엄두를 못내죠.

Q: 나라에서 개별급여를 지원한다면 어떤 부분의 급여가 확대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주거비면 주거비..

A: 다 늘렸으면 좋겠죠. 80만원이라는 선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말되는 거고. 요즘엔 공장을 다녀도 80만원 받는데.. 그럼 그런사람들은 주거비안준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나이 어리고 이러면 어린이집 보조비 이런 것도 없죠. 혜택이 하나도 없는거나 똑같아요. 그죠? 이런거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초등

학생이니까 별로 받을 게 없어요. 중고등학생은 등록비같은게 있나요?

Q: 중학생은 면제고, 고등학생도 등록금 면제고 교재비 같은 지원..

A: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드는 돈이 제일 문제인데 8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정해놓고 그걸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정해놓은게 좀 그렇구요. 수급비 같은 경우도 처음엔 30만원 안되게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것도 양심에 찢려서 돈을 좀 높게 적었더니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양심적으로 살면 안되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보면 알거 아니예요..80만원 받는 사람이 어딴 거 그래서 했더니..

Q: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으세요?

A: 받고싶죠. 당연히.. 안받으면 그만큼을 내가 더 벌어야하는데

Q: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수급을 받으시는게..

A: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게 일을 해도 그거니깐 그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Q: 수급받는게 권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권리 ? 그렇게 깊이 생각 안해봤는데..

Q: 내가 받아야하는걸 받아야 하는 걸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황이 좋아지면 안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A: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안받죠.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요. 여유만 되면 안받고 싶어요.

Q: 아이들이 수급받는 걸 알고 있나요?

A: 말안하죠. 자존심 상할까봐. 학교에서도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 예뻐서 신경써줘서 해주는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수급받아서 그렇다고 얘기 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당해봐서 알아요. 평생 가슴에 응어리가 지거든요. 웬만하면 안할거예요.

Q: 어머니도 어렸을 적에 수급을 받으셨나요?

A: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땐 아버지가 갑자기 다치시면서 가정이 기울고 없이 살면서 학교에서 잠바하나 준다는거 그런거.. 이런식을 얘기하는건데 그런게 가슴에 응어리가 많이 남거든요. 얘기 안하고 싶고, 여유만 되면 안받고 싶고, 솔직히 수급액 10만원이랑 소풍비 그 정도 밖에 안나오니깐 그거 안받고 애들 상처주고 싶지 않죠. 지금은 그거라도 아쉬우니깐.. 애들 식비 그래도 둘이 합치면 수급비 10만원 받고 애들 식비 둘이 합쳐서 14만원정도 되는거 같아요. 두달이 7만원 8만원 되요. 두달에 한번씩 내거든요. 아~ 중요한게 의료비. 그 세가지. 그러니깐 받고싶죠. 의료비 혜택 받으면 약국에서 500원 내더라구요. 첨엔 쟁피해서 못갔어요. 남들이 왜 500원 내냐 할까봐 약국 앞에서 어물정 거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옆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자존심 안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오백원내서 좋겠다~ 우리는 사천원 내야 하는데.. 그래요.

Q: 앞으로 걱정되시는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A: 두 가지 있어요. 집 이사 갈 때. 애들 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Q: 부양의무자기준이란 것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생각해보셨어요? 아이가 18세 이상 되면 수급이 중단되시는 다른 어머니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가 돈을 벌어서 나를 부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A: 아.. 그 얘기 들어본거 같다.. 18세면 고등학생이잖아요

Q: 아뇨 고등학교 졸업생이죠. 애가 정말 똑똑해서 대학도 다니고 돈도 벌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A: 아.. 앞으로는 더하죠 저같은 경우는...

Q: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적 없나요?

A: 조금있죠 조금.. 거기까진.. 애들이 아직 어리니깐..

Q: 어머니 미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하셨나요?

A: 못하죠.. (동생 등장)

Q: 어디가셔야 하나봐요?

A: 신사역에 면접보러..

Q: 열심히 일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A: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어떻게.. 현실이 안되죠.

Q: 나라에서 도움 받는 걸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A: 친정알고 친구들?? 알고.. 그런 걸 일부러 얘기하거나 하지 않고.. 친정식구들은 당연히 알고..

Q: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A: 6~7만원정도..

Q: 난방비는 같이 나오나요?

A: 따로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따로 13~14만원 나오죠.

□ 수급자 07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노인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생활보호제도부터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68	남	무직, 경제활동 ×	지체장애6급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삼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12평정도. 작은방 1, 큰방 겸 거실, 화장실, 작은 부엌. 아파트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음. 동사무소와는 10분 정도 거리. 허리를 다쳐(장애판정받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나 화장실에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전반적으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조사 대상자의 급여가 삭감된 이유 및 민원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양의무자 소득조사기간에 딸과 사위의 소득이 잡혀, 해당 분을 자녀로부터 받기로 하고, 수급자의 통장에서 감한 것임. 그러나 딸이나 사위로부터 부양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가 20만원 삭감된 채로 3,4개월정도 생활하게 됨.

(조사자들이 앉기도 전에 통장부터 꺼내면서 살펴봐달라고 하소연했음. 조사 의뢰시 전화통화에서도 본인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음)

A: 딸네집서 20만원을 나 주기로 했거든요?

Q: 어르신 지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다른 가족분들은 안계시구요?

A: 예 혼자 살아요. 거기 보시겠소? 거기 보시면 11월달부터 20만원씩 잘라졌을거요.

Q: 그게 왜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씀 안하셨어요?

A: 동사무소직원이 딸하고 사위하고 줌 번다 그래서 20만원 잘랐는데, 딸도 안 보태주고... 10만원씩 몇 번 넣어놨나 봐요 그놈 갖고 해나갈라니..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해나갈 수 없어요. 관리비 하고 휴대폰값, 전화세, 뭐.. 스카이라이프값 저거하고 남은 놈 아무것도.. 지난달에 5만원 찾아가지고 생활했어요. 같은 친구한테 빌려다 쓰지요. 관리비같은 거는 자동이체를 해놔서 통장에서 다 빼버리면 그것이 연체될거 아니요 같은 놈한테 빌려서 해야되잖아요. 지금 생활하기가 몇 개월간 옹삭하게 됐는지 몰라요.

Q: 그럼 이거 가지고 가서 공무원 만나 보셨어요?

A: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했는데, 5월달부터 가서 이야기 했는데 여태까지 감감 소식이 없어요. 8월달에 나올랑가 8월달에 안나올랑가 몰라요. 지금 이번에는 한 30만원 나왔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노인 수당, 장애 수당 해가지고 버스비까지 합 해가지고 한 30만원 나왔거든요 20만원 나오고 10만원 가지고 생활해 나가겠어요? 그전에는 10만원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함 봐봐요. 지난달에 5만원 찾아가고 모자라가지고 판사람들한테 꾸다 썼어요. 왜그러냐면 관리비같은 건 나갈 돈이 있으니까 꺼내서 못쓰거든요.

Q: 따님이 아예 돈을 안주세요?

A: 안주니까 지금.. 작년 세달에 한번 왔다 가고 석달 초다셋날.. 음력으로 .. 초다셋날 내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때문에 왔다가고 설에도 안오고 3월달에 10만원 넣어놨지요 3월달에.. 그 뒤로는 일체 끊어 버렸어요 정영선이라고.. 3월달에 10만원 들어오고 그 뒤로 계속 안들어와버렸으니 어떻게 생활해 나가겠어요. 그전에도 중간중간 빼먹고 얼마 안들어왔어요 들어오기도.. 한 30,40만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20만원 짤라붙고, 30,40만원 들어 온걸로 11월달부터 여태까지 해 나가니 남은 돈달라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꺾간 돈 주라고 하지요 나보고.. 이달부터 나오면 준다, 새달부터 나오면 준다, 5월달부터 밀려온 것이 지금까지 밀려왔다구요 근데 7월달 까지 안 나왔으니 8월달까지 안 나오면 증말 나는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Q: 지금 일반 수급이시죠 어르신? 일반 수급인데 14만원 내세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A: 전부 다한 것이 한 20만원 돈 나가요

Q: 지금 스카이라이프도 나가시나 봐요..

A: 예.. 그것도 나가요

Q: 그건 어떻게 해서 달게 되셨어요? 스카이 라이프는?

A: 내가 밤에 잠을 못자니까.. 일반 테레비는 12시쯤 넘으면 끊어지니까.. 내가 밤에 잠을 못자니까 그 당시에는 몇 모르고... 여유 있으니까 다만 한 만원이라도 안먹고... 정말 스카이라이프를 안하는데 저거 한 것이 후회가 들어요. 뜯어가라면 한 20만원 달라그래요 지금 뜯어가지도 못하고 12월말까지 하는 거면 지금 3년을 냈거든요 그럼 케이블 값은 다 나간 것이고 이제 끊어버리려고..

Q: 늘 이렇게 어둡게 하고 계세요 어르신?

A: 어둡죠 뭐

Q: 눈 침침하지 않으세요?

A: 그대로 항시 생활을 해 나가니까

Q: 요즘에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A: 그냥 국물에다가 젓갈 한가지씩 해서 먹어요

Q: 혹시 복지관이나 이런데 도움 못받고 계세요?

A: 복지관에.. 작년에 그래도 밥이 간간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밥 두 번인가 세 번 오고... 빵은 그래도 1주나 2주 넘어서 한번 씩 와요

Q: 그럼 그걸로 그냥 끼니 떼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A: 끼니 떼우고 그러고 밥 한그릇도 (***) 안하고 먹지요 조금씩.. 하루 두끼밖에 안먹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활동을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반찬이 있어야 밥도 맛있게 먹어질 것이고, 쌀도 좋아야 하는데, 그 정부미.. 그거 두달만에 20 키로 한포대씩 주는데 그거도 지금 보면 2만원씩 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때, 아침 한 9시반에서 10시 사이에 밥먹고 저녁밥은 늦게 먹고 앉아있죠.. 그대신 그전에 먹던 술도 끊어 불고 돈이 적으니 먹을 거 다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싶으면 못 먹고..

Q: 어르신 정부지원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A: 정부지원 오래전부터 받았지요

Q: 여기 들어오시면서?

A: 여기 오기 전부터 받았지요

Q: 어디서요?

A: 부평 5동서 받았어요.

Q: 아.. 거기 사시다가 여긴 몇 년도에 오셨어요?

A: 지금... 금년 11월 달이면 4년 되요.

Q: 아.. 얼마 안되셨구나..

A: 저기 저저 부평 5동갔다가 4동으로 갔거든요? 부평 병원 뒤에서.. 거기서 여기로 왔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수급자 들이 많지 않으니깐 그것이.. 가만 알고 보니까 자치단체 아니요.. 자치에서 걸어서.. 거기서는 지금 말하면 20키로 짜리든 뭐든(쌀) 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여기오니까 수급자들이 너무 많으니깐 돌아오는 것이(내 앞으로) 별로 없어요. 여기 뭐, 필리핀 사람들, 이북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사람들 선착순이네 또..

Q: 어르신들을 먼저 안하시구요?

A: 우리가 먼저 한게 아니라 이북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어디 사람들...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자치에서 조금씩 받고 정부에서 조금 나온다 하지만 여기 수급자들이 많으니깐 좀 나온다 하지만은 돌리다 떨어지면 설 명절이고 뭐고 떨어지면 없어요.

Q: 지난 번에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물어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A: 오지도 않았고 5월달부터 내가 가서 싸움을 몇 번 했어요. 왜그러냐면 내가 5월달부터 신청을 다시 했거든 딸네 집에서 3월달까지밖에 안 주고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곧 해준다 그래.. 6월달 가니까 아직 서류가 안 넘어가서 그런다구.. 저거 맘대로는 못한다고... 6월달에 또.. 이달에도 안 준다 이말이야.. 요즘 컴퓨터 시대 아니요 컴퓨터로 딱딱하면 전부 다 연락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앞전에 가서 7월달에.. 돈 나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7월달은 안된대 또. 또 8월달로 미룬거야 몇 개월을 넘거요.. 5월달부터 5월,6월, 7월, 8월 4개월을 넘긴거 아니요.

Q: 자제분은 따님밖에 없으세요?

A: 딸 둘인데 하나는 부끄러운 말로, 카든가 뭔가 써가지고 본남자하고 이혼하고 애기도 떼어버리고 어디로 가부렀나 모르고..

Q: 연락이 안되세요?

A: 연락이 안되고..

큰딸은 지금 연수동 가 있는데 내 생일 때 한번 빠죽 와가지고 그것도 전화해서 오라그래서 아빠 생일이라 그랬는데 지가 그때 와서 아직까지 얼굴도 안 비쳐..

Q: 따님도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가요?

A: 그러니까 봤잖아요(통장을). 3월달에.. 작년 11월달부터 짤랐거든요. 20만원을.. 20만원 짤라버리면 생활해 나갈 수가 없어.. 왜그러냐면 차도 있지.. 그 대신 걸음을 못 걸으니까 병원에 다닐 때는 차로 다녀야 되거든.. 인자, 차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차타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다닐 수 있는데는) 편하니까.. 쪼그만 다마스가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장남이라... 그래서 아버지 산소도 베풀어야지, 아버지 기제사도 모셔야지... 그러니까 생계비 나오는 거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내가 단 만원이라도 수중에 있으면 먹고 싶은거 못먹고 만원씩이라도 보태줬다가 기제사때 쓰고 아버지 산소 갈 때 술 한병이라도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또 산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목포에가.. 거기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어디서 한푼이라도 나오고 누가 보태주는 사람이(자식이) 있으면 이번에는 니가 좀 보태줘서 내려가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안된다 이말이요.

Q: 형제분들도..

A: 내가 독신이요 독신.. 독신에다 장남. 그러니까 힘들지요. 원래 독신이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동영에.. 내밑에 동생들.. 또 하나 있는 거는 미국 가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진 셈이지요. 내가... 종일 드러누어서 하루 종일이고.. 나와서

바람도 쐬고.. 걸음을 또 잘 못걸으니까 뺏히고.. 동사무소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 가서.. 도우미 아줌마들.. 좀 뺏히면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감감무소식이야.. 뭐 말하면 말을 안 먹어줘요..

Q: 복지관에 가보셨어요?

A: 복지관에 작년에.. 두 번인가 세 번 오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던 작년에 또... 근디 여기만 이렇게 문대고(마루와 주방쪽만 닦았다는 뜻) 갈라픈은... 그란디 복지관에서 와서 뺏히면 내가 반찬이 없어서 걸음을 잘 못걸으니까 심부름도 좀 갖다 오고 뭐 해야 되는데 오면, 뭐.. 담배냄새가 나네, 뺏이 어졌네 트집만 잡아요 오면.. 내가 현재 나이는 74이예요. 호적상으로 39년 생이지만은 74인데, 젊은여자들이 와서 잔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나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신청 안했어요.

Q: 어디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A: 그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났을 때 12주가 나왔었어요. 허리를.. 여기.. 뼈도 나가버리고.. 인대도 늘어나 버리고.. 그 뒤로는 일을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Q: 다리도 그래서 안 좋으신거예요?

A: 예 다리도 그래서 안 좋고 좀 걸으면 허리부터 통증이 와가지고 주저 앉을 거 같고 간혈도 있고 혈압이 높아요 혈압약을 하루에 6알 먹어요. 하루만 안 먹으면 180, 190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혈압약을 많이 타가지고 먹죠..

Q: 병원은 자주 가세요?

A: 14일 만에 한번씩 가요.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가주세요. 왜그러냐면 14일치를 주니까. 한달꺼를 안 끊어주고 14일치를 끊으니까 한달에 두 번은 가줘야지요

Q: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가 바뀌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그거가지고는 이야기

못들어보셨어요?

A: 그거 하루 병원비가 1천원이고 약타는 게 500원이고 하는 거아니요.

Q: 자기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게 생겨서.. 좀 부담되지겠어요.. 어르신 1종이죠?

A: 1종이죠.. 1종이고

Q: 병원 이용하실 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던가요?

A: 뭔소리여..

Q: 이제 의료급여가 좀 바뀌었으니까 병원 이용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 못들어보셨어요?

A: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내가 안 돌아다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어떻게 변한거요?

Q: 여기 엘리베이터 옆에도 붙어있던데 어르신 못보셨어요?

A: 내가 요 솔직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내 나이에.. 일본놈 시대 때 내가 낫았거든요. 그 당시 일본이름으로 하라고해서... 내 이름을 안 쓰려고 학교를 안 다녔고. 10살인가 11살 먹어선가, 3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까막눈이나 똑같지 뭐.

Q: 쓸 줄은 아세요? 잘 못쓰세요?

A: 쓰는 것도 잘 못쓰고..

Q: 어르신 그럼 젊으셨을 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A: 젊었을 때는 배 기관장을 했었지..

Q: 와.. 선장님이셨구나..

A: 기관장이 그거하는 거고 선장은 또 따로 있지. 기관장도 갑종있고 병종있고 급수로 나가거든.. 나 병종 기관사 자격증 있지.. 군대가서는 차 검차했었지 정비... 차 내보내고 들어오는거 검차하고.. 근데 기름밥 먹기 싫어서 군대에서 면허 잡았었는데, 없애버리고, 다시 81년도부터 다시 면허잡았지.

Q: 그 뒤로 또 운전하셨어요?

A: 그 뒤로 계속 운전했죠. 81년 겨울부터..

Q: 운전이 제일 오래하신 일이세요?

A: 응 왜그러냐면.. 지금 다마스 있다고 했잖아 내 자가용 몰고 어디가서 세워놓고 일 볼일보고그라지. 어디 마음대로 못 걸어다니니까 차를 마음대로 못없애졌어요. .

Q: 유지비는 어떻게 하세요? 차 유지비..

A: 개스니까.. 얼마 안들어.. 개스니까 .. 요즘 버스비 올랐잖아요 가면 700원 그 다음 1000원 그러는데 그 돈 다주면 다 가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게 내 시간 맞춰서 자가용하고 다니는 것인데.. 버스비 나오는 거 갖고 버스 타고 다니면.. 웬간가면 2000원 들잖아요? 아니면 1400원 들고.. 1400원 가지고 나는 갔다와요, 어지간한데.. 개스비가 얼마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니지요. 차를 없애지도 못하고

Q: 어르신 그럼 사고당한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지신 거예요?

A: 81년도 그 때.. 매미 다 물러갈 때(늦여름) 사고 당했는데 그 당시 12주 나왔었거든 12주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앞으로 운전 할 상황이고 운전면허는 주행만 안뺐지 다 뺐거든. 그 사람 차에 치였는데 그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그때 150만원 받고 합의를 봐줬지. 아무것도 없고 부모형제간도 없고 어쩐다 그래서.. 그 당시 12주 나왔으니 바로 입건되어버리지 운전수가.. 내가 합의를 봐줘서 나왔었지.. 나도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모르고.. 나도 앞으로 운전할

사람인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해왔고, 편의를 봐줬는데...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매일 나왔어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안 받아놔서 그 면허증만 있었으면 조금 더 나올 텐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시설 대금이다 이래서 1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나왔을거요. 보험회사에서.. 그랑께 모두 한 250만원 해가지고 그 당시 차도 할부로 해가지고 1톤 차 할부로 해가지고 10년 끝다가 그 차 버리고 다마스를 하나 샀지.

Q: 사고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신 건 아니시네요?

A: 사고 때문에 손 다치고 뭐 그렇게 되고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못하지..

Q: 정부지원 받기 시작하실 때 기억나세요? 언제 처음 받았는지..

A: 나도.. 내가 생활보호대상자 받은 뒤로 받았을 거예요. 부평 5동에 있을 때.. 부평 5동에 한 10년 살았으니까.. 한 10년 될거예요. 부평 5동 살 때 6,7만원 밖에 안나왔어요 왜그러냐하면, 집이 전세였거든. 전세라 반찬값정도 밖에 안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딸네들 여의고(시집보내고) 빚이 많아서, 전세를 빼가지고 부평 4동으로 가가지고 300에 11만원씩 주고 월세를 살았어. 그래가지고 인자, 요리(지금 사는 곳으로) 넘어왔었지.

Q: 빚은 어떻게 하다 지게 되셨어요?

A: 아무래도 딸 여의라다 보니까...

Q: 아.. 시집보내시려고 다 그렇게 빚지셨구나.

A: 애들 지가 벌어가지고 가면 좋지만, 아무것도 없이 아이고 나 애기 가졌으니 곁 혼시켜 주쇼... 이라니 어떻게 할꺼.. 예식비는 못대줘도 음식비라도 대줘야지.

Q: 할머니는..

A: 한 30년도 넘어..

Q: 그럼 혼자서 따님을 다 키우신 거예요?

A: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애들 고아원 보내볼고 장가가서 거기서 애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됐지 않겠냐 이말이지.. 그런 맘도 먹어진다 이 말이지...

Q: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A: 막내가 3살 때부터니까 지금 막내가 35인가 그럴거예요. 30년 좀 넘었지 뭐..

Q: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A: 응. 병으로... 그 때만 해도 암이니 뭐도 모르고 병원도 뺏기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지..

Q: 보증금 월세 사시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A: 부평 4동서 300걸고 한달에 11만원씩 내고 그러고 살다가 여기들어왔지. 왜그러냐면 여유돈이 없는 것이 여기 200갓다 줘야 들어오거든요. 보증금 걸죠. 또 거기서 이삿짐 옮기고 여기와서 장판도 내가 깔고 싱크대도 내가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바닥나 버렸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유돈이 없으니까 내가 더 미치겠고, 내가 인자... 이야기 할 사람도 없거든요. 여기 통장이라고 해봤자 내가 있어도 우리집방에 한번도 안 들어와 4년동안.. 이번에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반장이다 뭐다...

Q: 어르신은 통반장이 누군진 아시구요?

A: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Q: 반상회 안나가 보셨어요?

A: 들으나 안들으나 피곤해.. 백 날 그말이 그말이요.

Q: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익혀두면 통반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A: 통장이 한 10년 해먹었다던데.. 그러고 이번에 그만뒀어요. 새로 뽑는다고 하던

데...

Q: 어르신이 한번 해보세요

A: 어휴.. 일자무식이.. 사람이 배운게 있어야 어디.. 말 주변도 있어야 통장도 하고 그러지.

Q: 어르신 그럼 돈 들어오는 거 주로 드시고 이런데 쓰시겠네요.

A: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빚이 많아요

Q: 얼마나 되세요?

A: 한 70만원 넘어요

Q: 다 이 주변에서 빌리신 거예요?

A: 예 왜그러냐면, 지금 통장 봤지요? 통장 보면 그 놈 들어오면...

Q: 다 빠져나가던데...(관리비, 스카이라이프비 모두 자동이체로 해두었음)

A: 다 빠져나가면 뭐 갖고 먹어요.. 지난달에 .. 통장 봤지만은 5만원 찾아가지고 5만원 갖고 생활해 나가려니까 쌀은 있다지만은 반찬도 없지... 나 담배는 피우지. 정부에다가 내가 담배까지 대달란 말은 않치만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여유돈이.. 피던 담배 이제서 끊을 수 있어요? 젊어서부터 피던 담배를.. 술은 끊었지만은. 내가 9살 먹어서 아버지 죽고 12살부터 객지 생활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활했어.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빌린 것이 80만원.. 지금 이돈도 갚으려면 몇 개월.. 20만원 찾았던거.. 20만원 받게 해준다고 한거 한 1년 넘어야 지금 빚도 갚게 생겼어.... 거기서 좀 여유있으면 한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먼저 빌린데 먼저 주고 늦게 빌린데 좀 늦게 주고 좀 차분하게 주고 해서 갚아야 하잖소. 사람이 그래도 욕은 안얻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입고 벗은 것은 헐벗고 헐입어도, 남한테 욕은 안 얻어먹어야되요.

Q: 주변에 혹시 속상한 맘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A: 뭐 알아준다기 보담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 조금씩 이해는 하나까.. 한 두군데서 빌렸으면 좀 참으라 하겠는데 여러 군데서 빌려놓으니까 참 힘들어요 나도..

Q: 밖에 나가시도 좀 그러시겠어요..

A: 그러죠. 나가면 또 그 사람 얼굴 대하기도 그렇고.

Q: 아이고.. 이게 참 빨리 해결이 되어 되는데...

Q: 20만원 깎이기 전에는 생활이 괜찮으셨어요?

A: 생활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좀 빠듯했죠.

Q: 빠듯해도 지금보다는..

A: 지금은 빚 안졌소? 그때는 빚은 안지고 그래도... 술 먹고 싶으면 소주 한잔씩이라도 먹고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단돈 1000원이고, 한 5000원이면 돌아가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때는 한 5000원씩 한 3000원씩 여유가 돌아가니까 그 놈 모아놨다 아버지 기제사 모시고 전라도 산소 뵈러 가면 차 타고.. 누가 태워주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지. 나도 여유는 없어요 그런 데 쓰니까.. 1년을 못해봤던 기제사 모시고 나면 기제사 한번 모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도 돈 10만원 드니까... 몇가지것 못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없어요 항상...

Q: 올해는 속상하시겠어요

A: 어휴.. 나 죽어도 오지 말라고 (딸들한테)유언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번에 한번 이 맘을 먹었어요. 사유서 써놓고 나 자살해 버리려고... 오죽하면 그 맘이 들겠어요? 텔레비에서 딸네들 키울때 키워봐도, 남만도 못허고... 정부에서 돈 잘라버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거요?

Q: 교회나 이런 데서는 도움 못받으세요?

A: 교회는 취미 없어요.

Q: 담배 많이 피우세요?

A: 그전에는 많이 피웠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갑정도 피워요. 그전엔 하루 한갑도 넘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담배 사려면 돈 들어가면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신용 팔아먹고 뭐하면 동정이 가지만 담배사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그럴거 아니요 내 자신이 허락을 안해요. 담배도 무지하게 절약하고 있어요, 담배도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Q: 속도 안 좋지 않으세요?

A: 속은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척추가 아프고 혈압이 높고 관절이..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Q: 허리 때문에 장애 판정 받으신거예요?

A: 허리 때문에도 장애 판정받고. 장애6급이에요. 여기(목부분)가 좀 아파요. 왜그러냐면 그전에 여기가 일하다가 뒗해갖고. 목뼈가 두개나 나갔을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한 8개월 있을 때는 머리에서 여.. 거시기로 여기까지 기브스했거든.. 고개도 못돌리고 여기로.. 해가지고 나아서 뒗했는데 나이먹으니까. 그전에는 고개돌리려고 하면 깜박깜박 한참씩 주물러야 되요 여기도 진단 받으면 나오긴 나오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진단받아서 3급이나 4급 되면 뭐하겠냐 하고 지금 안 받아요.

Q: 어르신 긴급생계비라고 들어보셨어요?

A: 긴급생계비라고 못 들어봤어.

Q: 수급받는 분들 중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만약에 뭐 쪽방에 살았는데 방에 불이 났다거나 당장 갈데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럼 긴급생계비지

원을 할 수가 있대요. 가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다는데 나도 그거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A: 내가 그 복지관 누구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Q: 복지관이요? 동사무소요?

A: 그.. 동사무실.. 그이하고.. 왜그러냐면 내가 사실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금방된 다 금방된다. 내가 내 맘대로 해줄 수 있냐, 그럼 자기가 못하면은 대부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일체...

Q: 사회과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해줄 수 있는 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어쨌든 급여조정이 될 때까지는 당장에 계속 빚만 쌓인 상황이지않아요

A: 내가 그랬지 이 달 생활비는 20일날 되면 언제 나오니까.. 이제 관리비고 뭐고 나갈 건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3달까지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늦어도. 여태도 참았는데 그 시간을 못참아서 우는 애기 젖 달라 그러면 엄마가 젖이 나와야 주지.. 젖도 안나오는 데 젖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이요.

Q: 또 가보세요.

A: 한번 가봐서 내일이라도 한번 가봐서 물어볼게요.

Q: 이게 꼭 되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대요.

A: 여기도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살고 수급자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일반인이 왜 일반인으로 들어가냐면, 그전에는 수급자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크고 직장들어가면 일반인으로 되고 그러는 건데 나는 일반인 될 일도 없는 것이고...

Q: 어르신 무료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계속 안에서만 지내시면?

A: 좀 힘들지요

Q: 누가 좀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A: 남자가 되어와서... 여자들 같으면 여자들끼리 다니는데 남자라서 여기선 사람이 없어... 노인정으로 갔지요, 그란디 여자들하고 왔다갔다 하면 저 영감하고 좋아한다 하고.. 여기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Q: 말이 많아요?

A: 무지하게 많아요. 그랑게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왜그러냐면 생계비 나올 때도 그런거를 밝혀야돼. 생계비 나오면 다 술로 다 조자불고... 좀 착실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데. 그런 걸 밝혀야돼

Q: 아.. 수급받는 사람들 중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 말 씌하시는 거죠

A: 그렇지 생계비 나오면 생계비 나온 놈으로 술어 불고.. 정부에서 그 쪼개서 또 쪼개서 해준거를 갖다가, 술먹으락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요. 생활이 웅삭해서 가정에 보태쓰라고 준것이지 술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옛 그저께 돈 나왔을 때 밤에 술먹고 죽은 사람 몇 되요. 여기서.. 혼해..그 사람들 몇이 죽어분께 조용하지만은 항시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잤어요.

Q: 여기 혹시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차이가 좀 나나요? 관리비나..

A: 관리비가 차이 있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Q: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한 4만원 정도 선에서..

Q: 꽤 많이 나네요.. 급여 조정이 빨리 되야겠네요

A: 다음달에 뭣한다 하니까 내일 모레도 사회복지과에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안해준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해서 나올 거 같으면 싸움 하겠는디 싸움 한다고 해서 그 일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니 다음 달 까지

참아봐야지요.

Q: 공무원이 여기 오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거나 전화한건 몇 번 정도 되던가요?

A: 뭐..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전화.. 엇그제 동사무소.. 20일전인가서 얘기한번 했거든요. 이달엔 안나온다고 하길래 못했는데... 공단에서 전화한번 왔더라구요. 전화한번 왔더라구요.

Q: 무슨일로 전화했던가요?

A: 어떻게 된거냐고.. 다음에 자세히... 그렇게 지금말하면 사유서인가를 써줬는가봐 (딸이). 얼마얼마 써줘서 깎인게 ..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그리 넘어갔는 가봐요. 거기서 인제 전화가 왔더라구요 내일모레 또 전화한다 했지만 전화 안왔어 며칠 됐어

Q: 계속 전화 옆에만 계시겠네요 그럼

A: 그렇게 밖에 어디 안가고 여기 가만히 있지요..

Q: 핸드폰 요금 얼마나 나오세요?

A: 핸드폰 요금은 한 돈만원밖에 안나와요

Q: 할인 받으시죠 그것도?

A: 할인 받고 전화를 안 쓰잖아. 전화도 많이 쓰지 전화도 할인 받으니까 핸드폰도 꺼냈잖아요. 핸드폰 이제 누가 온다고 하거나.. 내 핸드폰에 입력이 되었거든. 인자 내친척들, 동생들, 고모들, 이모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적지 못하니 깨 깜빡 잊어버릴 때 그 놈으로 찾아서 전화하고.

Q: 그분들하고는 종종 만나세요?

A: 강원도 동생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동생이 바로 손 밑에 동생이었거든요 동

생이었는데 아버지 제사때는 꼭 찾아와서 챙기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죽어분께, 누구 올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Q: 보고싶으시겠어요.

A: 기둥이 분해된거 같지.. 큰 기둥이.. 동생이 내가 말만 하면 어디든 같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Q: 연락이 아예 두절되신 거예요? 미국 가신 뒤로는?

A: 그렇께 나하고 삼남매지. 내밀으로 하나 어렸을 때 죽고 강원도 동생 죽고, 미국에 동생있고.

Q: 아예 연락이 안되세요? 미국 가신 동생은요?

A: 연락은 못하고 한 서너달에 한번씩 연락은 오죠.. 연락은 와도... 누가 나 동생이 해주는 것도 싫고 지금과 같이 20만원 급여로만 다시 복구해서 나와도 어디서 딸한테 뜯어서 나오든.. 딸하고도 의절해버렸어 이제.. 나 죽어도 오지 말라고 했어. 나 죽어도. 나 보증금 찾아놓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화장할 거야.

Q: 어르신 돌아가시면 따님이오시죠

A: 내가 죽어서도, (딸이 오면) 죽었던 놈이 다시 일어서서 뭐라고 할거야. 지를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내가 9살 먹어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30안팎 됐잖아요. 우리 삼남매 낳아놓고 저 미국간 놈이 유복자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젊으니까 판테로 걸어갔다 이말이요 판테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영감 자식있고 우리가 있을 거 아니요. 그렇께 이자식 내자식 싸운 바람에 그놈에 질려서 내가 장가를 안간거요. 자식은 두집 자식은 안 나아쓰겠다.

Q: 할머니 돌아가시구요? 그래서 다시 결혼 안하셨다구요?

A: 예 자식들 양쪽 집이 있으면 니새끼가 잘하나 내새끼가 잘하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란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원통하다고...

Q: 어르신 되게 꾀꾀하세요

A: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9살 먹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 먹어서 객지에 나가서 지금까지 객지니까 얼마나 객지생활을 오래 했겠어요? 6.25사변때도 혼자 죽네사네 하고 떠돌아 다니고..

Q: 동생분들 다 데리구요?

A: 동생들은 엄마가 그 때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데리고 갔고.

Q: 혼자 다 돈벌이를 하신거네요 그러면..

A: 혼자 그냥 녀의 집도 살다, 소도 뜯겨주고... 고상도 원없이 했소. 내가...

Q: 지금 바라시는 건 그거 해결되는 거..

A: 그렇죠. 제일로 바라는 것이 20만원 거기서 짤랐으니까 20만원 그거 복구만 해 준다 해도 나 더 이상 정부한테 뭐라 않겠어요. 왜그러냐면 쓰고 싶은거 다쓰고 먹고 싶은거 다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냐 이거예요. 500원씩 50원씩 쪼개서 못타가지고 쓸 때 써야지. 정부탓만 할 필요 없어요. 먹을거 다먹고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요.

Q: 지금 이거 부족한 돈 메워보려고 일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A: 일을 못한다니까 10분만 서있으면 허리서부터 통증이 와서 다리가 구부러지니까...

Q: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건 가능하세요? 그럼?

A: 앉아있는 것도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있잖아(두꺼운 요를 바닥에 깔아놓고 있었음) 높이.. 왜그러냐면 살이 빠지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허리가 뻐하니까 가끔 드러눕고 앉았다 드러누었다 그러지 뭐. 오래지탱 못하니까

동사무소 가서 도우미 아줌마 그것 좀 요구했어도 그것도 뭐 대꾸도 안 되고... 우선 첫째 문제가 20만원 짤랐던거 그놈만 조금 해줬으면 싶어요. 빚을 지금 한 달 받아도 갚지 못하지만 쪼개고 쪼개서 해가면서 그래도 남한테 욕은 안먹어야 할거 아니요. 그사람들도 푼푼이 준돈 아니요. 형편이 딱하고.. 지금 요것도(장농 문이 다 내려앉아 있었음) 다 부서졌어요. 이것도 이사오면서 갈아야 할텐데 돈 이 있어야 갈지 이거..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 방에다 이거 들여놓으면 쓰것다 싶어서 갖고 왔던 것인데 이거 막대기로 해놨잖아요. 이걸 버리고 올텐데.. 이것도 없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해놨지. 다 부서졌어.. 엉망이야.

Q: 거기서 살때랑 여기서 살때랑 어디가 더 좋으세요? 부평에 살 때랑..

A: 부평 4동에 살때가 좀 낫았지. 여기는 이웃집서 누가 죽어도 모르겠고. 그래도 부평 4동서 살때는 나가면 문이 전부 열렸잖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데 여기오니까 아주 새장에 갇힌거 같아 답답해

Q: 다시 이사 가고 싶으시겠어요

A: 가면 지금은.. 뭐 돈 가진 게 있어야 가죠...

Q: 그쪽에 사실 댐 어떤 집이었어요?

A: 조그만 다세대주택인데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지하실이니까... 돈이 또 있어야 어지간한데 가는데 내 몸뚱이 하나라서 동에 가서 이야기 했거든. 나 지하실에서 사는 데 몸도 아프고 동에서 물어보니까 순번이 있는 것이니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빨리 온편이에요.

Q: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A: 부평 5동서부터 신청하니까 혼자서 안된다고 하더라고 부평 4동서부터 한 2년 만에 되었어. 그러니까 두식구나 세식구 되어야 선착순이 되는데 난 혼자 살으니까 그게 얼른 안 되더라구요.

Q: 어르신 그래도 뭐 필요하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이런데 잘 이야기 하시는 편이신가요?

A: 어디 잘 안 돌아다니는데 잔뜩 힘들어도 차라도 끌고 가서 어거지를 써야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 수협에도(아파트 단지에서 10여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었음)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걸어갔다 오기가 잦다오려면 몇 번씩 쉬어야 돼요.

Q: 수협 길 건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A: 거기요.

Q: 그러니까 여기서 생계비 나온다고 해도 20일날 나온다 해도 21일이나 22일날 한가할 때 차 그 앞에 대 놓고 타 갖고 오고 그러지

Q: 걸을 때 그러면 왜 바퀴달려가지고 미는 거 있잖아요?

A: 애유... 아직까지 그정도는 안돼.

Q: 그래도 허리가 불편하신데

A: 허리가 불편해도 지팡이라도 짚고 가는게 낫지 끌고 가는 게 낫겠어요?

Q: 나중에 혹시 그거 사시게 되면 보장구도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A: 지금 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 없애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쇠하면서 열쇠기계가 있거든요.

Q: 아.. 열쇠도 하셨어요?

A: 컴퓨터 기계 그런거.. 일반기계 그런거.. 그러니까 다 했었어요. 빨래 건조대, 양면기 뭐 할 것 없이 다 했는데... 이렇게 앉아버리니까..

Q: 아 부평동에서 이 일도 하셨어요?

A: 부평 5동에서 하다가 부평 4동에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안했지요 부평 4동에 와서도 몇 개월은 했어요. 이거(열쇠수리) 한다고 하니까 10만원정도 까니까... 그 때까지 그래도 했었는데. 정 아프니까 안했지요 이제 손떼어버렸지요 내 사정을 누가 알아.. 나 어지간해서는 남한테 신세 지려고 안 해요. 내 능력대로 해먹어가지고 살려고 하지 내가 생활력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Q: 그럼 지금 만들던데 전부 다마스 안에 있는 거예요?

A: 예 부속이고 뭐고 기계 전부 거기 있으니까 차만 팔아버리려면 팔아버리지 기계를 갖다가 어디다 놓을거요? 그 기계도 일이십만원짜리 아니고 돈 백짜린 넘는데... 이거 열쇠하는 사람한테 팔아볼면은 조그만거 차 그런거 하나 빼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되겠는데 안돼.. 그래도 다마스는 깨끗하게 썼으니까 그놈 하고 부속하고 전부해서 뺏하면 조그만거 뺏은 하나 살거 아니야 이말이야. 그래서 그거 한건데 그게 안되니까 그러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남한테 신세 지려고 안해요. 내 손에 기술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사정 안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내가 젊은 아가씨들한테 어찌고 저찌고 사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Q: 정부 지원 받는 거 어르신 맘이 편안하지 않으시겠네요?

A: 맘이 편치 않고 차라도 있으니까... 내가 살면 몇 년이나 살겠소...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1,2년... 알잖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노인들도 물어보면 알아 이거하면 많이 살면 2-3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내가 감이 온다고. 다마스 저놈이 있응께 끝다 끝다 못끝면 폐차시키더라도... 보험도 조금 들어가요. 여태 무사고라 보험이 1년에 30만원 들어갈까... 보험이 가장 적게 들어가지.. 그 이상 줄일 수도 없고 뺏도 할 수 없다 하니까.. 내 차로는 사고 안나 봤으니까.. 그렇께 어디 다니는 것만 해도.. 평택이라던지 목포라던지...

Q: 목포까지 가세요? 저거가지고

A: 저거 가지고 강원도도 다니고 그러는 데 왜그래 다맹겨요. 강원도 동생 살았을 때 물길어다 먹고 그랬어요 저기 물병 있잖아요

Q: 들어오다 봤어요

A: 지금은 못길러요. 강원도 산에서 길어오면 1년 먹어도 물이 안변하거든 물맛한 번 보실래요?

Q: 동생분 살아계시면 정말 재밌을텐데

A: 동생살아있으면 가면 그래도 김장할때면 김치라도 얻어먹고... 복지관에서 주는 놈하고 해서, 한1년 먹는데... 난 꼭 국물에다가 젓갈한가지씩 먹어요. 생활이 딸리면 딸린대로 먹고 나오면 나온 대로 좀 낮게 먹는 다고 해봤자 거기서 나아봤자 얼마나 낮겠소만. 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했고 6.25사변때 같이 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같이 1주일을 굶어갖고 감자캐먹었다고, 몽둥이로 또 얼마나 맞은 지 알아요?

Q: 혹시 여기 경로식당같은거 없어요? 복지관에 경로식당 같은 거 없어요?

A: 복지관에서 밥먹으러 오라그래도 안가. 왜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왜그러냐면 복지관에서 밥먹으러 오라면 웬간히 갈거 아니요.. 우리나라이 또래는 다 갈거 아니요. 그럼 어디 사는 어찌고.. 말만말만 하다가... 그럼 여기 술먹는 사람이 있응게, 나 몇호 사요... 하면은 같이 술먹을때는 좋지만 그렇게 뺨대놓고 가보면 치우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복지관에서 뭐 준다해도 안 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요.

Q: 그럼 마음 편하세요?

A: 그것이 편해 애들 술먹고 와서 문 두드리고 나 놀러왔네 그러면 그때는 좋은 거 같지. 그런데, 술먹고 자기들 뜨고 나 혼자 남으면 이것도(이불이나 요) 개지도 못하고... 그란디 여기 앉아서 담배구멍이나 내면 자네가 그랬나 하고 막아줄 것이야 어쩔것이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Q: 어르신 되게 깔끔하세요. 정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었고.

A: 옛그제께 세탁하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Q: 세탁기 사용하세요?

A: 응

Q: 말리는건.. 요새 잘 마르죠?

A: 여기 놔둬도 별이 잘 들어와요 놔두면..

Q: 다행이네요 바람도 잘 부는 것 같아요

A: 예

Q: 겨울에 춥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A: 추우면 옥매트 있잖아요. 옥매트.. 예 1단으로 제일 약하게 해놓고 혼자 따듯하게 .. 이불이사 또 많으니까.. 내가 왜그러냐면 이불같은게 많은 것이 조카들 여기 오면...

Q: 다 거두셨어요?

A: 우리 딸 부조 받았으니 부조돈 다 갚아줘야지. 안 갚아주면 밥 한술 얻어먹으면 밥 한술 줘야지 나도.. 준다 그래서 딱 먹고 말면 한번 먹고 두 번먹으면 안 봐.. 이순, 칠순 잔치도 하고 조카들 잔치도 하고 하니까 아들들 한테도 조그만.. 하나씩이라도 주잖아 우리집에 독신에 장남이니까 이불이 많아. 나 죽어서도 버리려면 한 참 버려야 될거야.

Q: 건강하게 사셔야죠.

A: 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내가 억지로 못하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것이 낫다는데, 내 맘대로 못해..

Q: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A: 다리만 안 아프고 허리만 안 아프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일 하고 싶어. 일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남 좋은 일 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싸게 해주고. 그것도 돕는 일 아니요? 몸이 이러니까 마음대로 못 활동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고 좀 힘들고.. 인자, 부평 4동 살때는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나가서 앉아봐도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Q: 부평에 놀러 좀 가시죠

A: 마음대로.. 몸이 말을 들어야지 몸이.. 부평 4동에 놀러 가고 싶어도 가면 그래도 내가 원래 거기서는 술 좀 잘 먹었거든. 그랑께 차 끌고 가면 못 돌아오지. 부평까지 가면 내가 중앙병원을 다니거든 중앙병원 다니는 데... 개스도 아껴서 쓰느냐고 두달만에 한번 실어요. 병원 갔다 올때마다 한번씩 실으니까. 엄청 절약해 나가니까 지금껏 버티는 거요.

Q: 누구 말벗하고 오면 좋으실 거 같은데 .. 말씀도 재미나게 하시고.. 옛날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실거 같은데 ..

A: 옛날에는....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나온텐데, 하이도 그 쪽에 자자란 섬이 많잖아요 염전 먹을때 피난민들 나와서 염전 많이...

Q: 염전일도 하셨어요?

A: 함바에서 배로 건너주고 하기도 하고..

Q: 아.. 함바에서도 일하셨어요?

A: 한방에서 자잠아요

Q: 예 맞아요 밥먹고 잠자고

A: 아무리 빨이라고 해도 개골창이 깊은데가 있거든 그러면 뗏목타고 건너주잖아 일하러 간 사람들 건너 실어오고..

Q: 어떤 일하셨어요, 또?

A: 일 안해본 일 없어요 여기 와서도 중선도 타보고

Q: 중선이 뭐예요?

A: 고깃배.. 저이만, 유자만 같은 거 잘 몰라요?

Q: 예 무슨 이름이에요? 그게 배이름 이에요?

A: 배이름이 아니라 저이만은 끌고 다니는 것이고 유자만은 앉혀놓고.. 받히는 것도 있고 고기잡는 배들은 그물을 물 따라서 흘러다니는 게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예요

Q: 배얼마나 타셨어요?

A: 배 한 15년.

Q: 원양 어선도 타셨어요?

A: 원양 어선도 탔지. 15살 먹어서 면허를 잡았거든.

Q: 아.. 그게 되요?

A: 그 당시에는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드물었거든.

Q: 운전도 빨리 하시건 같은데요?

A: 운전은 군대 가서 했지. 군대를 내가 서른 살 되서 갔으니까 65년 때 이 때 가서 67년에 제대 했을 거야 연혁으로 따지면..

Q: 늦게 가셨네요 진짜..

A: 그러니까 처음에 논산으로 나왔을 때는 목뼈가 금가가지고 3년 귀향갔거든 집으로.. 집이 뿔해가지고 논산으로 갔어. 논산으로 가가지고 떨어져 와가지고 광주

31사로 갔었지. 그러니까 4.19 5.19 피해가지고 갔으니까 늦게 갔었지. 65년도에 갔으니까 6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만 2년.. 우리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그 노무자가 아니라, 가정집 부인들도 옷 떨어지고 옷 기워입고 토요일날도 세탁도 못하고 산에 나무 하러 다니고...

Q: 요즘은 진짜 군대생활하기 좋아졌던데

A: 군대가 좋아졌지 찌바통 더듬다 걸리면 온종일 두드려 맞고... 식사 개시해가지고 두어순가락 서너순가락 뜨면 식사 끝나가지고 들고 가다가 먹다 걸린 놈 있으면 또 두드려 맞고...

Q: 어르신 어떤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세요?

A: 좋다 하는 것도 뭐.. 나는 부모 없이 객지로만 돌아다녀서 좋은 때가 없었지..

Q: 그래도 결혼하시고..

A: 결혼도 늦게 했고... 결혼해서 좀 살만하니까 여자가 죽어붙고. 애들 때문에 돈 좀 벌어놓은 거 있는 것도 또... 애들 키울때, 그때만 해도 파출부도 없고 도우미 아줌마들도 없잖아요 월급 준다고 해도 안 와. 왜그러냐면 쪼그만 가시내가 세 살, 다섯 살, 자잘한 애기들을 누가 봐준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박생활은 그만 두고. 집에서 노니까 애들 밥먹이고, 나는 술로 한잔 먹고 술로 보내야 돼. 나는 뭐 재미가 있겠어? 여자하고 같이 살뜰한 시간도 못보내고.. 그래도 육지에 있어야 아기자기하게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보지 바다로 떠돌아 다녔는데 뭐가 재밌게 살겠소.

Q: 따님분들은?

A: 네... 둘째 그것도 카드 써갖고.. 몇천만원 써갖고 뭇해갖고 남자하고 이혼해가지고.. 개가 지금 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지를 몰라 지금.. 그 당시에 나도 잘 생각했지.. 당시에 나보고 인감증하고 도장하고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뵈으면 내가 또..

Q: 어르신이 또.. 신용불량자 될수도 있었고..

A: 신용불량자 된 것 뿐 아니라 그돈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소? 그래서 할수 없 이 안 주고 버터 나온 것이 지금까지 잘 버터나온 거지. 어휴.. 말도 마쇼 아주 새끼들 속 썩이고 나 사는 세상이라는 게 한국땅에 또 없을 거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9살 먹어서 아버지 죽고 12살 먹어서 객지에 나가서 소 뜯겨 주고,쌀 비 어다주고... 그때는 뭐 세경이나 받아요? 인건비나 받냐고? 오삭하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다지. 그러니까 뭐.. 그 때부터 돌아다녔으니, 뭐 좋은 세상을... 부모한테 혜택을 봤겠어요? 아주 어려서는 조금 내가 호강을 했지요. 5살 6살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일본까지 다녀서.. 그래서.. 그전에 전투기 있잖아 요. 축음기. 그 남 없던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한번 쓰러져 버리 니께, 그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니께, 어머니가 돈 짚어지고 다니면서 큰 곳을 7번이나 했어. 그래서 돈이 바닥이 나버렸지 그냥.. 하여튼 그냥.. 재밌는 세 상 하루도 못 살았어요. .

Q: 외로우세요?

A: 외롭긴 외롭지. 왜그러냐면 둘이 누가 있으면 얼굴이라도 봐가면서 내가 상대방 도 밥떠먹이겠거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부르더라도 어디가서 얻어먹고 왔다고 해도 내가 밥먹어야 밥먹겠구나... 그것이 사람 도리야냐. 자기 어디 돌아 다니며 밥 얻어먹었다 해서 나 배부르다 그럼 사람이 인간으로 좀 벗어난 사람 들이고.. 밥먹었다 어찌 배가 아프고 밥이 안 먹히네 같이 수저 갖다가 놓고 말 더라도 그거 해야 인사고 도리 아니냐 이말이지 그거 아니예요

Q: 좀 아쉽다거나 그런건 없으세요?

A: 아쉽다는건 말하려면 한이 없고

Q: 딱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A: 나 혼자라.. 우리.. 좀 뭐한다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찾아보면 나 보다 불쌍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아. 다 밥먹고 사는 거 같아도 우

리 보다, 나보다 더 못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개중에.. 텔레비에 가만히 보면 더 못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서 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난 내 욕심은 없어.

□ 수급자 08

-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장애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응답자가 정확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함. 생활보호제도부터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	46	남	무직	정신지체, 지체장애(4급)로 복합2급
자녀	18	여	고등학생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삼산1동 영구임대아파트. 12평정도. 작은방 1, 큰방 겸 거실, 화장실, 작은 부엌. 아파트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음. 동사무소와는 10분 정도 거리.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응답자가 정신질환으로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지 못했으며, 모든 응답을 받아내지는 못했음. 발음이 부정확함.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이 많은 편임.
가계관리는 함께 거주하는 딸이 담당하고 있어서 해당부분에 응답을 얻어내지 못함.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딸에게 하거나 다른 가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알콜문제와 가족생활(특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Q: 수급은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A: 수급은 옛날부터 받았어요

Q: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A: 어.. 91년도부터..

Q: 그때 결혼하셨구요?

A: 전에 결혼은 했죠.. 근데 결혼식은 늦게 올렸지만 저희들하고 아는 분이.. 손도 이렇고 하니까 영세민 아파트를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때 전세 500에 월 18만원인가 내고 살았어요.

Q: 어디 사셨어요?

A: 상도동..

Q: 서울이요?

A: 아니 부평.. 상북동..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사무소 들어가서 알아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진단서를 떼어오래..

Q: 아.. 그 신청을 하실 때..

A: 예 그래서.. 내가 손도 이렇고 하니까 영세민 아파트 되느냐고 그러니까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Q: 진단서요.. 장애진단서..

A: 그래서 여기 부평 새림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었어요. 떼서 동사무소 제출을 하다보니까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저... 경남아파트 저쪽으로 해서 개천 옆인데 장마지면은 많이 홍수가 나거든요.. 동사무소 사회과(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얘기했거든요. 이만저만 하니까 아파트를 빨리 해주라

Q: 그 때 사시던 집은 어디셨어요? 어떻게 생긴 집이에요?

A: 주택인데 개천 옆에...인제.. 이렇게...(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동작을 함)

Q: 판자 같은 거였어요?

A: 예 거기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하는 것부터, 인천에 호적한 것부터 떼어갔고 올라오라그래서 했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됐는데...

Q 바로 되셨어요? 신청하시고..

A: 예

Q: 그리고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A: 예

Q: 얼마만예요? 기억나세요?

A: 여기 아파트 된 거는 신청한지 2개월도 안되서부터.. 서류준비하라고 날라오더라구.. 전화로.

Q: 여기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A: 92년도

Q: 92년도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수급도 받으신거죠?

A: 예. 성북동에서도 수급자를 받았는데 몇분이 안되요. 몇분이 안됐는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게 안되더라구요.

Q: 어떻게?

A: 수급자 나오는게..

Q: 돈이 얼마 안나왔어요?

A: 예 2만 7천원인가 밖에 만나왔어요 거기서는.. 쌀값으로..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면서 음...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92년도부터는 26만원씩이나 나오더라고요..

Q: 92년도 부터는 ? 그럼 여기서는 몇 식구가 같이 사신거예요?

A: 네식구가

Q: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자제분은 몇 분..

A: 딸들

Q: 아.. 저 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여기?(사진에 3살 5살 정도 먹은 딸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다)..

A: 예..

Q: 손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A: 이거요? 89년도,

Q: 일하시다가? 어떤일 하셨는데요?

A: 프레스

Q: 아.. 인천주변 공단에서 일하셨어요?

A: 저.. 000동에서

Q: 아.. 그럼 손 그렇게 되신 다음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예전에 공단에서 일하실 때,,

A: 나는 뭐.. 빚진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술을 안먹고 다니고 때문에 빚은 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빚을 많이 져요. 카드값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빚을 많이 지는데 내가 장가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술을 먹고 다니면서도 타락은 안했어요.

Q: 열심히 일하셨는데...

A: 일을 못하더라도 타락은 안해봤어요

Q: 원래 고향이 어디셨어요?

A: 충남이요

Q: 언제 올라오셨어요

A: 여기? 72년도.

Q: 그럼 연세가 그 때.. 72년도 몇 살때 올라오신거예요?

A: 예. 오래됐죠

Q: 몇 살때 올라오신거예요? ..

A: 음...(오래 생각한다)

Q: 지금 연세가..

A: 마흔일곱..

Q: 그럼 그때 부모님은요.. 충남에 계셨을 때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A: 어머니는 지금도 계셔요

Q: 충남에 계세요 ?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A: 3남 2녀

Q: 3남 2녀.. 그럼 아저씨가 몇째 형제였어요?

A: 없어요..

Q: 아.. 형제분 안계세요?

A: 아니.. 형제들은 있는데 나 도와주 놈은 하나도 없어..

Q: 지금 연락도 안하세요?

A: 내가 정신지체라..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까먹어..

Q: 저희한테 잘하시던데요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조사자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늦게 오는 거냐며 먼저 조사자들에게 전화를 주었음)

A: 근데.. 음... 대화할 때는 잘해요.

Q: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만 그럼 지금 지체장애도 있으시고 정신지체도 있으신거네요. 그럼 장애 급수가 어떻게 되세요?

A: 2급..

Q: 그럼 서울 올라오셔서 일하실 때는 정신지체 장애 판정 받으셨어요? 아니면 요 근래에 받으신거예요? 일도 하셨다 그러셨고..

A: 예... 타락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손다칠때만 해도.. 근데 머리까지 다 쳐놓으니까 이제는 우울증에.. 정신지체로 되었어요..

Q: 손 먼저 다치셨던 거예요?

A: 손 먼저 다쳤죠.. 그리고 머리는 애엄마하고 살면서 다쳤지만은..

Q: 그럼 머리는 사고가 나셨어요? 혹시..

A: 아뇨.. 사고가 난게 아니라 내가 술 먹고 넘어져갔고.. 보도블럭에 넘어져갔고..

Q: 그럼 손 다치신 이후에 계속 안 좋으셨던거예요?

A: 예

Q: 그 이후에 전혀 일을 못하셨구요?

A: 이걸 4급 받았고 복합장애로 해서 2급을 주더라고.. 동사무소에서. 진단서를 보니까 3급을 주는 데.. 내가 생각할 때가 3급 나올줄 알았어..

A: 내가 지금 딸내미.. 큰딸하고 둘 살지만 .. 딸이 18이여..

Q: 일찍 결혼 하셨네요.

A: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개 용돈 줄라.. 핸드폰 요금 내줄라.. 내꺼 관리비 내라.. 나.. 담배값 하고 하다 보면은 돈이 안 남어

Q: 아버님 그럼 지금 돈이 얼마가 총 들어와요 집으로?

A: 60만 2천 몇백원..

Q: 어.. 장애가 2급이면 10한 몇만원이 장애수당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부 생계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작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쵸 2인 가구인데.. 지금 2인가구 받으시는 거죠?

A: 예

Q: 60만원 정도.. 그럼 제일 어디에 돈이 많이 드세요?

A: 뭐.. 딸내미 용돈 주고.. 차비주고..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멀리 댕기기 때문에 하루 차비만 2천원이야. 그러다보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해요. 어디가서..

Q: 지원금 받으시는 거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신거죠?

A: 예

Q: 형제분들이 도움도 안 주시고..

A: 예..

Q: 따님한테 차비하고 용돈은 얼마주세요?

A: 차비 10만원 용돈 18만원 핸드폰값 빠져나가지 내꺼 핸드폰값 빠져나가지 담배값하고 저거 하면.. 관리비 여기 빠져나가면 돈이 몇푼 없어요

Q: 그거 혼자 관리하세요?

A: 그거 딸이해요. 내가 갖고 있으면 술을 먹기 때문에 내가 관리비 안준다고 딸한테 맡겨버렸어.

Q: 술 많이 드세요?

A: 많이는 안 먹는데 돈이 있으면..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많이 먹게 되니까 딸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Q: 친구분이나 주변 분중 같이 소일거리 하실 분들 안계세요? 이웃이나 주변에 친구분들 안계세요?

A: 많죠

Q: 친구분들이랑 어울려서 어디..

A: 아.. 그래도 바깥에만 나가면 술을 먹으라고 술이 쫓아다녀..

Q: 혼자 드세요? 같이 어울려 드세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랑요?

A: 예. 어울려 먹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안나가요. 내가 밤을 아침부터 먹고 나가면 술먹어도 괜찮은데 아침밥도 안먹고 빈속에 술 맥이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라면 한박스 사놓고 오늘도 한끼도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Q: 왜요? 왜 안드셨어요, 식사를?

A: 이.. 칼질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참...

Q: 평소에도 끼니 잘 거르세요?

A: 끼니는 많이 걸러요.

Q: 혹시 여기 가사도우미나 이런거 해주러 오시는 분들 왜 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A: 여기 복지관에서 청소 오는 아줌마는 있어. 동네 아가침에 아가씨가 전화했을 때야. 마침 여기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도우미아줌마들 청소 싹 해놓고 가잖아..

Q: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아버님은 청소 잘 안하세요?

A: 아줌마들 안 올때는 해요. 안 올때는 하는데 아줌마들한테 너무.. 신세지기 싫으면 내가 한단 말이에요. 아줌마들한테 신세지기 싫으니까...

Q: 그분들은 얼마만에 한번씩 오시는데요?

A: 일주일에 2번.. 저기.. 수요일과 금요일..

Q: 식사 같은 거 해주러 오는 분은 안계세요? 아니면 밑반찬 같은거 복지관에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A: 안와요 전혀..

Q: 그런게 더 필요하실거 같은데..

A: 다 신청해줬어.. 신청했었는데.. 아예 안 오더라구.. 그게 알고 보니까 학교 급식하고 남은밥 주구.. 반찬도 학교 급식하고 남은 반찬 이거.. 영세민들이 돌리는 거야.. 왜 그걸 내가 아는가 하면은요, 여기 105동 통장이 하나 있었어. 여자분인데.. 00초등학교로 밥 좀 싫으러 오래.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차 운전할 때...

Q: 한손으로 차를 운전하시는거예요?

A: 운전은 잘 하죠.

Q: 어.. 기술 있으시네요

A: 운전은 잘해.. 운전을 잘하는데 차는 지금 다 폐차시켜버리고 운전을 안하려고

맘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Q: 무슨 일 있으셨어요?

A: 아니.. 죽을 려고 ..죽으려고 고가 밑에 가서 차를 처박었더니.. 차가 납작했는데 나무쪽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내가 살았지만은.. 나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죽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Q: 우울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A: 한.. 5년 전..

Q: 그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A: 예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Q: 부인은.. 지금 어디계시는 지 아세요?

A: 전라남도 광산시 무슨 면인데.. 여기 동사무소 가서...음...

Q: 때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A: 예

Q: 연락을 안해보셨어요?

A: 안해요

Q: 둘째 따님도 못보시구요?

A: 지가 전화도 안치만, 내가 전화하면 그래요 '아빠 올라갈테니까 10만원만 부쳐죠' (그럼 내가 그래요)올라오지마. 니그 엄마 올라오면 골치아프니까 너는 올라오지마. 그래서 아예 못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큰딸래미는 아빠를 지키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둘째딸내미는 엄마하고 내려가서 살면서도 엄마랑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Q: 둘째 따님은 몇 살이세요?

A: 올해.. 연년생이니까 열일곱.

Q: 돈 부족하실 때요.. 돈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부족하실 때 이웃분 들한테 꾸신다거나 그러세요?

A: 많이 꾸 쓰지요..

Q: 빚 같은 거 있으세요? 이웃분들한테.. 돈 빌리신 다음에 못갚으신거 있으세요?

A: 그건 없어요. 생활비 나오면 갚고 모자르면 또 빌려쓰고.. 이런다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고 저러고를..

A: 나 냉장고도 이거, 내꺼 아니에요. 애 엄마 꺼예요. 애엄마 꺼 보관중이야. 내꺼는 텔레비 한대 밖에 없어..

Q: 같이 사신 거 같아요. 같이 마련 하신거 같아요

A: 근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간다면 다 내줘야 돼.. 자기가 갖고 간다면 다 내줘야돼 할말이 없어. 세탁기도 내거 아니에요.

Q: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A: 연애 결혼 했는데 스물아홉에 만나가지고...

Q: 공장에서 일 하실때요?

A: 연애결혼 했는데 그렇더라구.. 애엄마하고도 합의해서 잘 살았어요, 몇년을..

Q: 손 다치신 이후에도요?

A: 내가 89년도니까..

Q: 29..

A: 그때가 29인가.. 아닌데..

Q: 아니에요? 60년.. 도에 태어나신거 아니에요?

A: 61년생. .

Q: 그럼 28..

A: 그러니까 29에 누굴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사주를 보니까.. 내가.. 근데 애엄마를 만났을 때는 서른에 만나거야 서른에.. 서른에 만났는데... 그래서 애엄마하고 서른에 만나가지고 애엄마가 그당시 그러더라고. 아는 애를 못가진다고 아는 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00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가씨인데.. 아 그러냐구.. 애 못가지면 난 더 좋다구. 나는.. 근데요 그래요.. 우리 큰 딸이 나한테 잘 해주고.. 큰딸한테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니까 너무 벅차.. 내가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Q: 따님이 지금 인문계 학교예요? 대학을 가고 싶어하나요? .

A: 아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사업을 한다는 데 몰라.. 그거는.. 그거는 내가 이려고 저려고 판단을 여기서 못내려요 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컴퓨터 좀 사줘볼래.. 컴퓨터도 사줬어요. 사주고.. 아빠 피아노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3층으로 보내.. '아빠 여름방학인데 해수욕장도 가고 싶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씨. 다 해주면 아빤 모가돼? 아가씨 말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다 말을 했다고 어떻게 되는거야 근데 부산을 가던지 대천을 가던지 둘 중에 한 군데만 가거라'.. 이거야

Q: 다 가고 싶대요?

A: 예

Q: 누구랑 간대요?

A: 가면 혼자 보내야지..

Q: 어떻게 혼자보내요

A: 부산에 가면 우리 형님이 계시고.. 대천 해수욕장 가면 내 남동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만 보내도 되잖아요.

Q: 왕래가 있는 가봐요 형님네들이랑.

A: 아.. 내가 가끔가다 아니.. 생각나면 전화를 걸어.. 부산에다 걸어가지고 '형수야.. 저기.. 우리 00(딸이름).. 좀 부산가고 싶다는 데 해수욕장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니까 8월1일부터 휴가니까 8월 이후부터 내려보내라 이거야

Q: 아버님도 같이 가지죠

A: 아.. 내가 가면 좋죠 근데.. 돈이 모자르니까 그렇지..

Q: 차비요?

A: 차비도 그렇고.. 나는.. 암만.. 우울증 환자라 하지만, 먼저 가정을 앞세워야..

Q: 따님은 보내시고..

A: 응.. 딸내미만 갖다오라고 하고서 나는 가정을 지켜야 할거 아니요... 근데 나는 그래요.. 여기 있더라도 내가 술먹는 게 아니라 술을 안먹고 싶어도 술이 따라댕겨.. 바깥에만 나가면 술이 따라당겨 미치겠어

Q: 밖에 나가시면 안되겠네..

A: 안나가야되요.. 저 텔레비만 보고있어요

Q: 아이구, 어떻하세요? 심심하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A: 근데요.. 우울증환자라.. 우울증 환자라..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집에서 혼자서 있어보면.. 죽고 싶은 맘 밖에 없어요.

Q: 대화 나눌 이웃분들은 좀 있으세요?

A: 바깥에 나가면 많잖아요. 여기 초창기 들어왔으니까

Q: 아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어요. 친구들분도 많으시고

A: 근데 초창기 들어왔으니까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가 우울증환자라 대화도
않고. 근데 소주 한잔 들어가면 말은 잘해요. 근데 술한잔 먹으면 실수 할까봐..
그게 문제라 내가 저.. 술을 안먹으려고 하는 거죠.

Q: 왜 다치셨어요 팔은?(팔에 굵힌 상처가 있었음)

A: 어제.. 짐을 좀 내려주다보니까 좀.. 굵혀가지고

Q: 아이구.. 한손으로 다 일을 하시나봐요. 무슨 일 하세요?

A: 무슨 일은 .. 도와주다가

Q: 아... 남 도와주다가.. 그럼 공장 그만두고 나서는 뭐하셔서요?

A: 놀았어요. 계속

Q: 전혀 못하셨어요?

A: 예

Q: 운전은..

A: 운전은 안해요. 내가 여기 자전거..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자전거 2개 있고 1층
에도 2대 있어요

Q: 전부 아버님 께예요? 4대가?

A: 예

Q: 저하나 주세요

A: 데이트 하러 가자구. 자전거 하나 줄테니까 데이트 하러 가자구

Q: 생각해 볼게요

Q: 손다치시구요 보상금같은거 못받으셨어요

A: 손다치고 나서 500만원 받았는데 카드값 갚고 어찌구 하고 다써버렸어. 내가.. 카드 한번 냈다가.. 카드도 복잡하대요. 삼성카드. LG카드 2개..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다까먹고 하나도 없어.(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보증금 밖에 없어.

Q: 카드는 언제 쓰셨어요?

A: 그거는 기억을 못해..

Q: 카드빚이 많으셨어요?

A: 카드빚이 LG계 100만원 삼성계 300하고 다 갖다 분고 시골에다 올려보내라고 해갔구서는 500만원 돈을 갖고 왔는데 나머지는 이걸 했지.. 걱정없응게 빚이 없어서

Q: 그게 언제쯤이세요?

A: 7년전.. 2000년도

Q: 카드빚 어떻게 하다 지게 되셨어요?

A: 현찰로 100만원 뺏는데 그거를 이쪽에서 저쪽을 갚아야 되잖아요

Q: 음... 들려막기...

A: 예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LG꺼는 몇푼이 안되는데 삼성계 200이 되 거라고 카드값은거 까지 내가 음식먹고 댕기는 거 까지 그래서 200이 되더라고..

Q: 돈 찾으셔서 주로 어디에 쓰셨어요?

A: 남 꺾었는지 꺾달라고 해서

Q: 처음 카드는 어떻게 만드시게 됐어요?

A: 그때는 노가다.. 2000년도에는 노가다 생활을 하니까

Q: 일을 계속 하셨네요

A: 그때는 했죠.

Q: 건설일 하셨어요?

A: 예

Q: 한팔가지고 하셨어요?

A: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일이 없어.

Q: 어디서 일하셨어요?

A: 어디서 일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죠

Q: 어디서 일했는지 기억이 안나세요? 얼마받은 거는 기억이 나세요?

A: 내가요.. 내가요.. 지금 아가씨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가씨분은 기억을 잘해서 적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가씨 문밖에만 나가면 기억이 싹 없어져..

Q: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편하게.. 기억안나시면 뭐..

A: 아 그니까 어디서 일했고 얼마나 받았고.. 이랬던거는..(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복지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2급인가 아닌가?

Q: 아니예요

A: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여줘야 정당해

Q: 예 보여주세요. 어휴. 지갑이 팽팽하네

A: 내가 명함이 많이 들어서..

Q: 아는 분이 많으신가요

A: 아는 사람은 많죠

Q: 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일자리가 있다 하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A: 근데 내가 기억력이 빨리 까먹기 때문에 일하기가 좀.. 골치아파요

Q: 일하기가 힘들실 거 같아요?

A: 음 법원에서... 내가 애엄마하고 싸우고 나가서 (다른사람이랑 싸움이 붙어서) 폭행죄로 해서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 인천법원에서..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봉사활동 24시간을 주더라구.. 이틀 만나절을.. 그런데 점심먹고 밥을 사먹고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해보니까 할만해요

Q: 어떤 일하셨는데요 뭐하셨는데요?

A: 호스캐치 찍는거 하고 스티카 저기 하는거 장애인들한테는 힘든거 안주더라구. 그래서 이틀 만나절 하고 그 이틀날 보호감찰소 갔어요 보호감찰소를 가니까 아저씨 잘 끝내셨네요 그러더라구. 그리고 나서 이제 애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됐어. 술을 먹게 되니까 애엄마가 싫다고 나가더라구. 1년을 좀 넘게 살았어요 또 요번에도. 근데.. 요번에도 돌아와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안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안나간다는 보장은 없고 저기.. 따로따로 서로 떨어져 살자 이거야..

Q: 그럼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건 아니가요?

A: 법적으로 이혼이 다 된거예요

Q: 언제 하셨어요?

A: 1월 17일날

Q: 올해요?

A: 예

Q: 이혼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다투시고 따로 사시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A: 아 많았어요. 많았어.

Q: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셨어요?

A: 뭐 사소한 일이지. 반찬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툰 거지.. 돈 문제 갖고는 내가 안싸워봤으니까.. 왜.. 나는 담배만 사다놓으면은 큰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구 뭐.. 밥먹을 때 저기해서 'OO엄마, 이만저만 한데 반찬 좀 농산물(시장) 바로 여기 있으니까 가끔가다가 반찬 좀 바꿔봐. 색다른 것 좀 한가지씩이라두..' 그럼 사사로운 거 갖고 싸우지...

Q: 싸울때 심하게 다투세요?

A: 아이 인제.. 내가.. 나는.. 한번 지랄할 때는 그 때 한번 뭐라고 하는 거 뿐이지 풍한건 없거든..

Q: 혹시 공무원이 여기좀 찾아오고 아저씨한테 자주 연락하고 그래요?

A: 동사무소 직원이 필요있을 때는 나한테 핸드폰을 해줘요

Q: 무슨 필요... 뭐가 필요하다고 전화해요?

A: 나한테 요번에 전화 온 게 뭐냐면 월급을 갖고 오래...

Q: 월급 봉투요? 일하셨어요?

A: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XX인간들야. 내가 조금있다가 동사무소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사회과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서류를 저.. 만케 날라왔더라구 날라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4월 12일 날짜로 입금이 된 걸로 되어있데. 야 XX인간야. 내가 4월 12일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입원했다면 아니잖아요. 음?

Q: 이상하네요 진짜.

A: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회과 담당들도 이래저래 알아보고는 아니, 없던 걸로 됐으니까 가세요, 그러더라구. 이 XX놈의 인간들. 내가 병원에 있어가면서 어떻게 서류를 집어넣고 입사가 되느냐고... 병원에 3개월 있다 나왔는데..

Q: 병원에 왜가셨어요?

A: 알콜 중독으로.

Q: 본인이 가신 거예요? 혼자서요?

A: 예

Q: 어느 병원으로 가셨어요?

A: 은혜병원.. 아니 은혜병원이 아니라 삼산동 근린 병원..

Q: 술 때문에 술 끊으시려고 가신거예요?

A: 술 끊으려고 간게 아니라, 내가 그때 몸무게가 54키로 밖에 안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택시타고 간 거지. 근린병원.. 가가지고 입원 좀 하자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가 애엄마 앞으로 되었더라구..

Q: 호적정리 하셨잖아요?

A: 호적정리는 3월 10일까지가 호적정리.. 구청까지 들어가야 돼 . 구청까지 들어가야 그게 호적정리가 되는 거지..

Q: 아직 안하신거예요?

A: 아니 다됐어요. 근데 애엄마가 보증이 되어서(부인이 보호자로 되어있어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아갔다고 말하는 것임) 그래서.. 면회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장애수당 나오는 거 갖고 14만원씩만 내줘라 그렇게 말했는디, 연락하면, (애엄마가) '나중에 갚아드릴게. 면회 가면 갚아드릴게' 하고는 (나한테는 돈안주고) 병원매점에 중단 말이에요. 나 3개월 있을 때 면회 딱 2번 오고..

Q: 그럼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따님이 여기에 혼자사신 거예요?

A: 예

Q: 병원에 자주 왔다갔다 하세요?

A: 병원에는 약떨어지면 가야죠..

Q: 계속 우울증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A: 예 저기 수면제하고 우울증약은 먹어야 되요

Q: 공무원한테 연락하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나 뭐 필요하다 이렇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A: 동사무소 사회과 담당하구는 내가 불일이 없으면 안들어가요 불일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요번에도 그러더라구.. 사회과 담당이 월급갖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지만은 이렇고 저렇고 막 따지니까 자기가 다 전화하고 다 해결됐어요 그러더라고.

Q: 여기 복지관은 잘 안가세요?

A: 복지관도 자주가지요.. 저.. 2층에 올라가면 복지관 담당 있잖아요. 그 담당만나러 가고.

Q: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데요?

A: 아줌마 혼자 보내지 말고 둘 보내주세요.

Q: 왜요? 청소하는 아줌마?

A: 예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말고 둘 보내주세요. 둘 보내주면 조금 일찍 끝날 거
를 왜 혼자보내냐 이거지..

A: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는 진짜 꼼꼼해가지고 진짜 잘해줘. 잘해주는 데 작년에
왔던 아줌마하고 똑같애. 작년에 왔던 아줌마도 나 술먹고 여기서 자면 그냥 문
열고 들어와 빨래 장롱 널어져 있으면 빨래 말랐으면 다 저.. 해놓고 청소 다해
놓고 밥도 해놓고 그러고 가.

**Q: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청소해주는 거 말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A: 몰라 지금은.. 생각이 안나네.. 내가 반찬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것 말
고는 없어. 인자 도우미 아줌마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다 보면 오늘 왔으면
금요일날 또와 그러다 보면 방이 깨끗해 우리집은 누가와도 .. 근데 반찬이 문제
라 그렇지..

Q: 반찬이 손 때문에 해드시기도 뭐하고..

A: 사다달라고 하면 사다주긴 하는데 비싸. 아줌마들이 필요한데로..

**Q: 지금 정부지원 받으시는 거요. 동사무소에서 돈 받으시는 거요 계속 받기
원하시는 거죠?**

A: 계속 받아야죠. 그거는 올해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려고 저려고 동
사무소 지랄을 할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지랄할건데.. 만들어야죠.. 그거
는..

Q: 받도록 만드신다구요? 걱정되지겠어요.

A: 아니, 딸내미꺼는 못받더라도 내 꺼는 받아야 관리비는 내고 살 거 아니예요 여

기서..

Q: 여기 여름철이랑 겨울철이랑 좀 다르게 나오죠 돈이.. 겨울에 난방비가 많잖아요.

A: 근데 여기 지역난방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날거예요. 난방이 지역난방 되기 때문에..

Q: 아 그래요.. 조정하시기 나름이겠네요..

A: 근데 몰라 내가..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음...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못하것네

Q: 음... (아파트에) 얼마 내세요?

A: 몰라요 내가.. 전에는 이종으로 있을 때는 뭐.. 14만원 돈이었는데 애엄마하고 이혼을 해서 내가 관리비를 밀려버렸어

Q: 아.. 밀리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왔었어요?

A: 지랄해..

Q: 나가라고?

A: 아니요.. 왜.. 아저씨가 관리비도 안밀리던 분이 밀리셨나고. 야 이 XX. 요번에.. 저.. 다 해결되니까 신경쓰지마.

Q: 얼마나 밀려놓으셨어요?

A: 이번에 27만 얼마 나왔던데

Q: 몇 개월 밀리신거예요?

A: 이번달 까지 해가지고..

Q: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나가라고 이러잖아요 .. 싸우시게? 그냥 싸우시게?

A: 아이.. 내가 싸우면 내가 이겨. 관리소는 들어가면 이겨.. 관리소는 내가 들어가면 이겨.. XX.. 저기.. 동사무소 동장도 면담하자고 해서 싸우는 놈이 나밖에 없는데.

Q: 아저씨 혹시 주민 대표안 하세요?

A: 주민 대표? 통장? 통장안하냐고?

Q: 예

A: 나 안해

Q: 왜요?

A: 골치 아파.

Q: 여기 보면 장애인들 모임도 많고 그렇던데 그런 모임에는 안가세요?

A: 우리 장애인 대표가 여기 있었는데 그이가 이사 가는 바람에 내가 장애인 협회 가입해 놓은게 없어. 근데.. 가입을 하면 많아요.

Q: 그쵸.. 모임이 많죠..

A: 가입을 하면 많아요

Q: 근데 안하시는 거예요?

A: 장애인 신문까지 거 봐봐요 장애인 신문..(텔레비전 앞에 놓여있는 장애인신문 가리킨다) 거기서도 와요

Q: 좋죠. 이거 자주 보세요?

A: 예

Q: 재밌어요?

A: 볼 게 많더라구

Q: 뭐가 있는데요?

A: 장애인 신문은 읽어볼게 되게 많아. 나에 대해서 이득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를 정보를 통해주는 거고 있더라구..

Q: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에?

A: 읽어보세요.

Q: 올해부터 13만원으로 조정됐잖아요. 1, 2급 장애인 수당.. 그이야기도 여기서 읽으셨겠네요

A: 안 올랐던데

Q: 어.. 장애인 수당 얼마받으세요 지금

A: 장애수당 13만원

Q: 그러니까 그게 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금액이 작았는데요 올해부터 오른 거예요.. 이거 언제 받으셨죠? 장애증? 언제 만드셨죠? 언제 2급 받으셨어요

A: 5월

Q: 올해 만드셨어요?

A: 올해 만들었는데

Q: 그럼 올해부터 그냥 오른 걸로 받으셨겠네요?(신문 본다) 여기 뭐 일자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일자리 소개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A: 나오죠.. 다 나오죠.. 장애 신문은 볼게 많더라구

Q: 일하고 싶으신건 없으셨어요? 보고..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A: 아... (일을 하고 싶어도)근데 들어도 내가 머리가.. 빨리 까먹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전화를 못해요..

Q: 아.. 그러니까 혼자.. 나 사람 좀 써주세요 하는 전화를 잘 못하시겠다구요...

A: 아가씨 저.. 나 내가.. 바깥에는 나가야 하는 데 빨리 와서 면담하고 빨리 끝내서 나가야 하는 데 ..

Q: 아.. 나가셔야 되요? 그러면 그만 마칠게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 더 물어볼거 있으면 전화 드릴 테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

□ 수급자 09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한부모 가구 / 자활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7년 2월 부터 총 _____ 년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41	여	간병도우미	
아들	9	남	초등학교 3학년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응답자가 근로시간이어서, 성모자애병원 사회사업과의 면담실에서 면접을 진행함.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면접자는 자활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에 대한 성찰을 분으로 조사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든다.

※ W: 병원 직원

W: 그래도 대기자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병원은 특별히 보호환자들,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이 오는 특별 병원이라 그런지 전체의 15% 이상이에요. 병동에 늘 15% 이상은 의료보호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1종이 많으세요.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Q: 바쁘신데 귀한 시간 저희가 1시간 정도만

W: 네, 나누시죠.

Q: 감사합니다.

Q: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왔고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W: 들어봤어요.

Q: 저희는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가구 정도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수 몇 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느끼시는 데로 조금 심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알았으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지역에도 몇분계십니다.

W: 제가 이번 2월 달에 병원에 계속 있어서 제가 이런 기관이나 그런 자세한 거는 몰라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런데... 좀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좀 자세하게 전달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좀 의아하고....

Q: 수급 설정하시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아시는 거를 저희가 여쭙보는 게 아니라 느끼시는 것들을 여쭙보는거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수급 받으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A: 저는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3월부터..

Q: 올해 3월부터 그럼 수급 받게 되신 거예요?

A: 예.

Q: 어머니 그럼, 갑자기 수급을 받게 되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A: 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개별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자세히는 모르고 개별적인 이런 다른 직장을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너무 늦게 끝나고 애기도 아직 어리고 해서 늦게 끝나고 해서 빨리 끝내주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봐라 해서 전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고요.

Q: 애기는 몇 살이에요?

A: 열 살이에요.

Q: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A: 예.

Q: 한 명?

A: 예, 한 명.

Q: 여자 아이?

A: 남자 아이예요.

Q: 그러면 어머니랑 아이랑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거고, 아이가 어려서 좀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A: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화점도 다녀보고.. 살아보니까, 너무 늦게 끝나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일 날도 안 쉬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 문제하고 많이 부딪히더라고

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아니구나, 싫어서. 돈을 떠나서.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는 아이 위주로 많이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거예요.

Q: 그럼 아이는 어머니 여기 와 있으신 동안에는 학교 끝나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A: 학교 끝나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종일반으로 돌려서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간 후 부터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하는 학습 있잖아요. 영어나 컴퓨터 이런 거. 특기 적성이라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딱히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이런데 몇 군데 알아보다가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특기 적성 쪽으로. 학교 끝나면 점심 먹고 이제 그 특기 적성, 영어면 영어, 이제 화, 수 일주일에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수는 컴퓨터, 하루는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애가 그걸 끝나고 이제 다른 걸 조금씩, 조금씩, 제가 혼자 안 되게 하려고, 애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되도록 어디다 보내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Q: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 끝나시기 전까지 학교 끝나면 특기 적성 가고.

A: 공백이 길어요. 그 시간이 딱 2시에 끝난다고 해서 특기 적성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공간이 1시간 정도 빌 때도 있고. 이런 날은 이제 학교에서 집이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좀 아직까지 혼자 놔두고 그러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책 좀 보다가 특기 적성을 끝내고 제가 좀 이렇게... 복지관 같은 좀 썬데 피아노 같은 거 하나 신청을 했어요. 최대한 시간대를 오다가 들려서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제 시간하고 최대한 간격이 좀 줄이려고.

Q: 퇴근하실 때를 맞춰서.

A: 예. 되도록 이면.

Q: 그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A: 재가로 도시는 분들은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Q: 어머니 근무 시간이?

A: 예, 제가 이게 집으로 도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같이 병원으로 온 분들은. 저희는 30분 늦게 나오고 여기서 6시에 끝나고, 병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도시는 분들은 1시간 빨리 가서 1시간 빨리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Q: 재가는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 분이 정해서 재가는 재가만 하시고?

A: 예, 예. 병원에 오셔서 참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이거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Q: 그러면 아드님을 주변에서 봐주실만한 분은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A: 친척들도 멀리 사시고, 그런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맡긴다고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뭐라도 좀 이렇게 다달이 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 아주 그냥 맡길 그런 곳은 없어요.

Q: 혹시 이웃 분들 중에 이렇게 좀 도와서 이걸 같이 분담해 주실 분은 안 계신가요? 옆 집 아주머니가 좀 돌봐주신 다거나.

A: 이제, 보면요. 옆집도 다 바빠요. 바쁘고 다들 그냥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그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찾기도 힘든.

Q: 이웃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A: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교회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가깝고 이래서 아는 분들은 많은데 어린이 집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계셔서 가끔가다 급하면 이제 뭐 어린이 집, 아시는 집사님 집, 거기라도 가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는 해요. 제가 이제.

Q: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없으신가요? 아이 육아 문제도 그렇고 어머니 일자리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자활 기관으로 해서 오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 말고 따로 교육비라든지 따로 챙겨주시는 거나 도움 받는 건.

A: 그런데 그게 딱 법적으로 정해진 저희 같은, 수급자 되면 아이한테 급식비. 이런 것들은 있죠. 특기 적성 중에 한 가지는 되더라고요. 그거 외에. 정해진 거 외에는 달리 뭐.

Q: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건.

A: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가다 뭐, 통보, 이런 거 합니다. 참여해 보세요. 그런 것들.

Q: 친척 분들은 거의 다 멀리 사세요?

A: 예, 멀리.

Q: 왕래는 자주 하시나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친척들하고 왕래가 많을 것 같은데.

A: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막상 또.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되도, 가끔 가다 명절이나 그런 때는 만나는데 또 직장, 일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는 게 힘들어요. 어디 특별히 일요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여기 오니까 토요일에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은 아이한테 많이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준비 못 한 거, 준비해야 될 거. 그런 걸 한꺼번에 어느 정도 혼자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바쁘더라고요.

Q: 일이랑 같이 하시려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일 하시면 급여는 어느 정도나 받으시나요?

A: 저희가, 제가 받는 금액은 한 달 다 만근을 하고 31일까지 다 채웠을 때, 70만

원인 것 같아요. 70만 원 정도 딱 나오는 것 같고요.

Q: 토, 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계속 일하실 때?

A: 예.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명절 끼고 한 5일 정도 쉬고 그러면 한 60만 원, 62만 원 그런 선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70 선인 것 같아요.

Q: 다른 거 상여금이라든가 뭐,

A: 그런 건 전혀 없어요.

Q: 그럼, 정부에서 받는 돈은 얼마나 되세요?

A: 정부에서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선인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애 아빠가 연금 조금 넣다가, 가신 경우라 최하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족연금이라 그래서 딱 18만 원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건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받는 건 없고,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다예요. 다른 분들은 말씀 들어보니까 한 17에서 18만 원 정도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Q: 아버님이 국민연금 받으시는거..

A: 예.

Q: 그러면 어머니 70만 원이랑 그 연금 18만 원 이렇게 두 개만 받으시고 나라에서 받는 돈은 없으신 거예요?

A: 예, 없죠.

Q: 생활이 좀 빠듯하시겠어요.

A: 너무 빠듯(웃음) 제가 해보니까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Q: 차비랑 이런 거 식대는 여기 나오나요?

A: 따로 돈은 안 나오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식권을 나오더라고요. 식권으로 저희가 점심 먹고 있고. 재가는 도시는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시든지 식사 해결을, 그렇더라고요.

Q: 그러면 그거 말고 정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연금으로 상쇄 되서 못 받으시는 거고 그거 말고 현물로 받으시는 것들은, 쓰레기봉투나.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A: 쓰레기봉투는, 예, 4장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거로.

Q: 뭐, 다른 거는?

A: 쌀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신청하면 그 받는 돈에서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구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먹고 그래요. 쌀 신청 안 하고요.

Q: 제일 많이 어디에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한 달에.

A: 아파트라도 조그만 아파트, 이제 임대 아파트라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나가고요. 그게 정기적으로 나가 버리니까. 돈이 한 17, 18만원 나가 버리더라고요.

Q: 임대료.

A: 예. 그 외에 애기 이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혼자 자꾸 잡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못 하니까. 눈높이 학습지 하고. 몇 권 중요한 과목만 몇 가지해서. 시키고. 또 피아노 따로 복지관에 들어가는 거랑. 4만 원. 나가고요. 학교 특기 적성 중에 하나는 되니까. 하나는 영어가 부족해서 제가 영어는 좀 학교, 두 달에 5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애한테 알게 모르게 그것도 십 몇 만 원 나가고요.

Q: 용돈은 좀 주시나요?

A: 용돈. 일주일에 한 5천 원에서 이제 조금 올릴까. 생활비가 특별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Q: 혹시 조금이라도 저축 같은 거 하세요?

A: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축을 따로 적금 통장은 못 만들고 보험 위주로 옛날 아가씨 때부터 들었던 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어서 보험 같은 거는 해약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조금씩 그냥 끊어서 내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넣거든요. 애기 이렇게 위험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대비해서 넣고 있어요.

Q: 연금이나 아니면 보험금만?

A: 저는 이제 아가씨 때부터 넣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꾸준히 생활이 힘들더라도 이거라도 조금씩 모아가야지 저금을 할 수 있는, 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Q: 다른 거는 부채 같은 거 있으신가요?

A: 부채는 다 해결을 해서.

Q: 지금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가 가장 지출이 많으신 건가요?

A: 예, 많이 나가죠. 다른 거는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커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학교 공부를 스스로 하면 모르는데 못 따라 가면 거기에 맞는 학원을 보내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럴 때는 학원비가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크면 그런 데에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돈이 아무리 번다고 해도 막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Q: 어머니, 경력이 쌓이시면 똑같은 간병인들이더라도 급여액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1년 일하신 분이랑 3년 일하신 분이 환자 돌보시는 게 똑같은데 안

잡아요.

A: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입장에서는...

Q: 그런 건 없나요?

A: 그런 건 없어요. 차이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보조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유료를 하겠습니다, 하면.

Q: 그때부터는 차이가 좀 나시고요?

A: 예, 예.

Q: 어머니, 이렇게 수급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A: 저요?

Q: 예.

A: 저는 이렇게 직장 잡기도 힘들고 너무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Q: 어떻게 누가 소개 시켜 주셨나요?

A: 아니요. 저는 동네에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좀 빨리 끝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동사무소 한 번 가서 물어봐라. 이런식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Q: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주변에 .

A: 수급보다 이 일이 동사무소도 이런데 플랜카드도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수급 이런 거는 몰랐고. 이제 이 일을 좀 알아보려고 갔는데 그 분이 저를 상담하시고 이러 이러한 것을 좀 물어보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하게 됐죠.

Q: 올해부터 수급을 받게 되신 거잖아요. 전에는 안 받으셨고. 수급을 받고 나

신 후의 삶과 그 전의 어머니께서 직접 돈을 버셔서 나라의 도움 밖에서 생활하셨을 때랑 심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대하시는 부분들이나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A: 수급받기 전에는 제가 시간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애기 입장을 생각을 하니깐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건강 보험료 카드가 바뀌잖아요. 애기를 가끔 가다가 계절 바뀌면 병원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잘 가는데 그런 거는 괜히 내 자신이 편치가 않고, 움츠러들고요. 여기 이제 재가를 돌아보고 그럴 때는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병원에서 생활해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서 나왔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유로 여사님도 병원에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마디로 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냥 돈을 받는 사람들이다. 약간 그런 들려오는 말씀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Q: 아이도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고 우리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생활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A: 그런 구체적인 거는 모르죠.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모르고 학교에 급식비를 안 내고 이렇게 어디 갈 때도 자기가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안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는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고 하니까..

Q: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요?

A: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가다, 엄마, 엄마는 월급을 얼마 받아? 뭐, 그냥 나라에서 일하는 거는 모르고. 자기가 이제 돈을 안내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아직은 제대로 모르지는 않는데 자기는 이제 아빠도 안 계시니까 이런가, 어렵듯이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Q: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떠세요? 하는 일이 잘 맞으세요?

A: 아직까지는 잘 맞는 다는 거는 모르겠고요. 처음에 간병이라는 걸 잘 몰랐고, 또 이렇게 일이 빨리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는 들었지만 어떤 일의 종류들이 있고 이런 거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신청할 때도 뭐, 아이들 일이 있을까, 해서 저는 장애아들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신청이 많아서 복지 쪽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제가 한 달 돌아보고 제가 이제 문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겪어봤기 때문에 완전히 못 풀어놓은 상태에서 재가를 돌면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서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리적인 거나 마음 적으로는 제가 많이 도움을 받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됐고요. 병원에 와서는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환자 분들 돌보면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경제적인 거는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을 돌보면서 내 마음이 성숙해 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좀 깊어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려졌다고 할까요.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Q: 앞으로도 간병 도우미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직업을 좀 한 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아이가 조금 크고 하면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나요? 미래에 대해서.

A: 간병 일을 계속 이어서 한다기보다 중간 중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돈이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아이가 클 때까지. 이제 그런 일도 좀 해보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좀 먹으면 이렇게 좀 간병인 일도 같이 포함 되어서 이렇게 좀 크게 해보고 싶은 마음. 사회사업 쪽으로 있죠. 한 분을 돌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좀 크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그런 게 능력이 되고 모든 게 되면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죠. 이제. 많이. 경험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Q: 어머니, 혹시. 이거는 저희 면접이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혹시 산모 도우미

아세요?

A: 말은 들어봤어요.

Q: 지금 간병 도우미는 나중에 경력이 쌓이셔도 추후에 돈이 이렇게 확 늘지는 않는데 산모 도우미도 이런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모 도우미를 하게 되시면 경력이 쌓이게 되시는 거예요. 추후에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여사님들처럼 하시게 되면 급여가 1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A: 그래요?

Q: 상관없는 건데,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더 좋으시니까.

Q: 이쪽 간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서 유료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거 하시는 이유가 시간 때문에.

A: 시간이... 유료 여사님들 들어보니까 24시로. 한 분이 나시면 그 분이 퇴원하실 때까지 이렇게 같이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주간, 야간 딱 있으면 낮에 하고 밤에 하고 그러면 차라리 병행도 더 편할 텐데.

Q: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신 거죠? 시간도 되고 어느 정도 별이가 되면. 이 일, 자활 말고 수급을 탈출하셔서 가지고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A: 해보고 싶죠.

Q: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자리가 구해졌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사업을 하시거나 만약 하시게 되면서 수급을 그만 받으시게 되면 제일 좀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따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시는 건 없으시지만 의료급여 라든가.

A: 아, 여기서 떠나서 개별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아쉬움.

Q: 어떤 면에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급여, 의료혜택 뭐,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지금 크게 이용하시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A: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요즘은 자녀분들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왜 어느 정도 저희, 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입장, 저희가 주로 혼자 되신 분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돌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잘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 만족은 안 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할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게. 아직은 아이가 성장 단계에 있고 경제적인 것도 도움을...

Q: 어머니 아까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도 있으신 것 같고 꿈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지금 현재 나라에서 돈 받고 계신 게 딱히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수급권 안에 계시지만. 하지만 어쨌든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계신 거고 뭐, 이러한 도움에서 열심히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한 번 수급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나요?

A: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많은 쪽이고요. 너무 그 힘드신 분들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거를 해주니까. 거기에 안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좀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아, 기본적인 이게 해결이 되니까. 안주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두 갈래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빨리 탈피를 했으면 하는 물론 이렇게 이제 직장을 이렇게 빨리 구하기 힘든데 다니게 해 준 거에 이런 것은 되게 고맙죠. 빨리, 빨리 구하

고 시간을 맞춰주기 힘들잖아요. 어디 직장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런 직장이라도 월급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경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뭔가 참 좋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빨리빨리 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저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얼마나 강인하게 이겨내고 부족한 것도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Q: 어머니는 금방 탈피하실 것 같아요.

A: 빨리 하고 싶어.

Q: 어머니 예전에 이거 하시기 전에 뭐, 백화점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A: 그냥 사무실에서 좀 했어요.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Q: 일을 그럼 결혼하시고도 계속 하셨나요?

A: 아니요. 결혼하고는 안 하고. 집에서 있다가 애 아빠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죠.

Q: 어머니 처음 수급 신청하러 가셨을 때, 상담하러 가셨을 때, 계속 공무원 분들이랑 어쨌든 관계를 맺게 되지않아요. 동네에 공무원 분들 어떠세요?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이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려 주시고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A: 제가 동사무소를 좀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도 잘 안 맞고, 찾아가서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글썄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이신지 그걸 자세히 모르고 그 분들도 또... 설명 없이 막상 대면하려 보니까. 글썄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슨 서류 같은 거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한 번은, 그게 다 틀린가 봐요. 한 분은 굉장히 도와주려고 긍정적으로 제 말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러는데 한 쪽 분은 의외로 또 대충대충 서류 같은 것도 넘기고 말을 하시는 것도 그냥. 마음이 그

때는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냥, 뭐 좀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 이분이 사회복지 담당이신가. 아니면 저 분은 뭐하시는 분인가.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안 가 봐서 모르겠어요.

Q: 담당하시는 전담하시는 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A: 예. 얼굴을 보면 제가 아는데, 아, 이분이 이신가, 이분이신가. 두 분이서 서로 이분이 이거하고 이분이 이거하고 양쪽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마음부터가 얼어 가지고 오는데.

Q: 그렇죠.

A: 꼭 그렇게 해야될까하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Q: 그런데 어머니 수급 받는 게 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 권리 ((웃음))

Q: 예, 권리라고. 저희가 배우기는 권리라고 배웠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시고 또 이제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사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움 받는 게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도 그런 교육을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급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단어 말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가난하고 무모한 사람들, 한 마디로 동정, 처음에 마음이 동정하다 시피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에는 들어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막 권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Q: 실제로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 도

와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 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급권자라고 말씀할, 수급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사실 개념은 달라졌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확실히 안 되지 않나 싶은데.

A: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정해진 일자리이긴 하지만 시간은 다 채우고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속상한 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분을 봤을 때, 음, 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히 다른데서는 못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재가 보호 다른 데서는. 그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시고 굉장히 외로움도 많고 이러시니까 고마워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병원에 요새 유료로 간호, 이렇게 간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분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병실에 주로 8인실 이런데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네 분, 다섯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딱 옷이 색깔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눈에 이 일이 비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말을 하죠. 우리도 당연히 시간을 다 하고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웃음))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시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심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걸 느껴요.

Q: 어머니는 이렇게 나라에서 신청하러 가셨을 때 서류 제출하고 이러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별로 없으셨겠어요.

A: 예,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이러이런 걸 해주세요. 해서 어려운 거는 서류에서는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Q: 금융조회 하지 않습니까? 재산하고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금융, 저희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그냥 우리 연금 나온 거 띄어 보고,.. 아, 연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하는 그런식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중간에 또 전화가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중간에. 중간에 이제 뭐, 그 즉시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시고 그 나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제 그 중간, 중간 또 있나 봐요. 별로 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전화가 오셔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보험 들어가는 게 있으며 영수증을 좀 띄어 달라. 그런 거는 통보를 받았어요.

Q: 실제로 소득이 많이 있는데 좀 뭐, 신청을 해서 수급 받는 그런 부정 소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사무소 직원이 취지를 설명해주시던가요?

A: 아니, 그걸 충분히 설명을 못 듣고. 이제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뭘 중간에 띄어 오라기도 참 중간에 저희가 일을 빠져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분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내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라고 보여요. 그게. 팩스로 좀 보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고. 또 갑자기 며칠 기간도 안 주고 그냥 급히 전화를 해버리니까는 저희 같은 사람은 일을 하는 중간에 하면 그러면 신경이 사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Q: 참 그렇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시간에 서류를 띄어 오라, 또 안 띄어 가면 수급을 못 하는 거고. 불이익이 있는 거고.

A: 예.

Q: 참 어렵네요.

Q: 어머니, 아까 돈 받고 계신 거 그걸로 생활하시도 보면 사실 돈이 좀 부족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A: 그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명절이 낀다든지 특별히 어디다 돈을 조금 나가야 된다거나, 돈 모으는 거에서 조금 깎 수밖에 없어요.

Q: 돈 빌리시거나 이리시지는 않아요?

A: 아직까지는 제가 빌리고 쓰질. 제가 그냥 차라리 깨서 쓰고 이자를 조금 갖다 넣더라도 저는 이제 사람한테 빌리지는 않는데, 빌려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모은 거에 대해서 돈이 새나가니까. 연말 되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돈을 버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웃음)) 그런.

Q: 나라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머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의료비면 의료비, 교육비면 교육비 이렇게.

A: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 상대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대상자로 여러 사람이여서 제가 그게 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저 같은 입장이 또 틀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이 틀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크는 과정이니까. 또 아이 교육 쪽에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Q: 교육비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아이가 대학에 가고 이렇게 되면 수급 자격이 없으시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A: 예.

Q: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그러니까. 저희가 나라에서 이 정도로 해주는 거는 굉장히 고맙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조금씩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한계는 돈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고 아이는 성장하지만 들어오

는 돈의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고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느 정도 멈춰 버리면 애들이 월등히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대학을 가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돈 별이를 하고 직장 생활, 취직을 자연스럽게 해서 하면은 또 나이 드신 엄마가 덜 부담되면서 조금이라도 별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속 받던 돈이 붕 떠버리는, 이렇게 좀 약간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한테 들으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다 끊기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분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맞는 취직이 안 되는 거D예요. 그래서 서로 탈피를 못하는 부분이.

Q: 그렇죠. 20살 되면 이제 일단 근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뭐,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아무래도 대학 졸업을 하는 게 요구하니까. 사회적 위신을 떠나서.

A: 그렇죠.

Q: 실제로 빈곤이라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도를 보면 대학을 못 가게 대부분 만들어 놓고. 돈을 벌어라, 그런 식으로 제도가 짜여 있는 거라서.

A: 제가, 그런 걱정을 미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닥치니까. 아, 이 애가 대학이라도 되면 학원비를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만약에 대학을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의 모든 것을 내가 그때까지 얼마를 저축을 하던지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안게 되더라고요.

Q: 이런 고민들 어떻게 서로 말씀, 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상담할 그런 분 주변에 계십니까?

A: 아니, 없고요. 또 누구를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런 분을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또 얘기를 아직은. 해 본적이 없어요.

Q: 혹시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A: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 그렇게 도움 받을 그런 곳은 아니에요.

Q: 어머니, 혹시 아이 키우면서 필요한 게 있으셔서 동사무소에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A: 아니,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어요.

Q: 연금 받으시는 것 때문에 급여 한 17,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소득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수궁이 되시던가요?

A: 안 되죠.

Q: 연금을 이제 뭐, 다른 거 말고 사실은 아버님이 예전에 연금을 내시면서 기여를 하셔서 받으시는 건데.

A: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수궁이 안 되고 어디다 따져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러 하라로 자꾸 재촉하면서 정말. 그랬는데. 근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저희가 그때도 IMF 직전이니까 저희도 힘들 때고, 사정이어서, 그럴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시작했었던 건데.

Q: 어머니 또 다른 불만 사항은 없으세요? 혹시 공무원들 분한테 이런 건 좀 잘못 된 거 아니냐, 얘기해 보신 거나, 속으로 삭히고 계시면, 불만사항, 제도에 대해서. 많으신가 봐요.

A: 공무원들 자리에 앉고, 위치에 앉아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저희 동생도 공무원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직장이라는 게 하나의 표현이 같

은 사람들끼리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서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그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부 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서류나, 이러니까 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할 때나, 서류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하셔서 정말 그, 그 분 한 분, 한 분들의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와 닿지 않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아이가 끝나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데 상담할 곳은 못 찾고. 막 이렇게 헤맬 때, 정말, 복지관이 뭐고, 복지관이 왜 있고, 정말 이런 게 왜 필요하며, 이런 기회가 실질적으로 아,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러니까 상담하시고 하세요. 이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통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부 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런 거는 많이 붙여져 있죠. 플랜 카드 같은. 많이 붙여 있는데 우리가 막상 가서 상담을 할 때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 이거는 상담을 했어도. 나하고는 일이 안 맞구나.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들도 하나의 직업이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자기가 해야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우리 같이 좀 사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좀 가끔 가다가는 다는 못 해도 혼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거는 있어요.

Q: 두 가지 문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때. 조금 자기 일처럼 공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된다면 조금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 편할 것이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 되는 거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 이게 이제 공무원이 연결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려고 하는데도 나한테 필요한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A: 예, 그런 것 같아요.

Q: 공무원들의 상담 태도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해결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 같고.

A: 되돌아 올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 올 때, 뭔가 상담을 하고 올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이 문제인데, 또 많은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을 못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한계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면서도 웬지 모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피부 적으로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Q: 서운함이 들고

A: 예.

Q: 어머니, 상담은 어떻게 상담실에서 따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 공무원 이렇게 앉아 계신 자리에.

A: 상담을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많이 속이 상했고.

Q: 상담실 따로 있지 않나요?

A: 예, 있어요.

Q: 거기에서 안 받으셨어요?

A: 예, 있는데.

Q: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형식적으로 놔두시고 본인 자리에서 업무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자기 편한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종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A: 처음에 상담이 좀 편치 않게 받았어요. 감정이 좀 그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Q: 그렇죠.

A: 예.

Q: 어렵게 가신 건데,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시면.

A: 그게 좀 오래 제가 남았던 것 같아요.

Q: 그 뒤에 뭐, 서류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거 말고 따로 혹시 뭐, 생활 어떠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까?

A: 예.

Q: 어머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아이를 키우시니까 아이에 대한 희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는 꿈도 있으실 것 같고. 좀 더 현실적으로 앞으로 당장 몇 년 후를 바라보면 이 일을 마치시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A: 구체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짜기가 딱 아직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걸 잡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건 있어도 여러 상황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딱히 뭐를 하려고 해도 실천하기가 딱 뭐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냥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건 있고요.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저한테 좀 제가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좀 이렇게 일자리든 뭐든 제 자신을 튼튼하게 키워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Q: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신 분이 처음이세요.

A: 저는 그냥 너무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제가 뭘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Q: 느끼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거니까요.

A: 제가 답변을 한 게 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게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Q: 여러 가지, 자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양할 거고. 또 이제 일에 대해서 가지는, 일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르실 거고. 또 뭐, 수급자로 수급 받는 입장에서의 느낌도 다 다르실 거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려고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맙게 말씀 잘 들었고요.

Q: 어머니 자활 후견 기관 통해서 이거 소개받으신 거잖아요. 자활 후견 기관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주셨을 것 같은데 선택을 하신 거죠?

A: 예.

Q: 이거 간병 도우미.

A: 예.

Q: 어떠세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호감이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나요? 아니면?

A: 일자리들이요?

Q: 예, 일자리들이 너무 좀 비전도 없고 솔직히 그냥 지금 현재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있고 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A: 글썄요. 저는 이걸 너무 몰랐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이제 이렇게 일은 있어도 알려져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활 기관이 있는 지도 몰랐고. 거기 가서 이렇게 배송도 있고 산모 도우미도

있고, 장애 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기관이 있구나를 거기 가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장애아들을 하려다가 안 돼서 이제 이거 복지를 이제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에라도 내가 이런 쪽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해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에. 이제 배송을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배송은 못 하겠습니다. 하고 예식도우미가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늦게 끝나고 이거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마다. 그래서 그러면 복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 각자의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하다보면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절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회적인 일자리라는 게 딱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나이를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또 그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찾아가서 젊으신 분들이야,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서 할 수 있지만 그 분들한테는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가. 좀. 예. 나이 때문에도 어디 직장을 못 구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Q: 긍정적이신 편이네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게 보면 계속 꾸준히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텐데 근데 반면에 자활이라는 게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일을 발판으로 탈피하시고 (?)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간병 도우미 일을 하시는 게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 당장에는 나타나기 힘들겠죠.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 미숙함이 많아서 제가 모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갈 일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 나이

에는 간병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통로를 통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면서 그 하는 과정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관계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아, 이런 쪽으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쪽으로 보이는 것 같은 전 그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이거 하면서. 딱히 뭐 지금 당장 뭐, 몇 년 뒤 그걸 딱 하지는 않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절박한데 몇 년이라도 일자리를 해주는 게.

Q: 아마, 이제 여러 사람 나이라든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테니까. 체질에 따라 연결이 되면. 저는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A: 아니요.

□ 수급자 10

- 조사지역 : 수도권
- 가구유형 : 일반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1년부터 총6년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39	남	없음	허리디스크
부인		여	없음	손목 관절염
자녀	10	아들	학생	
자녀	7	딸	.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실평수는 약 13평 정도.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동 옆에 삼산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음. 방1, 거실 겸 방1, 작은 부엌가 화장실이 있음. 아파트의 전반적인 상태는 노후화 되어 있었음. 집안은 비교적 청결하였으나, 장롱등의 생활필수품이 없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p>본 피조사가구의 수급 상태는 조건부유예제시자임. 비교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디스크가 심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보였으며, 부인의 경우 관절염이 심해서 부엌일과 같은 가정 일을 하는것도 버거운 것으로 보임. 실제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남편의 경우 앉아있었지만 면접후 1시간이 지나자 몹시 불편해 보이는것이 역력했음. 하지만 완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음(39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임. 면접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는 중상이었음.</p>

Q: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으시는데 몇 가지 여쭙어 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도움이 될 만한게 없는지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 사신지 오래되셨나요?

A: 2년 됐습니다.

Q: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몇 년 되셨나요?

A: 잘 모르겠는데요

Q: 수급자 되면서 오셨나요?

A: 아니요 그 전예요. 수급자는 여기 오기 그 전에 됐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잘안 되서 완전히 식구들이 다 찢어져 있다가 갈라져있다가 그나마 집사람이 (영구 임대아파트)신청을 해놔서 애들은 할머니집에 저는 따로 집사람은 친정..그렇게 지내다가 이거얻고..오게 된거죠.

Q: 혹시 허리가 안좋으신가요?

A: 네

Q: 지금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A: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는 괜찮아요.

Q: 면접하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수급 받으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지금 한 6년..

Q: 2001년부터 받으셨나요?

A: 네

Q: 지금 연세가 39세이신데, 어떻게 수급을 받기 시작했나요?

A: 그전에는 가정용 게임기 장사로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된 편이여서 레스토랑도 하고 했는데.. IMF 터지기 전에 장사가 계속 안되서 월세만 내고 있다가 종업원 내보내고 가게 인테리어를 손님이 없으니깐 무리하게 했는데 인천 주안에 물이 찼었어요. 돈 들인거 다 날리고 장사가 또 안되서 또 빚을 얻어서 또 인테리어를 했는데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사밖에 되는게 없으니깐 다시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때부터 빚이 불어나서 가게는 가게대로 접고.. 인테리어 빚은 그대로 남고. 카드빚도 남고.. 저는 배운게 없으니깐 일일근로자해었죠.

Q: 동일 쪽을 하신건가요?

A: 네 노동일..그거를 2년전까지는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달라고 못했는데 너무 못참겠어서 올해 초에 갔어요. 도저히 아파가지고 동사무소에 도와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담당자 분이 좋게 말씀 하셔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Q: 그럼 2001년쯤에 수급자신청을 하신건가요?

A: 구청 사회복지과에 집사람이 먼저 2001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키우면서 일일 근로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벌다가 논지가.. 일년에 몇달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현장가서 먹고 자고 해보려고 했는데 서있는 일만 걸리면 참지를 못하니까... 조그만 병원 가면 큰병원 가라고.. 그러다보니깐 그냥 집에 있어버렸죠.

Q: 치료는 계속 안하시구요?

A: 조그만 병원에서 주는 약은 한참 먹었어요.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요. 고통이라도 없애보려고 약을 좀 독하게 해주세요 하니깐 더 이상 독하게는 안되고 큰병원가서 정밀검사 해보시라고.. 알겠다고. 그 약먹으면 너무 지치니깐 그냥 진통제 게보린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Q: 허리통증 때문에 그런건가요?

A: 허리통증.. 허리통증인데 그걸 먹으면 순간적으로 좀 나아요.

Q: 예전부터 허리가 안좋으셨나요?

A: 예전에도 좀 안좋았는데 그런걸 못 느꼈었어요.. 일일근로자 나가면서 더 안좋아져서.. 일일 근로자 나가면서 더 심해졌죠

Q: 병원에서 병명이 뭐라고 하나요?

A: 지금은 디스크 쪽은 확실하니까 큰 병원 가시라고 하시는데.. 그 빛을 조금씩 갠고 있어요.. 그걸 갠고.. 그걸 나눠가지고 구청에서 구제신청 해 준거 있지만 조그만거 수협 같은건 안넘겼더라고.. 여기 사는거 이거라도 받아내겠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내서 갠고 있어요.

Q: 부채가 상당하실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A: 지금 세탁기도 없고 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구청에서 조사 나왔을때 꼬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나왔을 때 필요한거 없냐 그래서 이것만 말씀 드려서 3개월인가 그때 이거 주시더라구요.

Q: 부인도 따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A: 제 와이프도 관절염이 있어서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식당이라도 나가보려고 나왔다가 앉았다 일어나는걸 못하는 거예요. 상을 치워야 되는데 상을 못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요.

Q: 생활비가 생계비 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친척분들이 도와주시나요?

A: 전혀 없어요. 예,, 그 이후로는 찾아뵙지 않고 있습니다.
안사람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가고 있습니다.

Q: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A: 저는, 젊은 놈이니 도움 받는 자체 좀 그래가지고.. 용역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되니까. 동사무소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Q: 생계급여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A: 101만원 나옵니다.

Q: 별도의 수입은 없으신가요?

A: 네

Q: 4인가족이죠? 자제분은 몇 학년 이죠?

A: 3학년 아들과 7살 딸입니다. 7살 딸은 삼산복지관 놀이방 다녀요..

Q: 사회복지관 따로 비용지불은 안하고요?

A: 비용은 어찌다 몇만원 정도고 다른건 거의 안들어가요.

Q: 사모님은 일을 안하신지 오래되셨나요?

A: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Q: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 진단서를 내시나요?

A: 네, 3개월에 한번씩이요

Q: 병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좌측 부염좌, 자세히 안봤어요. 큰병원에 가보라고.. 좌측부염좌 요추염좌 두개를 써 놓았는데 복지관에서 큰병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가보라고 그랬는데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여유있을 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ct라도 찍고 한번 봅시다. 디스크는 확실한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집사람이 비용안드느 거죠? 하니깐 의

사 선생님이 여기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네.. 이것만 받으면 되지 뭘 더 받으려 하려고 하나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왔어요.

Q: 의료 급여도 받고 계시지 않나요?

A: 2종으로 받고 있습니다.

Q: 동사무소에서 도와주시는거 빼고 복지관이나, 교회 등 다른 곳에서 도와주시나요?

A: 없습니다.

Q: 명절때 선물이나, 청소나 다른 것들..

A: 어르신들만 도와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동사무소의 급여가 유일한거네요?

A: 예.

**Q: 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전적 도움 이외에 필요로 하신게 있나요?
임대료는 생계비에서 따로 나가시는건지 면제를 받으시는건지?**

A: 101만원에서 나가는데..

Q: 따로 나가시는거예요? 아마 생계비 안에 주거비가 포함되는 것일 텐데 많이 부족하시겠어요. 여기 관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A: 여름에는 10만~12만원정도 겨울에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Q: 그 관리비가 연료비를 포함해서 나온 건가요 ?

A: 네..

Q: 생활비가 부족하실텐데.. 생활비가 어느정도 드시나요?

A: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애들 어디 간다고 하면 할머니에게서 빌려오고 그러죠.

Q: 할머니 근처에 살고 있으신가요?

A: 장모님도 혼자 독거노인으로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깐 그나마 거기서 또 제가 예전에 생활을 할때는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Q: 부채는 매달 얼마나 상환하시나요?

A: 부채가 매달 25만원씩 나갑니다.

Q: 그게 다 끝날때 까지 금융 거래가 힘들시지 않나요? 신용불량자 부채탕감 하신적 있나요?

A: 부채탕감은 없구요.. 정부에서 구청해서 해준거 뿐이고요. 수협거는 안넘어갈거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게 좋다고 해서, 제가 수협에 가서 말씀드리고..

Q: 그거 말고 다른 금융거래 같은건 없나요? 제재를 받거나.. 필요하셔서 돈을 빌리시거나 하실 때는 없으시지요?

A: 네

Q: 6년전에 사모님께서 수급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가신건가요? 혼자 가신건가요? 다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신건가요?

A: 집사람이 주위분들에게 얘기를 들었구요. 동사무소 찾아가면 젊은 사람이 무슨 신청을 하나.. 좀 그렇자나요..

Q: 직원분들이 어떻게 대하셨나요?

A: 좀 부정적으로.. 집사람이 하도 안되겠으니깐 구청으로 간거죠.. 거기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거죠.

Q: 사모님은 주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셨고 선생님은 사모님 신청하면서 추가적으로 따로 들어가신거고요?

A: 네

Q: 그때 동사무소 직원분이 부정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랬는지 아니면 수급신청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땠나요? 지금도 가끔씩 신청하러 가거나 진단서 때려 갈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A: 그 전에는 집사람한테 일하실 수 있는거 같으니깐 나오시지요.. 그런식으로 얘기했었나봐요.. 지금은 별다를 제재없이 도와주시죠

Q: 찾아오시기는 하나요? 가정방문식으로..

A: 오신적 없고..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후 부인께서 답변 주심!!

A: 아니야~ 가정방문 나왔었어.. (註: 명함을 보여주심. 가정도우미인듯함) 이번에 나오시자나 동사무소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해서 수시로 방문하시고 연극 공연이나 문화 공연 같은거 있으면 애들 보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컴퓨터도 보내주시고.. 구청해 신청해서 컴퓨터 주시고..컴퓨터 얘기하니깐 바로 신청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Q: 컴퓨터 외에 다른 도움은 없나요?

A: 연극공연 간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얘기도 아파서 못갔죠.

Q: 동네 분들과 교류를 하시나요? 영구 임대 아파트라서 수급자 분들이 많으신데...

A: 얼굴만 알죠

Q: 젊은 분들도 많이 사시나요?

A: 요즘은 많이 살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만해도..많이 사는거 같아요 왔다갔다..

Q: 어느 단지의 다른 분이 같은 수급자인데 돈 등의 추가로 뭘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A: 그런 말은 못들었습니다.

Q: 부채가 한 달에 25만원인데 어느 정도 갚으셔야 하나요?

A: (남)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여) 그게 있자나..자산공사..???(註:이해가 안됨)

(남) 그거는 빼고..

(여) 그것도 수급 상태를 지속하는동안 갚아야된다고..

Q: 겨울에 모자르신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A: 그냥 아는 분들한테 조금씩 빌리죠..우선 신랑 친구들과 아는 분들께 조금씩 빌리고.. 조금씩 빌리는데 갚진 못하고 있죠.. 예전에 많이 도와줬었거든요..그렇다고 큰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니깐..

Q: 친구분들은 많으신가요?

A: 많지가 않아요. 이젠 다 끊어졌어요. 아무래도 점점 더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죠. 문도 안열게 되고 교류가 적게 되죠.

Q: 자제분들도 커가면서 고민이 많을것 같은데요. 생활하시면서 제일 고민되시는게 무엇인가요?

A: 제일 어려운게 애들한테 좀 부실하게 먹여야 하는게..

Q: 의식은 가끔 하시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안하고..

Q: 치료를 받고 계신데, 나중에 나아지면 일은 하실건가요?

A: 네. 당연한거죠..

Q: 일을 하시면 수급자에서 제외돼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A: 그렇죠,,그게 답답하죠..

Q: 일은 하고 싶으신데 몸이 안되시니깐?

A: 당장 엇그제도 애 소풍간다는데 뭐 해주지를 못하니깐.. 과자 몇 개 사서 보냈는데.. 답답하죠..

Q: 지금 받으시는 생계비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준다면..?

A: 생각해 본 적 없는데...

Q: 현재 100만원 받으시는데 100만원가지고 생활비로만 쓰시는데 주거 관련해서 임대료 관련해서 20만원정도 추가로 얹어주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A: 그렇죠..

Q: 의료보호, 주거비, 생계비 여러 가지 받고 계신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는?

A: 병원비.. 병원이 도움이 크고요 생계비도 크고 두 개다 도움이 크죠.. 병원비가 엄청 나죠..

Q: 의료보험 2종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본인부담이 조금은 있으실텐데요?

A: 1500원정도. 급여일수 상한제 때문에.. 날짜 꼬아가면서 해야해요..신랑이 허리가 안좋은데..저도 관절이 안좋은데 물리치료 받으면 그 약타고 하면 30일이 되니까. 물리치료는 되도록 집에서 그냥 찜질해요. 그거 하게 되면 이틀이 더하기 되니깐..

Q: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과도하게 쓰셔서 이렇게 된 건데 진단서를 받으면 연장이 됩니다.

A: 네

Q: 큰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나요?

A: 말씀 험하게 하신분이 완치 될 수 있다고 하신적이 있어요.,

Q: 험하게 하신분이 그 복지관에서 소개해 준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그분은 다른 것도 안보고 손으로만 보고.. 대충..

Q: 거기가 큰 병원이었나요?

A: (여) 제가 어렵다고 상담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연결해주셨어요. 갔더니.. 완전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혈레벌떡 갔는데 뭘(CT) 찍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깐 그냥 왔어요. 생활비가 툭 떨어진 상태에서 해준다고 하니깐 반가운 마음에 그냥 급한마음에... (남) 예전에 100M를 못걸었어요.. 발가락까지 뻗기고 하니깐.. 내심 기다렸어요.. 복지관에서 한번 해준다고 하니깐 제가 어려워니깐 그냥 한번 신세지고 열심히 일다녀보자 하고 간 건데..

Q: 집에서 집에만 계신가요?

A: (여) 일다니는 것은 없어요

Q: 집에서 부업이나 소일거리 해보신적 없나요?

A: 없어요. 아파같은 경우에는 계속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아파가지고...

Q: 계속 누워계셔야 하나요??

A: 오래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잠자다가도 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뼈 관절이 붓는.. 관절염에다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고 손마디가.. 할머니들처럼 손마디가 부어요. 전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만 일을 하려고 하면..

Q: 오래되셨나요?

A: 예.. 좀 됐죠. 첨엔 수급자 신청하고 이십 얼마가 받았었는데 애기아빠가 결국엔 못다닌거예요. 애기아빠.. 너무 아프니깐 그래서 이번 년도에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생계비로 100만원을 받게 된 거죠.

Q: 그나마 신청하고 나서 숨통이 좀 트이셨겠어요?

A: 그전에 애기아빠가 아프면서 미리 신청을 한게 아니라..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어려우니깐 돈을 꾸게 많아졌죠. 생활비가 없으니깐.. 애기아빠가 정 안되겠으니깐 직접 신청한거죠.

Q: 신청하실 때 도와주신 분이 있나요?

A: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애기아빠는 처음에는 빨리 나아서 일이라도 해야하니깐 우선 병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MRI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일을 못해서 생계비라도 해달라고 2월달에 신청한거죠

Q: 그 이후에 의료비등의 요청한 거 있나요?

A: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그렇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부탁했더니 MRI 같은건 안된다고 했죠

Q: 복지관에서는?

A: 저희는 복지관에서 MRI 무료로 연결해주는 줄 알았는데 CT촬영 우선 해준다

고.. 그것도 없으니깐 못하고..

Q: 수급 받는것을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나요? 자녀분들이 생계비 지원받는 거 알고 있나요?

A: 생계비 받는 거는 모르고.. 학교에서 국비지원으로 컴퓨터 같은 거 한가지씩 해주거든요 그건 가르쳐줬어요.. 엄마아빠가 어려워서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깐 니가 열심히 해야한다.. 안그러면 짤린다.. 그게 1년에 두번 이상 빠지면 탈락시켜 버린데요.. 그걸 알아요. 아직 어리니깐 잘 모르죠..

Q: 친구나, 친인척은 아시나요?

A: 모르죠. 말도 안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된 이후 거의 연락을 안하니까 모르죠.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같은거.. 예를들어 여기서 좀 나아져서 나은데로 간다던지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A: 그건 그냥 꿈이죠.

Q: 현재는 우선은 낮은 것이 첫번째 인거죠?

A: 그렇죠.

Q: 만약 몸이 좀 좋아하신다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은 있으신가요?

A: ...글쎄요.

Q: 동사무소에서 자활후견기관이나 도와드리는 곳이 있는데 가보신적 있나요?

A: 조건부수급자라고 애기아빠 수급자 하기전에 20만원 받을 때 담당하는 분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평 어디 가보라고 했어요. 그때 몸이 안좋았는데.. 아가씨들 쪽 있는데.. 나이도 젊으신데 일도 안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일 할 수 있죠? (담당공무원)라고 했을때 사람들도 많고 창피하고 해서 그냥 예..예.. 했어

요.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조용하게 얘기했으면 했을텐데 사람들 많은데서

Q: 상담실에서 얘기했나요?

A: 아뇨.. 그냥 동사무소에서.. 사람 짝 등본떠고 하는데.. 애도 데리고 있고 그래서 창피해서... 몸이 안좋은데 진단서를 안냈었다 그랬더니 안되겠다고 몸이 안좋으셔서 자기네가 이분은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줄테니깐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알게 된거죠. 아줌마도 많이 아프구나..

Q: 상당히 기분나쁘셨겠어요.. 지금 직원분들은 어떠세요?

A: 지금은 좋아요 처음에는 부개동에 있었는데 아가씨가 저희 집에 와보셨을때 생활환경을 보았어요. 그때는 지인분이 집이고 뭐고 압류들어오고 해가지고 해서 수급 신청을 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수급자 신청하고 한거예요. 그 분이 아들이 군대 갔다고 와서 살고 있으라고 해서 그 땐 오갈때가 없었거든요. 가게고 집이고 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작은방에서 얹혀 살았죠. 그 할머니(지인분)가 얘기도 어렸거든요. 어려운데 신청을 해라. 저희 어머니도 어려워서 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얘기해서.. 얘기아빠는 좌절을 해서 자포자기해서 낫이 나간 상태였고. 신청을 해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집다 보고 수급자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아가씨가 한달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아가씨가 왔는데 쓰레기봉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일하시라고..내가 얘기가 어려가지고.. 그때 당시는 몸이 이렇게 안아팠거든요.. 일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쓰레기봉투나 받으러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좋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죠. 어려워서 신청을 했는데 괘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뭐라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줌마한테 언제 그랬냐고' 암튼 그랬어요.

Q: 혹시 제도가 바뀐다면 생계급여, 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 어떤 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0여년전보다는 많이 확대된 거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언론등에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급자들 만나서 듣고하다보면 원하는게 많더라구요.

A: (남) 그런건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요. 저희야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여) 이렇게라도 받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Q: 4인가족 생계비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어느쪽(부채, 관리비, 식비 등)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지??

A: 먹는거죠.

Q: 외식도 잘 못하시고?

A: 외식은 생각도 못하고..

Q: 자제분 학원은 다니고 있나요?

A: 없어요. 보낼수가 없어요.. 다행히 공부 잘해요..

Q: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A: 컴퓨터 해요..

Q: 복지관에서는..?

A: 피아노 신청을 해준다고 담당분이 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저는 그런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놀이방 선생님이 얘기 해줘서 알았는데.. 봄에 신청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Q: 제도나 혜택의 정보를 복지관을 통해서 얻으시나요?

A: 예...그런거 같아요.. 거의..

Q: 따로 절이나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A: 없어요.

Q: 복지관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 부식이나 교육 등을 제공된다면 받으실 건가요?

A: YWCA에서 거기서 공부도 해주더라고요.

Q: 복지관 자주 찾아가시나요?

A: 애기가 놀이방을 가니깐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Q: 복지관 선생님이 잘해주시나요?

A: 네 대개 좋으세요..

Q: 공무원보다 낫죠?

A: 요즘은 공무원분도 좋아요. 동사무소도 좋아요.. 이 분(?)도 잘해주시고.. 저희가 몸이 안좋고 하면 106동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그분도 좋으시죠. 상담해주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하니깐요

Q: 이름 아시나요??

A: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까먹어서..

Q: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급자 11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노인 가구(노인부부)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_(생활보호대상자) 총__15__년이상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	67	남	무직	비해당
아내	63	여	무직	비해당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중심지에서 외곽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임. 최근(작년도)전철이 개통되었음. 인근에 버스정류장도 있음.</p> <p>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동사무소도 위치해 있음.</p> <p>영구임대주택 건설과 동시에 입주함. 이전주거형태가 쪽방이었기 때문에 현 주거(샤워시설 등)와 주거지(산이 인접해 있음)에 만족하고 있음. 중앙식난방.</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자연스럽게 이행된 사례. 따라서 본인이 얼마동안 수급을 받았었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필요에 따라 전담공무원에게 확인.

무자녀 노인부부가구로 의료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었으나 의료급여 변경 이후 병의원 이용에 두려움을 보이고 있었음.

Q: 늘 이렇게 두분이 같이 계세요?

A: 네

Q: 안 심심하세요?

A: 심심기는요.. 뭘

Q: 두 분이 되게 닮으셨어요

A: 닮았어요?(할머니/웃음..)

Q: 네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A: 그.. 못들었어(할머니/웃음)

Q: 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A: 저요?(할아버지)

Q: 네

A: 이제 일곱이에요.(할아버지)

Q: 할머니는요?

A: 육십 일곱이에요.(할머니)

Q: 아... 딱 좋은 네 살차이..(웃음) 지금 두 분만 여기 사시는 거예요?

A: 예.

Q: 자제분들은...?

A: 없어요.

Q: 아 자제분들이 아예 없으세요?

A: 예, 그냥 없이 살아요.

Q: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분은?

A: 어떻게 만나요.(웃음)

Q: 소개 받으신거예요?

A: 예. 여기 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Q: 아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A: 예 몇 년 살았죠. 살다가 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아가씨가 우리집에 왔었어요. 살던 집을, 아우 이런 쪽방에서 어떻게 사냐고, 급하시면 저~그 삼천동 거기 시골집에 있으니까 글로 가던지 빨리 가시라고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못살 것어요 거기는, 부자동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Q: 아 분양 아파트 옆에 있었구나...

A: 예, 예 이런 아파트가 석 동이 있더라구요. 못 살겠더라구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그러면 판암동 한 두어달 있으면 거기 다 완공 되니까 그러면 글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와봤더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한지 이제 15년째 되네요.

Q: 아 여기 오신지 15년 되셨어요? 그럼 짓자마자 오신거네요?

A: 예. 9월 25일 우리가 이제 15년 되요.

Q: 그럼 그 전엔 어디 사신거예요?

A: 저~기 역전 옆에 쪽방에 가 있었지.

Q: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 때는 정부 수급 받으셨어요?

A: 그 때는 내가 인제 좀 젊었었죠. 그 때만 해도. 웬만한 건 저기 했는디, 거기는

인제 2종이라고 있어요.

Q: 네 맞아요.

A: 2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혜택은 없었고, 2종은, 병원 가는데, 병원 같은데 가면은 인제 1500원씩 가지고 가면은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도움 받았어요.

Q: 그러면 수급 받으신지는 15년 그 이상 되신 거네요?

A: 인자 여기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2종으로 의원 같은 데 댕기고 했죠, 그러다가 내가 인자 얘기 했죠~ 예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이 공사판에 가도 쓴 다섯 이상은 쓰지도 않아요. 안쓰고 그래서 동네 가서 얘기 했어요 내가. 내 이렇게 육신으로 벌어 먹다가 그 뭐 늙어서 일도 못하겠고 써주지도 잘 안하고, 봐주셔야 허겠다고 했어요. 조금씩 봐줘요.

Q: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기억 나세요?

A: 한 오년 됐나 안 됐나 한 오년 됐어요. 오년 전일꺼예요

Q: 그 때 할머니랑 같이 사셨구요?

A: 예, 예.

Q: 그럼 지금 정부 수급 받는 돈, 어느 정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A: 우리요? 우리가 돈이 사십 팔만원인가 받았었어요.

Q: 처음에요?

A: 예. 예. 그래가지고 인제 일년에 이 삼만원씩 올라가지고 한 오십만원 받아요 노인네 수당, 경로수당이라고 사만 오천원하고요, 저기 여기 관리비 지원 한 십한 삼만원주고

Q: 여름하고 겨울 좀 차이가 나죠?

A: 아유 틀리죠, 지금은 십만원 미만이에요 관리비.

Q: 겨울에는 조금 쪼달리시겠어요

A: 겨울에는 한 십 삼만원.

Q: 여기 각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난방이?

A: 아유 못해요

Q: 지금 그럼 생활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세요?

A: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있어유~ 먹고 싶은 것 좀 참고 그러면 되는 거지.(웃음)
남과 같이 뭐 고기를 맘테로 먹졌어요 뭘하것어요 아유 뭐 요즘 고기 한 근에
뭐, 우리 한 달 살거 값을 줘야 먹는 산다던디 우리가 그런거 먹졌어요? 못 먹
지

Q: 할머니 살림하시기 힘 드시겠어요?

A: 잘해요. 쉽지가 않지.(할아버지)

Q: 모자라거나 그러신 건 어떻게 채우세요 그럼?

A: 그란께로 살지 우짜... 뜯어 가는 사람 없고 그라니께(할머니)

그냥 애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난방, 바지 같은 것도
좋은 거 하나 못사죠. 그거 가지고는~ 뭐 좋은 거 사입고...(할아버지)

Q: 그럼 지금 도시락 배달이나 뭐 이런 거는?

A: 안되요 우리는. 우리는 안되구요 그거는 인자 2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2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하고 가끔 동해, 글서 일도 시키
고 그래요. 저기 저 도로변에 살고,

Q: 아 자활근로(하시는 거죠?)

A: 쓸고 그러고, 이런디 청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가고 그러죠

Q: 어르신도 그러면?

A: 아 못하죠

Q: 하고 싶으세요?

A: 저요? 하고는 싶죠~ 뭐 저, 저 이런 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근데 우리는 안 시키죠.

Q: 어르신이 하고 싶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A: 저, 생활비 있잖아요? 사십 몇 만원 나가는 거 때문에 안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거야 다 하죠. 그 무슨 2종이니 1종이니 가지고서 뭐 그 도로 돌아댕기면서 뭐 청소 조금씩 하는 일이야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딴겠어요 아직까지는...

Q: 공무원한테 혹시 나도 저 일 해보고 싶다고 얘기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A: 아 있죠. 근데 안된대요.

Q: 뭐라고 얘기 하세요? 안된대요? 희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

A: 아, 참여 안 시켜줘요, 여기 와가지고요. 저기 산 같은 디에서 일 시켰었어요 2종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가지고서는 한 20일씩 하죠. 한 달에, 그 때 인자 만 삼천 얼마씩

Q: 일당으로?

A: 예, 그 때 2만 얼마 2만 1천원인가 2천원인가 최고 올라가가지고, 그 때 그거했을 때는 좀 낮았죠, 그거래도 계속 하면, 근데 그것도요 썼다 하면은 또 안시켜요. 안시켰다가 잊어버릴라 하면 또 한 번 시켜요.

Q: 공공 근로 하셨구나. 그러면은

A: 네. 공공 근로요, 공공근로.

Q: 공공 근로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A: 저거 했죠. 저 공사판에 가서. 네 건설 일. 예. 잡부 같은 거. 인력 같은데 가면
은

Q: 인력 사무소 가셔서?

A: 예. 지금 인력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Q: 연세 많으셔서요?

A: 아 회사에서 사고 나면 큰일나요, 나이 먹은 사람들 지금, 그래가지고 천안 한
번 갔더니 챙겨다 줄테니 내려가래요.

Q: 속상하셨겠네요

A: (웃음), 아 회사 사람이, 직원이 챙겨 줄게 내려 가셔야 되요 하더라고, 이렇게
거 저기 나이 잡취가지고 일하러 오시면 안된다고...

Q: 건강해 보이시는 데.

A: 건강하죠.

Q: 일 굉장히 하고 싶으시겠어요.

A: 인제는 근데 그 일어요, 내는 그 전에는 젊어서는 참 위험한 일 많이 했어요.

Q: 계속 건설 일 하셨어요?

A: 예. 건설 일이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뭐 짓는 데 파이프 같은 거 매는 거
하고. 가상이 돌아가는 그런거... 지금은 안 매지만 그때는 전부 인력으로 매서

사람이 그거 일하게끔 되거든요? 지금은 껌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 올리면 되지만 그 때는 전부 매 올렸었어요. 그래서 일도 많았었는데, 일 많았었죠 뭐, 지금 저기 동산동 건설 시작하고 이럴 때라. 그때는 일 많이 했죠.

Q: 어르신, 죄송한데 고향이 어디세요?

A: 논산이요.

Q: 논산이요? 아 그럼 여기 토박이신거네요

A: 대개동, 여기 이전되고 막 올라왔어요. 어려서

Q: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A: 지가요? 스물 한 두어서너살..

Q: 그 전에 그럼 부모님과 함께 지내셨나요?

A: 아유~ 부모님 6.25 전쟁때... 다 저기 해가지고 혼자 여기 대전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뭐 암것도 다 부서진걸 뭐... 그 때 그 '공락원'이라는 데서 몇 달 있다가 저 '아동보호소'로 가서 인자 나이 먹으니까 다 서산개척단¹⁾으로 보내가지고...

Q: 간척?

A: 간척지, 저 서산개척단으로...

1) 서산개척단 : 5.16 군사혁명정부의 사회명랑화사업 수행차원에서 전국의 부랑아, 윤락녀,우범자,전과자 등으로 '서산개척단'을 결성하여, 1961. 11. 14.부터 서산시 인지면 모월 3구 '형설촌'에 그 단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노동으로 매립공사를 완성하고 1962. 10. 1. 매립공사가 준공되었음. 이후 1962. 10. 30.토지(잡종지)로 신규등록함.(인터뷰어 주).

Q: 아 예,예.

A: 거기 가서 인자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런 줄도 몰랐잖아요. 거기서 한 서너달 일하다가...

Q: 보육원에서 나오신 다음에...

A: 예, 고아원에서 좀 큰 사람들은 인자 걸로 모여요. 거기서 인제 크고 하다가 인제 어디 좀 저거 하면은 다 글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건설회사, 아 건설회사가 아니라 개척단인지... 뭐 자활! 거기서 인제 좀 거기서도 인자,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인자 학교 이거는 인자 틀렸다고 선생이 봐서, 이 건 틀렸다 싶으면 막 공부도 안 시키고, 못된 짓은 알아서 하니께 천상 개척단 같은 데 몰아넣어 버리고, 그럼 인제 공짜 일만 해주고 나오는거야.

Q: 임금 하나도 못받고?

A: 못 받죠. 그게 5.16때 아니여~

Q: 언제부터 조금씩 그림 별이가 생기신 건가요?

A: 인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자... 저런 걸 했죠, 시골에 가면 이제 농수라고 논물 대는 거 인자 이런 거 조금씩 공구리 치고 파고 이려는 거. 그런거 하다가 인자 건설 저기 동아공고 짓고 막 이려는 바람에 인자 건설로 인자 밥먹기 시작했고...

Q: 70년대부터

A: 예, 건설밥 먹었죠. 인자 제주도 가서 한 4년 있다 4년 좀 더 있었어요.

Q: 제주도는 왜요?

A: 거기 인자 노현동 신시가지 개발 하는 데 거기 인자 아파트 짓는 데 태평동 사장님이 거기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같이 따라 갔어요. 동아공고 짓던 사장님. 그래가지고 한 4년 몇 년 있다가 일로 와가지고 서울 가서 한 1년 1년

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양반 만나가지고 이 작지 같이 사는 거예요.

Q: 만나신진 꽤 오래 되신 거네요.

A: 23년 됐어요.(할머니)

Q: 그 전에 쪽방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대전역 주변. 거기 뒷 쪽... 두 분이서 같이 지내신 거예요 거기?

A: 거기서 몇 년 같이 살았죠.

Q: 거기 월 세 얼마나 내고 계셨어요?

A: 거기 뭐 4만원, 뭐 4만 5천원,

Q: 지금도 일세 받나요? 그 쪽에?

A: 거기요. 받죠. 하루? 그렇죠, 하루에 뭐 지금 한 칠팔천원 가겠죠.

Q: 거기 사시다가 여기 들어오시니까 좋으세요?

A: 아우~ 여기야 좋죠.

Q: 뭐가 제일 좋으세요?

A: 아우... 내 맘대로 닦기도 하고, 아우 좋죠. 여기 뭐 공기 좋고 살기는 좋아요. 근디 저기 저거 하니까 그렇지 살기 좋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뭐 호텔이죠.

Q: 뭐가 그럼 좀 불편하세요?

A: 불편한 거야 뭐 있어요...

Q: 이 주변에 뭐 경로당이나 그런텐 없어요?

A: 있어요, 여기 뭐 저 노인당 있는데, 노인정 가봐야 그냥 노인네들이 모여서 그냥 화투만 치고 술만 그냥, 나는 술 안먹기 시작한 지 한 일년 좀 넘었어요

Q: 그 전에는 많이 드셨어요?

A: 술로 다 뭐 이렇게 된거죠.

Q: 할머니 힘드셨겠네...

A: 아유 그 전에는 별면 다 술로 먹었죠.

Q: 아휴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디 아픈 덴 없으신가요?

A: 없어요. 예.

Q: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A: 저는 당뇨, 혈압도 있어요.(할머니)

Q: 그럼 병원에는 어떻게 다니세요?

A: 약먹죠. 뭐 사다 먹어요. 저그 의원에(할머니)

Q: 얼마만에 한번씩 가세요?

A: 보름마다 한번씩 가요.

Q: 음식 잘 드셔야 될텐데요. 당뇨랑 혈압이 있으셔서..

A: 아유... 저는 아무거나 막 먹어요.

Q: 그럼 지금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관리비랑...?

A: 관리비죠.

Q: 식사는 세 끼 꼬박꼬박 다 드세요?

A: 예.

Q: 할머니 계시니까 잘 챙겨 드시겠어요.

A: 그렇죠 뭐. 먹는 거야, 잘 먹죠. 혼자 사는 거보다 낫죠. 밥도 해주고 뭐.

Q: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술 드시고, 화투치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A: 그래서 안가요 아예,

Q: 보기 안좋으셔서?

A: 예.

Q: 복지관에서는 뭐 배우는 거 없으세요?

A: 없어요.

Q: 여기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A: 없어요.

Q: 배울 게 별로 없어요?

A: 예.

Q: 할머니도..

A: 어린 애들은 배우고 뭐 그런가보던데요 뭐...

Q: 아 근데 노인 분들은 없으세요?

A: 예.

Q: 요즘에 춤추고 이런 거 많던데

A: 아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뭐 선전하느라 그런거지 뭐 그런 게 있어요.

Q: 여기 복지관 자주 이용 안하세요?

A: 안가요(할머니)

Q: 전혀 안가요?

A: 예. 이용 할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올라가 보면은 뭐 헌 옷같은거 요런 거 팔 때나 한 번씩 올라가 보죠 뭐 없어, 그것뿐이 없어. 암 것도 없어요.

Q: 복지관 말고는 뭐 다른 데는 이용 안하세요?

A: 네.

Q: 동사무소는 직원이 좀 와요?

A: 왔다 가죠.

Q: 얼마나 와요?

A: 왜그러냐면요 생활이 나아졌나 안나아졌나 이런 것 좀 보러 왔가다고 그래요.

Q: 영당이 붙이고 앉지도 앉고요?

A: 아휴~ 그런거 없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가고.

Q: 와서 뭐하는 데요?

A: 뭐 말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가죠 뭐.

Q: 뭐 물어보는 데요?

A: 뭐 살기가 어떤지... 뭐, 살기 뻥한거죠 뭐 거기서 어렵히 알아서 알겠어요? 살기 좋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 부자사람들 애들 과자 값도 안될 꺼야 한 달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나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런 줄 모르고, 나도 좀 저기 해가지고 술로 다 내버렸지만, 돈에 대해서 몰랐었죠... 좀 내가 별 때는 뭐 저기 했으면 나라 신세 졌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져야죠.

Q: 정부 지원 받는 거 좀. 기분이...?

A: 안 좋죠 솔직히, 내가 지구 내가 지구, 나이 처먹어가지고 정부 지원 좀 받아가지고 산다는기, 솔직히 안 좋아요. 쩌,

Q: 그럼 다른 분들 지원 받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그런 게보다 하죠. 없으니까, 뭐 목구녕 풀칠은 해야 살 꺼 아니유.

Q: 정부 지원 받게 된 게 어르신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A: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죠 뭐,

Q: 근데 뭐 어르신 일할 자리가 있거나 건설 경기가 계속 좋았거나 이러면 좀 다르지 않았겠어요?

A: 지금 뭐 얘기 해봤자 내가 힘든일 하겠어요? 멀쩡히 내가 보여도... 여기 내가 산을 무진장 많이 올라 땀뻘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올라가잖아. 숨이 차서. 아이 뭐, 멀쩡하게 보이지만요 어딘가가 뭐 저거 하는 거 같아요.

Q: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A: 검사 뭐 저기 저 내시경 밖에 안받아 봤어요.

Q: 아, 요즘에 외 어르신들 한테는 보건소에서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뭐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알려주고 그러지 않나요?

A: 저거는 해주죠, 뭐 독감 주사 뭐 이런 거 그런 건 해줘요. 일 년에 한번씩, 봄에.

Q: 안질환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건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 데...

A: 아유~ 그런 건 안해요. 눈이 지금 난, 잘 안보여요.

Q: 아, 그러세요?

A: 안개 낀 거 같아 가지고. 눈이 안보여가지고

Q: 근데 검진 한번도 안받아 보셨어요?

A: 안받았어.

Q: 보건소 같은 데 가면 받아 보실 수 있으실텐데.

A: 보건소에서 이런 거 봐요? 예에~나는 보건소요, 저것만 해주는 줄 알았지 예방 주사하고, 폐, 폐 그것만 해주는 줄 알았지

Q: 보건소에서 그런 거 인제 요즘에 해주게 됐대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외 눈 안좋아 지거나, 속도 안좋아 지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물어도 보시고, 두 분 소일거리 삼아서 같이 한번 가지고 그러세요.

Q: 형제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두 분 다요? 할머니도?

A: 저는 친정 형제들이 있어요.(할머니)

Q: 아, 왕래 자주 하세요?

A: 없~어요(할아버지).

Q: 지금 급여 받는 게 좀 적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 사시기에 어느 정도 되면 괜찮겠다 싶으세요?

A: 그거야 한이 있겠어요. 한이 없지만...

Q: 그래도?

A: 둘이 살라면 뭐 좀 관리비 좀 뭐 이렇게 내고... 한 육십만원 그냥 관리비 떼놓고, 가지고서 살아야 하다 못해 생선 부시러기 좀 사다 놓고,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한 근씩은 사다 먹어야 할 거 아니어요... 뭐 고기는 생각도 못해요. 크게 뭐...

예, 크게 뭐, 담배도 끊을라고 맘 먹어도 못 끊었어요. 내가 술 끊은 지 일 년 한 3~4개월 되는데요, 담배도 뭐 인자,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하루에 막 두 갑 세 갑 폼했어요. 지금은 막 줄이는 참이에요.

Q: 잘하셨어요.(웃음) 할머니도 계신 데 건강하게 사셔야죠.

Q: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화 같은 건 안와요?

A: 가끔 와요.

Q: 가끔 방문 한다고 하셨는데 전화하면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A: 뭐, 뭐, 뭐 물어보는 얘기 대답이나 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Q: 어떤 거 물어보세요? 전화하시면? 공무원이?

A: 뭐뭐,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뭐.

Q: 어르신은 물어보는 거 없으세요? 공무원한테?

A: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Q: 뭐 난 이거 급여 너무 작은 거 같애 얘기 안하세요? 이거 돈 너무 작게 들어와 이런 얘기 안하세요?

A: 아이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 해봐야 뭐, 아래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해봐야 뭐, 몇 번 얘기 했었죠 찾아가서~

Q: 뭘 얘기하셨어요?

A: 근데 그 사람들도, 병원비 때문에 한 번 찾아 갔었어요. 병원비 땀에, 병원에 5일 입원하고 있었는데

Q: 할머니가 입원하고 계셨는데?

A: 예, 5일 입원 했는데 28만원 얼마가 나왔어요. 병원비가, 저기 00병원에서.

Q: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A: 그게, 올 봄에지?(할아버지) 올 봄이 아니라, 작년 이지(할머니) 작년 봄인가... 작년이예요 작년,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 했죠, 얘기 했더니(할아버지)... 예. 동사무소에서 몇 달 이렇게 몇 달로 이렇게 나눠서 해결 해줬어요.

Q: 동사무소 측에서 돈을 내준거예요?

A: 병원 퇴원 할때 고지서가 28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쫓아갔죠.

Q: 동사무소 가서서?

A: 내가 돈이 있어야죠. 동사무소 가서 사정했죠. 동사무소 대장한테, 그랬더니 사무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가 계시라고, 와있었더니 뭐 오만 얼마씩인가 내가지고 오만 얼마가 육만 얼마씩 한 달에, 끊어줬어요 그거를.

Q: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내 신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 돈을 내신 거예요? 한 달에 오만 얼마씩?

A: 내 이제 생계비의 40만원 이면은 병원 갔다주라고 인자 오만원이 붙어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병원 가져가서 냈죠. 내가 병원 가가지고. 그랬더니...

Q: 그, 지원금은 후원금 같은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A: 모르겠어요.

Q: 아 그건 잘 설명 안해주셨고?

A: 안해주구요. 동장님이 그 사무장한테 가서 얘기 해주고...

Q: 그럼 어르신이 동장님 직접 만나신 거예요?

A: 네가요.

Q: 왜 사회복지 담당 안 만나시구요?

A: 사회복지요?

Q: 네

A: 사회 복지 담당이 누군지도 모르는 디요 뭐.

Q: 여기 찾아온 사람이 사회 복지 담당이잖아요.

A: 쫄병 아니여? 그 동사무소?

Q: 그래도 담당이잖아요.

A: 아, 여기 와요 가끔, 뭐 얼굴도 잘 뭐...

Q: 근데 직접 동장한테 가셨구나...

A: 사회복지 가서 얘기는 하지 만은요, 사회 복지 여, 뭐 영세민 책임자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없어요 그날은 또, 없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 동장문이 열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얘기 했더니 동장님이 인자 사무장을 불렀더라구요.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구요. 그래, 사무장이 집에 가 있으라고. 한 달에 오만원 씩인가 붙여서 내보낼 테니까 병원 갔다 주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다 갚았어요.

Q: 같은 층에 사시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는 같이 얘기도 하시고 왕래도 하고 그러세요?

A: 여기는요, 참, 나 여기 참 와서는 이사 갈라고 했어요. 그런 쪽방에 살 때는 그렇게 안았거든요? 그런 막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 앞에, 난 지금 이 앞에가 이 젊은 여자 혼자 사는 줄도 모르겠어요. 누가 사는지, 젊은 여자 혼자 사는 가본디 머 왔는지 갔는지... 그란 거 몰라요

아휴~ 자지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끔 뭐,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 옆집 전부다, 여기 뭐 내일 모레가 15주년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Q: 여기 반상회나 뭐 이런거 하지 않나요?

A: 없어요. 여기는

Q: 안해요?

A: 없어요 암것도 없어요. 여기는

Q: 그럼 지금 반장이나 통장도 지금 없는 건가요?

A: 통장, 반장도 있는디요, 누가 반장인지 누가 통장인지도 몰라요. 여기, 여기는 그래요.

Q: 주민들끼리 모임 만들자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A: 없~어요 여긴 머 혼자 그냥, 그 맨날 건설회사 같은 디... 이런디 살다보면은 그런거 신경쓰겠어요. 신경못쓰는 거지... 없어요 반상회고 뭐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Q: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 뭐 정보나 이런..

A: 없어요. 아유 뭐 건설회사에 나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은, 저 인력 사무실 가서 사람 하루 팔려 나가면은 몇 푼 벌어가지고 오고. 그렇게 사는데... 원래 동네 얘기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예요 여그가, 전부 여기 모여있어. 딴 데는 몇 명씩 안되는데요, 여기는 이천 몇백 세대가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잼다 여기다 났어.

Q: 그럼 한꺼번에 계시니까 더 안 좋으세요?

A: 어유 그럼요 더 안 좋죠. 엉망이죠. 뭐.

Q: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안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살았을 때 뭐 좀 편히 살다 갈려고 했더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억울하죠 뭐 딱 거 있어요.

Q: 어르신 사는 재미가 별로 없으신가요?

A: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야 재미도 있죠. 뭐가 암것도 없으니, 재미있을 게 뭐가 있어... 뭐, 지금 밥 세 끼니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밥 세 끼니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디, 이걸 무슨 거지같이 몇 푼 주는거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 뭐 재미가 없어요.

Q: 어르신 뭐 하고 싶으신데요?

A: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다 잊어 먹었어요 인제.

Q: 그럼 두 분이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고

A: 얘기도 안해요. 얘기는 뭐 얘기를 해, 어흐흐흐흐 밥이나 해주면 먹고 이러지.

Q: 어유, 너무 재미없으시다 할아버지, 그죠 할머니?(웃음)

A: 밥이나 해주면 먹고 이러는 거지(할아버지)

Q: 할머니님 친구분 없으세요?

A: 여그 없어요. 나가면 여쪽 사람들하고는 잠깐씩 얘기만...(할머니)

Q: 그냥 동네 주민분이랑?

A: 그렇죠.

Q: 특별히 더 친한 분은 없으시구요?

A: 그렇죠. 여기 다 뭐 그렇게 살죠 뭐, 만나서 얼굴 안면 있으면 좀 놀다 들어오

는 거지 뭐.

Q: 할머니 너무 심심하시겠다.

Q: 여기 좀 외져있죠 지역이? 대전에서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편이죠?

A: 예, 떨어져 있죠.

Q: 그래서 불편하시거나 뭐 그런건 없으세요?

A: 뭐, 그건 없어요. 불편한 건. 더 교통이 좋아요. 여기 뭐 지하철도 있고, 여기 뭐, 좀만 가면 지하철도 있고...

Q: 언제 생겼어요? 지하철이?

A: 여그요?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여그 버스 한 번, 두 번만 타면 대전시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버스 뭐 4분인가 3분에 한번 씩 있죠, 교통은 좋아요 여기.

Q: 날 좋을 때 마실도 좀 다니시지요.

A: 가끔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죠.(할머니)

Q: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A: 저런디 가서 앉아서 얘기 좀 하다 오고... 그것뿐이에요. 뭐 사는 게 그렇죠 뭐, 큰 재미 보고 살것어요.

Q: 할머니님은 뭐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으세요?

A: 몸이 안좋아가지고(할머니) 몸이 못해요,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할아버지)

Q: 아 걸음도 제대로 못걸으세요?

A: 걸음도 잘 못걸어요.

Q: 그럼 병원에는 5일 밖에 입원 안하신, 더 입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아유 그냥 나왔어요. 돈 때문에....

큰일 나죠, 돈 그거 많이 올라가서, 그 5일, 5일 있었나 5일도 안되는 데 28만 얼마가 나왔는데... 애기 해가지고 그것 좀 조까 바꿔줘요.

Q: 이제는 식비 같은 게 나라에서 내주니까...

A: 자기 부담이 우리는요,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부담이 굉장히 싸더라구요. 쪼매난 병원에 입원했는디요, 하루에 얼마더라... 1500원 가지고 가면 될 것 인디 얼마까지 해주던가 700원인가 할 것인디. 내가 내는 것은 근데, 거기는 많이 받더라구요, 큰 병원은.

Q: 할머니 지금 제일 안 좋으신 데가 어디예요?

A: 몸이 안 좋죠 맨날, 당뇨 때문이에요.(할머니) 당뇨, 혈압, 혈압도 높아요 혈압약도...(할아버지)

당뇨, 뭐 뭐 약인가 그냥 몇 개씩 줍니다.(할머니)

Q: 약은 제 때 챙겨 드세요?

A: 네. 다리가 저려 죽겠는디(할머니)

Q: 다리가 제일 불편하세요?

A: 네. 그라고 막 입술이 타요 막...(할머니) 예. 물을 자꾸 떠다놓고 먹어야 되요.

Q: 혹시 전담공무원. 동사무소에서 가끔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필요한 거 요청해 보시거나 뭐 이런 게 나는 불만이다 얘기해 보거나 이랬던 적은 없으세요?

A: 없어요

Q: 전에 동사무소 동장님 찾아갔던 게 이제 그 한번, 다른 필요 때문에 가셨던

적은 없구요?

A: 그거 하고 없어요.

Q: 그러면은 살다 보시면은 또 다른, 이번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갑자기 그런 필요가 생긴 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또, 식비가 부족하시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A: 부족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줄 사람들도 아닌 거 같고, 뭐...

Q: 그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A: 아껴야죠, 뭐.

Q: 그냥 아끼시는 걸로, 뭐 빌리거나 이러시진 않으시구요?

A: 아유 빌리지는 않아. 빌렸다가 그거 어떻게 갚을라고. 이건 제일 제~일 걱정되는 게요. 이 관리비 거든요, 관리비 이거 한번 밀리면은 벌써 몇 십만원, 이십만원이 넘는다고요. 다음에 낼려면 이십만원이 넘는다고요 큰일나요. 그러니깐 그 저거 돈 나오면 관리비만 좀 내고, 뭐 무수 몇개, 배추 몇 개, 뭐 고춧가루 한 서너근 뭐 이런거 그거 먼저 빼놔야 되요.

Q: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시는 거네요?

A: 그람요 그라 안하면 큰일나죠. 그라 안하면 못써요.

Q: 그럼 빚은 없으시구요?

A: 아유 그럼, 빚은 없어요. 그리고 옷이라도 맘대로 사입을라면 큰일 나죠 그런 거 계획 안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또 꾸려 나가죠.

Q: 복지관에서 반찬 서비스나 이런 건 안와요?

A: 안와요 그건요 저 사람들, 노인네들 혼자 사는 노인네들...

Q: 아, 두 분이 사실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구나...

A: 예 없어요. 그 사람들 이제 점심 도시락하고.

Q: 여기 뭐 식당 같은 건 없어요? 경로 식당 같은거 운영 안해요?

A: 여그 해요 복지관에서.

Q: 복지관에. 그건 이용 안하세요?

A: 안해요.

Q: 왜요?

A: 아유~ 거긴 안가요.

Q: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A: 아이고... 줄 서는 거야 뭐그렇지만 거기 뭐 거기 자리 조금만 저기 해도 내 자리, 니 자리, 뭘 자리니 그냥 떠들어 싸코... 그냥 물병 들고 땀기고 숟가락 들고 땀기면서, 숟가락 물병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밥 먹을라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디 숟가락 없어진다고... 한번도 안갔어. 수저, 물병 뭐 다 가져가요. 으흐흐 그 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게 다 그런 거 없어진다고 본인이 가지고 땀겨야 되요. 밥먹을라면.

Q: 어르신 외, 1종으로 바꾸실 때,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알려 주던가요?

A: 1종이요?

Q: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A: 알려 준 게 아니라, 내가 워낙 몸도 아팠었어요. 내가요, 그래가지고 폐도 안 좋았었구요. 가서 사정했죠.

Q: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시고?

A: 아유... 제출했죠. 내 2종도 55세 미만이던가 60세 미만이던가 1년에 한번씩 진단서 내야되요. 여기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거 띠어다가 내고.

Q: 그런 건 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아파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A: 아니 내가 저 보건소에 갔었죠. 여기 식구도 시내에 있을 때는 폐가 안좋았었어요. 그래서 약 먹었었어요. 이제 보건소 가서 이제 그런거 띠다가 가서 얘기 해가지고...

Q: 여기서는 폐가 괜찮아 지셨어요?

A: 아유 다 나서붙었어요. 아유 보건소 약 두 달만 있으면 다 나서 붙어요. 약이 좋아가지고.

Q: 보건소는 어디 있어요?

A: 저기 저 오정동.

Q: 그게 어디예요? 저희 서울에서 와서 잘 몰라요.

A: 서울서 오셨어요?

Q: 예.

A: 오정동 거가 한남대학 육교... 여기서 726번 타야되요. 726번 타면은 거기 육교 넘어가서 기사한테 내려 달라면 내려 줘요. 그라면 내려가지고 길 건너가지고 도로 건너가서 그 길로만 쪽 올라가면 보건소에요.

Q: 예, 어르신 버스타고 다니시는 게 한참 걸리는 지요?

A: 우리 둘이 땡기는 디요, 안 걸려요 한참 안 걸려요 보건소는. 여기 726번 버스가 땡기니까. 그게 인자 거 어디여, 어디까지 다니더라... 한남대 저 육교 아래서 버스 저기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면 되니까는...

Q: 이제 앞으로 걱정 되시는 일 있으세요?

A: 걱정은 뭐 인자 걱정이 있겠어요?

Q: 그래도 할머니 아프시고 이러면은...

A: 그게 걱정이죠 뭐 아프고 크게 아픈데, 쪼매씩 지금 이런 정도는 국가에서 혜택 많이 받고 있죠. 만약에 어디 수술이나 한다던지 무슨 암이나 걸렸다가는 그냥 뭐 끝장이죠 뭐, 끝나는 거예요 그건.

Q: 그러면은, 예, 나라에서 돈을 좀 더 줄 수 있다 하면은 생활비, 뭐 의료비 뭐 이런 거를 좀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뭘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A: 뭐 나는 쟈 걱정되는 게요. 관리비도 관리비지만은, 이 암. 만약에 암이 나와가지고 수술, 수술 해야된다 그러면은 그게 걱정이죠. 요새 뭐 잘 먹고 살라면 한이 없지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무리 저거 해도, 어디 뭐 위암이 있다 어디 뭐 무슨 뭐 폐암이 있다 뭐 그러면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수술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Q: 그래서 검진 안받으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A: 건강 검진 뭐 봄에는 한 번씩 하라고 와요. 안가죠. 아유 이런 병 저런 병 알면요 그게 고민이에요 더.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아그, 저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하든 그냥 병원가서 해결하고.

Q: 그럼 지금 의원에 가지면은 돈 안내시죠? 아니면 1500원 내세요?

A: 그게 저거예요. 4번 넘으면 한 달에, 한 달에 4번 넘으면요 약 값이 얼마이더라 처음에는 인자 천원. 첨에는 천원. 약값 오백원. 그 달에 인자 두 번가면 천오백원 천원. 이렇게 내는 거여. 그 공문 내려왔어요.

Q: 맞아요. 올 7월부터.

A: 네 7월 1일부터 공문 내려왔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육천원 이상을 사용하려면

나오면은, 그거 넘으면 내 앞으로 인자, 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돈 내는 거예요.

Q: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좋죠.

Q: 바뀐 게 더 나아요?

A: 아유 그 전에는요, 아니 의원 땡기는 것도 어떻게 직업적으로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한 달에 열대번 이십번씩, 그 의사가 그냥 봐주는 줄 알아요? 다 그게 저기서 돈 나갈거요. 그게, 뭐 만 열만가 나간데요. 뭐 컴퓨터나 잠깐 이렇게 몇 자 두들겨서 그것들을 아는지 모르는 지는 몰라도 아유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의원 가서 그냥 직업적으로, 더올려야돼. 이거...

Q: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처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A: 여기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게 15일로 되는 건지 한 달에 두 번으로 되는 건지.

Q: 횡수로 내는 건지 토탈로 그걸로 재는 건지?

A: 예 예. 한 번가면 보름씩 지어주거든요 약을, 그게 보름 땡기는 것인지, 한 번 땡긴 걸로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Q: 7월에 아직 안다녀 오셨어요?

A: 땡겨왔죠.

Q: 안 물어 보셨어요 병원에?

A: 아니 나도 한 번 갔더니요 돈을 천원을 주니까 세 번 더 땡기시고 다음에 내라고 하더라구요. 약은 보름치 주셨는데... 한 번 간걸로 해주는 건지 보름을 쫓아 땡긴 걸로 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기도 안하고...

Q: 병원에 물어보세요

A: 요번에 가 물어보면 알겠지

Q: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A: 소망 뭐...

Q: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거 없으세요?

A: 아니 뭐 없어요 있지만 안되는 거지. 그거 뭘 허공된 맘이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Q: 뭐 하고 싶으세요?

A: 아이 이렇게 좀 좋게 살고, 남과 같이 구경 좀 땡기고 멀리, 그러고 땡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되죠. 마음만 있지 그런거 생각하면 병만 들어요. 아예 생각을 안해야지...

Q: 할머니요?

A: 저도 마찬가지로(할머니) 다 똑같죠 뭐, 사람 사는 거이 뭐(할아버지)

Q: 할아버지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A: 아유 그럼요 좋죠 뭐 제주도 같은 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 무진장 많아요 외국 보다 더 좋은 데 많아요.

Q: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여행 보내드리고 하지 않아요?

A: 가요 가끔(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요(할머니)

Q: 할머니들만...?

A: 예

Q: 할머니 안가셨어요? 왜요?

A: 거기 뭐 시기도 안했는데요 뭐, 접수도 안했어요. 접수 그거 한 사람들만 가요 할머니들 가요.

Q: 왜 안하셨어요?

A: 안했어요.(할머니) 육십 오세요(할아버지)

Q: 육십 오세라고 정해져 있어요?

A: 예

Q: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네요. 짧아서 못가시는 거네.

A: 만 육십 오세

Q: 예 할아버님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A: 할아버지들도 같이 멩겨요.(할머니)

Q: 두분 그런 데 같이 다니세요.

A: 인자 더 있어야지.(할머니) 칠십이나 되야지 팔십이야 되야 가는겨.(할아버지) 그런 분들 멩겨요.(할머니)

Q: 여기는 술마시고 난동 피우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A: 난동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요 기자들이 가끔 이렇게 와요.

Q: 기자들이 왜 와요?

A: 그 전에 여기 이사와가지고 몇 년은 여기 그냥 파출소가, 못 살겠다고 했어요 순사들이. 얼마나들 그냥 술 먹고 떠들고 그냥 막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 관암동 파출소가 소장이 잘못왔다고, 못 올때 왔다고 막 이르기까정 했어요. 막

파출소 쫓아가서 그냥 파출소가서 뭐 달라는데 파출소 앞에 가서 개지랄들이나 하고...

Q: 지금은 안그러구요?

A: 아유 요즘 안그러지. 요즘 질서가 많이 잡혔어요. 기자들이요 가끔 와서 술먹고 나자빠져 있으면 찍어다 떠들고... 어떻게 조심이 되는 가벼요, 이제들. 질서가 많이 잡혔어요

Q: 두 분이 사시기에는 이 공간이 괜찮으세요?

A: 예 괜찮아요.

Q: 여기 저 할머니님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에 불편하세요?

A: 아니요.

Q: 아 그거까진 괜찮으시고? 여기 욕실에 보면 손잡이 달아 주는 데도 있거든요

A: 예, 예, 장애...

Q: 예 변기 , 이렇게 달아 주는 데도 있어서, 여기도 그런 거 해줬어요?

A: 우리요?

Q: 예 아니 이 아파트에도.

A: 뭐 아니 뭐 그런 거 까정 해주졌어요. 집만도 그냥 살게끔 해 준것만으로도 고맙죠. 뭐 그런거 까정 바래요.

Q: 관리비까지 내시는 데요. 보증금도 다 내셨잖아요.

A: 이 관리비 가지고는요 나라에서 못살아요. 뭐 보증금 뭐 보증금 195만원 그게 보증금이요 그제? 몇 천만원씩, 이거 참 잘해놓은 거요. 노 대통령이 이거 시작

한 거요 노 대통령이.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는 잘해 놓은거 같아요

Q: 공기는참 좋은 거 같아요.

A: 예 공기는 좋아요. 여기가 저 앞에는 핵고가 이 앞으로는 전부 산이에요 뽕 둘러가면, 여기 뭐 아파트 진다고 다 저기 했는데 유적지 뭐 골동품이 나온다나? 그거 검열하느라고 이게 몇 년째예요 지금. 여가 성이었어요 성, 전쟁하다가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유골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Q: 할아버지 혹시 지금이라도 일을 하신다면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실거 같아요?

A: 여 앉아서 뭐 움직이는 일이야 하죠.

Q: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A: 뭘 일어요, 뭐 청소고 뭐고 다 하죠. 아 움직이면 좋죠, 움직이면야.

Q: 일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A: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뭐, 아유 오죽하면 솔직히 이거 타서 한달을 살겼어요. 아유 나 한참 벌때는 이틀만 벌어도 지금 한달나오는 거 이런거 벌었었어요. 내가 이거 참 늙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이게 사는 게 사는 거요. 정부에서 이거 나오는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솔직히 어디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솔직히 천원이 아까워서 시내 못나가요. 여기서 천원에 시내버스 타가지고 왕복 이천원 아니예요. 이천원이면요, 하루 살 반찬거리죠. 그거 생각하면 못 나가는거예요 가고 싶어도. 맨날 가봐야 요 산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뭐. 아 고등어 한 마리도 그 전에는 두 마리에 이천원 이천 오백원 이렇게 샀는데 오천원 육천원씩 가요. 고등어 그거 뭐, 그 것도 맘대로 못 먹어요.

Q: 여기서는 상가 저기 이용하세요?

A: 상가 여기 큰~거 두 개 있어요.

Q: 거기서 다 장보세요?

A: 인자 거기서 웬만한거 다 보고 뭐, 뭐, 장 볼거나 있어요? 상가 여기, 00마트,00마트 큰거 두 개있어요.

Q: 찐 편이에요?

A: 찐 건 싸고(할머니), 이런 데는 싸다고 생각해야죠. 땀 싸고 세일하고 이럴 땐 싸요.

Q: 그럴 때 많이 사시고?

A: 예. 뭐 세일 해봐야 그것뿐이 더 있겠냐고 무슨 대가리 이런거

Q: 저희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A: 하고 싶은 말이야, 뭐 많지만 내가 좀 좋게 좀 어디로 땡기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지만 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안돼죠. 뭐 얘기 해봐야 뭐 아가씨들도 뭐 마음은 그게 아니겠지만은 사정이 참 저렇고 저거 하고 싶으면은 아가씨들도 여론 조사하러 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좀 사는가... 이게 사는 게 사는거요? 사는 게 인자 말도 못하는거지. 뭐.

봐봐요. 마늘 한접에도 가을에는 만오천원 이만원 가요. 먹을 만한거는. 그런 거 사먹겠냐고 못살겠지

Q: 할머니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A: 아유 전 없어요 저는(할머니)

Q: 할아버님이 살림 다 하시는 거 같아요.

A: 내가 하죠 뭐 내가 하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배우는 거죠 뭐

Q: 많이 도와주시나봐요

A: 아유 뭐 일원짜리 하나 헛되데 안써요. 누구한테 만원 줬다가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힘들어요.

Q: 장보러도 같이 가고 그러세요?

A: 예. 아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한 이 삼만원 줘서 고기 사 먹어 버리면 다음 달에 굶어야 되잖아요.

**Q: 이 아파트 지어진 지 오래 됐잖아요. 건물 좀 하자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
요?**

A: 없어요.

Q: 싱크대도 혹시 새거 인가요?

A: 같았어요. 같은 게 아니라 갈아 줬어요.

Q: 갈아줬어요?

A: 예. 갈아줘요 이런 거. 아, 여기는 갈아주더라구요. 여그는 작년에 가끔 한번씩 갈아주더라구요. 작년인가

Q: 여기 관리 사무소 같은 데는 괜찮아요?

A: 괜찮은지 뭐 알 일이 있겠어요?

Q: 여기 뭐 임대료 연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A: 많아요. 뭐 쫓겨난 사람도 있는데요. 뭐 보증금 말하자면 195만원인데, 뭐 한 30만원 정도 남으면은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벼요. 얘기들 들어보면 나 아는 사람도 저 401동 사는 사람도 쫓겨날뻔도 하고, 아는 사람이 관리 사무실 아는 사람이 이케이케 해서 쫓겨 안나고... 그사람 그때 쫓겨났으면은 지금보다 더 못허지...

Q: 어르신 그래도 암암리에 많이 알고 계시네요.

A: 아 그럼요 내 나이 또래 웬만하면 다 알죠.

Q: 어르신이 반장님 한번 해보세요

A: 반장은 무슨 반장을 해...(웃음)

Q: 주변에서 이렇게 자주 모여서야 되요.

A: 아유 만나요. 아침 저녁이고 뭐 낮에고 심심하면 이렇게 내려가서 아는 사람들 끼리 얘기하다 올라오고 그래요.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나요. 어떻게 안 만나 한동네인디 아우 여기 와가지고 술 먹을 때 아는 사람들 몇 십명인디 여기 와가지고 술 많이 먹었어요 나도, 끊은 지 한 일년 이년 다 되가지.

Q: 건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A: 예 수고하셨습니다.

□ 수급자 12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일반가구/ 근로 가구 / 장애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95년부터 수급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	51	남	복지관자활근로	83년도 오토바이사고로 왼쪽다리(6급)
부인		여	주부	
아들	25	남	대학휴학 중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 (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p>
<p>판암주공아파트 거주. 장성한 아들과 함께 거주. 아들이 군대입대한 이후 사용하던 작은 방에 짐을 넣어두기 시작해 제대 이후에는 거의 창고가 됨. 짐들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큰방에 가족모두가 함께 자고 있어 불편함. 더군다나 아들의 키가 190정도가 되어 누우면 머리와 발이 벽과 장롱 끝에 닿는다고 함(인터뷰중)</p>

○ 조사평가

<p>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p>
<p>교통사고 이후 마비를 극복하고, 지장6급으로 생활, 자활근로(근로유지형)에 약4년간 참여하면서 단지내 장애인모임의 간부를 맡고 있음. 생활력, 노동의지가 왕성하며, 성격도 원만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함.</p> <p>자활근로 중이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 공원에서 인터뷰가 진행. 유치원아이들이 옆에 있을때 소음이 들어갔을 것임. 녹취록 작업에 참고하길 바람.</p>

A: 명절 때 쌀로 얻으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고

Q: 저희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다 성대 연구소에 있어요

A: 그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학생? 어떻게 봐야 됩니까?

Q: 네. 다 대학원생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여기 만나 뵈게 됐는지 말씀은 대강 들으셨죠?

A: 네, 대충은.

Q: 지금 수급 받고 계시는거죠?(예) 그거 받으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지금 일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아쉬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여쭙보러 왔어요. 가계는 어떻게 꾸리시는지. 전반적으로 다 여쭙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제도가 거기에 맞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나왔거든요.

A: 제가 수급자가 돼서. 복지관에서 수급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약 16명 정도 됩니다.

Q: 같이 사업단예요?

A: 네. 같이. 내가 대충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 달라고. 대변인은 아니지만 내가 나름대로 대변을 하겠다. 말을 좀 잘 하더라고요.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Q: 수급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A: 제가 교통사고 나고, 결혼하고 막, 애 돌도 되기 전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83년도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Q: 83년도면?

A: 20년이 넘었죠. 오토바이 사고.

Q: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A: 네. 다리하고 신경줄 다쳐가지고. 오른쪽 다리.

Q: 장애판정도 받으시고요?

A: 네, 장애 6급입니다.

Q: 6급이요?

A: 네. 처음에는 사고 나서 이걸 복지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한..거의 20일 동안은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운동해가지고 나왔죠.

Q: 대단하시네요.

A: 의사선생님도 나 보고 깜짝 놀랐죠. 장군 됐다고(웃음). 처음에 대소변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나보고 인간 안 된다고, 거의 병신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려고 ...운동해 가지고 살아가지고. 고향이 부산이라 경상도 사람들이 좀 기질이 있거든요.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 놓고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Q: 병원에 오래계셨어요?

A: 네. 병원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Q: 누가 이렇게 수발을 다 들어 주신거예요?

A: 집사람이 다.

Q: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A: 비용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그걸로 모자라서. 내가 또 오토바이를 뒤에 사람을 한 명 태웠어요. 그 사람하고 합의

가 되어가지고. 뒤 사람도 엄청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머니하고 형제들 하고 돈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지요.

Q: 그럼 그 때부터 받으신 거예요?

A: 김해에, 경남 김해에 사는 매형이.. 옛날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번개탄. 그죠?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했거든요. 처갓집이 대전이라, 대전에서 이제 더 잘아 불라고, 대전에 온지 한 달만에 사고가 나서.

Q: 아..그걸로 대리점을 내셨어요?

A: 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영업하러 가려고. 그때부터 수급자가 된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는 수급자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집에서 퇴원해가지고..1년 간 병원생활하고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겨우 살아나서. 집에서만 있다가. 집사람이 이제 생활하고. 몸이 좀 완쾌돼서 장애인촉진공단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거기서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만해도 살살 걸을 때니까.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장애인촉진공단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취업을 좀 하고 싶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거짓말 0.1%도 안 보태고 6년간 결근 한 번을 안 했거든요. 감기들어도 약 지어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욕심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장애인이 있었어요. 여기 4단지 사는데..그런데 나보고 와가지고 수급자를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수급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측은하고 창피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료보험 카드도 수급자 카드가 틀리니까. 만약에 수급자를 받으면, 내가 그 때 사글세를 살았거든요. 사회복지 동사무소 직원이 내가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일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해서 주야 격주로 일을 했습니다. 일주 일 일하면 야간에는 12시간씩 일하거든요. 그러면 아픈 다리가 이래 붓습니다. 서서 일하니까. 6년간 일을 하니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사장이.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장애인들이 무게를 드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20kg 정도 박스를, 자동차 엔진 부속을 만드는 텐데, 그걸 들고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멀리 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10m 정도를 가야 하는데 갈 수는 있지만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Q: 여기 와서 다리를 펴고 앉으시는 게 어떠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A: 그래서 그 분이 소개를 해서. 일단 수급자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어요. 아침마다 출퇴근하고 하니까 그 가양 1동에 사는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게 아니고 아침마다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이니까. 야간 때 퇴근하니까 그 양반은 출근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봤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고 한번 동사무소 직원이니까 한 번 찾아오래요. 그래서 가양동.. 택시로 20분 정도 가면. 가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내 사정을 다 설명을 했죠. 영세민 신청도 하고, 임대아파트도 임대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안 받느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창피한 것을 떠나서 나도 다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그 분 도움을 받았죠.

Q: 그 전에는 어떤 사글세를 사셨어요? 얼마에

A: 가양동 사글세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80만원. 사글세가

Q: 월세가요?

A: 네, 아니요. 일 년간에 80만원, 한 달에 8만원씩. 10개월. 그 사글세를 한 7-8년 살았습니다.

Q: 여기 오시기 전예요?

A: 네. 오기 전에.

Q: 그럼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A: 여기 온지도 한 거의 7-8년 됩니다.

Q: 그럼 그 때 수급 신청 하신거예요?

A: 사고 난 게 한 23년 전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사고 나기 전에는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주택은 참 좋은 곳에서 살았는데. 사람의 욕심이 화를 부르나 봐요. 큰 형님이 조그마한 무역회사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형님이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이제 가서 일도 배우고, 이제 나이가 들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형님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요. 형님 하는게 내가 안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게 형님이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부딪치다가. 그러다가 사고나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의. 지금 이 밑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깨우치게 한 거죠. 수급자는 것을 명칭을 달기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Q: 몇 년 도예요? 수급자를 신청하실 때가?

A: 수급자 신청한지가..가양동 살때니까..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10년 쯤 되는 것 같아요.

Q: 그럼 그때는 그 전 제도, 생활보호제도 때도

A: 네. 생활보호대상자 그때.

Q: 가족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A: 일찍 사고나는 바람에,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군대 제대해서. 동사무소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급자로 있으니까 수급비로 나오는 돈이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요. 그것 가지고는 정말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일단 휴학하고, 지금 한밭 대학교.

Q: 거기 국립대학교 맞아요?

A: 네. 지금 내가 이거라도 밝히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회과 직원이 휴학계 낸 날부터 5년간 기간을 주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만약 5년 안에 복학을 안 하면 영세민이 탈락된다 이거죠.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Q: 네. 규정상 휴학을 하고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학을 안하면은 이제..

A: 그런데 올 가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11월 달 정도 되면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이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애는, 또 뭐..나는 대학을 안가서 모르겠지만 코스모스 졸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3월에 복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벌써 졸업을 했을 텐데.

Q: 취업문제 그러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더 많이 뽑으니까. 그런 얘기를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를 한 번.

A: 네, 동사무소 직원한테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만 알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를 알기는 하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건 나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가 봐요. 처음에 우리애가 하기 전에.. 이 제도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괜찮은데 대학을 가니까 아르바이트 하든 안하든 수급비에서 돈을 갖다가 40만원을 공제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40만원을 공제를 하더라고요.

Q: 40만원이 빠져서 나왔어요?

A: 40만원까지는 안 나오고. 막 사정을 했거든요. 25만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Q: 대학생은 유예자. 왜 빠져 나가는지는 설명을 안 하던가요?

A: 글썄요.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대학생이니까. 성인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정부 시책이래요, 그래서 뺏대요. 그게 다들 불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가 봐요. 그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Q: 세분이 사는데 총 수급비는 60만원 받고 계시는거예요?

A: 65만 원 정도.

Q: 빠듯하시겠어요. 아주.

A: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생활이 힘들다니깐요.

Q: 그러면 애가 가구를 분리시켰나요?

A: 아니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를 가구에서 분리시키면...뒤 수급비 나온다.. 그런데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애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말소시키지 않는 한 분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소해서 정부의 수급을 받아먹고 사려는 욕심으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Q: 그럼 60여 만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세요?

A: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아무래도 관리비.

Q: 여기는 얼마나 나와요?

A: 관리비가 한달에 13~14만원

Q: 겨울철에는 더 나가죠?

A: 네. 15만원 정도. 관리비가 이제 월 내는 임대료하고 전기세 그게 다 포함되서

Q: 그전에 사글세 사시는 것 하고 아파트 사는 것 하고 많이 다르세요? 느낌이?

A: 그럼요. 제일 먼저 사글세 사는 것은 집 주인 눈치를 봐야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록 방은 적지만 겨울에 추위 없이.

Q: 요 안에 주민자치 모임 같은 것도 좀 있죠?

A: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4년 근무 했거든요. 지난 9월 16일이 딱 4년째인데. 4년 근무하다보니까 관장님하고 너무 잘 알고. 장애치고는 미흡하니까..1급 중증 장애인에 비해서는 나는 날아다니니까. 장애인 수급자들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 등반도 하고. 그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후원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관장님이 목표를 중국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론 장애인들 단체, 매달 모이는 것을 만들면 보건청에서 복지관에서 후원을 만나 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를 위해서 1년에 2~3백 정도를 후원해 주는가 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생활 하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거나 볼링, 나들이 가고.. 가끔 식사도 하고.

Q: 그런 모임들이 도움이 좀 되세요?

A: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한 명 두 명 개인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차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모임이 17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총무를 맡아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속는데...우리가 이제 17명이거든요.

Q: 일 많이 하시네요? 이것저것? 활동적이신가 봐요?

A: 네. 저는 앉아서 업무 보는 것보다는. 막 싸돌아 다녀야 되요.

Q: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다가 하게 된거예요?

A: 지금 사단법인 있는 것은. 여기도 장애인들 모이는 단체거든요. 우연히 3단지 모임에서 4단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촛불회라고 장애인들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비영리 단체인데.. 그 회장이라는 분이 우연치 않게 1박 2일로 어디 보령 어디 산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감사, 부회장, 그 쪽에서도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총무를 찾으려고. 1년 만에 결정을 했는데. 1년간 총무를 못 찾아서..1박 2일 놀러가서 자꾸 나를 쳐다봐요. 나보다 2살이 많은데 그

분이 회장으로 있는데 나보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내가 앉으니까. 1년 만에 총무를 못 찾았는데 나보고 좀 총무를 해 달라고. 나 지금 안한다고. 3단지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 안하겠다고 하니깐. 한 번 놀러오라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구요. 그 때 내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 때 한참 지방자치 선거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같이 좀 가자고 사정해서.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봤는지 이분이 사단법인 동부지부 지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같이 하라는데 나는 타이틀보다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부회장을 주는데. 저기 보시면 불한증막 있죠? 불한증막 이 건물 3층에 있습니다.

Q: 그럼 여기서도 급여를 받으시나요?

A: 급여는 안 받습니다.

Q: 그럼 지금 하시는 자활 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A: 동사무소에요. 처음에는 수급자 일만 했죠. 취로하기 전에..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탈락이 되니까. 그것도 있고. 또 사장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고. 그래서 일은 그만 두고, 집에서 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자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만 알았지 자활은 몰랐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또 한 번 면담하러 오래요. 그래서 자활 일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일한 것만큼 돈이 나오니까 해 볼래 하길래 당장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근무는 어디서 하냐고 하니깐. 내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버스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멀리가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집 앞에 복지관에서 일 해볼래 하니깐.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장애인들 보살피고 도시락 배달하고 어르신들 도와주고.

Q: 하실만 하세요?

A: 그럼요. 이걸 일도 아니죠.

Q: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는 어떠세요?

A: 제가 좀 농담 잘하고 우스개소리 잘 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Q: 그럼 이 쪽 단지는 많이 아시겠네요?

A: 장애인들 하고, 어르신들하고 다 압니다.

Q: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A: 네, 만족합니다.

Q: 혹시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세요?

A: 옛날에 제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게 좀 있죠. 근데 대전은 항구가 없으니까.

Q: 그런 일이 주어지면 이것보다는 그 일을 더 하고 싶다는거죠.

A: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호적에는 57이지만. 본 나이는 50이거든요. 나이가 늘어나니까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자활하시는 분들이 대신 말을 해 달라는 게 자활. 우리가 월 돈이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자활비는 매월 5일날 나오고,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나오거든요. 날짜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데..자활하는 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주머니들도.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애들하고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끔.. 한 2만 5천원 정도만 해줬으면. 일률적으로 다 이 말을 하더라구요.

Q: 혹시 부채는 없으세요?

A: 부채 있습니다.

Q: 어떻게 갚으세요?

A: 부채가 좀 많이 있거든요.

Q: 어쩌다가..혹시 사고 나셨을 때 아직..

A: 그것도 부채가 좀 있고, 집사람이. 이권 동사무소에서 모르는 일인데, 내가 그만 두고 나서 삼성생명을 좀 다녔었어요. 벌이가 없으니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생명 다니면서..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돈을 막 대신 넣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사람은 뭐..크게 싸우고. 그 돈은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 넘어갔더라고요. 수급자들은, 영세민들은 압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세민이라는 것으로 이용한건 아니지만. 뒤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카드를 깡하고 현금서비스 받고. 이래도..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터지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받고 10년 유예를 받고 해결했습니다.

Q: 10년 유예요?

A: 네. 일시불로 갚을 경우에는 30%만 원금에서.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갚고.

Q: 30%의 원금을요?

A: 네

Q: 그럼 총 부채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A: 한 5천만원 정도.

Q: 저기..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일도 하는데 이쪽으로도 일을 하는데 파산이라는 게 별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알고 싶으시면 전화해서 여쭙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녀분이 취업하고 나신 다음에도 걱정이시겠네요? 지금 휴학중인것도 그렇고.

A: 네?

Q: 자녀분이 빨리 취업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A: 제가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는데 애가 대학만 졸업하면 탈락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많이 길어봐야 3년 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뒤에는 탈락이죠.

Q: 어떠세요?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A: 네. 제가 몸 상태를 자신이 잘 아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 우리 애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애가 취업을 해도, 우리 애에 해당하는 수급비는 안 나오더라도 집사람하고 나한테 해당하는 수급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희망사항인데. 되지는 않겠지만.

Q: 부인되시는 분은 지금 택에만 계세요?

A: 네

Q: 되게 많이 미안해하시겠어요?

A: 그럼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제가 수급자가 안 될 건데. 집사람이 나이도 젊고 하니까.. 40대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장애가 있지만 집사람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원래 수급도 안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상하게 수급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다보니까 이상하게 정보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른 집사람의 진단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내 다리 수술해 준 병원장을 잘 알거든요. 제가 1년 이상 병원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엑스레이를 찍고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내려앉았더라고요(부인). 못 걷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걷고 그러면 누워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수급자가 됐어요.

Q: 그 진단서도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A: 6개월 이상을 안 끊어줍니다. 6개월 마다 진단서를. 예전에는 있어야 됐는데 요즘은 진단서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나봐요.

Q: 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담당공무원들이 댁에도 찾아오시고 그러시나요?

A: 네. 집에는 안 찾아 와도.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니까(아, 늘 보시니까).

Q: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A: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동, 2동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동인데. 1동에서 만 나오는데. 3단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16명 중에서 6명이고. 이상하게 또 내가 한참 바쁠때만 또 오셔가지고 봐요. 그래서 나보고 일 참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오는데..잘 안오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만 와요.

Q: 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A: 이 전에 명절, 추석 때도. 어르신을 복지관에서 과일하고 떡 하고 준비했는데 막 땀흘리고 하는데 오신거예요. 나는 일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봐요.

Q: 그러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A: 일하는데 요령 피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걸 일도 아니지요요. 이게 일입니까? 노동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땀 흘릴 때 꼭 그럴 때만 나타나요.

Q: 와서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가나요?

A: 아..열심히 한다고..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Q: 열심히 하시는데요. 왜요?

A: 아닌데.

Q: 관계는 좋으시겠어요? 공무원이랑.

A: 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나도 잘 몰랐는데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 수급자들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양복을 기증받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지난 봄에 동사무소에서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양복 한 벌 줄테니까 오래요. 그래

서 옷이 좌악 걸려있어요. 좋은거 하나 골라 입으래. 이것도 내 개인 PR은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도 올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었나봐요. 명절때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상품권도 2만원 짜리도 주고, 쌀도 10kg짜리 주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자랑 하나 하면은, 세식구인데. 정부미를 20kg짜리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애도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밖에서 밥 먹고 그러면 쌀이 남아요. 한달에 한포씩 신청했으니까..내 개인 자랑도 아니지만 남아니까 어디 팔수도 없으니까..장애인들한테 쌀 한 포씩 주고.

Q: 같이 모이시는 모임 안에서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A: 쌀 남으면 먹지도 않는데요.

Q: 생계비 한 번만 더 여쭙볼게요? 아까 60여만원 받으신다고 했는데. 세 식구 살기에는, 아니면 두 부부가 살기에는 이 정도 선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A: 사실 수급비를 받더라도 문화생활은 못합니다. 어제 고백을 하면 어제 우리 애 하고 영화 cgv 영화를 한 번 보고 왔지만은, 영화가 7천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세명 하면 2만원이 넘지. 한번 보고 밥 먹고 그리고 오려면 3만원 정도. 5만원이 넘죠. 우리 애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문화생활 전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한 90만원 정도만 되면은.

Q: 세분이 사시기예요?

A: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다못해 외식 한 번씩 할 수 있고. 내 생각만이 아니고 다들. 다른 사람들도 90만원 정도만 있으면.

Q: 혹시 돈이 부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A: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빌리지는 않습니다.

Q: 돈이 1년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들어가세요? 1년 중에서.

A: 명절 때죠 뭐. 명절 때 아무래도 제 고향이 부산이라. 지금..제가 한 동안 못가고 있었거든요. 한 번 거기 가려면 교통비 하고, 뭐 이것저것..선물 같은 거 사려면 3~40만원 들어가는데. 명절은 못가고 아버님 기제사 때만. 아무래도 명절때 가고 싶어도 못가는게..돈이 없어서..

Q: 이번에 추석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A: 집에 있었죠.

Q: 속상하셨겠네요.

A: 부산에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87세 인데 살아계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라 하시는데.. 지난 번에 사고 났을 때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형제들하고 전부 8남매인데 다 굶어다가 해결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제 폐 끼치고 싶지 않고. 또 가게 되면 못사니까 또 오면 내 마음은 그런게 아닌데 내려가면 형님이나 누님한테도 동생한테 돈을 좀 줘야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물론 주면 고맙지만. 그래서 아예 내려가지 않아요. 제사 때만 내려갔다고 제사 지내고 밤 차 타고 내려가서 오고.

Q: 그러면 형제분들이랑은 거의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시는거네요?

A: 네.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봅니다.

Q: 그 외에 따로 만나지는 않으세요?

A: 네

Q: 혹시 형제분들도 지금 이거 받으시는 거 아세요? 수급 받으시는 거?

A: 네. 생활수급자하고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거 다 알고 있고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어쨌든 잘 된 일이라고. 저 역시도 그게 잘 되었고.

Q: 그래도 급한 일이 있으면 형제분들 도움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돈이 갑자기 들어간다는지.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A: 그런데 아예 막 큰 돈 들어갈 일도 거의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Q: 그 때 그 사건 이후예요?

A: 사고가 나고 나서 너무 폐를 많이 끼쳤기 때문이에요.

Q: 아드님이 빨리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게 바라시는 일이겠어요?(예) 혹시 아드님이 뭘 전공하세요?

A: 네. 기계공학과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본인하고 지 적성이 안 맞나 봐요.

Q: 그래서 복학을 자꾸 늦추는 건가요?

A: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회장님이,대전시 협회장 지회장이 있고 동부지부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나보고 대전지역 협회장이 아들을 사회복지학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을.... 애가 또 키가 너무 커서. 나를 닮았는지..190이래요. 집사람도 167인데. 키가. 그래서 애가 큰가봐요. 이상하게 사고 나서 애 돌 때 사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키우느라 애한테 정말 잘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애가 잘 키워가지고.

Q: 혹시 필요하신 게 있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이러시는 데가 있으세요? 여기 복지관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이나.

A: (한참 망설임) 이걸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4년 간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나 안 좋은게 내가 알기로는 복지사분들은 정말 똑같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복지사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항상 생각을 해서 복지를 하는데 가끔씩, 가끔이 아니고 명절 때 되면 LG생활건강에서 복지관 앞으로 기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치약, 칫솔, 비누.

생활용품 등. 쌀도 받고. 내가 직접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랑 자활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건 LG생활건강에서 수급자들,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주는 것이지 자기들 가지라고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한 상자에 한 5개씩 정도 들었거든요. 이번 뿐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명절 때도 보면 20개 정도 들어왔어요. 100개 아닙니까? 누구누구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복지사들이 보면 한 상자씩 가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어요.

Q: 주민 자치 모임이나 그런데서 이런 얘기 한 번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일하고 계셔서..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말하시기가 그러시잖아요.

A: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1~2년 근무하다보니까 복지관 내막을 좀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복지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 김장을 하는데, 한국수자원 공사, KT 뒤 여기저기서 김치가 100~200개 옵니다. 그럼 한 박스에 열 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김치는 생물이라 담았지만 빨리 빨리 안 먹으면 쉬거든요. 그걸 빨리 배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상해가지고 부패되서 다 버립니다.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아우 너무한다 싶어요. 무도, 생배추도. 김장 담그라고 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100포기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 날라야 하거든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해야지. 구루마에 싫어서 유통되면 생물이니까 2~3일 지나면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다 놔둬요. 그럼 썩어서 갖다 버리고. 그럼 올리느라 힘들고, 버리느라 힘들고. 그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지관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못합니다. 진짜.

Q: 비슷한 상황이 복지관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A: 동사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내가, 나는 운전은 할 줄 모르지만 그분이 푸드뱅크에 근무를 했었어요. 푸드뱅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푸드뱅크에서 식품하고 기타 빵 같은 거 빨리 가져 온대요. 그거 며칠만 지나면 곰팡이 핀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닙니

까? 이게 복지관뿐만 아니고 많이.

Q: 그분도 거기서도 말씀 못 드린거고요? 공무원한테?

A: 네. 인터넷 뉴스. 디트 24인가? 요번 추석때 쌀이 나왔는데.. 어느 건설회사에서 천포 동구청에 기부를 했나 봐요. 동구청에서는 각 복지관에 100포씩 배부를 했나 봐요. 4단지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150포를 받았나 봐요. 인터넷 신문에 뭐라고 떴냐하면 추석 때 받은 쌀이 여태껏 복지관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수 없다 아답니까. 배포를 하라고. 건설회사에서는 좋은 일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 쌀이 복지관 창고에 쌓여있으니까.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그걸 보고 금요일 날 발각될까 싶어서..그때서야.

Q: 지금 이 단지에 저기 복지관 하나만 있나요? 1,2,3,4,단지 다 합쳐서요?

A: 네. 저것도 주공인데 저건 민영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4단지에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Q: 여기는 몇 세대가 사십니까?

A: 한 층에 20세대거든요. 이거는 조금 큼니다. 한 층이 20개니까 15층이면..

Q: 300개.. 아드님이 굉장히 커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키도 너무 크고.

A: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방이 두 개거든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까지만 해도 작은방에서 혼자 공부했었거든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차피 군대를 가야하니까 군대를 빨리 보냈어요. 어차피 남자는 빨리 가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하다가 빨리 따서 보냈는데 군대 2년 가 있는 동안 지가 공부하고 자던 방에 물건을 자꾸 옮기다보니까 그 방이 창고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셋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불편하죠. 지도 불편하고. 나이 25살 먹은 큰 청년이 옆에 자니까 나도 부담스럽고 자기도 불편하고. 자기도 엄마 아버지 옆에 자지만. 다리 뻗으면 190이라. 장롱 놓고 텔레비전 놓으니까 다리가

대각으로 누워야 되요.

Q: 어디 보니까 임대주택에 따로 보관할 곳이 없잖아요. 4계절 옷도 다 있어야 하는데. 따로 공간을 만들려고 주민들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가건물 같은 것을 만들거나 지하나 빈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하거나 그러시던데. 한 번 17명 모이는 분들끼리라도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A: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장애인들 임대 공간. 스쿠터, 휠체어 한 대도 못 올라 와요.

Q: 관리사무실에서도 꼼짝을 안 하나 봐요?

A: 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다 시정이 되는데..이상하게 이걸 시정이 안되네..

Q: 이 앞에 보니까 계단 내려오는 데도 공사 중이던데.

A: 네. 지금 판암동.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3,4단지가 15년 정도 됐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앞에 보시면 공사하고 있거든요.

Q: 인터넷 잘 다루시죠? 신문하고 그러시니까.

A: 아니요. 그냥 보기만 봅니다.

Q: 임대주택 신문도 있잖아요. 임대주택만 다루는 신문들이요.

A: 있어요. 처음에 복지관 가서 열심히 일 하니까 관장님이 날 잘 봤는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복지관에서 컴퓨터 3개월 코스로 배우거든요. 컴퓨터 3개월 코스로 공짜로 배우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저도 컴맹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배우니까 관장님이 눈 여겨 봤겠지요. 관장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자기는 관장으로 있는데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밑에서 일 하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나이도 비슷비슷한데 안됐겠지요. 나보고 3개월 동안 다른 일도

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컴퓨터만 배우래요. 출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두 달쯤 다른 사람들 도시락 배달. 복지관은 12시가 되면 제일 바쁘거든요.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하니까. 1급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하거든요. 30개 정도 되는데. 컴퓨터 배우면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하는데 나 혼자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양심도가 책되고, 그래서 두 달 하고는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양심상. 인터넷을 꼬마 애들이 학교 방학 맞춰가지고 인터넷 하더라구요. 하는 걸 뒤에서 내가 봤어요. 인터넷을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저도 하게 됐어요.

Q: 혹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뭐 어떻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A: 계획요? 난 개인 부채만 빨리 좀 갚고 싶어요.

Q: 나가는 돈은 없지만 그게 많이 부담이 되세요? 그걸 위해 지금 따로 저축하는 게 있으세요?

A: 지금 저축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Q: 혹시 취업하시거나 그러시면 압류가 들어오나요?(예) 그럼 되게 걱정되시겠어요.

A: 저는 유예기간이 10년 아십니까? 내가 아까 말은 안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있지요? 거기하고 조금 나뉘져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도 내꺼하고 제2금융권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갚고 있어요.

Q: 그럼 아까 거기에 전화해 보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그런데 이걸 완전히 파산.

Q: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절차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본인이 직접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나중에 변호사도 필요하잖아

요? 그러면 무료로 붙여주죠. 여기가 대전지역까지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전, 대구 지역에.

파산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게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잖아요. 술 마시고 유흥비로 탕진한 게 아니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에 남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A: 네.

Q: 수급을 받으신지 10년 쯤 되셨다고 하셨죠? 그전하고 지금하고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신게 있으세요? 수급받기 전과 받은 후에.

A: 개인적인 생각하기로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에 보다는 복지계통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Q: 예전에 비해서 복지에 무엇이 잘 되었고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셨나요? 예전에 비해서?

A: 나는 이상하게 개인의 마음이지만 노무현이가 부산 김해이지만, 도움이.

Q: 노무현을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다가 이제는 그래도 많이 준다고 한다거나. 또 그거와 달리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다보면. 이야기 하다 보면. 혹시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혹시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A: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우리가 이거 3시에 마치거든요. 남는 시간도 많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알아가지고 수급 받는 것에서 50% 깎는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50만원 이상은 받으니까 3시부터 밤늦게까지 9,10시까지 하나봐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조금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걸 동사무소에서 암암리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근무시

간을 정부에서 너희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하라고 정해줬다면서요.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하는 분들 대게 보면 혼자 살고 몸 불편하니까. 남편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왜 수급을 합니까?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되 그 외의 시간은 자기 용돈을 쓰려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Q: 원래는 6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A: 네. 그런데 나머지 시간 4시부터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자기가 받아서 용돈 쓰고, 화장품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공개한다 그러고 그런말 하나니까..우리들은 힘이 없어요. 저는 동사무소 직원이 뺏다고 하면 탁 빼거든요. 저는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수급자들 컴퓨터를 평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애인한테 컴퓨터 가르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정말 깊게 알고 싶어서 다니는게 아니고, 컴퓨터를 배우면 한 20만원 정도 돈이 나오는가 봐요. 나는 안 해봤지만. 그 20만원 나오는걸 그걸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어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수급비에서 바로 뺏니다. 솔직히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은 수급자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정말 정부에서 나같이 장애 6급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수급비 외에 나오는 돈을 일체 못 만지게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배우면 평생교육원에 20만원을 주면 그 다음 달 20일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수급비를 확 잘라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장애인들이 먹고 노는 거예요. 아예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해요.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배우고 싶어도 돈을 잘라 버리니까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한 달에 일시불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게 낫죠. 그런게 있어요. 장애인들 100이면 다 그렇습니다.

Q: 그렇게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A: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들이 특히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들도 시설만 좋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담뱃값, 반찬값 정도.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버리면 동사무소에서 다 알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누가 참 첩자가 있나 봐요. 알면 그 돈만큼 20만원을 받으면 그걸 다 떼지는 않겠지만 한 10~15만원 정도 떼는 거예요. 그러니 장애인들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 대개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거의 많아예.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안하지만. 나는 그 제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감아 준다기 보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4대 보험 들어가면 수급자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4대 보험 들어주고 월급 150만원을 주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나오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지. 누가 4대 보험을 놓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작게 받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낫지. 그건 정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지금 하시는 게 자활근로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 자릴 같은 것을 소개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A: 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함은 푸드뱅크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Q: 그건 공공근로에 가까운 것이고요.

A: 예 했었어요. 저는 평지는 잘 걸어도 비탈지거나 계단같은 건 걷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후견기관을 가면 돈을 좀 더 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안 따라 주니까. 자활후견기관은 하천 쪽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 같은 거.내가 간들..

Q: 공공근로도 해 보셨어요?

A: 아니요. 안해봤어요.

Q: 수급권. 혹시 다른 수급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실거 아니세요?

A: 네, 거의 매일 보죠.

Q: 그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도 같이 수급 받으시지만, 아마 천차만별이겠죠.

A: 내가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좀 내가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자활하는 사람들도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 위장 이혼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Q: 아까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일이지요?

A: 네.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급자를 하고 안하고를 동사무소에서 오로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하니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가 있어가지고..누군지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위장이혼을 해서 자활을 하는.

Q: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A: 주위에서도 나보고 아들을 말소하라고 하는데..아우..나는 그렇게까지..

Q: 말소가 되요?

A: 행방불명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3년 후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저씨 아들을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Q: 제도가 이제 권리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생활보호제도였을 때는 국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당연히 그걸 신청하게 되어있고, 당연히 국가에서도 주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꼭 수급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정말 장애인 쪽에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수급자이신 아줌마, 아저씨들을 보면 동사무소가서 어떻게 울고불고 해서 수급권을 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내가 볼 땐 다 멀쩡하거든요. 어떻게 수급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수

급권을 준다면 장애인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주었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들은.. 내가 4단지에도 잘 가지만 거기도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밀집지역이라. 비장애인들도 수급자인데.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위장이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도 혼자 사는 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수급자. 그걸 보면 조사를 해 가지고. 좀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장애 6급이라도 정말 내가 6급이지만, 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오히려 수급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Q: 일할 능력이 없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수급자를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A: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식당에 가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다리 멀쩡해서 왜 여기서 수급을 받는지. 난 정말 그건 안 좋더라고요.

Q: 혹시 장애인들 분 중에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나요?

A: 있습니다.

Q: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던가요?

A: 글썄요.

Q: 모임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A: 그분들은 다 수급자입니다. 하나 일전에 또 솔직하게 밝히면, 수급자를 통해서도 중증장애인들. 1급이면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그분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들,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하거든요. 요즘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7월 달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가 갑니다.

Q: 그럼 급여가 더 나오나요?

A: 그게 안 나옵니다. 나는 집에 바로 단지 옆에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가까이 있

는 게 하나도 안 좋은 게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전화가 와요.

Q: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게 없으신거죠?

A: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Q: 이상하네요. 하루에 일당 얼마 계산해서 나가는 게 자활급여잖아요.

A: 예.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주 5일만 근무하거든요.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는 분이 대전시에 인터넷에 고발 했어요. 그게 추적해서 찾았어요. 그게 난리가 났답니다. 왜 일을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민원 뜨는 바람에 아무도 안나오고..그것 때문에..그럼 나 혼자 나와야 하는데

Q: 가까이 사신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A: 아뇨.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Q: 그럼 한 달에 총 몇 시간 근무하세요?

A: 저는 한 달 내내 나옵니다. 일요일은 자발적으로 나오고. 아, 그리고 또 하나..주 5일 근무인데.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하는 데, 매주 수요일 마다. 영화를 보거나 야외를 가거나.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장애인들 휠체어 다 밀고 그러거든요. 내가 차에서 휠체어 내리고 앉히고 그러는데. 복지관에서 내가 수요일 날 모임 하니까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쳐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하는거거든요. 왜 안치냐고 했더니...그게 하나 좀..

Q: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가실 때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A: 우리 모임에 중증 장애인들인 3명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뭘 하나. 장애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운데 내가 앉히고. 나도 떨리는 못가지만은 내가 1m 정도는..

Q: 혹시 활동보조인서비스라고 들어 보셨어요?

A: 네. 듣긴 들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Q: 지체장애인들도 그거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하실 줄 아니까. 장애인 자립센터라고 해서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종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아마 대전에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보세요. 활동보조를 파견해 달라. 가능하면 그런 자원들을 자꾸 연결을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정보를 좀 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A: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할 때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수급자들한테.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자기들 판단 하에 도시락을 줘라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라고 하면 갖다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갖다 주는데.내가 아는 몇몇 분들 중에 수급자들인데 1급 중증장애인인데 도시락이 안 가고 있어요. 몇 집이..혼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아저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사회복지사가). 내가 볼 땐 줘야 할 때는 안 가고 있고 60대 초반인데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분들한테 왜 도시락을 줍니까? 오셔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뛰어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게을러가지고 앉아가지고 갖다 주면 먹고 빈 그릇 내고. 도시락 배달도 장애인 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줘야지.

Q: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수급자 13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7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응답자)	53	남	일용직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p>판암동 주공아파트에 입주.</p> <p>수급자 혼자 살고 있으며, 남자라 세간은 거의 없음. 성격상 매우 깔끔하게 지내고 있음.</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해 알고 있음.- 과거 노동경력으로는 주로 건설업계에서 토목일을 담당한 듯.. 그러나 최근 들어 삼청교육대로 인한 후유증, 사고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근로의욕도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지만 수급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부족할 시 형제들의 지원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음.

A: 명절 때 쌀로 얻으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고

Q: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살아오신 이야기랑. 일은 전혀 못하고 계세요?

A: 일은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햇빛만 보면 되면 머리가 아파서요. 몽둥이로,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가지고서.. 삼청교육대 가가지고. 그 때 제 나이 27살 인데. 거기서 한 2년간 있었습니다.

Q: 그 때가 언제죠?

A: 80년도. 그래가지고..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40이 넘어가니까. 햇빛만 보면. 건축 일을 하니까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햇빛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데도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약 먹느라고 그 약은 안 먹어버린다고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고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옛날 사람들 그레 골병든다는 소리가 맞어요. 인간으로서 거기 가면 죽어요. 짐승도 다 죽어. 내가 그때 당시 청문회 모집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입하려고 나갈라 했었어요.. 000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고 그랬어요. 권총 쏘고 그런 사람들 다 알거든 그 사람들.. 총쏘고 그런다니까요~ 밤 그거.. 밤송이를 안 물면, 권총 빼들고 발밑에 권총 쏘 버려요. 그러면, 입에 갖다 대요. 밤송이에다가.. 새파란 밤송이에다.. 골병 들었어요.. 그래서 일도 못한다니까요..머리가 아파서..

Q: 2년 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잘 못나오고 그러던데.. 텔레비전 보니까.

A: 네, 못 나오는데. 법도 아니고. 전두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가가지고.

Q: 어떻게 가셨는데요?

A: 내가 서울역 앞에 지나다가 버스 터미널에 있었는데 불시 수시검문 해 가지고. 그 때 내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으니까. 전과 조회하고 전과가 있다고.. 난 전과

도 없어..집행유예 전과인가 그거 있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조서 써서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난 안 찍었다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지나가는 행인 잡아가지고 나쁘게 써 가지고.. 경찰들이 찍으라고..안 찍으니까 강제로 손 잡아가지고 찍어서 유치장에 집어넣어서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4주 있다 내보내준다고 그래서 1980년 1월 15일 부로 해서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서류 재판을 때렸더라구..2년이라고.. 얼굴도 안 보고 재판을 하는게 어딴어? 법도 아니고.. 전두환 법이지. 전두환이 죽으면 묘자리 파 버리려고 해. 내 인생 조졌다니까. 27살 때.. 26살 때.. 인간이 많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즉시 안 죽으면, 이삼일 있다가 똥 싸면 죽어요. 그냥..

Q: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tv에서 보는거랑.

A: tv에서 보는 것은 장난이에요. 그 군현역들 교육시킨다는 사람.. 다른데서 특수교육받아 왔다고 하던 사람들도 하는 소리가 자기들 같으면 자살한다고 그랬어.. 교관이나 조교들 하는 소리가 이거 자기들은 자살한다고 하대. 하는 사람들도 때릴 데가 없다. 더 이상.. 그 정도면 말 다했죠.. 우리는 날 새도록 맞아봤어. 다섯 시에 방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 6시 밥 먹을 때까지 맞았다니까요. 때리는 사람이 잠이 와서 못 때려. 맞는 사람도 잠이 와서 못 맞고. 말로 표현 못해~ 골병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죽지, 그 때는 내가 굉장히 몸도 좋고 운동도 해서 그렇지. 이제 일도 못하고 머리 아프고. 국방부에서는 보상해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연락 와서 87년도엔가.. 보상은 개뿔 무슨 보상을 해 줘? 안해주고 경비만 엄청나게 나가고. 진단서 끊어라 뭐 해라. 엄청나게.. 또 작년엔가 보상해 준다고 그래서 접수하라고 해서.. 진단서 한 번 끊으면 몇 만원씩 들어가. 종합병원에서 진찰하고 진단서 끊으면 몇 십 만원 들어 가는거야. 수없이 그걸 6~7번 한 사람 이야. 이번 2월 몇 일날 돈 208만원인가 얼마를 찾아가라고 통보 왔지만. 국방부에서.

Q: 208만원이요?

A: 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직으로 되어 있고 그러더라구, 난 어렸을 때부터 일당

안 받고 목수일을 배운 사람이야. 옛날에는 밥도 안 먹고 내 밥 먹고 다니고. 석 달 동안 다니면 밥만 먹여줬어. 그리고 3년 하면, 연장 한 번 사주고.. 이렇게 일배운 사람한테 무직이라고 해놓은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이..

Q: 일 배우시는 동안에?

A: 내 밥 먹고 일한다니까 3개월 동안. 3년간 공짜로 노임을 안 받고 일 한 사람한테 무직이라고 해 놓고. 국방부에서. 그리고 208만원 찾아가라고. 내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재심해서 내가 노조에 가서.. 노조도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87년도부터 생겼다고, 97년도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 어디 어디서 일을 했다고 편지를 써서 편지로.. 내가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70 몇 년도에 일하고, 이렇게 해서 먹혔나? 그렇게 해서 460만원 458만원 찾아가라고 하더만. 그 뒤로 편지 쓰니까. 나쁜 놈들이라니까. 정부 놈들이.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에요. 내가 70년 몇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차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구속시키고. 경찰한테 그랬다고. 그 사람은 바로 풀어주고. 일요일 날 면회가 되야요. 중국 사람들 하는 소리가 한국의 법은 죠지 법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한국법은 법이 아니다 이거야~ 뺄 있고 돈 있는 놈은 징역 안 산다니까요 지금도.. 아프다고 병부석으로 가라로 진단서 끊어가지고 돈 있는 놈들은. 죄 없는 놈은 남의 것 10만, 50만원 하면 징역 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Q: 그 일 이후로는 주로 어떤 일을?

A: 일도 못 한다니까요. 한 달에 2~3일이면 많이 하고 열흘도 못해요. 아프니까. 이 일은 일을 꾸준히 안하면 써주지도 않아요. 몇 명이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스스로 안 가기도 한다니까.

Q: 그 때 그 후유증 때문에 일을 길게 못하시는 거죠?

A: 몸이 안 아픈데가 없어요. 허리고, 머리고..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장애

라고 끊어 줄 수 있느냐 보니까 장애는 아니래요. '이 사람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이런 거 밖에 안 써줘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든 맨날 진단서 끊어오라고 해. 몸 아프다고 수급자 됐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6개월을 해줘요. 그리고는 말 안해.. 그런데 이런데서 진단서 끊어가면 4주, 3주 써주면 맨날 끊어다 대야해~ 그럼 진단서 값도 안 나와요.

Q: 그럼 이 수급은 언제서부터 받으셨어요?

A: 그전에는 내가 아파서 치료하려고. 한 5년 전인가? 2001도인가, 2002년도인가 잘 모르겠네. 그 때는 내가 병원에 다니려고 이걸 신청 했었어요. 그 때 한달에 28,000원씩 주더만. 생활비라고.. 무지하게 많이 준 돈 아닙니까? 28000원이면.. 정부 돈 아주.. 그게 아주 무서운 돈입니다..그 돈이(비꼬는 말투)..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 진단서를 가져가서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고.. 국방부 소송하는 것 때문에 신경써서 봐.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알기로는 1인당 40만원씩은 줘야 하는데 왜 28000원씩 주냐고 따진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땐 또 그럼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살다가 안되면 우리 형들이나 동생들이 한 이십 만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거 까고. 한 달에 15만원인가 17만원씩 줘요. 지금은.

Q: 동사무소에서 주는거죠?

A: 네.

Q: 그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가지고요?

A: 직접 갔죠.

Q: TV 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보고 가신 거예요? 다른 거 알고 가신 거예요?

A: TV나 신문에 발표되면 그걸 봐 가지고. 가서 얘기 했지.

Q: 그전에는 이게 생활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A: 그렇지. 이 법이 90 몇 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하실 때.

Q: 2000년도에 바뀌었는데.

A: 네. 그 때 만들어가지고 내가 12월 달인가 만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Q: 그 해예요?

A: 네.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Q: 잘 하셨네요.

A: 그 때는 28000원씩인가.. 이렇게.. 몇 년 안 주다가. 그러다 한 2년 전부터인가 내가 얘기해서 1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Q: 2년전 부터요?

A: 네, 지금은 10만 7천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17만원.

Q: 원래는 30만원에서 뭐 이것저것 빼고 그러면 17만원 정도. 그 제도 받기 전에는, 아~ 그 전에는 2종으로 되어 있으셨나요?

A: 지금도. 약 봉지 보면 몰라요. 당뇨에. 합병증이 와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Q: 지금은 1종 받으시는 거예요?

A: 2종이요.

Q: 그럼 일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A: 일 해야 먹고살죠. 방세가 겨울이면 12~13만원 나와요.

Q: 그럼 주로 무슨 일을? 배우신게 그거니까.

A: 그것 밖에 없죠. 정 안되면 용역회사에 가서 잡부라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돈 없으면.

Q: 그런데 몸은 계속 아프시고.

A: 지금도 눈을 못 떠. 흉터고 봐봐요~ 죽겠다니까요~ 이거 대상포염인가 뭐가 해가지고.. 지금도 자고 나니까 눈이 붓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지금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를 못해요. 다른 약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공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병원에 너무 많이 다닌다고.. 가라로 그런거 아니냐. 그게 왔어.. 상세내역이 다 적혀가지고. 돌아버린다니까 사람 아주.. 약만 먹으면 위 다 버려요..죽어요.. 여기 이게 다 집 옆의 병원을 다닌건데.. 이게 가라로 한거 아니냐고 편지가 와요 맨날.. 그게 의사들이 부정을 해서 돈 올려 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러는 모양이에요.

Q: 일년에 365일, 그러니까 365번만 가야되는 거죠. 365일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A: 병원에 안 가고 약은 한달 가져오면 30일로 치더라고요. 내가 머리 아프고 그러면 약을 한달치 가져오거든요. 그 약이 그 약이야. 그러니까 한 달씩 갖고 오는데.. 지금은 다른 데가 아프니까, 그 약을 가지러 안 가요. 맨날 그 약을 먹으면 속 버리니까. 여러 가지 먹으니까. 다른데가 아파가지고. 골병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듯이.. 옆에 사람 못 살게 안 굴고 그게 편하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국방부 그 돈도 안 찾았어요. 450 몇 만원 찾아가지고 가라고 왔는데. 편지에 써 줬어요. 내가 데모도 많이 한 놈입니다. 국방부 앞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대표로 하기도 했는데. 일부 못된 놈들이 있어요. 여자들 돈 얼마씩 내라고 해서 회비로 내서 여자 데리고 가서 자고. 집안 파탄시키고.. 내가 좇아가서 죽이려고 가보니까 그 사무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Q: 삼청교육대 다녀오신 분들이요?

A: 네. 그런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일씩 있다가 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련도 없는 놈들이. 그런데 그 것도 파가 두 개가 되가지고. 공덕동 로타리 굴다리 시장에 있고, 옛날 민주당사 점거 했던 놈들 파가 두 개로 나뉘져서. 순사 기꾼들이야. 그래서 그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 뒤로 없어졌는데.. 작년에 tv 보니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받아. 아가씨 나이하고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죽어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아냐고 했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전화가 안되요.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국방부 보상과에서 오는 편지에 관련한 법이 세 개가 통과가 안 되었대요. 국회에 계리중이여. 국회의원들이 당파싸움 하느라 절대 통과 안시켜~ 말로만 해 준다고 그러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옛날에도 노태우 당시 반란군들이 보상해 준다고 그랬어. 통보를 다 했어.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통보해 가지고 가보니까 미루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다니까. 시효. 대법원에서 공시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컷트 시킨거 아니에요~ 기각시킨거 아니에요.. 정부 놈들이 도둑놈들이라니까요.. 자기네들이 준다고 안하면, 달라고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접수해라 진단서 가져오라 그랬다고.. 우리가 먼저 달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그래놓고.. 질질 끌어다가 공소시효 넘었다고 컷트 시켰어. 그래가지고 다시 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내가 2년 전에 8월 제일 마지막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 1월달에 통보가 왔는데 돈 208만원 찾아가라고 왔어. 그런데 안찾고.. 내가 재심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456만원 인가 되. 찾아가라는데 안 찾아. 그 서류를 보면 세 가지 법, 보상법이라는게 있어요. 통과를 안 시키고. 그래야 2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니냐. 두들겨 맞은 놈들도 받아야 하고. 의사들은 자기들이 진단서를 끊어줘야 할 때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신이 되어 끊어주지 안 끊어준대. 사람 미칠 일이에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눈이 빠지든지, 어디가 부러지든지 이래야 진단서 장애로 끊어준다는 거야. 그럼 내가 기초수급자 김대중이 만든거 2급 받아가지고 내가 영세민 아파트 들어 온거 200만원 준거. 그것도 돈 없어서 동생한테 200만원 얻어가지고. 나 하루 일 목수 일 나가면 12만원씩 받아요.

Q: 그럼 하루 하시고 얼마나 쉬셨다가 일을 하시고 그러세요?

A: 그렇게 하면 공사장에서 일을 안 받아요.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올려야 그 건물이 하자 없이 올라가거든요. 어쩔 때는 용역도 나가고 그래요. 용역 나가면 6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럼 6천원 떼고 54000원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이 54살 먹었는데 맨날 형제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죽었으면 쓰겠다니까. 자다가.

Q: 거기 나오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일을 하신거죠?

A: 네, 일을 못 해, 아파서. 지금도 익산에 일하러 갔다가, 아파가지고 온 거예요. 자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 증상도 없이 눈이 막 아프고. 이게 또 병원마다 달라서 안 듣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군데 되는데 거긴.. 여관하나를 묶어 놓 순 없어서 그냥 올라왔죠..

Q: 그렇게 20년을 보내신거네요. 아픈 상태에서 일 하시고 또.

A: 27째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도 나를 무직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노조에다 편지를 썼어요. 대한민국 노조가 옛날에는 건설노조가 없었다. 그게 87년도 이후로 건설노조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그 앞전에 70 몇 년도에 거기서 일을 하고. 내가 목수 일을 하고. 우리나라 큰 건물에 일을 했어. 서울 삼청동에 있는 금융연수원. 거기 편지에다 내 이름을 써서 밝혔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학교도 못 나온 놈이. 초안 잡아서 민주노동당 사람한테 타자로 쳐 줘라 해서 접수시킨 사람이라니깐요. 피씨 방에 가서 주인한테 해 달래서 접수시켰어요. 내가 힘이 좋고 무지하게 동작도 빨랐는데. 삼청교육대 가서 처음에 1위 했어. 한 천 명되는데서.. 육상이고 뭐고. 언제나 선착순으로.. 난 맞지를 앓았어. 한 번 맞으면 죽어. 힘을 못 쓰니까 계속 맞는 거야. 잘 하든 못 하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예요.. 전두환 하수들. 위에서 시키니까 때리지요... 우리하고 원수였어요? 아무런 죄 없이. 그 사람들 이렇게 교육시켰더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순분자니까 자꾸 데모해서, 자기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워커신고 자고 그랬다더만..비상으로.. 군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했어. 서류에 보면, 전과 5범, 6범, 10범, 막 그러거든~ 그런데 청소하라니깐 말을 잘 듣거든. 우리가 헤어질 때는 그 사람들 선임하사 중사, 상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같으면 자살 한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맞는데?

Q: 그렇죠.. 그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A: 저 혼자 살아요.

Q: 지금 혼자 사세요? 형제분들은...?

A: 내가 일 다니다가 여자를 천안에서 하나 알았었어. 나하고 한 10년 살았었는데.. 호적상으로는 3개월 되었고, 살기는 한 10년 살았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해 달라고 해서..3개월만에.. 이혼해 줬는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2003년인가.

Q: 2003년도예요? 몇 년 되신 거네요?

A: 아무 이유 없이 차에서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내가 서류적으로 위협해가지고.. 변호사들도 나쁜 놈들이야. 자기들끼리 선후배로 통해가지고...내가 판사 앞에서 증인을 서서 방청객들로부터 박수받고 해서 돈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안줘. 자기 언니가 받아갔다 하더라고.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래요. 보험회사도 나쁜 놈들이야. 전두환이랑 똑같은 놈들이야. 서민들 피 빨아 먹고 살아. 우리나라 대기업 보험회사 안 가진 회사가 있어요?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 돈 갖다가 대기업 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보험회사에서 집으로 오더라고. 그때 거지같이 살았는데. 심장병으로 해서.. 삼성병원 검열 자체 회사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보험을 들게 되었어. 진단 받고 보험을 들어서.. 2년 만에 아팠어. 그러니깐 옛날부터 아팠다고 그래서 돈 안주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다니까요. 우리 여자 죽고 나서 받았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변호사 나쁜 놈이야. 돈만 받아먹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판사한테 가서 따지고 그래서. 내가 할 말 있다고 손들고 판사한테 얘기했어요. 보험을 같이 들었거든.. '변호사 저사람은 본 사람도 아니다~ 나하고 같이 든 보험이다'라고 증

거도 다 내놓고. 나는 건축일 한다고 위험한 일 한다고 컷트당하고 이 사람만 된거다.. 그래서 판사가 소리를 들어줬잖아.

Q: 그러면 보상금은?

A: 자기 언니가 찾아가고.

Q: 이혼상태에 있으니까요?

A: 네. 나보다.. 호적이 잘못 되서 2살 더 먹은 줄 알았더니, 9살이 더 먹게 되어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 당시 난 새벽에 일 나가면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애도 있고 그렇더라고. 처녀 때 19살 때 낳아가지고 남 쫓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장시켜줬어. 화장시켜가지고 아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연락도 안한. 우리 형제들하고 10년동안 연락도 안하고.. 그 여자하고 못 살게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연락 끊고. 우리 형제들이 7형제인데.

Q: 그 (여자)분이랑 살지말라.

A: 그래서 안 갔었어. 죽고 어찌고 연락하다보니까 알아가지고..

Q: 그러면 지금은 형제분들이랑 연락은 되세요? 자주 만나세요?

A: 네. 자주 만나요. 전화연락하고..

Q: 전라도에 사시는 가요?

A: 네. 형제들이 여러 군데 살아요.

Q: 부모님은?

A: 아버지는 4년 되고, 어머니는 4~5년. 돌아가신지.

Q: 두 분 다 돌아가셨군요.

A: 네. 한 4~5년 됐어요.

Q: 힘들게 살아오셨네요.

A: 나는 남을 많이 도와줬지. 남 못할 일 안시켜 봤어요. 싸울 일이 있더라도 성질 같아서는 병신 만들고 싶었는데 살짝 겁만 주고, 세상 살고 그랬는데. 나는 죄 없이 고생 많이 했어요. 간수 되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누구 맞는 꼴도 못 봐.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많이 당하고.

Q: 여기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A: 지금 2년 5개월 정도 됐어요. 2년마다 계약을 한 번씩 해야 되거든? 인제 내가 5월 달에 2년 만기 찻었다고..

Q: 2년 또 연장하셨네요?

A: 2년 더 연장.

Q: 2005년에 하신 거네요?

A: 네. 그럼 2009년도인가 8년도까지. 2008년 5월달까지 할 수 있어요.

Q: 일은 얼마나 하세요? 한 달에.

A: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Q: 일이 있으면 어찌다 한 번씩 나가시는거네요?

A: 네. 가끔 나가서 한 2-3일이라도 하고, 이것도 다 안면으로 해먹어요. 옛날에 나도 오야지로 돼서 80명 정도 데리고 일 한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 대전 온지 20년 쯤 넘었구만. 그래서 아는 사람들 연락해서 가서 일 좀 하자고.

Q: 그럼 주로 집에 계세요?

A: 집에 있다가 밖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울화통 터지니까.

Q: 혼자 사시는 거네요?

A: 네, 혼자 사는게 편해요. 여자랑 골머리 아파서 못 살겠어. 나는 여자들이 살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Q: 생긴 것도 잘 생기신데다가, 성격도 화통하시고..

A: 아니요. 여자들이 남자 등치는 거예요. 진실로 좋아서 살면..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데려다가 밥해 먹고 살 그럴 사람이 없어요.. 돈 달라 그러는 거지.. 지금도 나 아는 애 있는데.. 사네 어찌네 하는데, 자기 아쉬우면 전화오고 아니면 안하고. 나한테 뭐나 달라하고. 내가 돈 풀이나 있을 거 같으면 오고. 저도 신랑이 있더라고. 우리 여자 죽고 처음 술 먹으로 가서 알았었어. 술집아가씨하고 친하려고 했는데 얘기 딱 지나가는거야. 저하고 하자고. 그 때 당시에는 내가 돈 1억 정도 왔다갔다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신청도 안했는데 천만원짜리 만들어주고. 직업도 없고 그랬는데 다 만들어 주고 그랬다니까. 나는 사기당하고.. 자기 신랑이 사춘 여동생 아들이 공부 잘해서 공부 시킨다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야. 애들 들 하고. 신랑은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고. 제 아들이 의사 되니까 알려주더라고. 아들이 의사야. 의사. 원장하고 600만원씩 받고. 지금은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그걸 군대 공익으로 가서 있더라.

Q: 등록금 대 주신거네요?

A: 내가 술 많이 팔아줘서 많이 도와줬어.

Q: 부채는 없으세요?

A: 있어요.

Q: 어떻게 갚으세요?

A: 내가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카드 같은 거 술 먹으면 또 막아야 되잖아. 술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 술 먹은 듯이 해서 또 막고, 막고 그러다보니까. 돌려막기 식으로 한거야. 근데 그게 잘못 된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수급자라고 해서 파산신고를 하라고 해서 해 봤어. 옛날엔 3개월 정도 걸렸

다는데 지금은 7개월 정도. 내가 4월 달에 접수를 했어. 국선변호사들. 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사줘서 해 주는 건데. 사무장이 그러더만. 아저씨 취지는 그게 아 닌데 판사가 봤을 때 확률은 50%밖에 없다고. 카드를 쓸 때 누가 깡을 해 주고 그러면 위법이란 말이야. 이 집에서 술을 먹다보니까 돈은 없고 카드는 막고 그 래야 하니까.. '해 주세요' 한단 말이야. 술 먹은 걸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받아 그걸로 카드를 갚고 그랬기 때문에.

Q: 거의 다 술로.

A: 거의 다 술로 되어 있다 그거야.. 파산선고를 내려면 부채 확인서를 떼야 하는데.. 때보면 다 술로 되어 있으니까 아저씨는 확률이 50% 밖에 없다고. 해주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나는 아무 것도 없는 놈이니까. 죽일꺼야 뭐할꺼야.. (웃음)

Q: 아~ 카드깡 하실려고 술 마신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A: 네. 그게 한 1억 2천만원 될거예요.

Q: 상당하네요.

A: 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파산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한달에 300만원 정도 버니까. 250만원, 한달에 10만원씩 25일 하면.. 8년을 갚으려고 신용회복센터에다.. 시청에 있더라.. 거기다 내가 접수를 했어.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다 된게 아니고 대출 받은건 또 안되더라고.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불알만 찬 놈을 누가 대출해주겠어.. 카드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가라 해서 그걸 갚다 메꾸고 메꾸로 그러는 거야.. 돌려막기로.. 그러다가 그 대출 된건 안되서 맨날 들들 볶여.. 막다 못 막으니까 사금융 업체에서 200만원 정도 대출을 했는데, 그것이 눈덩이 같이 불어 나서 안 갚다 보니까 천만원이니 얼마니 그래.. 이자는 진작 다 갚은 택이야 사실.. 몇 년을 갚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파산선고를 했는데 재판이 12월 말에 끝난다고 그러네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거야 이제.. 몸뚱아리 하나 밖에 없는데. 권리금도 우리 동생이 연락을 해서 넣어 준거야. 198만원

인가.

Q: 처음에 조금 잘 못 쓴 게 계속.

A: 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거야.

Q: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A: 남산 체육관 공사도 내가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이엠에프 때도. 그런데 교통사고 나고 술 먹고 어찌고 뭐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일도 못하고.

Q: 사고 나셨다고요?

A: 네. 오토바이 사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삼일 만에 깨어났다더만.. 그러니깐 삼청교육대에서 골병들어 나오고, 사고 후유증도 있고.. 골병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3일만에 깨어났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다더만.. 지금 여기 다 흉터 보일거요. 사고로.. 눈 떠보니까 (대전지역) 아주 고가도로인데, 거기서 그랬다고.. 거기서 떨어지면 즉사지.. 누가 신고해가지고 밤에.. 그렇게 병원을..

Q: 동네 지역주민하고 알고 지내세요?

A: 아니요.

Q: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하고만?

A: 일하는 사람들하고 전화나 하고. 다 문닫고 사는데 알 사람이 없어. 여기 온지 2년 5~6개월 됐어.

Q: 안 그래도 여기 다른 수급권자를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이 쪽 지역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잘 모르신다고.

A: 잘 모르죠. 나는 잘 안나가요.. 나는 말 하기 싫어요. 말을 많이 하면. 흉이나 보고.. 사람들 못써~ 일하는데서도 말 많이 하면, 홍보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자기

할 일 아니면. 할 필요 없는거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여기 19호 아줌마. 그 아줌마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닌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두달 되었어.. 병원에 있다 하더라구.. 심장병으로. 아줌마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뒤로는 못봤어.. 아줌마 혼자 사는데 내가 문 열어 볼 수도 없는거고. 여자끼리면 모르는데..

Q: 그러면, 적적하시겠어요?

A: 편해요. 우리 형네 집에도 가도 그렇고.. 우리 형은 잘 살아요. 우리 형제들은 잘 살아요. 모텔도 하고.. 동생들도 잘 살아요.

Q: 그럼 수급 받는거 17만원이랑 간간히 일 하시는거 그걸로 생활이 되세요?

A: 어떡해든 살아야죠.. 근근이 살죠. 동생들이 몇 푼씩 준다니깐요..

Q: 동생들이요?

A: 연락하면.

Q: 다행이세요. 형제들이 그렇게 좀 사시면. 동생은 주기가 형보다 힘들꺼고.

A: 잘 전화를 않죠. 근데, 형보다는 동생이 낫죠. 우리 형은 잔소리 하니까. 나보고 '불쌍한 놈 왔네~' 이래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니까 가야하잖아요? 우리 형이 제사 지내다가 돌아가신지 한 2년 됐거든요... 형수만 살아 있는데. 제사는 군산에서.

Q: 5남매라고 하셨나요?

A: 7남 1녀요. 5년 상간에 우리 형까지 4명 죽었어요.

Q: 한달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 하세요?

A: 그게 딱 잘라서 얘기가 안돼~. 건축일이라는게 모르는 사람은 안 써줘요. 전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 군데서 일 해달라고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계속.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리고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파버리고. 자고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붓더라고. 병원 가서 약을 먹으니까 먹으나 마나하고. 익산가서 얘기했더니.. 이상한 병이 들었다고. 피부과로 가보라 하더라.. 거기까
가 말을 듣더라.. 근데 약이 딱 떨어졌어. 2틀치를 지어 왔는데. 병원 4군데를 갔
는데 한 군데만 나하고 맞는거야.. 잠을 못 잤다니까요? 몇 십년 만에 이런 병은
처음이라~ 병원장이. 익산에서 피부과 제1위라고 안과에서 소개해서 갔는데.. 머
리는 바늘로 쏘시는거 같고.. 멍울이 몸에 다 쏘어~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눈이
벌게서.

Q: 신경과에 가 보셔야겠네요.

A: 대성포럼인가 뭔가 써 주대.. 이상한 놈의 병이 사람 죽인다고. 지금은 많이 좋
아졌어. 무조건 쉬래,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쉬래. 일 하지 말고. 건축
일은 토목일이 참 편해요. 오산에서 3월달에 한 5일인가 했는데.. 자고 나니까
이상해.. 불알이 아파서 잠이 안 오대..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니까
금방 낫대? 오산 역전 앞에 병원에서 그러더라구.. 4주동안 입원을 하라고 그러
더라고.. 근데, 주사맞고 괜찮아서 일했더니.. 그 다음 날 한 나절인가 일했는데
아주 죽겠는거여.. 막 춘(찬)기가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 봤더니, 병원에
서 가만히 있어야 된대. 대전와서 주사 맞고 몇 개월 간 일을 못하는 거야. 잠도
못자니까. 발을 올리고 자야하고.. 지금도 안 낫어 3월달부터.. 지금은 통증이 그
전처럼 없지만 배 있는데로 올라오더라고. 엑스레이 찍어야 한다고. 병원에서 찍
자고 그랬는데.. 다른 데 아프니까 그대로 놔 둔거야, 불알에 염증이 생겼어. 아
무런 관계도 안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진짜 골병이여~ 어떤 날은 죽고 싶다
니까. 매일 병원에 다니니 일을 하겠어요? 속이 다 썩었어. 오바이트 나와. 약이
독해서. 병원에 얘기를 하면 약하게 한다고 영양제도 넣어 주고 그러는데 소용
이 없어. 하도 약을 많이 먹어서. 이번에도 자고 나니까 붓더라고. 얼굴로 폭발
했다..성질대로 못 해서 그런가... 눈이 벌게 가지고. 많이 가라앉았어. 병원 또
가야 한다고. 약 떨어졌으니까. 익산으로.. 거기 일 며칠 할게 있어요.. 며칠만 하
면 된다는데..

Q: 괜찮으시겠어요?

A: 죽지 못해서 하죠.

Q: 그럼 어쨌든 계속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A: 그럼 일 해야죠. 밥도 먹어야 하고. 담배도 비워야 하고..

Q: 17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으신거죠?

A: 택도 없어요. 집세 내면 끝나는 거지.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여기가 다 부서져서 전기장판 깔고 자, 이 안으로는 따뜻하고, 저쪽은 차고.. 관리사무소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지낸다니까요.. 여름에는 난방을 안 돌리니까 8~9만원 나오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12만원 나오고.

Q: 겨울이 살기 더 힘드시겠네요?

A: 똑같아요.

Q: 허긴 겨울에는 또 일이 없지 않습니까?

A: 일이 없지.

Q: 그러면, 여름에 벌어들여야 겨울에 난방비를 데고..

A: 살다가 없으면 또 가잖아.

Q: 어디로요?

A: 형님네. 그런데.. 10kg의 쌀을..

Q: 2만원 풀이죠?

A: 아니요. 10kg면 9000원 풀? 20kg이 19,000원인가.. 정부에서 해 주는게 있어요. 우리 수급자 돈 나오는거에서 깎다고. 그러면 1인당 10kg이 배당이 되.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20kg을 내가 산다고. 그걸 혼자 먹어도 모자르지.. 10kg 가지고 한 달 먹겠어요? 10kg이면 몇 되인데? 2.6kg가 쌀 한되라고..2.8kg가..

Q: 그럼 어떻게 하세요?

A: 일을 하게 되면 나가서 얻어먹잖아. 그전에는 노가다 하면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 주잖아. 옛날에는 갑판에서 자거나 텐트치고 자고. 지금은 여관에서 채워줘요.. 예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Q: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A: 지금은 7시부터야.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다 해서 힘은 안 들어. 근데 우리는 아파트는 안 하지. 힘들어서. 아파트는 중국인들이 해요. 한국 사람이 안 해. 80%가 중국 불법체류가 다해~ 한국 사람은 안하지 똑같은 일이면 거기 가서 일해.. 거기는 정신없이 일해도 위에서 잘라먹고, 잘라 먹고.. 적은 돈으로.. 일꾼도 피뎠아 먹고.. 죽어~ 죽어.. 지금 80%는 중국애들이예요~ 아파트는.. 월남 애들이나 방글라데시 애들은 얼굴에 티가 나니까 안되지만, 중국애들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경상도 산다고... 불법체류자니까 쫓겨나잖아. 경상도 악센트가 나오거든.. 한국 사람은 아파트 안 해요. 지금 아파트 8~90%는 중국 애들이야. 내가 대구에 올라갔더니 한국 사람은 4명이고, 중국놈이 14명이나 있더라. 피곤해서 일 못하겠어.. 사람은 많은데 일이 안돼.. 다 돌팔이들이라. 내가 아프다고 도망왔다니까.. 일 못하겠다고.. 다 중국인들이라니까. 나라 망할일이라니깐.. 아이엠에프 또 온다니까. 개들이 최하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1년에 얼마가 나가는거야? 개들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씩 벌어가는 놈들이야~ 개들은 독해.. 인정사정 없는 놈들이야. 한국사람은 인간미가 있어서 담배도 나눠 피는데. 중국애들은 자기 밖에 몰라..

Q: 그 때 기억나세요? 수급신청 가셨을 때.. 공무원들하고 어떠셨어요? 수급 정 부돈 받기 위해 직접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셨을때..

A: 수급자 만들 때? 나는 그때 일이 있어서, 우리 옆에 집 아줌마가 신고를 해 줬

어. 동에서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 난거 치료한 거 진단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데 몇 년동안 있다가 작년부터 내가 진단서 끊어주고 돈도 이것 갖다 못 사는데, 내가 알기로는 4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만 8천원 주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12만원인가 올려 주더라. 그러더니 일년에 2만원씩 올라가. 처음에는 12만원인가 주더라고..

Q: 그럼 그게 몇 년 전이에요?

A: 2~3년 됐어. 그 때 2년 됐네. 여기 와서 그랬으니깐..

Q: 옆집 아줌마가 신청해 주신거라고요?

A: 아니요. 여기 오기 전에 문창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살 때 식당 아줌마가 내가 불 일 있어서 못 간다고 접수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접수 했어.

Q: 그런데 제도는 TV를 통해서 먼저 아시고요?

A: 알죠. 뉴스보고.. 국방부에 소송 걸어 놓고 맨날 뉴스 보니까 알지.

Q: 그런데 일이 있으셔서 못 가시고 아줌마 시켜서 접수시켜 놓고 나서는요?

A: 진단서 끊어 내라고 해서, 교통사고 나서..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환장하잖아.. 병원비를 안 줬는데 진단서를 끊어주겠냐고. 나는 병원비 안 내고 도망 나온 놈인데. 내가 깨어나니까 돈 달라고 뷰더라고.. 그 여자를.. 일 끝나고 현장에서 오다 그런 건데. 정신 차렸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래서 병원비 안 주고 나와버렸지.

Q: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A: 그 때 당시 500만원인가 나왔어. 치료를 더 해야 하는데 나와버리니까 더 아파 죽겠어. 머리만 치료 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빼에 금이 가 있더라.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머리만 치료를 했지.. 안했다고..

Q: 그것만 해도 500만원이 나온거네요?

A: 한 달 가까이 있다 나온 거야. 20일정도 있었어. 이번에 파산신고 할 때, 그 것도 접수했다니까. 그것도 재판받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끌려가서. 돈이 있어야 갚을 것 아니냐고. 간다는 말도 안하고 나왔어. 입원해 있다가.. 그 때 우리 형제들이 연락이 돼서 왔더라고. 왔는데, 여자하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돈돈 돈 그래서 미워서 안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형 재산이 몇 십억 되요. 나와서 보니깐, 우리 형이 톨게이트 두 개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다른 거 하는데. 미워서 돈을 안 줬다 하더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서 치료비 안줬대..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나와지..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재판받으러 오라고 왔더만.. 왜 돈 안 줬냐고. 치료비. 그래서 이번에 파산신고 할 때 몽땅 했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와서 차압 붙이든지 말든지. 이놈들이 돈 받을려고.. 삼성카드인가.. 난 우리 형 주소도 몰라.. 그쪽으로 우리 형주로 해가지고 재판받으라고 왔더만.. 실제로 카드회사에서 원금은 천백만원 밖에 안됐어요. 갚는다고 하니까 보증을 서래 이놈이 맨날.. 괜찮다고.. 그러면, '네가 보증서라 괜찮으면.. 너는 안 설라고 하고, 다른 사람 괜찮다고 하는게..' 이런 뭐 같은게 그러면서 그 놈을 죽이려고 했어~! 그때 안되겠는지 그 사람이.. 삼성에서 고소했더라고. 내가 판사한테 갔어.. 일부러 늦어서.. 광주서 딱 그래 났더라고.. 여자판사였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 '천몇백만원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그래서 '이자가 붙어나서 이천사백만원 아닙니까' 내가 그랬지.. 그리고 난 여기서 재판받기 싫다고 그랬어.. 재판에 늦었어.. 11시인데, 2시더라고.. 차 막혀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지. 대전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광주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대전으로 보냈더만.. 그래서 대전에서 재판 받았다고. 카드 놈들이 도둑놈 놈들이지. 우리 형한테 돈 받으려고 하니.. 택도 없는 소리지.. 너무 부당하게 해 먹으니까 안줘도 된대요.. 카드돈 못 떼어 먹는 놈이 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떼어 먹으면 안되는데.. 일해서 몇 십만원씩 갚게 하자고 하니까 전부 안되대. 무조건 보증 세우라고.. '이 양반들이 불알만 있는 사람이 보증을 어떻게 서냐고.. 그럼 네가 보증 서.. 괜찮으면.. 너는 안 서고 다른 사람 세워?' 그래서 파산신고 했다니까. 병원비하고 뭐 다 하니까 1억이 넘어. 카드도 원래는 그 정도 안돼요.. 이자로 200만원도 더 갚았어.. 그런

데 그것이 970만원 갚으라고 하더라고.. 재판해가지고.. 원금은 이자로 갚아도 더 갚았다니깐. 사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 주더라고. 내가 그때 보증이 없으니깐..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말만 하면 만들어 줬다니까.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커진거예요.. 실질적으로 원금은 얼마 안돼요..

Q: 없는 사람들 등 쳐 먹고 사는데 카드 회사고.

A: 없는 사람 등 쳐 먹는게 카드 회사인 거예요..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 사무장이 딱 정리해보니깐.. 파산선고 하려면, 명세서를 떼다 다 청구해야 한대.

Q: 빚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얼마정도 되는지...

Q: 그럼 아까 수급하신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셨을 때가 4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수급신청은 그러면 3년 전이고요?

A: 여자 살았을 때 했어요. 수급 신청하고 1년도 안 되서 죽었을 거예요..

Q: 그럼 2000년 넘어서 수급신청을 하신 거네요?

A: 2002년도인가. 김대중씨 대통령 할 때 수급자 신청 초창기에 했었어.

Q: 그 때 나온게 2만 몇 천원이었다고요?

A: 그 땐 돈 하나도 안 주었을 거야. 하나도 안줬어..

Q: 그 때 의료만 되신거예요?

A: 네. 의료만.

Q: 생활급여는 안되고 의료만 될 수 있게 했구나.

A: 그러다 몇 년 있다가, 2만 8천원씩 주더만.. 그리고 내가 동사무소에서 따져서 한 게 이제 2년 됐는데, 그 때부터 10만,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 주더만. 그래서 1년에 2만원씩 올려서 지금 17만 4천원인가 줘... 올해는..

Q: 조금씩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A: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만.. 내가 동생한테 20만원씩 받는다고 말을 안 했으면 그걸 적더라고. 40만원 준대. 그 20만원을 까고 주는거라고.

Q: 동생이 매달 20만원씩 주시는가 봐요.

A: 네. 없으면 내가 20만원 가지고 살겠어요? 솔직히 담배값만 해도 한달에 15만원 이에요. 나는 교도소 있을 때도 담배를 폈는데. 담배 안 피면 열 받아서 죽어. 집에서 한 돈 100만원 줄 때도 있지. 그런데 말은 않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나이가 몇 인데 돈을 달라고 하겠어.

Q: 이걸 통장으로 받으셨으니까.

A: 통장으로 안 받아요.

Q: 그럼 동사무소 가서서 얘기를 하신거네요? 본인이.. 동생들한테 조금씩 받는 다라고..

A: 그랬더니 그렇게 해 봤어. 동사무소에 가서 여자들한테 추접하게 창피한테 얘기 하겠어요? 이것도 창피해서 통 안가요 동사무소.. 큰 맘 먹고 간 거예요. 추접한 일을.. 웬만하면 내가 벌어먹지.. 하루 이틀 일하면 되는데. 정부한테 달라고 하겠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나도 불쌍한 사람 보면 내 옷 다 갖다 주고 밥 먹이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돈을 그러겼어요.. 하도 죽었으니까 그랬지.. 병원에는 다녀야 하고.. 사실 병원 다니려고 수급자로 만든거라고요. 맨날 아파서 골병들어 있으니까.. 병원다니려고 수급자로 만든거라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동에 가서 이렇게 아프니까 치료좀 해달라고.. 동에 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급자로 만들어 준 거야. 아줌마가 신청을 해서. 전에 얘기는 해 봤지.

Q: 동사무소에 전화로요?

A: 직접 갔지. 문창동 살 때인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에라도 다니게

해 달라고. 그러니깐 진단서를 내라고..

Q: 그 때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던가요?

A: 잘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Q: 예전보다 잘 하는게 있어요?

A: 공무원은 잘 하는 편이에요. 옛날보다는 양반이지. 옛날에는 목에 힘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하는 편이에요.. 사람 하찮게 봤지. 이거 영세민 하는 것도 사람 업신여기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한테 혼나지..

Q: 요즘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A: 나한테는 그랬다가 작살 나. 동이고 뭐고.. 사무소 찾아가서 가만히 안내두지.. 내가 페인트 전문가인데 동사무소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게.. 가만히 보니까 대충 하고 대충 하고 가, 아무래도 이 놈들이 뇌물주고 온 거 같애 이것들이.. 그냥 슬슬 칠해주고 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니깐 잔소리 한다고 나한테 지랄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때려버릴까 했더니깐.. 칠 했던게 열흘도 안돼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동사무소 아가씨한테 그랬어.. '이거 뇌물 받아 먹고 공사를 준거냐?' 그랬더니,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짜증내면서 아저씨가 시키래. 그게 미친년이지 나한테 시키라는게..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거냐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당하게 돈 받아 먹고 일 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해서.. 청소하기만 바빠.. 공사하는 사람들 다 뇌물 주고 뺨으로 들어와서 그러는거야. 그 사람들한테 안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게 아니라 아줌마들은 떨어진 페인트 쓸어내기 바빠. 내가 빗자루로 맨날 쓸어내요..하도 떨어지니깐..

Q: 그러고보니 집이 무척 깔끔하네요. 혼자 사신다고 하는데.

A: 아~ 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여자들이 그러면 난 안살아요.. 난 밥을 굶어도 추접하게는 못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안좋은건

데.. 우리 어머니때부터 우리식구가 다 그래요.. 목욕탕가면, 두시간씩 만나오고.. 난 빨리 하는데.. 그럴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밥을 굶어도 씻어야 되고. 씻지 않으면 잠도 안자요. 여자들 하고도.. 구미에서 여자랑 자는데... 내가 구미에 있다 온 거예요. 구미 이문동에 살았었어요.(조사자와 응답자가 구미 및 정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눔). 식당에 가서도 지저분하면 그냥 돈만 주고 나와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해먹던지.. 여기 온지가 20년 됐어요..

예전에 내가 신청할 때는 없었는데.. 몸이 아픈거 때문에 병원가야하니깐.. 김대중 대통령이 수급자 제도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서 혜택받은 사람 많아요.. 요즘은 고등학교까진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 중에는 가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30%는 가라예요.. 차를 탈때가 없어요.. 차 있으면 못들어 오거든? 차를 탈때가 없어요..내가 아는 사람도 아프지도 않은데.. 받아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법이 너무 물러요.. 아는 사람한테는 최고 좋고.. 모르는 사람한테 힘들고 그런거예요.. 대한민국법이..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법이 조지법이라고.. 한화 김승현이도 재수없이 들어왔지.. 그 사람은 왕이예요 왕.. 그 녀미 재수없이 걸려 들어온거지.. 그런데, 그녀미 못된 놈이예요.. 애비 잘만나가지고.. 다른 일도 아니고.. 술먹고 싸운거를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일을 지 아버지가 나서서.. 그 녀미 애비 잘만나서 그러지.. 똑똑해서 그런거 아니예요..그런데.. 징역살라하니깐.. 아프다고.. 가라로 진단서 끊어가지고.. 아프긴 뭐가 아퍼요.. 맨날 보약먹는 놈이.. 이회창이 대통령 떨어진 것도 아들때문인데.. 이회창이 판사출신인데.. 그 할아버지때부터 친일파라 잘 먹고 잘살았는데 무슨 영양실조가 걸려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사십 몇 킬로 나간다고.. 키가 176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요.. 한화 김승현도 나올려고 가라 진단서 끊고..

Q: 진단서는 계속 6개월에 한 번 씩 받아서 내고 계시는지요?

A: 계속 냈는데. 요즘엔 안 오대? 1월에 갖다 왔으니까 6월에 와야 되는데. 몇 주를 안 쓰고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이렇게 써 왔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안써가지고 오면 전화와.. 갖고 오라고~ 갖고 갔더니 아저씨 이렇

게 써오지 말고, 몇 주를 써오라고 그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6개월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아 이념의 여자야! 그 사람들 일류 대학나와서 의사된 사람들이 써준 대로 가져오지.. 내가 몇 주 써라라고 말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의사한테 몇주 써달라고 해달라는게 말이 되겠어요? 의사가 주는대로 가져 와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말을 못하더만.. 이렇게 하면 6개월은 인정해 준다고 하더만. 그래서 알지.. 이번에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연락 안 오네요.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공단에서 마땅치 않다고 구청장한테 찾아가라고 편지가 온거야.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야.

Q: 조건부 연장 승인.. 총 급여가 360일. 추가 30일.. 90일까지 되니깐..

A: 이렇게 많이 가니까 진단서 가져오라는 소리는 안 해.

Q: 하루에 한 두 번은 가셨다는 소리예요.

A: 한 두 번 간게 아니라 내가 머리 한 번 아파서 병원 한 번 가면, 약을 일주일 씩..내가 맨날 다닐수 없고.. 접수할때마다 교수가 보면 7천 8백원 정도 받고, 의사가 보면 2천 8백원 정도 받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데.. 접수비가.. 그냥 한 달치를 해달라고 하면 한달에 한 번씩 가야 하는데, 다른 약을 먹으니까 안 갔지. 어떨때는 맨날 가긴 했지만, 맨날 가겠어요? 약을 한꺼번에 지어오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알지. 이제 부정을 하나~해서 그런거 같더만.. 병원 간 날 짜를 맞춰보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참 남았다고 그래요.

Q: 동사무소 외에 국가기관, 삼청교육대 일 말고, 동사무소 말고, 지역 복지관 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A: 안했어요. 아는데 안 해요.

Q: 이 근처에 복지관이 있던데.

A: 있지. (그런데) 안가요. 여기 하도 청소 안하니까 내가 새벽에 가끔 나가서 아무

도 없을 때 나가서 하지. 내가 여기를 안 들어오려고 한 달을 돈 안내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내가 여기를 3일을 와서 딱았어.. 그러니깐 여기가 정들어 좋대.. 내가 방 뒹다가 빗자루로 거기 다 쓸어줘요.. 내가 여기 청소하다가 밖에까지 쓸었어.. 그러다가 아줌마가 봤어.. 그 분이 '아이고~'... 남자가 하고 있겠어요? 할 일 없이. (안들림) 설문형식으로 해서.

Q: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통계자료를 뽑았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이걸 단답 형식으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적거든요. tv에서 보시면 방송에서 면담하고 그러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A: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참 잘 한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보니까 아들이 20살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더라고. 국민기초혜택. 소년소녀가장이든 혼자도니 여자들.. 이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기도 힘든데. 이걸 정부에서 참 잘 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도 다니고.. 우리가 개인병원을 다니면 천오백원 천원 이렇게 내요. 약 값 오백원, 진료비 천원, 그런데 약값은 안하고 진료비만 천오백원 이렇게 받는대. 왜 그러냐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Q: 법이 바뀌었어요.

A: 7월 1일 날이든가 법이 바뀌었더라고. 우리에게 증가된 돈이 많이 생겼더라고.

Q: 그런데 대신에 갈 때마다 돈을 내셔야죠. 2종은 어차피 돈을 내셔야 하지만.

A: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면제. 예를 들어 진통제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내더라고. 그전에는 안 냈는데.. 정부에서는 부당하게 병원을 너무 많이 가지 말라고 그런 법을 만들겠지만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아.

Q: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A: 적자 보는 거지.

Q: 그걸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만들긴 했는데 이런 것도 제도를 바꾸는 거거

튼요..

A: 처음 수급자 했을 때 백 삼십만명인가 했거든. 지금 삼 백만명 정도 되더라고.

Q: 상당히 많죠.

A: 가짜로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

Q: 그런 건.

A: 30% 정도. 그걸 다 단속 할 수는 없어. 근거로 한다고 지역사회에서 진단서 갖고 다 밝힐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의사도 자기가 보기에 그랬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단서에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야.

Q: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려고.

A: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방부 보상 신청 한 것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 오라고. 국가 지정병원에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의원치는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니까. 의사들한테 죄를 묻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봤다면 끝나는 거예요.. 법관들 사표내면 끝나는 것처럼.. 어쩔꺼예요? 할수 없는거예요.. 내가 의원에서 진단 받은 건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병원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진단 받을 때 국방부 직원이 와서 보초 섰었어 같이.. 그 사람 대령이더라..

Q: 여기도 진단서가 문제가 돼서. 진단서를 좀 개선 좀 하려고.

A: 내가 봤을 땐 아무리 영리해도 안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병이 열 개면 된다고 하지만 몸이 몇 천 가지가 아프면, 그걸 통계로 뽑을 수 없고. 내가 의사, 정부사람, 대기업 사람들과도 생활을 해 봤는데 징역 살면서...(교도소에 대한 사적인 얘기). 이걸 통계로 뽑을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정치가에

대한 자기의 견해.. 박정희 얘기 등).

Q: 이 제도도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A: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 내가 아는 사람도 백수로 사는데.. 여자 등쳐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영세민 받고 살어.. 그것도 1종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2종 아십니까? 치료만 받으려고. 1종은 정부에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와. 쌀도 공짜로 나오지. 우리는 쌀 한 포대 2만원씩 주고 사잖아? 그 사람은 쌀도 공짜로 나오고 병원비도 안 내고 혜택 보는게 많아. 우리는 천 오백원씩이라도 내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안낸다니깐?

Q: 우리 연구 목적이 이런거예요.

A: 우린 종합병원 가면 5천 8백원 이렇게 내. 의사 얼굴만 보는데. 1종은 전부 무료요..

Q: 1종도 조금씩 내게 되어 있어요.

A: 그래요? 난 그냥 해주는대로 하는 거지.. 나는 몸이 맨 날 아파서 일도 못하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머리도 깨지고 그랬으니깐.. 병원이가 다니려고 한 거지. 내 건 2종이라고 써져있지만..

Q: 조건부 유예자는 일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단서를 내셨으니까 조금 더 유예가 되실거예요. 유예가 되셔서. 급여가 나오는건데.. 만약 유예가 됐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되었다면, 일을 하셔야 되셨을 거예요..

A: 조건부 유예는 몸이 아파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Q: 몸이 아파서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거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계속 내야되는 거죠.

A: 냈다니까요.

Q: 안 그러면 일을 하셔야되요.

A: 아~돈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게 된 걸로 되어 있으면 돈을 안 준다고? 그래도 없을 때는 크게 요긴하게 쓰고 그랬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한테는 만원이 없어서.. 아! 그래서 조건부유예.. 물어보더라고. 동에서 가끔.. 일 하나 안 하느냐고.

Q: 진단서를 내시면 일을 안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A: 진단서를 갖다 내면?

Q: 그런데 진단서가 없으면 일을 하셔야지만 급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아프다고 하면 일을 해야 하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죠. 다른 데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이라고 동사무소에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하셔야죠. 그런데 진단서가 있으면 집에서 쉬시면서 몸을 추스릴 동안은 급여가 나오죠..

A: 아~ 동에서 하는 공공근로인가 그거? 그것도 다녀봤어.

Q: 공공근로는 아니고, 조금 다른 건데요. 다른 데 자활공동체라고 하루 6시간 씩.

A: 그 때 해 보니까 동에서 48만원인가 주더라고.

Q: 공공근로요? 그렇죠..

A: 15일 해서인가 한 달 해서 인가 48만원. 한 달 했구나. 그런데 가서 놀다시피 하고.. 산에 나가서.. 보문산 공원에 가서.. 뭐했냐고 물어보길래.. 난 목수일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의자고치고 있었다니깐..

Q: 어떻게 보면 평소 하시던 일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약하죠. 대신 돈은 별로 안 되지만.

A: 아~ 동에서도 보니까 취업알선 그런 것도 써있더라..

Q: 이제 일을 하셔야 되면요.

A: 그럼 일을 하면 동에서 10만원인가 그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Q: 그대신 자활공동체에서 월급으로 나옵니다. 5일날. 지금은 20일 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5일 날 돈이 들어오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7만원보다는..

A: 근데.. 일을 하고 싶지~

Q: 일을 하고 싶으세요?

A: 내가 한참 일을 할 때는 술 집에 200만원 300만원 뿌리고 다녔는데. 죽겠다고.. 자살하고 싶다니까. 어떨 때는 몽창 약먹고 자면서 죽고 싶어.. 어저께 불나서 문을 열어 둔거야.. 몸이 안좋아 닭한마리 고아 먹으려다.. 깜빡 잠들어 버렸어.. 사고 나서 내가 정신이 없으니깐.. 금방 한말도 잊어버려.. 보건소에서 연락왔던만.. 내가 당이 290이 나왔어. 그러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앞에 나왔던 병의 증세 등에 대한 내용이 반복됨).

Q: 보상 문제는 잘 해결이 되셔야 할텐데.

A: 잘 해결되면 나도 집에 얘기해서 다른 거 한 번 해 보려고. 수급자 안하려고.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하다니깐요.. 나는 사람 좋아하는데, 그래서 누구 불러들이지도 않고 살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돈 십 몇 만원 받고 살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도 뭘 해야지. 나도 나이는 먹고.. 큰 일 났어.. 빨리 해결돼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27년 동안 국방부 재판을 해 봤는데 끝나도 안 해.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받데? 사무실에서는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나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 나처럼 오래된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전화가 안돼.. 석달째.. 내가 보니까 죄지어 놓은거야..(개인적인 얘기).

□ 수급자 14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근로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10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가구주(응답자)	56	남	무직	직장암
부인(응답자)	53	여	무직	고혈압 등
자	22	여	대학 3년 재학 중	
자	18	여	고등학교 2년 재학 중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대동 무허가 주택(대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함). 방 2개(작은방 하나를 두 딸이 같이 활용), 난방은 연탄 활용. 화장실은 집 밖에 있으며, 푸세식. 목욕시설은 따로 없으며, 수도시설은 집 안에 마련되어 있음.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초반에는 부부가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이후에는 아주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짐. - 아저씨의 경우 직장암으로 10년 투병. 항문이 없어서 배변할 수 있는 주머니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음(한 달에 10만원 정도). - 아저씨의 경우 목수였기 때문에 기술보유. 그러나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해 일하기는 어렵다고 함. 힘이 들지 않는 일에 대한 욕구. 아주머니는 집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자녀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매우 가슴 아파함. 대학생인 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수급이 끊길 것에 대해 걱정. - 큰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생계비 38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함(대학생인 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 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추정소득 부과). - 불친절한 공무원 및 수급자 기준에 대한 불만 표시(부유한 자식이 있는 독거노인이 수급 받는 것).

Q: 저희는 성균관 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고요. 저희가 그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 받고 계시죠?

W: 예.

Q: 수급받으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은 없는지 집안 사정은 어떤지 그런 걸 여쭙보려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두 분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W: 우리 애기아빠가 직장(암)을 걸린지가 11년 됐어요.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Q: 아니요. 몰라요.

W: 96년도 9월 9일날 했어요. 걸리기는 5월 27일에 발견을 해서 95년도 5월 달쯤 직장이 아니고 치질로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직장암으로 이렇게.. 똥구멍이 이상하니까 치질한 데를 다시 가니까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직장암 말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Q: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그럼 10년 넘으셨네요.

W: 96년도 그렇게 5월 27일 날 발견해 가지고 을지병원에 가서 너무 암이 큰 상태라서 바로 수술을 못 해서 방사선으로 4주 썩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더라고요. 한 달인가 5주, 바로 못 한 대요. 방사선을 썩도. 암 덩어리가 큰 상태라서 방사선을 썩면 좀 준대요. 5월 27일 날 입원했어도 5주 썩고 한 달 기다리고 그러니까 날짜가 9월 9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9일 날 수술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 진짜 희망도 없어졌어요. 과장이 6개월 산다고 했어요.

Q: 아휴, 근데 지금 건강해 보이세요.

W: 예.

Q: 그이후로 그럼 전혀 일을 못 하시는 거고요?

W: 예, 그런 거 다 배변을 받아 내잖아요.

Q: 지금도요? 안 좋으셔가지고요.

W: 예. 배변을 받아 내요. 그런데 그게 다 수입품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못 만들어 내나 봐요. 이것 좀 들어봐요(과일).

Q: 예, 잘 먹겠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H: 저는.

W: 과일을 안 먹어.

Q: 과일 못 드세요?

W: 안 좋아하더라고요.

H: 병원에서 사과를 못 먹게 하더라고요.

Q: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다 못 받아 적어서 녹음을 할 건데 괜찮으세요?

W: 예, 하세요.

Q: 텔레비전을 좀.

W: 선풍기도 꺼야 되겠네요?

Q: 아니에요. 괜찮아요.

W: 저기 판하고 주머니 값이 되게 비싸요. 뭐, 호주산이라나. 그래가지고 우리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애기아빠가 병에 걸렸잖아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인데.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한테 진짜 미안하지요.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 애들한테. 지금도 다 학자금 대출 받아 갖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냐고.

Q: 아.

W: 자기 아빠도 능력이 안 되고 나도 능력이 안 되가지고.

Q: 한남대는 사립대예요?

W: 사립대예요. 300만원 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학자금 대출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자는 뭐, 한 4, 5천되더라고요. 3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항상 저한테 짐을.. 항상 우리가 이자는 그거 하니까. 그게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껏 살아가면서.. 나는 애들 생각하면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애들한테(눈물). 남들. 지금 작은애가 고2예요.

Q: 음.

W: 고2인데 그것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댄에는. 지금 동성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반장을 했어요. 중학교 때에는 반장 이런 거 했는데 1학년 때는 안 하려고 하더니 2학년 때는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가.

Q: 똑똑한가보다.

W: 열심히예요. 애들이 둘 다. 그런데 작은애는 좀 내성적이고 첫 째는 좀 활발한데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하나, 예쁜 것도 못 사주고 못 먹이고 하니까 엄마 괜찮아, 우리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작은 거는 항상 불만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밤 2, 3시 까지 공부해요. 그런데 그 주머니 값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큰 애가 이제 엄마, 나 이제 휴학계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 휴학계 내면 영세민도 떨어지고, 수급도 휴학계 내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깐. 너 휴학계 내면 영세민도 떨어지고 너 대학도 생활비 대야지 아빠 용돈 떨어지면 아빠 병원비 대야지. 이거는 죽으나 사나 대출 받아서 조절을 해야 되지. 그냥은 못 한다. 그러니까. 지가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리더라고요. 큰 애가요. 글을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빠 주머니 값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혜택이 없냐 했더니 청와대에서 연락을 할테니 거기서 주머니하고 판. 주머니 판 한 번 보여 줘봐. 아가씨들한테. 그래서 그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니, 새 걸로 보여줘요.) 보건소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거 나온 지 작년부터 나왔어요.

Q: 돈을 일일이 내고 사는 거였어요?

W: 내고 샀어야 했는데 우리 큰 애가 청와대에다가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답을 받았더라고요.

Q: 그거 사려면 하나에 얼마인가요?

H: 3천 얼마요.

W: 이거는 3천 5백 원이고요. 판은 6천 8백 원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장 만 해도 한달에 10만원이 넘어요.

Q: 하루에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H: 이게요. 이거는 판인데. 이게.

W: 판하고 연고하고, 연고 한개도 1만 5천원하고 이게 호주산이라나 비싸요.

H: 이거는 연고인데 이거하고, 여기 기구가. 이 아가씨들 앞에서 좀 창피한데..(직접 보여주심).

Q: 의료급여 받으시는 거에서는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W: 예, 따로 안 나와요.

H: 이렇게 기구가 되는 거예요.

Q: 아

W: 그 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이불도 다 버리고 참 불편 하지요. 애기가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애 아빠가 수술 들어가서 을지병원에 7개월 동안 있었어요. 염증이 안 가라 앉아서 7개월 있었는데. 큰 애가 공부도 잘 했었어요. 5등 안에 들고 그랬는데 그때 수술할 무렵에 저기 작은 집에, 이모네 집에 딱 한 번, 6년 동안 딱 한 번 놓치더라고요. 큰 애가. 그러더니 대학을, 원래 애는 진짜 자기 아빠가 건강만 했으면 미대를 갔을 거

예요. 미술을 참 좋아해요. 둘 다. 그림 그리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프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림,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림, 아까워서 어떡하나. 자기가 미대를 포기하고 지금도 그림을, 꼭 한 번씩 얘기해요. 엄마, 내가 만약에 아빠가 안 아팠으면 미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가지고 만날 선생, 선생 한다고 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심하게 타더라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한 번 떨어지니까 다시 학원도 못 보내는 상태고 하니깐 못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 사춘기 타니까. 생전.. 진짜 뭐 앓으라고 하면 앓을 정도로 말을 잘 듣더니,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인가 해서 조금 사춘기 있다가 학교에서 일지매인가를 가입해서 뜨끔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한 번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나하고 말다툼하면서.. 내가 아빠도 안 아프고 엄마도 건강했으면, 나도 약으로 사니까. 건강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영원히 안 돌아왔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래도..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왔대요. 친구들이 말려도. 나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엄마 나 기다리고 아빠까지 신경 쓰는데 나까지 그거하면.. 엄마 오래 못산다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안 보내고 싶어서 우리는 돈 때문에. 상업고등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상업고등학교는요.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대출받아서 자기가 갚는다고 하니깐. 5번인가 6번인가 받았어요. 대출을.

Q: 고등학생이요?

W: 아니요.

Q: 아,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W: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영세민이니까 33만원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내야 돼요. 6만 얼마 나오고. 밥값까지.

Q: 급식비요?

W: 예, 급식비도 한 끼에 2200원씩이잖아요. 점심은 동사무소 혜택(급여)이 돼요. 그런데 저녁은 안 돼요.

Q: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받으시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W: 한 4. 50만원 조금 이쪽저쪽 넘어요.

Q: 지금 일반수급이시죠?

W: 예, 1종.

Q: 식구가 4분이신데?

W: 큰 애가 대학 갔다고 38만원 빼고 나와요.

Q: 그럼 큰 따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W: 예, 다 나왔어요. 내가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큰 애 아르바이트 하는, 암만 못 벌어도 아르바이트 38만원을 받아야 된대요.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Q: 아르바이트 안 하잖아요. 그죠?

W: 학교에서 해요.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Q: 그게 뭐가 잡혔나?

W: 안 잡혀도 해야 된대요.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Q: 대학을 가면 무조건 38만원을?

W: 대학도 야간을 들어갔어요. 야간을 들어가니까. 놀 일은 없지 않느냐고. 뭐를 해도 할 거래요. 제일 처음에는 아르바이트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놀았어요. 진짜. 뭐, 3시에 들어가니까. 보통 3시에 들어가요 야간이더라도.

Q: 예.

W: 그러니까 뽀뽀하게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요. 그래서 지금은 교수 밑에 있어요. 자기가 부학생회장도 하고 하니까 교수 밑에 있는데. 그때 3시에 끝나 가지고 3시에 바로 수업에도 가는, 일주일 두 번인가 한번 더 가요 3시에. 나머지는 6시에 들어가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술집 같은 데. 진짜 뭐, 아침부터 술집을 안 열잖아요. 술집도. 그래서 참 하기가 애매해서 1학년 때는 안 한다고 해도 안 믿어, 그 아가씨가(공무원).

Q: 음..

W: 자꾸 세금 내는 영수증을 띄어 오래요. 어디 가서 떠나고 못 된다고. 나는 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측정을 38만 원을 딱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니, 아가씨가 어디 가서 38만원을 벌겠느냐. 최하, 최저 저기래요. 그래서 38만원 그대로 올렸나 봐요.

Q: 그럼 생활하시기가...

W: 그러니까 진짜 주머니를 샅습니다. 우리 주머니가 이게 또 보건소에서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도 갖다 주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갖다 주면 한 달에 다섯 장을 주든 너 장을 주든 이렇게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잖아요. 대목(추석)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대목에 일 안 나가는 날 샅어요. 대목에 10년 동안 거래한데. 매진됐다는 거예요. 매진 되가지고 진짜 이런 거는 안 먹으면 되지만 대변은 안 받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쌀 걱정은 안 해요. 이거는 외상으로도 갖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외상도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돈을 진짜, 우리는 돈도 한 개도 없는데 작은 애가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농협 상품권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사 지내라고. 이거 가지고 차례 지내라고. 선생님이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기를 소년소녀가장으로 올렸던가 봐요. 우리 형편이 딱하니까. 그거를 준대요. 농수산상품권을.. 너 가장으로 올렸다. 가장으로 올려서 나왔다.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와주더라고요. 신

밭도 선생님이 어디서 진짜 그거 해갖고 작은 애 어디서 신발 들어왔다고 학교에서 이제.. 너 반에 몇 명받았냐고 했더니. 뭘, 몇 명받아, 나 혼자 받았지. 몰라, 전교에서 나 혼자 받았나, 둘이 받았나. 지 말로 그렇게 해요. 나는 한 반에 한 명씩은 준 줄 알았지. 아니, 선생님이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걸 올려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못 샀어요. 50ml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아휴, 어머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오네. 어머니 오면, 도착하면 집으로 연락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60ml 사온 거예요. 50ml가 매진이 되가지고 그러면 60ml를 판하고 주머니하고하고 다 사야 되잖아요. 판만 살 수도 없고. 그게 안 맞으니까.

Q: 분량이 안 맞으니까.

W: 응,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한 번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주머니는. 그래 가지고 그 아가씨가 어머니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연락 바로 해드릴게요.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내가 와 가지고 주소 쓰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 이만이만 해서 매진이 됐는데 우리는 구할 수도 없고, 우리 그 본부에요. 우리가 갖다 쓰는 집이. 대전 시내 총책임 본부가 없다 그러니까 판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다 왔더라고요. 4일 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했어. 규칙적으로 좀 갖다 달라고. 2개 쥐도 좋고, 3개 쥐도 좋은데. 또 이거 비싼거니까 많이 사놓을 필요도 없어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많이, 우리 사놓고 무재 놓고 쓸 형편은 못 되고. 보건소에서 2장이 나오면 우리가 한 6장을 더 사면, 한 달에 대 여섯 장 들어가요. 다섯, 여섯 장 정도. 여기 설사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내가 그러니까 저들도. 그것도 본인이 안 나왔더라고요. 누가 대리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가서 연락을 해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았어. 내가 상세히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서 소장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오는 줄 알았어. 내가 그날 얘기해서. 얘기 아빠가, 보건소에서 온대? 하길래 거기서 오는 줄 알았죠.

H: 처음에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Q: 예, 남자가 전화했을 거예요.

W: 거기서 오는 줄 알았어.

Q: 어머님도 어디 편찮으세요?

W: 나도 혈압도 있고.

Q: 땀을 계속 흘리시네요.

W: 뒤통이 막 땀이 나요. 이쪽은 한 쪽이 마비가 와서. 자꾸 이렇게 한 참 앉았다가는 못 일어서요.

Q: 아버님 돌봐주실 분은 어머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W: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웃음).

Q: 그러면 더 다행이네요.

W: 보기에야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조금도 걸음도 못 걷고. 조금만 가면.

Q: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W: 이거 다리는 MRI를 찍으라는데 50 몇 만원 든다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나 혈압약 먹고 있는데 자궁을 다 들어냈어요. 호르몬제에다가 피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피 순환제에다가, 약도 골다공증 약에다가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 병원 원장이 한 번 가서 찍어 보라고 하더라고. 다리를 이렇게 못 쓰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휴, 찍어 보라고 하는데 그거 한 두 푼도 아니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말았어요.

Q: 지금 정부 지원금이 총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W: 통장을 봐야지.

Q: 아버님 혹시 앉아 계시기 불편하시면 누워 계셔도 돼요.

H: 괜찮아요. 아니에요.

Q: 그럼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몇 년도?

W: 우리가 96년도 5월 27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기 전에 받았어요. 내가 가서 막 울었어요. 동사무소 가서.

Q: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W: 예. 누가 알아가지고 내가 가서 하나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줌마, 여기다 돈 맡겨 놔냐고.

Q: 동사무소 직원이요?

W: 응. 그래 가지고 두 번 울고. 가서 거기 가니까 또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통장이 애기아빠 친구예요. 그 사람이 그 위로 힘을 써서.

Q: 그럼 일을 못 하시게 된 지는 꽤 오래 되셨네요.

H: 그때부터 못한 거예요.

Q: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W: 목수예요. 목수.

Q: 아, 기술이 있으시네요. 그전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H: 아니요. 그냥 괜찮았었어요. 가공소 일해 가지고 했었는데..

Q: 아, 직접 경영까지 하셨어요?

H: 예. 힘들면 이것이 밀려 나오면 또 재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W: 몸을 못 들게 하드라. 병원에서.

H: 항문을 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힘든 걸 하면 그 안에서 금이 간다고 그럼,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긴다고 그러면 한 달씩 있어야 된다고. 염증 빼내는데.

W: (급여) 48만 2천 8백 원.

H: 두 번이나 찢어져서 병원에 또 두 번 갔다 왔어요.

Q: 혹시 장애등급은 못 받으셨어요?

H: 장애등급 4급이에요.

W: 장애등급에서도 누가 8월 달부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수가. 돈이. 우리 3만원 나오는데.

Q: 아, 급수가 낮아서 1, 2등급만 12만원인가 13만원으로 오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3만원.

W: 그런데 옆집에 애기가 개는 애기라서 혜택이 더 될 런지 몰라도 개는 5급이거든요. 그런데 10만원 나오더라고요. 올랐다 하고부터. 그래 가지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지배가 딱딱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Q: 공무원랑 잘 이렇게.

W: 이상하게 복지관에 그 대동 복지사가 대동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Q: 아, 불친절한가 봐요.

W: 예, 불친절해요.

Q: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게 병원비이신 건가요?

W: 그거 주머니 값이죠.

Q: 그게 매달 얼마정도 나가는 거죠?

W: 그게 보통 10만원 가까이 나가요. 한 달에. 보건소에서 한 개도 안 나올 경우에는.

Q: 그나마 네, 다섯 개가 나오니까 부담이 덜 하신 거고요?

W: 예, 그것도 한 1년, 나온지 한 1년 됐나?

H: 1년 안 될 거야.

Q: 여기 혹시 집세는 어떻게 내시나요?

H: 무허가 주택이야.

W: 사글세 택이예요.

Q: 돈은 내고 계시는 거예요?

W: 아니, 돈은 안 내고. 집도 다 정부 땅이예요. 정부 땅이고.

Q: 이쪽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언덕이 대부분 그런 집인 것 같던데요.

W: 예.

Q: 철거 얘기는 없나요?

W: 아직 그거는 없어요. 아직 그거는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우리는 비워줘야 하죠.

Q: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W: 누구 소개로 들어왔어요.

Q: 아,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아버님 안 좋아하시면서요?

H: 둘째 딸 낳고서는 이리로 들어왔는데.

W: 우리 작은 애 낳고 이리로 들어왔어요.

Q: 여기 사 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W: 예.

Q: 그때 시세는 얼마나 됐었는데요?

H: 그때 시세로는 730.

W: 730만 원.

Q: 아, 많이 주셨네요.

W: 그때 18년 전이지. 그때 진짜 비싸게 준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것도 없는데.

Q: 진짜 많이 주셨네요.

H: 서울 사람들이 여기다 땅을 막 사놔 가지고. 재개발 될까봐.

W: 그래서 비싸요 여기 재개발이 많이 되면 그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Q: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촌이나, 이쪽 무허가 주택이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쪽이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H: 임대주택도 들어가려면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여기서 사면 그냥 아무 거시기 없는데..

Q: 월세도 안 내고 하는데.

H: 아파트 가면은 가스비고 뭐고.

W: 매달, 매달 얼마씩 내야 하잖아요.

Q: 그렇죠, 10 몇 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W: 단 돈 10원이 아까운데.

Q: 그리고 4식구가 살기에는 공간이 좁으실 테고. 지금 여기는 방이 이거 하나 인가요?

W: 저 방에 애기들 딱 둘이 자는. 연탄 창고 저 안에 만들어 쥐 가지고. 연탄 창고로 쓰는데. 책상 하나 놓고 둘이 딱 자면 맞아요.

Q: 따님들이 참 착하시네요.

W: 착해요. 착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어떡해요. 부모가 되가지고. 기억해냈다가 취직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Q: 저희가 책은 보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니까. 전공 책 되게 비싸잖아요. 모아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편물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W: 집으로.

Q: 다 여기로 오죠? 저희가 갖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저희 못 찾아와서 여쭙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잘

H: 14번지 4통 2반, 맞아요.

Q: 맞아요? 예. 이 동네 주민 분들하고는 재미나게 지내세요?

W: 예, 옛날부터 살아 가지고. 애기 아빠가 옛날부터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 근방에 와서는 우리 애들 이름 대면 다 알 거예요. 근방에서는 우리 애기 이름대면 다 알꺼예요.

H: 동네에서는 영식이라 그래야 빠르고 호적에는 영배로 되어 있거든요.

W: 학교에 호적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영배로 되어 가지고. 군에 친구들, 학교 친구들은 영배로 되어있고. 집에서는 어머님이 영식이라 불러 가지고. 학교는

배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김해 김씨 배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Q: 저희 외가도 김해 김인데...

W: 어, 그래가지고 그거 뭐야.

Q: 이것 좀 드세요.

H: 아니, 거슬러서.

Q: 움직이시는 거는 좀 어떠세요?

H: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잘 돌아 다녀요.

Q: 근데 힘쓰시고 이런 거를.

H: 네.

W: 무거운 걸 못 들어서 그렇지.

H: 무거운 걸 못 들어서 그렇지. 노인잔치하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거든요. 내가 서서 막 움직이고 힘쓰는 건 못 해도 조금씩 하는 거는 내가 좀 거들어 주거든요.

W: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요. 지금도 어떤 할머니가 세수 비누를 두 장 가져 오셨네.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거를 또 갖다 주고. 진짜 그 마음을 받고, 하느님을 믿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애들도 그러는데. 은혜로 살아요. 진짜. 같은 조건이면 우리한테 우선이 돌아와요.

Q: 여기 복지관은 자주 왕래하세요?

W: 예, 복지관 관장부터 다 알죠.

H: 관장님도 그 뭐, 지금은 내가 일 못하고 그럴 적에는 파랑새 집 투자라는 게 있었어요.

Q: 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H: 그거 할 때 반장을 한 5년 했는데.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는 못 한다네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면 병원비가 떨어지니까 못 하지. 그래서 주위에서 뭐 좀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힘든 거는 못 해주고 그냥 와서 서 있으라고 하면은 일꾼들 일 시키면서 봐주고 그런 거는 하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치라고도 하고. 요런건 또 하지.

Q: 답답하시겠어요.

H: 내가 승질이 무지무지 급해요.

W: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이 저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아주 카랑카랑 해서. 지금도 아주 다 죽지는 않았지.

Q: 일도 꼼꼼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W: 목수로 알아췌어요.

Q: 깐깐이라고 얼굴에 이렇게. ((웃음))

W: 목수로 하면 어디 가서 남한테 안 지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Q: 병원비 외에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W: 지금은 우리 작은 애한테 많이 들어가지요. 작은애가 고등학교 만날 땐, 그런 거. 문제집 산다 책 산다. 오죽하면, 아이고.. 언니보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 하면, 언니는 나보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아휴. 그저께 이제 내일까지 시험인데 이제 독서실 그렇게 가려고 해요. 독서실 같은 데를 가려고 해요. 토요일 같은 날은 가면 점심값, 저녁값 가져가야죠, 배가 고파서. 그런 돈. 애한테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암만해도. 막 무대포예요. 안 통해요. 돈이 없으면, 왜 돈이 없네요. 부모가 되가지고 왜 돈이 없냐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은행에 돈만 많더라, 돈만 많아. 막 달려 들더니. 지금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막 무대포예요. 말이 안 통해요.

Q: 30만 원만 공제되지 않으셨어도 여유가 좀 있으셨을 텐데.

W: 여유 있을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세금내고, 뭐, 주머니 사고. 그런데 지금은 알짬 없어요. 우리 작은 애는 만날 불만이에요.

Q: 한창 예민할 때라 더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W: 예, 그래 가지고 저 신발도 이제 며칠 전에 대목 밑에 가져왔는데 언니가 신발 밑이 줄줄 샌대요. 엄마, 내가 저거 신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애한테 언니, 저, 외할머니가 오셔서 작은애 신발을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준 신발 있으니까 언니 주라고, 그랬더니 왜 언니 주냐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언니 신발이 다 떨어져서 샌다고 하니까. 언니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엄마, 신발 좀 봐봐, 하니까 신발을 보니까, 윤경(딸 이름)이한테 나 이거 가져갈게 문자 좀 보내봐. 이게 썩까고 안 오는 거예요.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 언니 문자 안 받아 봤어? 이랬더니,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가져가라는 등, 언니가 신으라는 등, 무슨 말을 하지 암말도 안 해? 그랬더니 내가 신으라고 하면 신고, 안 신으라고 한다고 안 신어? 언니, 맘대로 하겠지. 똑같이 팩 이러더라고요. 암말도 안 했어요.

Q: 말투가 저희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W: 상주 말이(웃음).

Q: 예, 빠르고 높고.

W: 상주 말도. 내가 좀 말이 빨라요. 상주 말보다 내 자신이 말이 빨라.

Q: 두 분 다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W: 나는 53살이고, 56(남편)? 52년생, 55년생. 내가 애들 둘 수술해서 놓고, 자궁

들어냈지, 또 치질 수술했지. 수술을 4번 했어요. 마취해서 식은땀이 나고 멀쩡하게 보여도 시내 걸어갔다 오면 맥을 못 취요. 슬슬 기어 들어와요.

Q: 일을 못 하시겠네요. 혹시 빛은 있으신가요?

W: 빛도 많아요.

Q: 어떻게 하다가 빛이 생기신 건가요?

W: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1년 동안.

Q: 생활비로?

W: 생활비로.

Q: 여기저기 빌려 쓰신 거예요?

W: 예, 그리고 또 큰 애 대학 대출금.

Q: 아, 대출

W: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들어갈 때는 270만 원 들어가더니 지금 올라서.

Q: 예, 계속 오르잖아요.

W: 316만 원 인가. 자꾸 오르더라고요.

Q: 어떻게 부담하세요, 그러면?

W: 그래가지고 빛이 그렇지. 뭐 어떻게. 지금 당장은 뭐, 우리 큰 애 졸업할 때까지는, 지가 갚아야죠, 어쩔 수 없죠.

Q: 따님이 졸업하면 수급이 끊기거나 그럴 텐데? 4인 가구라서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W: 그래 가지고 몰라요.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애 혼자 딱 떨어지면 개 혼자만 영세민에서 빠져나가고 우리 세 식구는 남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작은 애가 또 대학을 가지. 내년부터는 수급자들이 대학교 등록금이 면제되더라고요. 공부 잘 하는 애들만. B급 이상을 맞으면.

Q: 아, 학점이요?

W: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급수로는 6급을 맞으라나, 5급을 맞으라나.

Q: 아, 고등학교 성적 등급이요?

W: 예, 등급을. 그렇게 나왔어요. 뉴스에. 내년부터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개를 살려 놔야지. 아휴,

H: 작은 놈은 그냥 하면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장학금 받을 것 같은데.

W: 아휴, 장학금 받기가 그렇게 쉬워? 큰 애도 만날 그러잖아. 대학교가면 장학금 받을 거라고.

H: 작은 놈은 지금 봐서는 그냥 저기 하는데.

W: 장학금 못 받는다고 성화에요. 자기 언니 장학금 못 받는다고. 우리 형편이 어떤데 장학금 못 받고 부학회장인가 해가지고 맨 봉사만 하고 다니느냐고.

Q: 부학회장을 하면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H: 안 나오더라고요.

Q: 회장만 줘요?

W: 회장만 주고, 이렇게 그, 뭐야, 학교 돈 내는 거 있죠? 1년에 1번 씩, 회비?

Q: 과비 같은 거?

W: 과비도 내야 된대요. 부학회장도, 한남대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몰

라도. 근데 뭐 이렇게 특별 장학금 같은 거는 애한테 많이 떨어지죠. 복지 장학금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는 봉사하고 하니까. 또 성적도 되고 하니까 애한테 떨어지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거는 뭐, 저번에도 100만원 받고, 해마다 70만원, 100만 원씩은. 알아갖고 잘 주더라고요.

Q: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진단서 갖다 내라고 안 해요?

H: 하지.

W: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Q: 아버님도 계속 갖다 내세요? 와서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계속 전화로만 와서 달라고 해요? 사는 거를 한 번 와서 봤으면 참 좋겠는데.

W: 다 알죠. 지들도.

Q: 오지 않는 다면서요.

H: 안 와요. 그 사람들.

W: 한 번도 안 와 봤어요. 한 번도 안 와보고, 아줌마, 연탄 나왔으니까. 연탄 뭐, 어찌구저찌구, 아줌마 뭐, 진단서 가서 뭐,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뭐, 엽서가 왔어, 그래서 보니까. 장애급수 뭐 하는 거, 그거를. 나는 그냥 거기 가서 띠어 오라고, 보니까 한 번 해봤었어요? 하니까. 또 해마다 해야 된대요. 장애급수 그거를 진단서를 해마다 그거를, 진단서가 만 원 이에요. 차비하고 뭐하고 2만 원 더 들어가.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오니까.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먼저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무효가 된 거예요.

Q: 다시 또 만 원 주시고?

W: 예, 다시 또 만 원을 해가지고 그때는 승질이 확 나더라고요. 저들한테는 만 원이 암 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큰돈이잖아요. 조여서 쓰려고 하면, 아휴, 여

기까지 확 올라오는 거를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또 갔어요. 가서 진단을 다시 끊어서 용지에다가 넣어서 봉투에 딱 봉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먼저 가서 진단서 끊어 가지고 또 진단서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애기 아빠 끌고 가서, 끊어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을지 병원을. 아휴.

Q: 처음에 장애 판정 받았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W: 아니예요. 두 번 했어요. 그것도. 해마다 해야 된대요.

Q: 이상하네. 급수가 한 번 나오게 되면.

W: 아니예요. 그때는 5급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4급으로 나왔어요.

Q: 아, 급이 더 올라갔네요. 변경이 있을 때는 내는 거고요. 변경이 없을 때는.

W: 그러니까 을지병원에서 하니까 변경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내야 한다는 데요. 몇 년 동안은.

Q: 여기 공무원 참 불친절하네요.

W: 예, 아주 불친절 하다고 그래요.

Q: 소문이 자자한 가봐요.

W: 아주, 여기 연탄 하는 목사님도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미장원에서 머리는 하는 미용사가 티켓을 주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주라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좋은 일 좀 도울게요. 그러면서 티켓을 주면서 어려운 사람만 주라고 머리하러 오라고 공짜로 이제. 그래서 자기가 돌아다니기가 나빠서 복지사 주면 어렵히 알아서 주겠나 싶어서 갔다 왔나 봐요.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했더니 막, 목걸이, 귀걸이 주렁주렁한 사람이 택시 타고 왔다가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을 줬나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갔나 봐요. 동사무소를. 아니, 복지사님, 이걸 어떻게 줬어요? 했더니, 앞에다 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아무나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우리는 구경도 못 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아휴, 그러면 되냐고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했더니, 여기 앉아서 한 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진짜 막, 한 번 만 더 그러면 동구청에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서.

Q: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W: 아줌마예요.

Q: 혹시 여기가 무허가라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진 않으세요?

W: 다 그런가 봐요.

Q: 다른 지역은 좀 다르게 대하던가요? 그 공무원이?

W: 모르겠어요. 나한테. 아니 대동 사람들한테..온지 얼마 안됐어요. 와서 아휴, 참 상냥해, 그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갔더니 싸가지 없는 년이. 아휴, 평생 복지사나 해 처먹어라. 하면서. 그렇다고.

Q: 찔려야죠. 계속 해먹으면 안 되죠.

W: 저도 해먹으라고 하는 걸 찔러.

Q: 민원을 넣으시면 좋은데.

W: 옛날에 이여사(예전 사회복지사 이름)라는 사람은 참 좋았어요. 그 여자 진짜 참 좋았어요. 저기 서울 어디서 복지사 설문조사하는 게 우리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퇴근할 때쯤 해서 가니까 숙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문조사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어머니,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 딱 종이에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여기까지 갖고 오셔서 상의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덕 되는 게 뭐 있냐고 이왕이면 좋게 해주고 싶지. 나는 이 여사한테,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갔어. 딱 데로. 5년도 안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오면 정들만 하면 가고, 정들만 하면 가고. 그래요. 그 아가씨가 오래 있으면 정도 들고 우리 내막도 다 알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나쁘더라고요. 복지사들 너무 자주 옮겨 다니니까.

H: 지금은 동사무소 복지사들,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자꾸 나쁘게 평가되고 그러면 민원 들어가면 그냥 아웃이야. 지금 공무원들 골 아파.

Q: 좋죠, 그래야죠. 따님도 졸업하고 공무원 되면 좋을 텐데.

W: 개는 공무원은 별로인가 봐요. 활동적인 거를 좋아해요. 선머슴 같아요.

Q: 공무원해도 활동력 있는 공무원을 하면 되잖아요.

W: 복지사들은 근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번에 실습은 쉼터를 나갔다 왔어요. 한 달.

Q: 쉼터요. 어느 쉼터요?

W: 대전 어디 뭐, 쉼터. 그거는 우리가 그거도 웃기더라고요. 그거도 우리가 돈을 내고 가서 배우더라고요. 복지사들은.

Q: 예, 실습 맞아요. 저희가 돈 내고 가서 배워요.

W: 그래서 10만원 내야죠. 밥값 5만원 내야죠. 15만원 냈어요. 거기에. 한 달 실습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다른 데는 다 돈 받고 하는데 돈 주고 하는 실습이 어디 있냐. 엄마, 다 그렇다고. 실습을 해야지 어떡해.

H: 경석이가 그걸 하는 체하나 모르겠다. 가서 들어가봐야 되겠다. 나는 필요 없지요(아저씨 나가심)?

Q: ((웃음)) 정부 지원금 받는 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W: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누구 말 따라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안 받았더라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암만 많이 줘도 내가 만족한다는 소리는 못하죠. 안 그래요?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단 돈 만 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감사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씨가 큰 애가 대학 들어가서 38만원 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은 욱 하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서면서 감사하지요. 이것도 안 주면 누가 우리를, 우리 형제들은, 애가 아빠 형제들은 진짜 10원 한 장 안 보태줘요. 남이 보태줘도요, 애기아빠 형제들은 안 보내줘요. 안 오죠. 더 우리가 힘들게 살면 지들한테 보태달라고 할까 싶어서. 그렇더라고요. 형제간들은.

Q: 다들 잘 사세요? 생활하시는게?

W: 잘 살지는 않지만 우리보다야 낫죠.

Q: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W: 고모 하나, 시동생 하나 있어요.

Q: 어머니은요?

W: 우리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Q: 딸이시네요.

W: 다 우리 시동생, 고모들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수급자니까 장애인이 되었고.. 저도 보태줄 형편도 못 되고 항상 마음뿐이지.

Q: 자주 왕래는 하세요?

W: 같이 교회에 다니니까

Q: 아, 이 근처에 사세요?

W: 이 근처, 17일 날 이사 가서 조금 멀리 갔어요. 버스로 그래도.

Q: 그래도 가까이 사시니까. 교회는 근처에 다니시나요?

W: 자양동.

Q: 아, 여기 성당이요?

W: 아니, 걸어서 17분. 감리교.

Q: 여기 가까운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던데.

W: 많아요. 우리 애기 아빠가 만날 왜 여기두고 거까지 다니냐. 그런데 애기들이 애초에 자기 이모가 다니던 데에 발을 들여놔 가지고. 계속 다니게 됐어요. 믿음이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더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쌍하게 산다고 아주 그냥 다 같은 조건이면 우리한테 우선권이 오더라고요. 우리 큰 애가 고등학교 때인가 신문에 한번 났어요. 대전 중앙일보에. 대전에 두 번 났어. 하여튼. 애들이 우리 가정 사정을 아니까 인터넷으로 올렸든가 봐요. 그게 어찌 신문기자들한테 눈에 띄어서 후원금이 1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진짜 후원금이 1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거 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다고. 이상하게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보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다니시나 모르겠어. 혼자 1억을 보냈더라고. 개인이. 혼자 200만 원 보낸 사람도 있고. 군인들도 어느 군에서도 그렇게 180인가, 160인가.

Q: 그렇게 후원금 들어오고 나면 수급이.

W: 그거 동사무소에서 다 아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신문에 났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또 저들이 교장하고 걸어서 341만 원 인가. 통틀어서 내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1300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10원 도 안 빼고. 십일조 떼야 되니까.

Q: 아, 십일조 내셨어요?

W: 응.

Q: 아이고. 지금 제일 바라는 일 있으세요?

W: 지금 현재 진짜 제일 힘든 게 물질적 행복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연이가 지금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요.

Q: 둘째 따님이요?

W: 예, 못 따라간대요. 수학이. 원래 수학을 좋아해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갔을 때 1개 틀렸어요. 수학을. 그래서 1개 틀리니까 전교에서 4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과학, 수학이 1개, 2개 틀려요. 그런데 올 저녁에 몰라, 시험 잘 봤니? 그런 말도 못 물어보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부담 간다고. 첫 날 수학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 그냥, 만족하게 봤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 애들이 워낙 잘 해 가지고 뭐. 나는. 애들이 10개 틀렸다 해서 10개 틀리면 어쩌나 싶어서 해보니까 잘 봤대. 큰 거는 어떻게 시험 잘 봤냐? 하면, 응, 나 잘 봤어. 못 봤을망정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데 작은 거는 막, 못 봤어. 못 봤으면 못 봤다고 하는 성질이에요. 큰 애는 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속상해 할까봐.. 엄마, 잘 봤어.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작은 거는 안 그래요. 뭘, 더 바라는 거야?

Q: 여기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W: 물세는 아무래도 아빠 주머니 때문에 조금 많이 나와요.

Q: 아. 계속 물빨래 하시고 그러니까.

W: 아니, 아빠 그거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주머니를 빨아 가지고 서너 번 써야 돼요. 그냥은 안 버려. 아까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빠는 것 때문에, 승질이 뭐 같아서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세밀하게. 내가 어쩌다가 붙여놓고 못 빨아 주면 다시 빨아, 자기가.

Q: 아.

W: 그래 가지고 물세가 좀 많이 나와요.

Q: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것 같으세요?

W: 물세는 꽤 나올 걸 우리가. 자동납부로 해 놔가지고. 전기료가 11260원. 그리고 수도세가 19150원. 그렇게 나와요.

Q: 따님들한테 많이 미안하신 가 봐요.

W: 예, 제일 미안해요. 학원도 맘대로 못 보내주고

Q: 잘 하는데.

W: 자기 하고 싶은 거 학원 못 보내 주는 거 하고 예쁜 옷 못 사 입히는 거 하고, 먹는 거야 뭐.

Q: 아버님 일을 좀 계속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W: 하고 싶은 가 봐요. 막 울어요. 남들은..막 울컥 하나 봐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막 돈에 시달리고 막 자기가 이렇게 벌어다 주면 싶으니까 그러면 막 울어요. 원래 울보예요. 나는 그런데는 절대 안 울어. 나는 우리 애들 앞에서는 안 울어요. 이렇게 오면 내가 막 이야기 하다가 내 감정에 폭발쳐서 울지만 우리 애들 앞에서는 안 울어요.

Q: 어머니 속상하시고 율화 치밀 때 같이 풀거나 그런 친구들은 계세요? 주변에?

W: 가정 얘기를 하면 처녀 때 친구가 여기 하나 있어요. 처녀 때 고향 친구가 여기 대전에. 개는 잘 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거기 가서, 호프집을 하니까 술도 한 잔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니까. 술도 딱 끊었지(웃음).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거기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막상. 거기 어울려 봐야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술 먹고 그러니까. 개한테 가서도 아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개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너 변했다고, 교회 다니면서 저 집에 안 온다고 그러지만.

Q: 아버님은 소일거리 뭐 하세요? 갑갑하실 텐데.

W: 들어갔다, 나갔다.. 만날 텔레비전 레슬링이나 보고.

Q: 아, 진짜, 활동적이신 분이신데. 어머니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시겠어요.

W: 원래 병원에서 6개월 산다 그랬어요. 6개월. 많이 살면 2년 살고. 빨리 죽으면 6개월 죽는다고. 산다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옷을 다 갖다 버렸어요. 죽으면 갖다 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작업복이고 다 갖다 버렸어요. 양복 한 벌은 내비 뒀어. 혹시나 죽으면 갖다 태워 주려고.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나, 사 입혀야지. 옷을.

Q: 그게 액땜 하신 게 아닐까요? 어머니는 혹시 뭐 일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W: 부업거리 있으면, 집에서 둘이. 내가 어디 나가서는 못 해요. 나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애기 아빠 이거(주머니) 혼자 잘 못하니까. 눈에 안 띄면 불안한 거예요. 막 숨이 넘어 가버리는데 주머니가 떨어지거나 설사 오거나 하면 혼자 감당을 못 하니까. 집에서 꼼짝도 못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자기 옆에 자꾸 붙어 있으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를 내가 알지. 그 놈의 교회를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고.

Q: 두 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W: 없어요. 그런 게. 한 번은 복지관에서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가져가서 했더니 세상에, 여기(손가락)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안 좋아. 무거운 거는 못 들어.

Q: 조립하는 거였나 봐요.

W: 응, 손으로 막 눌러 대. 돈 10만 원씩 그렇게 벌겠어. 한 1년 하다가 말아 버렸어. 내가 아휴, 우리 수연이 학원비만큼만 벌게 해달라고. 더 욕심은 안 낸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Q: 학원비가 요새 한 달에 얼마쯤 해요?

W: 수하이요. 3과목을 배워야 된다는데. 수학 I, 수학II. 뭐, 또.

Q: 이과구나. 이과예요?

W: 예, 우리 애들은 둘 다 이과였어요. 이과했는데 그 모양, 사회복지과 가서 이과..애가 저 혼자 이과래요. 사회복지과는 문과잖아요.

Q: 예.

W: 처음에는 거기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데 두 군대를 넣고 목사님이 한 번 넣으라고 사회복지학과 시설 잘 되고 넣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 진짜 원하는 데는 떨어졌어요. 충대. 또 저기 대전대학교 여기는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질학과. 거기가 됐는데 가니까 애들이 너는 왜 이과 나와 가지고 문과 아니냐고. 그러니까. 야, 하느님 은혜다. 머스마같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또 기독교 학교예요. 대학이.

Q: 아. 맞아요.

W: 중학교는 애는 거기 나오고, 기독교 나오고 그러니까. 하느님 은혜다, 그러니까. 하느님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이과를 갔으면 이과를 가야지. 왜 그리로 왔느냐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애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과, 문과 거기 갈리니까. 그러니까 2.7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러더니 2학년 때부터는 3.8 나오더라고요. 장학금, 4.0이 넘어야 장학금 받는 다는데.

Q: 요즘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W: 엄마, 나 대학 들어가면 장학금 받는다고 큰 소리 팡팡 치더니. 에휴.

Q: 여기는 보일러?

W: 연탄이에요.

Q: 음, 그러면 연탄 값도 만만치 않겠네요.

W: 연탄은 작년부터 저기 뭐야, 연탄 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갖다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Q: 아, 예. 여기 또 올라오기 힘들 텐데.

W: 봉사자들이 갖다 줘요. 일전에도 몇 백 장 가져 왔어. 거기서, 철도국에서.

Q: 그거는 넉넉하게 쓰실만 하세요?

W: 아니, 목사님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딴 목사님인데 그나마 하루라도 떨어지면 갖다 드린다고.

Q: 잘 됐네요.

W: 그래 가지고 철도국에서 연탄 200 장하고, 쌀 10키로 짜리 한 개 하고 갖고 왔어요.

Q: 음. 식물도 키우시나 봐요. 진짜 부지런하신가 봐요.

W: 내가 원래 좋아하는데 겨울에 다 얼어 죽대요. 여기 연탄이 뜨거우니까 다 녹아요.

Q: 아, 방안에서.

W: 밖에 내다 두면 얼어 죽고, 안아 갖다 놓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연탄은. 조절이 안 되잖아요. 다 녹아죽어. 녹더라고요.

Q: 혹시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W: 기도 제목은 그냥 우리애들 잘 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 세상에 그게 있다면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딸) 서로 돕고 살면서.. 부자 되는 건 안 바래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Q: 이 근처에도 수급 받고 사시는 분이 꽤 있나요?

W: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4통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많아요. 다 노인네들이니까. 노인네들은 수급 많이 나와요. 28만 원씩. 30만 원 나와요. 노인네들은.

Q: 혼자 사시니까.

W: 충분히 쓰지요. 나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쌀 그거 하지요. 반찬 복지관에서 나오지요. 목욕비 다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그 학생들 있는 집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내 욕심인가 모르겠어요. 내 욕심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Q: 둘째 자제분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나 그런 거는 이 근처에는 없죠? 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W: 초등학생 공부방, 대동 복지관에서. 우리 애가 4학년 때부터 복지관 생기고부터 거기 다녔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방. 거기서 그림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전부 다 최우수상 타 왔어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지금은 책을 내가 한 10권 대, 며칠 전에 내가 조카 갔다 봤는데, 뭐 가지고기 전부 다 거기서 상 타 가지고 갖고 오고, 우리 조카가 책을 좋아 한다 그래서 싹 갖다 줬어요. 여기 놓을 자리도 없고.

Q: 두 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따님들 성장하실 때까지. 주머니 그것 좀 어떻게.

W: 이거 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Q: 아, 이거요. 저희가 이제 정책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국책 연구 기관에서 그

런 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해마다 점검을 해요. 실제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쓰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계속 설문지로 계속 하다가 정말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듣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만들어 질 거예요. 혹시 생계비 중에 그 아까 말씀 드린 자녀 교육비 말고 조금 이런 부분 더 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도에 바라시는 점 이런 거.

W: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Q: 어떻게요?

W: 진짜 영세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많아요.

Q: 주변에 보시면요?

W: 진짜, 자식 있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자식도 많은 사람도 다 돼요. 영세민.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아빠는 영세민 되고 엄마는 안 된대요. 다 큰 상태인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18년 전에, 나 아는 사람이. 18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빠는 영세민이 됐는데 아빠는 자식하고는 더 안 가까워요? 더 가깝죠. 뿌리 상 더 가깝죠, 아빠는 내 새끼니까. 엄마는 이혼하면 남이잖아요. 엄마는 영세민이 안 되고, 아빠는 영세민이 됐어요. 그 집도.

Q: 애는 누가 키우고요.

W: 다 출가, 시집, 장가갔죠. 애들은. 노인네들이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Q: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W: 그러니까 애들을 넷 낳았는데, 딸 둘, 아들 둘 낳았는데 시집 장가갔어요. 그런데 시집, 장가가기 전에 이혼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18년 전에. 그런데 아빠는 영세민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산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슬슬 기어 댕겨요. 그래도

할머니는 안 된대요. 아들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는. 안 그래요? 아버지 이름 따라가고 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예요. 이쪽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더 알아보라고 하니까. 안 된대, 내가 얼마나 알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Q: 그러면 자식한테는 받으시는 게 아무 것도 없으신데요?

W: 응, 아무 것도 없어요. 10원 짜리 한 개 없대. 그것도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Q: 이 동네 계시는 분이세요?

W: 자양동. 아줌마는 자양동 사시고. 아저씨는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아들은 뭐, 원칙은 내가 생각하기에 영세민을 하려고 하면.. 겪어 보니까. 호적 등본만 아니고 제적 등본 있죠. 제적 등본 다 나오지요. 외할머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걸 떼어 가지고 가야 다 알지요. 호적등본은 나 혼자 떼어 놓으면 호적등본이 되나요? 혼자 나도 지금 우리 윤경이 떼어 내고, 말했잖아요. 우리 윤경이 대학 졸업시키면 떼어 내고, 우리끼리 영세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영세민 못하냐고. 그래서 제적등본을, 난 제적등본을 처음 떼어봤어. 우리 큰 애 대학 들어갈 때 대출금받으려고 제적등본을 떼어보니까. 우리 친정 뭐, 우리 애기 아빠, 애 할머니까지 다 나왔어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거는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 뺄 것도 없이. 그런데 호적등본은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제도가 뭐가 잘 못 됐어. 나라에. 그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 여기 대동이 아니고 자양동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양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우리 집 여기 옆에가 경계선이예요. 자양동 성당은 자양동으로 들어가고, 길옆에는 대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 자식이 얼마나 잘 살고 집이 뽕뽕거리고 살고, 집이 억대 재산에 딸도 뭐, 부잔데. 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이 안 됐냐고 그러니까. 영세민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집도 영세민이냐고, 집도 자기 집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사무소에 가서 영세민으로 빼 달라 하니까 빼 주

더래요. 그 서류를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로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자식들 다 있고, 진짜.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Q: 집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W: 만족해요. 한 가지,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 여기서 밤에 여기서 아침에 우리 애가 여기서 세수하려면 눈이나 비가 오면 막 짜증을 내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을 그냥 타일 발라서 해줬으면 싶어서 복지관에 신청을 하니까. 아 이고, 봄에부터 여직 신청해 가지고 그래서 냉장고가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안해주고 저렇게 있네. 뭐가, 서류가 끝났다가 해당이 안 된다나 어쩐 다나.

Q: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았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죠?

W: 학생들은 저녁 값도 줬으면 좋겠어요.

Q: 점심만 돼요?

W: 예.

Q: 방학 때도 안 나오잖아요.

W: 예, 방학 때도 안 나오고. 저녁 값, 석식 값만 한 달에 한 4만 2천 원.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33만 9천 원 동사무소 내야만, 육성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 측에서 빼 주더라고요. 서류는 또 가져가야 하고. 그거는 점심 값은 주고 저녁. 우리 큰 애는 어제 가지고 고등학교를 떠 데로 다녔는데 개는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농수산상품권 그거, 한 달에 한 10만원 씩 나왔어요. 한 2년 동안은요. 2년 동안 하여튼 그 담임들이 다 잘 봤어요. 개를. 하여튼 신문에 나서 김윤경하면 동성고등학교에서 모르는 애 없었죠. 담임들도. 다 예쁘게 봤었어요. 가는 곳 마다.

Q: 복이 많네요.

W: 그래서 엄마, 수연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7만 5천원 그거 줘가지고 대 목에 요긴하게 썼다니까. 엄마, 이번에 많이 갖다 줬지? 엄마, 그려, 너는 2년이 나 갖다 줬지. 원채 1년 받고 남을 넘겨줘야 된대요. 그런데 담임이 잘 봐가지고.

Q: 집수리 사업 계속 신청 하세요.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집 고쳐주고 이런 거 하는 건데요. 바닥같은 경우에.

W: 5년에 한 번 한대요. 5년에.

Q: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W: 복지관에서요.

Q: 동사무소에서든 하는 게 있거든요.

W: 전화하니까 동사무소에서든 해당 안 된대요.

Q: 여기가 아마 무허가 주택이라서 그런가.

W: 남의 집도 해주던데.

Q: 그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 말고 대부분 자가 중심으로 해주거든요.

W: 아이고, 여기 사는 할머니가 남의 집도 다 했어요. 남의 집도. 뒷집 할머니도 86살 먹었는데 남의 집인데, 아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영세민인데. 문도 다 고쳐주고. 이거 신청하니까 문을 이거 고쳐주고 앉아 있어.

Q: 해달라는 거는 안 해주고.

W: 이것도 하나 고장나가지고 열라 그러면 잡아 댕기면 우리 엄마가 82인데 친정 엄마가 오시면 문이 안 열린다, 안 열린다. 하는데 내버려 뒀더니

452 2007년 기초보장모니터링 수급자 현장조사자료: 수도권·광역시

Q: 이젠 잘 돼요?

W: 이젠 고쳤으니 잘 되지. 올 가을에 해주려나. 신청은 해놨어요.

Q: 저희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어서요. 이거 별거 아닌데. 상품권인데.

□ 수급자 15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편부모 가구(45세 이상)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3년년부터 총 5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41	남	무	무
자		여	유	무
자	21	남	무(군 복무 중)	무
자	8	여	무	무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 (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에 방 월세방 거주 - 방 2, 화장실, 부엌, 취사 및 난방은 도시가스 - 초등학교 도보 10분 이내 거리 위치 -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 거리, 버스정류장 도보 5분 거리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는 당뇨, 달팽이관 이상에 따른 어지러움 등 건강문제 호소-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부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 외 부족분은 친구 등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았음.- 5톤 트럭 운전 등 간간이 소득활동 하고 있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음. (여자신발 및 속옷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성인)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급여 20만원 내외/월 받는다고 하는데, 급여에 대한 확인 필요함.

Q: 지금 수급 언제부터 하셨나요?

A: 3년 되었습니다..

Q: 금곡동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A: 2년 좀 넘었어요. 수급도 제가 봤을 때는 측정을 하는 데 저같은 경우는 2종이었는데, 제가 당뇨에 고혈압이 있죠, 달팽이관도 이상이 있어서 쓰러지고 119도 실러가고 이랬는데, 1,2종 측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수급도 해주기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별 큰 거는 못느끼겠는거라.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웬만한 장애인들보다 힘을 못쓴다고. 솔직히 노력을 못한다고. 난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우리들은 그런게 있으니까..

Q: 진단서 같은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A: 예 갖고 오라고 하지요. 작년에 그게 있으니까 수급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와서 나보고 진단서좀 끊어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한테 제출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1종으로 바뀌서 수급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동사무소가면 젊은 아가씨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있는 사람들은 책보고 책자대로 하려고 자기들 편한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되는 부분도 많고.. 안가고 이렇게 있는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있어요

Q: 동사무소가면 선생님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나요?

A: 아니지 그냥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이 해주는 거지

Q: 여러분 있더라구요 12명인가 있더라구요

A: 동사무소에? 아니는데요

Q: 그럼 가지면 항상 같은 사람만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A: 예. 한사람만 보는데.. 지난번 강서구에 있을 때도 사회복지 담당자는 2명밖에 없는데.. 밑에 직원 한명.. 아줌마 한명 ..

Q: 여기는 수급자 수가 많아가지고..

A: 저는 몇 번 안가봤는데 두 번인가 가봤는데 갈때마다 같은 사람이...

Q: 이웃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A: 잘 몰라요.

Q: 평상시 도움이라도 주고받는..

A: 전혀 없어요.

Q: 통반장님은..

A: 통장님은 한달에 한번씩 보면서...쓰레기 봉투 있죠.. 그것도 두개밖에 안주데 10키로짜리 두개.. 애 혼자 있어도 2개나 나올 건데.. 그거 2개 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한달에 한번.. 통장님이 주더라고 그거 외에는.. 이동네 사람들 만나고 ..그럴일 없어요

Q: 그럼 여기 사시는 분은 따님하고 두분이 사시구요? / 동사무소 가면 별로 친절하게 안 해주시나봐요?

A: 아니 친절하기는 친절합니다. 동사무소.. 요즘 안친절한 동사무소가 어딴습니까? 친절하죠. 그런데 친절한 거 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 하고는 차이가 .. 모르니까.. 우리는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원리원칙이라는게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야 하니까 우리하고는 안맞는게 많죠. 공무원들은 다 친절하죠.

Q: 지금 수급받으신지는 2년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A: 2년 넘었죠 3년 정도

Q: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아뇨 제가 수급제도 몰랐는데, 내가 당뇨가 있고 몸이 아픈지가 오래됐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우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이 되고 아픈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건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래서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니까 어디 신체 장애,, 아프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뇨..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요해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첨부을 하니깐 자기들도 조사를 나오대요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통장확인하고.. 뭐 .. 해주더라고요.

Q: 그럼 이웃분들 통해서 알게 되신거네요?

A: 우연히 알게됐죠.

Q: 강서구 계실 때?

A: 예.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닌지가 지금 한 5년 넘었는데 수급자 된지는 3년.. 처음 2년 동안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빨리했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Q: 다른 합병증 같은 것은 없으시구요?

A: 몸도 많이 나빠졌지.. 눈도 침침하고.. 당뇨가.. 96년도에.. 부도나고 당뇨가 왔으니까.. 지금 10년 넘었으니까.. 몸이 많이 안좋아졌지..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혈압이 높아져서.. 자꾸자꾸 안좋아지니까..

Q: 부도나시고 생활이 어려워지신 건가요?

A: 어려워졌죠.. 가정도 파탄나고.. 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있다가 몸도 아파지고.. 96년 이후에는 일을 못했죠.

Q: 그전엔 사업을 하셨었나봐요.

A: 했는데.. 좀 안되가지고..

Q: 그때 IMF 때

A: 예. IMF가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Q: 그럼 처음에 수급신청 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서류 떼 오라는 것도 많고 작성하라는 것도 많고..

A: 예 복잡해요. 내가 했죠.. 해가지고.. 시간 좀 걸렸죠. 다른 사람이면 하루에 했을 거 나는 며칠 걸렸어요. 나는 모르니까.. 혼자서 다니고 해주고 하나까..

Q: 직접 다하셨어요?

A: 예 며칠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떼어오고 확인서 떼오면 안된다 그래서 진단서 떼어오고.. 떼어다주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일반치료 받는거는 안되고, 병원에서 검사도 새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하려면.. 동사무소 첨부니까.. 그것도 6-7만 얼마가 다시 들여서 다시 검사받고 또.. 병원에서.. 피검사 다시해가지고 다시 떼어줘야 되거든요. 6-7만원 들어가지고.. 없는 돈에 떼다주니까 동사무소에서 .. 이제 조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Q: 그때 그 과정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 같은데..

A: 모르니까 불편했지만은, 내가봤을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것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수급자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Q: 근데 기존의 치료를 받았던 리스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A: 확인서 같은거..

Q: 예 그거를 근거로 해도 되는데..

A: 아니 해도 되는데, 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동사무소에서는 진료확

인서 있잖습니까. 병원에서 자기들 돈벌어먹으려고 동사무소에 제출할거는 새로 검사받아서 떼주겠다고 .. 병원에서는 내가 그냥 가면 1-2천원, 진단서는 만원만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돈벌어먹으려고.. 병원에서 '아~ 이거는 수급자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검사받아야 되는 거라고' 피검사.. 그래서 6-7만원 받아 먹더라구..

Q: 아.. 그냥 안하시고. 못됐다..

A: 병원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진료했다는 확인서만 끊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더라고... 동사무소 수급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서 다시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Q: 그럼 주위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모르세요?

A: 잘 몰라요. 주변에 수급자 된 사람들은.. 나는 뭐 수급자.. C형 간염걸려가지고... 수급자 1종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C형 간염만 걸린 사람들도 다 1종이더라고. 수급대상에 내가 아는 동생들도 애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C형 간염인데 1종이어가지고 한달에 수급 50만원씩 나오더라고.. 정부보조금 50만원.. C형 간염 걸려가지고 멀쩡한 사람 50만원 주는데, 완전히 몸 못쓰는 사람도 겨우 올라서 20만원 받는데..

Q: 그럼 한달에 20만원 나오세요?

A: 예 이것도 올해부터 오른거예요.

Q: 그럼 총 나오는 금액이 20만원 정도...

A: 예

Q: 그거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신가요?

A: 수입은 없고 몸이 아프고 못나가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도 어렵고 해서 아프다고 하니까 쌀한가마니 갖다주고... 그냥 없다고 하면 와가지고 돈 10

만원 20만원 주고 가고 .. 애는 학교 급식하고 피아노 한 과목은 정부 지원이 되더라고. 그래그래 살지요. 20만원 받아가지고 방세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방세도 모자라는데...

Q: 방세가 얼마예요?

A: 방세가 25만원 나와요.

Q: 한달에? / 그럼 2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세요?

A: 내가 좀 괜찮을 때는 일하러 나가면 서울.. 장거리 있잖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12만원 받거든요. 5톤짜리 큰차있으니까. 한달에 5-6번 하면.. 술안먹고.. 큰 돈 쓸때는.. 그래요 돈이.. 남자 술 안먹으면 큰 돈 쓸 때가 없다가.

Q: 그럼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A: 예 어제도 약 2봉지를 갖다왔다 아닙니까. 한달치. 당뇨약은 일주일치 받아오고, 혈압약은 한달치 받아오고.

Q: 보건소다니시는 거예요?

A: 병원다녀요 병원..

Q: 그럼 주위에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보건소랑 병원이랑..

A: 보건소는 이런 약이 안되는데 멀...

Q: 그럼 보건소는 왜 가시는.. 자주 가세요?

A: 아노 안가요. 보건소에서 온다니까는.. 와가지고 아프다니까 어떻게 해라. 서비스 차원에서 다니면서 해준다니까..

Q: 그럼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없으신거네요. 근처에 복지관도 근처에 많고 그런데..

A: 없죠 병원... 여기서 한 20키로씩 가는데..

Q: 여기 근처에는 그런 서비스 이용할만한 데가 없는 건가요?

A: 여기는 없죠.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데가 없죠. 조그마한 의원 같은거 말고는...

Q: 근데 여기 임대주택아파트가 되게 많아서 그런데 보면 다들 복지관 같은거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A: 여기도 사회복지관 있을 건데요.

Q: 그런 거 이용안하세요?

A: 복지관은 뭘 해주는데요?

Q: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점심 급식도 해주고.. 애들 공부방 같은 것도 있고... 그런거 이용안하세요?

A: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 배우려니까 수급자들 컴퓨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서류 복잡해서 못합니다 이러더라구...

Q: 누가요?

A: 복지관 직원이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Q: 왜.. 수급자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A: 컴퓨터 아침 9시부터 3개월인가 가르쳐준다는데, 수급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Q: 아니 복지관에서 수급자 대상으로 그런거 하라고 지어 놓은건데...

A: 그거는 자기들 개인들한테 돈받는다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Q: 아니 수급자는 안받아요.

A: 수급자는 안받지만 개인한테는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는 개인이 오는게 낫지. 자기들 입장에는...

Q: 애들도 학교 끝나고 공부 무료로 봐주는 그런게 있는데..

A: 애도 어린이 집 있잖습니까..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수급자라는 것을 압니다. 일과후에 맡겨도 돈 안받아요.. 책도 원장님이 다 주고 그냥.. 어린이 집 원장님이 옆에서 잘해줘요. 어린이 집은.. 생일잔치같은 것 해도 부르고.. 어린이 집원장님이 데리고 다니고..

Q: 이빠서 그런거죠.. 이빠서.. 이쁜 것 많이 할 것 같아요. / 근데 왜 20만원 밖에 안되죠?

A: 애가.. 큰애가 있는데 큰애가 군대에 가 있는데 인대를 다쳐가지고 .. 오늘 나오거든. 내일 모레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가사 제대로 되는 모양이더라구.. 인대가 파열이 됐더라고. 애 있고 하니까 분리해주지 않습니까. 큰애 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많이 차이 나더라고. 큰 애가 별이가 있어서 보태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아파서 내 몸을 못써서 수급이 된거지 애들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 수급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저런거 다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되게 아픈 사람은 자식 있어도,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은 줘야돼.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이 뭐 있고 그러면 혜택을 안주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있어도 일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현실하고는 전혀 벗어난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

Q: 지금 수급자 기준 보면 소득하고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처음에 그런 설명 해주던가요?

A: 예. 그때는 학교다니고 하니까 부양의무도 없지.. 재산 내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되고 나서 애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수급이 줄어들더라구. 그 다음에 오르더라구.. 17만원인가에서 만원 오르고 이래가지고.. 한 20만원 지금..

Q: 해마다 오르긴 오르거든요.

A: 예 몇천원 정도씩.. 8천원.. 올해 오른게 한 20만원...

Q: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할 때, 설명을 들으셨을 때 납득이 되시던가요?

A: 납득이 안되는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책자대로 한다 아닙니까

Q: 그 기준이 지금은 그렇지만 이걸 진짜 말이 안되는 거 같다.. 이런거..

A: 자기 기준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봤을 때.. 나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서 아무 데에도 도움받을 입장이 안되고, 부모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식한테 .. 선생님들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로서 의무를 해줬을 때 자식한테 바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숟가락 하나 없이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된 상태에서 학교 등록금까지 책임을 못지는 상태에서 나중에 니가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니가 내 자식이니까.. 이것도 참 어렵거든.. 자기들도 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 부양도 하고.. 자기들 자체도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려면 자기들도 살기 어렵거든요. 부모부양은 당연히 하게 되지만 부모로서 안바래진다고.. 자식들도 지금 있으면 솔직히 다 주고싶은게 부모데.. 자식을 기초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모가 자식이 있다고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한 모순이 있더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식이 돈 있어도 부모가 도움을 못받을 입장인데.. 미안해서라도 자식을 너무 못 해줘가지고.. 자식 자체도 어려운데 나이만 들었다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다 무조건 수급을 줄인다. 부모도 아프고 자식도 능력이 없는데 나이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다, 이걸 굉장히 모순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그 사람의 소득, 자식이 소득이 있다든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든지 근로세나.. 원천징수가 된다든지 이런 근거를 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 백몇십만원 그거를 벗어나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들 생활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자식을 의무 이런걸.. 전혀 생활이 안되는 상태 있

지 않습니까 그런거 기준을 적용시키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이랜드 노조처럼 비정규직, 정규직 만든다고 현장에 와보고.. 알지도 못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된다고 하고, 정부 여당에서 투입하면 안된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 투입 빨리빨리 해라 이거는 나와보지도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이 현재 복지시설도 제 생각에는 현장에 실무자들이 하는 거 이런식으로 안해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안한다고... 위에 책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야. 현장에 있는 사람 만약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런식으로 안나온다고 절대..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온다고.. 이걸 책상에 앉아서 나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고 복지도 실질적으로 주고도 욕 먹는거라.. 정부도 돈 퍼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Q: 그래서 저희가 나온거예요. 그런 선정기준 할 때 재산도 막 전산으로 조회해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기분 안 나쁘셨어요?

A: 아니 근데 애들 있잖습니까. 내 재산하는 건 당연한데 애들 것 까지.. 금융거래 위임장 다 찍어달라고 하대요. 애들 통장을 2년정도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 안 하던데. 조사를 하대요. 근데 기분이 나빠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들은 기분 나빠도 할말은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도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데 할말이 없죠..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 아닙니까.. 우리는..

Q: 아드님이 군대가기 전에는 뭐했습니까

A: 학교다녔어요.

Q: 군대있는 분이 큰아들이고...

A: 딸내미 하나 있고..

Q: 둘째는 그럼 지금 어디에?

A: 직장다니다가 요번에 그만두고.. 이제는 주민등록하고 의료보험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가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거 이제 딸들은 시집가버리면 그만 아녜니까. 시집간 딸까지 부양하라고 찾는다면... 그런 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Q: 따님이 직장생활하셔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가 그것밖에 안되나 보네요.

A: 그래가지고 딸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거든요. 가고나니까 조금 바뀌더라고... 이게 29만원인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꼭 깎여가지고 7만원인가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한달에요

Q: 같이 살 때.. 딸하고 같이 살 때..

A: 예. 살지는 않는데 주소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의료보험 카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딸이 튀어나가버리고 다시 하니까 17만원인가 18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일년에 8천원인가 얼마씩 오르더니만 몇 년지 나니까 20만원 되고.. 20-21만원 되더라고..

Q: 그거 말고 소득신고 한거는 있으십니까? 부채 있으세요?

A: 부채는 많죠. 부채는 몇십억 되죠.

Q: 부채가...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까.. 사업 엄청 크게 하셨나보네요.

A: 나는 전부다 담보대출.. 집하고 땅 있는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몇십억 다 날려먹었죠.

Q: 그럼 지원금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학비하고 / 학비는 나오고 /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A: 집세. 근데 제가요 이런거 녹음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금곡 2단지 주공아파트

가니까 임대아파트 공고가 났더라구요. 임대아파트 내가 갔는데 못나가겠어요. 왜 못나가게 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강간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 아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내가 아는 사람도 어제 돌아가셨는데 술먹고 귀신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전부다 그런 사람들만 사니까 애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들어가겠는거라.. 성폭행을 당하는 데가 어딴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겠더라.. 애 데리고는 못 들어가겠더라.. 겁이 나서.. 그소리 듣고 나서 못들어가겠더라니까.. 계약도 해놓고 못들어갔다니까 겁이나서.. 아는 사람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겁이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누가 애들 보고 지키고 할거면 몰라도 ..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을.. 애를.. 7살짜리아를.. 8살짜리 애를..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그랬다더라.. 거기 허구하게 일어난다니까 그 단지가.. 너무 없는 사람들.. 완전.. 귀신같은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일단 영세민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원체 모여서 살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몇 명안되는 거 같애.. 전부다 가정 제대로 없고. 저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지만 자식하나 똑바로 키우려고 술도 안먹고 이러는데, 아침부터 술먹고 아파트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1단지든지 2단지든지 분리를 시킨다거나 해야지.. 그런데다가 애를 데리고 살도록 놔두니 실질적으로 겁난다 아닙니까.. 방한칸에다가 딸내미 하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니까.. 겁이나서.. 그러니까 못살겠어.. 내가 계약했다가 취소해버렸다니까..

Q: 동사무소 이쪽에 보니까 재건축한다고 하던데,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A: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건물이 지은지 오래 안되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 재건축이나 부산 어디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신청해가지고... 수급대상자들 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큰 평수는 돈이 없어서 못갈거고, 주택에서 사는 거 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전세야 뭐 모자라면 형제들간에 좀 도와주더라도... 임대아파트는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주공도 금곡2단지 들어가면

되겠던데.. 겁이 나서.. 세는 싸더라구요. 200만원도 안들고. 관리비가 뭐 들이면 겨울에 보일러 때고 이러면 한달에 많이 들면 10-2만원 이고.. 보통때는 47만원 밖에 안나온다더라고.. 굉장히 싸지. 여기는 집세에다가 겨울같은 때는 가스도 하니까 한개 밖에 안때거든요.. 도시가스.. 도시가스니까 덜나가죠 그래도 7만원 이러거든요. 가스비에다가 전기세.. 물세도 두달에 2만원.. 물세 전기세.. 한달로 따져보면 겨울 같은 경우 삼십몇만원 정도 들죠..

Q: 겨울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여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받아서..

A: 지원받아가지고는 집세도 못내죠. 집세도 지금 2달 밀려 있어요.

Q: 돈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당하세요?

A: 지금은 충당할 대책도 없고, 그냥 어디 일나가 며칠 하면 그거 하고.. 안 그러면 충당할 길이 없죠 지금..

Q: 그럼 예기치 않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게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 목돈 일이 생긴다면 죽는다고 봐야죠

Q: 그럼 안되죠

A: 목돈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Q: 조심하세요.. / 그래서 건강관리 더 많이 하시나보다 / 급여가.. 지원금이 오 르거나 돈이 좀 생기시면 어떤걸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A: 뭐 판게 할거 있습니까. 몸건강하게 운동열심히 하는게 좋은 거지 뭐.. 소득이 조금 있으면 소득 있는 만큼 수급을 안하더라도 운동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제일 좋은 거죠.

Q: 그럼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 일자리가 있고 이러면 일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A: 해야죠. 당연히.. 일을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몸이 .. 솔직히 날품을 팔려고 해도 말입니다 뭘 할 수 있어야.. 내가 밑에 보고 쳐다 보면 내가 핑~ 돌아가지고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며칠 나가봤는데 못하고 왔다니까요.

Q: 운전하실 때 위험할 텐데요.

A: 운전은 좀 피곤해도 쉬었다가 하면 잠 폭자고 하면 낮는데 그래도. 다른거.. 한 방향만 보고 달리는 운전은 그래도 좀 나운데.. 다른거 보다는 좀 낮죠 그래도.. 약 효과가 있으면 몇 시간은 가거든요.. 약효과 있을 때는 괜찮고 약효과 떨어지고 나면 핑 ..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세 번 먹으니까 한번 먹고나서 효과가 한 서너시간 가니까.. 좀 괜찮고 이런데..

Q: 혈압이 많이 높으신가요..

A: 혈압은 약을 먹고 있는데, 어지럼증 있지 않습니까..

Q: 그 어지럼증 .. 아 달팽이관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신거예요?

A: 당뇨는 약으로 하고 몸이 안 좋아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달팽이관 때문에 안 낮는다는 거죠.. 이걸 수술도 안되고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이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약을 계속 먹어 안정시키는 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Q: 무리하면 안된다던데..

A: 예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고 신경도 많이 쓰지 말고... 그래서 안정을 취해서 낮는 수가 있는데 나아도 내 아는 사람들 119에 세 번 실려가던데 재발해가지고.. 나아도 재발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낮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거라.. 그래서 나오면 완치되는 사람도 있고 재발안하는 사람도 있고 재발하는 사람도 많은 거라..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길거리 다녀도 어지럼증이 올라오고 핑 쓰러

진다 아닙니까 눈에 초점이 안 잡힌다 아닙니까.

Q: 그럼 수급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었고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 그래서 법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의미였고 지금은 권리를 부여한건데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수급권이라고 하니까.. / 수급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는 지 아니면 당연히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A: 애를 봤을때는, 애들 주변에.. 애가 기죽을 까 싶어서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정부 도움을 받는건데 그게 크게 부끄럽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거를 받는거니까... 근데 주변에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지낸다 아닙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수급자네 이런 이야기 ..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아프고 이런거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당뇨가 한달에 약을 타러가려면 수급이 안되면 한달에 몇만원씩 드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아니까 말을 안하지만 이런거는 이야기 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Q: 주변에 다른 아시는 분들 수급자들 ..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A: 수급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도.. 나보고 이렇습니다 '행님 2종입니까 우리는 1종인데' 하면서.. 나는 당뇨에다가 몸도 아프고 이런데 2종인데, 그 사람은 C형 간염인데 한달에 50만원씩 수급주고..

Q: 그런거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A: 그런거 보면 황당하지. 그런 아들은 진짜 멀쩡한데.. 우린 진짜 몸이 더 아픈데 진짜 황당하죠 어떨 때 보면.. 그런 아들이 노가다를 다니거든요. 하루 8만원씩 받고.. 그럼 한달에.. 열흘나가면, 20일만 일하면 백몇십만원 받는데도 그런 수급을 받고, 우리들은 일을 못하는데도 그런 수급을 못받으니까.. 황당한거죠 그런거 보면..

Q: 근데 원래는 수급을 받으시면 일을.. 그거는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하고 수급은 수급대로 받고 일하는 거 숨기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위에서 보면.. 아니예요? 그거 다 이야기 하나요? 동사무소에 자기 일한다고..

A: 거의 안하죠. 동사무소에.. 굳이 자기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사무소가서.. 나는 동사무소에서 묻더라구요. 얼마나 버는지... 일 많이 할 때는 50만원 안그러면 40만원.. 4-50만원 선에서.. 보편적으로 일하면 몸 아프면 3-4번 많이 나가는데.. 한 40만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기록하더라구요 보니까..

Q: 그런거를 동사무소에서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주위에서 싸우고 이러면 와서 저사람 일한다고 말 이르고 ..

A: 그런대네요. 저사람 수급도 아니고 일나간다고 이런거.. 그래서 다시 조사나오고 쫓겨나오고.. 이런경우도 있다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경험은 전혀 뭐.. 우리는 일러도 상관이 없고 말 안해도 상관이 없고..

Q: 그럼 수급 이런거를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A: 아니 일반사람들.. 나는 뭐 수급대상자인데 어때 하면서.. 그양반은 병원비도 많이 안든다 하면서.. 뭐 주변에 친한 사람 있잖습니까? 내 형편을 알만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수급이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주변에 수급이라는 거를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안그러면 수급이 안되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 돈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비나 모든 면에서.. 병원비는 사실은.. 내 개인의료보험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이 나와봤자 한달에 만원 2만원 안나오죠.. 근데 약 같은 거는 몸이 아프니까 약값이 제법 들어갈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값이 10만원 같으면 개인의료보험으로 보면 25%-30%개인 부담 할거거든요. 한달에 5-6만원 씩은 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부담이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수급마저 안되버리면 큰 부담이

된다고..

Q: 정부지원받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부족하긴 한데..

A: 그래도 큰 도움이 되죠..

Q: 이렇게 수급을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실패하시고 몸도 나빠지시고 활동을 못하시니까... 그런거 이외에 원인이.. 사회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건지...

A: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과다 대출을 해줘놓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파벌싸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치고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죽어주게끔 윗대가리가 바뀌면 자기들 파벌싸움 .. 실질적으로 파벌싸움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죠.. IMF 오고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평상시 같으면 관례로 다 넘어가는데 관례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자기들 목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들 목을 지킬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자기들이 관여되는 건 미리 상대방과실로 해가지고 숙청하듯이 다 거기에 우리가 다 짝 가버린거지..

Q: 그럼 사회적인 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그런거 같으세요, 아니면 수급받으시는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 같애요, 아니면 사회구조상 그런거 같으세요?

A: 근데 사회를 욕할 필요는 없죠. 제가 지금 아파도 있죠, 억지로라도 먹고 살려면 나가야 되요 내가 나가 일을 해야지 뭐 사회가.. 나를 먹여살릴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복지관 공짜밥 얻어먹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해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거지 정부에서 조금 최소한의 기초적인 거를 도와준다 이것뿐이지 100프로 의지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앓은뱅이도 아니고.. 요즘 앓은뱅이도 집에서 일해서 먹고 살려는데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노가다도 할 수 있는 거고 나가 해야지요..

해가지고 하루에 몇만원이라도 벌면 먹고 살아야지 그거를 가지고..

Q: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급여가 깎이거나, 아니면 수급자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A: 아니 그렇게 깎이든 안되든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그게 낫죠. 수급이게 뭐 좋습니까? 내가 건강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낫죠.

Q: 그럼 주위에서 거기에만, 지원받는 거에만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술값으로 탕진하고 이런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그런 놈들 보면 제주도 좋다 하지.. 나보다 돈을 배로 넘게 많이 받으니까 술도 먹고 사나보다 하지.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집세도 못 내는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가 만원이라도 모아야지 집세도 주고...

Q: 만약에 수급을 못받았다 하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A: 수급을 못받으면 지금으로서는 큰 지장이 많죠. 굉장히 지장이 많죠. 제일 큰 수입은 수급인데.. 돈이 얼마 안되지만.. 그것마저 안되면 골머리 아파진다고..

Q: 일을 열심히 하시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A: 아뇨. 저는요 지금 현재로써, 현실로써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은 어렵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힘내가지고 다시 해볼 여건도 안되고. 저는 그래요 다른거 없이 제 몸이 아프니까. 저 어린애가 클때까지만 지탱을 해주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애가 조금만 크면 자기 혼자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주면.. 제가 몸이 이리 아픈데 요번에도 119실러가면 서도 요리 생각을 했거든요. 겁이 나는 거라.. 제가 앞으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장담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애나 몇 년이라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다면 저는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시다. 지금 와서 잘 살아지고 이런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럴 형편도 안되고... 재기할 능력도 없고 지금은..

Q: 자녀만 자립을 하면.. 좀 마음이 놓이시겠네요.

A: 나 혼자면 신경쓸 게 없는데...

Q: 지금 가장 바라는 일도 자녀가 건강하게 크고 자녀가 클때까지..

A: 제가 좀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져서.. 애만 좀 키울 수 있도록.. 몸이 자꾸 너무 아프니까..

Q: 그럼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A: 무계획이요 무계획..

Q: 몸만 좀 괜찮아지시면 일을..

A: 다른 거 없습니다. 몸만 괜찮아지면 .. 돈 몇만원이라도 벌어야 될 입장인데. 보소 쌀 한되도 없어가지고.. 한되도 없었거든요.. 이런 입장인데 마음은 백번천번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들어서 못나오고 있는 사람 심정이 어땠겠어요.

Q: 건강이 괜찮아지시고 일을 할 수 있다 하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A: 지금은 뭐 할게 있습니까. 막노동밖에 할게 더 있습니까..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전하는 거 하고 막노동 하는 거하고 두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죠.

Q: 지금 할 수 있는 거 말고 몸이 괜찮으시면 하시고 싶은거..

A: 하고 싶은 것도 그런거 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능력에 맞게 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만원을 받으면 만원어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 능력도 없이 남의 집가가지고 돈만 받아오는거 도둑놈밖에 더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Q: 그전에 하셨던 일에 대한 경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A: 경력은 있는데... 월급을 받고 일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주변에서 오라그래

요. 자기회사 사장자리도 준다고 오라고래요. 제가 지금 안가는 게 제가 가면 그 집 월급을 받지않습니까 제가 월급을 받으면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받으면 그 월급 몇배를 내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도 나를 간부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준다는 거는 많은 월급을 준다는 거는 내가 그 만큼 별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건데, 제가 지금 못가는 게 제가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겠는 거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안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는 참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런거는 오래도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제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내가 몸만 괜찮으면 수급 이런거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월급을 받아도 몇백만원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남의 집에 가서 월급을 받는 일을 못해주겠는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가는 거라.. 내가 월급받는 거 몸만 해줄 수 만 있으면 수급 이거 필요 없어요. 일하러 나가지.. 몸만 안 아프면..

Q: 되게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거 같아요.

A: 이거 보세요 내가 약을 9-10가지 먹는다 아십니까. 전부다 약봉지.. 아침먹고 약 먹고 저녁먹고 당연히 약먹죠.. 아침점심저녁에 누엣가루 먹죠. 세 번 먹죠. 요 것도 약 3번 먹지, 3번먹지.. 간지러워서 지르텍 먹지 하루에 9개를 먹는다고.. 피부 이렇게 몇 년씩 먹으니까 다 썩는다고.. 우리 부친도 약을 한 10-20년 넘게 먹고 돌아가셨는데, 피부가 다 썩는다고.. 약 중독이 된다고.. 사람이.. 이런 약을 먹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라.. 감기같은 거 걸리면 약을 12가지씩 먹는다고 하루에.. 면역성이 없으니까 감기같은 것도 심하게 걸리고..

Q: 그래도 따님은 건강하시죠?

A: 감기많이 걸리지.. 아직까지 큰 병은 없는데..

Q: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아버님은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A: 기관지.. 천식 이래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Q: 오래 고생하셨나요?

A: 아버지도 오래.. 병원에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고.. 아버지가 보훈병원에... 아버지가 6.25참전 했으니까 보훈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많이 차감되니까 보훈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오래있을 때는 한달 입원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계시고..

Q: 그럼 국가유공자?

A: 그거 한달에 6-7만원인가 나왔어요...

Q: 지금 어머니는?

A: 시골에 혼자 사시고..

Q: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A: 어머니는 밭에서 일한다 아닙니까..

Q: 형제분들은요?

A: 형제는 남동생 하나 있고 누나 하나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지 앞으로 집 한채 갈거, 누나 뉘, 여동생 뉘, 내가 다 싹 다해버리고 하니까 말도 못하지 형제들한테도.. 자기들한테 부모 재산.. 자기들한테 돌아가야 될것이 내가 다 써버리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집 한 채고 장만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내가 다 저질러버렸으니까.. 그래도 형제들은 그래요.. 동생도 그렇고 형이라고.. 저거도 속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런건 없어요. 형제간에.. 동생들이 형한테와가지고.. 그런건 없어요.

Q: 우애가 좋으시네요.

A: 예 형제간에는 뭐.. 내가 뭐 목에 때까리가 없어도 동생들한테 부탁은 안 하지.. 미안해서 부탁도 못하고.. 뭐 이리 살아도 자기들 그래도 살아서 고맙고...

Q: 부산에 가까이 계십니까?

A: 양산에 있고 부산에 있고..

Q: 명절에도 오시고..

A: 예 명절에도 오고.. 제사때도 한번씩 오고, 내가 장남이라도 잘 안가요. 능력이 안되니까...

Q: 죄송합니다만 아주머니하고는..

A: 이혼한지 한 8년 됐어요.

Q: 처음에 수급신청하러 가셨을 때 여쭙볼게요. 처음 수급신청하러 가셨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상담을 별도 상담실 같은 데서 했나요 아니면 ..

A: 아뇨.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급 이거 때문에 왔다니까 담당자가 들어오라 그래요. 요만한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상담실같은 것도 따로 없고 거기 보니까.. 그냥 이야기도.. 동사무소 가면 쪽 있다 아닙니까.. 한칸 안에.. 앉아가시는데.. 거기서 이야기 하대..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류를 주대..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쪽 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가 준비 다 했죠. 병원에 갖다 주니까 다 떼다 다 하니까 자기들이 현장확인 실사나가보고 통보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사나가봤다 하고 실사 나왔다고.. 확인 다 하대.. 자기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세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확인 다 하대.. 확인 다 하더니만 적어가더라구요. 알겠다면서 가대.. 가더니 수급 됐다고.. 연락왔더라고..

Q: 수급 상담 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수치심 같은건?

A: 내가 필요해서 동사무소 그사람한테 ..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내가 부탁하러 가는 입장이지요. 수급대상자 되기 위해서 모르니까 물어보고. 동사무소직원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자 아닙니까 사실은.. 동사무소든 파출소든 안그

렇습니까? 내가 있을 때는요 어디가서 구청에 가서도 할말 큰소리 뽕뽕했는데 내가 없으니까 어디든 약자가 되더라고 사람이.. 옛날같으면 경찰서 가서도 큰소리 치고.. 경찰서 방법선도위원, 자문위원.. 이려고 살았는데 있을 때는.. 없으니까 파출소만 가도 주눅이 들고 이렇더라고.. 사람이 .. 그러니까 그런거랑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도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러 간거고, 이게 서류가 잘못되서 이게 안되는 거 싫어서.. 불안한거죠.. 해주려면 완벽하게 다 해주지.. 해주니까.. 현장에 나와가지고 해주니까 별건 없어요 .. 담당자보고 내가 혹시 집에 없을지 모르니까 나오실 때는 전화한통 해주고 나오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촌이다 보니까 밭에 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나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통 해주고 나오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며칠쯤 나갈건데 출발할때 전화하겠다고 하대. 하필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갈게요 하대. 그래가지고 보시고 가시고.. 자기들은 통장한테 물어봤겠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안했겠어요. 의료보험카드 다시 만들어준다고 가져오라고 하대.

Q: 신청을 하시고 수급 됐다고 확정을 전화로 받으셨어요?

A: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서류를 해다주고 병원에 가서 떼어다 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현장실사 나온다 하더라고요. 실사 나왔더라고. 나온거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전화로 받으라 했는지 동사무소로 들어오라 했는지.. 동사무소도 구청으로 가서 결정이 나고 그래야 된다더라고 보니까. 구청올라가가지고 구청사회복지과에서 또 그래가지고 됐는데. 의료보험카드도 새로 만들어준다고 가지고 오라그런거 같애 그래서 의료보험카드는 내가 동사무소에 갖다 준거 같애. 갖다주니까 수급자 의료보험카드 새로 만들어 주더라고.

Q: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A: 모르겠어요.

Q: 법적으로는 한 2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A: 그럼 2주만에 됐을 겁니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요 기억력이 많이 쇠퇴된거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때도 많이 기억했는데 몸이 안좋아지고 나서부터 오늘 일 내일 잘 모르는 게 많습디다. 기억력이..

Q: 그럼 수급 확정되고 나서 공무원은 자주 만나세요?

A: 공무원 만날 일이 없지요. 전혀 없지요.

Q: 그 이후로 여기 방문 한다거나 그런 일 없어요?

A: 방문은 한번인가 두 번 했을 거고. 그리고 강서구 있을 때는 김장때 김치도 갖다 주고 어머니들하고 공무원도 같이 오는 수가 있고, 명절되니까 송편 줄 때도 있고, 상품권 만원짜리 줄 때도 있고 이만원짜리도.. 북구 여기는, 지난 번에 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주고 나서 아예 아무것도 없대.. 요기는 왜 사회복지 시설이 그리 안되나 했더니 요기는 수급자가 너무 많아서 못해준다 하더라.. 연제구 저기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많이 주는데 사회복지단체에서 김치, 상품권도 삼만원 짜리 사만원짜리 몇만원짜리 명절때마다.. 잘한다 하더라고..

Q: 금곡동은..

A: 너무 많아서..

Q: 여기가 3300명..

A: 근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수급자복지 시설, 혜택이 너무 없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습디다 하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

Q: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이러이러한거 필요하다고 요청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이런거는 안해주냐 이런거..

A: 쓰레기 봉투가 작아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쓰레기봉투도 (수급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주기 때문에 2개씩 밖에 못준다고 그러더라고..

Q: 포함이 되는데.. 그게 각 구 예산으로..

A: 구예산으로 주는데 북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2개씩 밖에.. 얼마전에는 몇 개 더 나왔는데 줄어버리더라구 2개로..

Q: 그게 각 주에 주는 돈은 똑같은데 나눠먹는 숫자가 여기가 많으니까,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A: 그래 그렇다데. 수급자 수가 많으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100만원 해주면 한 구의 인구로 세분하니까.. 많이 없는데는.. 강서구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 많이 받았거든요. 수급자가 많이 없으니까요. 좀 여유있게 써지더라고요.. 의료보험 있어도 엄마하고 같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둘이 있어도 못 쓴다니까요. 한달에 두개 어떻게 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암만 쓰레기가 안나온다 그래도.. 안그렇습니까?

Q: 그럼 필요한 서비스같은거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해주세요? 이리이러한거 필요하다 그러면 ..

A: 안주죠. 없죠. 예산이 없다 그러죠..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죠.

Q: 태도는 친절하게는 해줘요?

A: 내가 이 동네에 2년 넘게 살아도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 간 게 처음에 이사할 때 가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받으러 갔어요. 쓰레기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주는게 아니고, 강서구 줄 때는 석달에 한번 받아갔고.. 분기별로 주더라고.. 통장이 일일이 준다 하더라고.. 통장한테 받으러 가라 하더라고요 일일이.. 통장한테 .. 그것 때문에 가보고 그 뒤는 한번도 안가봤어요.. 갈일이 없으니까..

Q: 그럼 민원을 넣어보시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A: 쓰레기 봉투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데 이려고 저려고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정부 예산을 따올 사람도 아니고.. 정부에서 수급자가 많은 구는, 부산시라든지 정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급해 주

고 일인당 얼마정도 더 지급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명 밖에 없는 데는 2만원씩 돌아간다면, 300명 있는 데는 몇천원 돌아오지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고려 안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묶어버리니까. 정부 돈 주는 것도 그렇고 지원 예산을 전부 그런 식으로 묶으니까 안나온다 하더라고 돈이 없다 하더라고.. 통장님도.. 두개 가지고는 못쓰겠다고.. 너무 작다고 하니까 이것도 못 줄 것을 준다고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맙게 받아야지..

Q: 10리터짜리 2개인가요?..

A: 예. 한달에 조그만거 2개..

Q: 그거면 모자라죠.. 그럼 부족한 거는 사서 쓰세요?

A: 예. 사서 쓰죠..

Q: 이것저것 들어가시는 돈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A: 그래도 수급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거죠. 돈이 없어서 복구도 수급도 못하겠다 이러면 골치아프죠..

Q: 그럼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없으신거예요?

A: 많죠.. 집세도 지금 밀려있다니까.. 석달치 밀려있다니까..

Q: 주인도 같이 사시나요?

A: 예. 같이 사는데 주인 사람이 좋아요.. 살다보니까.. 밀려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몇십만원 벌거나 지인들이 조금씩... 내가 지금 어렵게 살지만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은 많이 돈을 쫓거든요 옛날에 나한테 돈을 많이 받았다..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집세도 못내고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 자기 능력 있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는 못줘도 자기들이 그냥 어느 정도 생활비 보태주고.. 20만원씩 주고

30만원씩 주고..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는 신세를 저서 이런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친구들하고는 다 그러면서.. 도와준 만큼.. 다 돕고 살고 하니까는...

Q: 인덕이 많으신가요..

A: 인덕 없어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몇천만원씩 빌려준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자기들 재산이 수십억 되면서 말만 준다 준다 하면서 안 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일어나서 재산을 그리 벌여놓고도 말뿐이고. 남들한테 내가 몇천만원 도와줬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몇십만원 도와주지도 않아놓고. 말만 떠벌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행동으로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거 같습니다.

Q: 그게 인덕이죠.

A: 나는 맘속으로 부담된다 아닙니까.. 그런게..

Q: 그래도 예전에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A: 예전에 있을 때 도와줬을 때는 상관없는데, 없을 때 도움 받는 거는 굉장히 부담되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Q: 학교는 요 근처입니까? 걸어다니고..

A: 예

Q: 피아노 학원도 근처인가요?

A: 학교안에서.. 어린이집가서 배우는 데 그거는 어린이집 돈 안받고..

Q: 어린이집 졸업했는데도...

A: 지가 학교갔다 심심할 때 어린이 집 원장님이 오라그래서.. 가서 피아노도 하

고.. 판 것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돈 안주니까.. 지 하기싫으면 하지 마라하
고.. 원장님 책도 만원씩하는데.. 돈 안받고.. 책값도 한달에 3-5만원 받더라고..
잘해요.. 어디 놀러가면 애들 데리고.. 원장님이 데리고.. 어린이집 행사있으면
다 데리고 가고.. 생일잔치 하면 불러서 먹이고, 선생님들한테도 잘하고..

**Q: 학교에서는 급식할 데고.. 방학에 식품권 이런거는 안나오나요? 방학때나 급
식 안할 때..**

A: 우유나오대요.. 우유.. 우유는 24개 주대.. 급식은 방학에도 타가라고 연락왔대요.
방학때 급식하라고.. 그런데 안했어요.. 복지재단인가 급식 신청하라고 했을때..
우유는 24개.. 한달에 주대..

**Q: 저희가 질문할거는 거의 다 했는데,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이런거 고쳐줬으
면 좋겠다 이런거.. 좋은 점, 안좋은 점 이런거를 말씀좀 해주세요.**

A: 제입장에서 진짜 고쳐야 될거는 다른건 없구요. 진짜로 사람이 현장에 와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벌이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은 몸을 못 움직일 정도
다.. 자식만 있다 하면서 부양가족으로 쳐가지고 .. 현실 실태도 모르면서.. 책상
에 앉아가지고.. 큰 애가 있는데 자식이 부양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
하지말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확인하고 무엇이든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
는 그런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법들 현장에 나오지는 않고 책상에
앉아서 다합니다.. 책상에서 하는 거랑 현장에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많이 나거
든요. 조금만 도움을 줘도요 현장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굽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식으로 진짜 가려운데가 어딘지 물어보고.. 굽
어줘야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지 그러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자꾸 이런식
으로 하지 말고 현장 실무자들 말을 자꾸 귀담아 들어가지고 현장에 맞는 복지
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되는 거 같아요.

Q: 어떻게 더 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A: 아니 구체적으로 수급대상자만 보지 말고요, 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자식이 있어

도 그 자식이 양육이 되나 안되나 살펴주고, 나이만 있다고 무조건 양육이 되는 게 아니구요, 이사람이 장애인이 아닌 수급대상자라도 장애인 준할 정도로 노동을 못할 정도인지 봐주고.. 이런걸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건 전혀 없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맞다.. 이런거 해줘야 됩니다. 수급대상자가 되니까요 병원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제가 약을 타오면 30일분을 타오거든요. 그럼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한달에.. 그럼 3일날 시작했다하면 다음달 2일 약을 타거든요. 3일날 약을 주거든요. 그럼 약이 모자라가지고 하루씩 .. 어떨때는 약을 하루씩 당겨서 탄단 말이죠. 1일날 타고 31일날 탈 수 있거든요. 한달에 두 번 탄다고 안되는데.. 약은 30일밖에 안주면서..

Q: 그 달이 31일이면 31일치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A: 30일씩 밖에 약을 안주거든요 무조건.. 수급자는 내돈주고 사먹으래 무조건.. 돈이 몇만원씩 들어도 사먹으래.. 한 3일분 내돈으로 사먹으래 무조건.. 수급자니까 안된다 이거라.. 다쳐도 조그만 병원, 진단서 안끊어도 갈 수 있는 병원.. 대학병원 말고 중간병원.. 이런거 다른 진단서 안 끊어도 의료보험만 갈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것도 무조건 안돼 진단서 끊어야돼. 수급자니까.. 안그러면 안되요. 수급자한테 진료확인서 잘 안 끊어주려고 해요. 나 대학병원 가려면 못가요. 안끊어줘서 못가요. 조그만 병원가서 끊었다 아닙니까.. 중간 병원 가서 끊으려 해도 죽어도 안끊어줘요. 대학병원은 일반 사람은 조그만 병원 안 끊어주는 게 많으니까 바로 대학병원 가는게 나운데 우리는 안되는 거라.. 우리는 대학병원에 수술하고 싶어도 못가는거라. 의사들 만날 기회가 없는데 수급자라고 안 해주는데.. 차라리 개인 보험이 있어 가는게 낫지 수급자니까 안된다 이거라.. 그런 수급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픈데 큰 병원 못가는데.. 수급자 자체가.. 큰병원 아예 가보지도 못한다니까.. 수급자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같으면 되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수급자는 큰병원은 아예 못가니까.. 그런 경우는 참 황당한 거라.. 아들도 백병원 과장이 제일로 소문이 나서 잘한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진료 예약자체가 안되는데 아예 뭐.. 보여주지도 못하고 의료보험 카드가 아예 안된다는데 뭐.. 안해주는 데 뭐.. 개인 같으면 대학병원

으로 바로 가는데 중간에 안 거쳐도 상관 없대요.. 나는 수급자니까 안된대.. 중간에 병원에서 안 끊어준대. 대학병원에서 무조건 안된다 이거라.. 수급자는 무조건 작은병원에 가라 이거라 이거라.. 큰병원으로 못간다 이거라.. 이거는 진짜 잘못 된거라 이거는.. 수급자는 왜 대학병원 못가나.. 응급실에 안실려가면 못간다 이거라.. 작은병원 중간병원..에서 대학병원 가라 .. 우리 병원에서 하면 된다.

Q: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네요.

A: 조그만 병원에서 안되는 거는 내가 바로 대학병원 가면 되는데 못가는 거라.. 수급자니까 중간에서 해라 이거다.. 수급자니까 오지마라 이거라..

Q: 병원에서 연계도 안해주세요?

A: 안해주지.. 일반은 의원에서 병원을 안거치고 대학병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 가야되는거예요. 의원에서.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술 안끊어주는 거라 지 병원에서 수술해라 이거라 무조건..

Q: 만약에 대학병원 가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가...

A: 대학병원 못간다니까 아예 진료접수가 안된다니까.. 내가 억울해서 군인병원을 갔어요. 어떤 접수를 했냐면 내 개인 의료보험 하지말고 준병원에서 내 개인 돈 15000원 주고 아들내미 개인돈 주고 접수했다니까.. 의료보험안되서 진료접수도 안된다는 데 뭐.. 의료보험 없이 해라 이거라.. 14000원 주고.. 진짜 아팠을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라.. 이거는 의료보험이 아닌거라.. 아무 혜택이 없는거라. 실질적으로 100만원 드는데 500만원 드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우리가.. 수급자니까.. 조사나오고 하면 골치아프니까 안해주려고 하지.. 이런식으로 한다니까 지금.. 일반의료보험이면 내가 30일날 약을 타도 되는데 수급자니까 안되는 거라. 수급자니까 내돈주고 며칠 사먹으라 이거야.. 그럼 못먹지.. 돈주고 사먹으면 더 비싼데.. 수급자니까 안된다는데 할말이 없지..

Q: 그러면 좋은 점은?

A: 아니 결론적으로 도움이 조금 된다 이거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일단은 조그만 병원은 많이 이용을 하니까.. 조그만 병원 이용하는데 약타먹고 이용을 하니까 제가 당뇨.. 장기적인 약값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좋죠. 좋은데 막상 아파서 큰 병원을 가려는데 큰 병원은 안된다는 거지.. 수급자는 작은병원에서 해라. 작은 병원에서 안되면 자빠지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야. 큰병원 오지 마라 이거야 수급자들은.. 정부에서는 수급자들은 큰 병원 갈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딴습니까. 그런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밖에 안됩니다. 응급실에 안 실려가면 큰 병원 구경도 못하는 거지..

Q: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어도 큰 병은 또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잖아요.

A: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일반 의원보다 병원..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같이 기구를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작은 병원에서 치료할 못하는 거예요. 미리 대학병원 가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못 나아 버려요. 병이 와전이 되가지고.. 그래도 너거는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해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일반사람은 대학병원 바로 되는데 우리는 그런식으로 안된다 이거라 무조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없는 사람들은 병을 키워라 이거밖에 안되지.. 대학병원 같은 데는 오지마라 이거라.. 병원에 딸내미 입원했는데도 독감으로 입원했는데 일반 의료보험.. 이번에 2종 해줘도 병원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3만 몇천원밖에 차이 안나대요. 별차이가 없대요. 보니까.. 일반 의료보험 카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입원했더라고.. 3만얼마밖에 차이 안나더라고. 우리 혜택 주는 거 뭐있습니까 일반하고 똑같지.. 일주일 입원했는데 3만얼마 차이나면.. 3만 얼마 차이나면 차이 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40만원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병원비가.. 나는 혜택을 받으니까 20만원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36만원 나오더라고.. 병원비가.. 똑같대..

Q: 교통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금곡역이 근처인가요?

A: 지하철은 금곡역 가서 타고.. 버스는 마을 버스있고.. 15분.. 환승이 되니까 요즘은.. 나가서 마을버스 안타고 환승할 일 있으면 환승 다되니까.. 구포까지만 나

가면 환승다되니까.. 내년에는 마을버스도 환승해준다니까.. 요즘은 환승되니까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Q: 목욕탕은 따로 있나요?

A: 따로 있어요.

Q: 난방도.. 가스..

A: 도시가스.. 근데 이런거 조사해 봤자 뭐가 됩니까?

Q: 도움은 많이 되죠. 요거는 답례품입니다..

(조사자가 상품권과 조사에 대해 설명함)

A: 내가 보기에는 수급자들 현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현장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거 한번 정도 관찰해주고.. 의료급여 문제 같이,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이런 것도 거론을 해가지고 수급자도 아프고 병이들고 아무래도 활동에 불편이 있으니까 수급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수급을 하는 건 너무나 썩어간 것입니다. 수급 자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거 한달에 20만원 의료보험 해봤자 한달에 25만원도 안 쳐주는데. 무슨 수급받아서 부자될 것도 이니데... 그런 썩어간 것인데 답답해서 이런걸 하겠나 실질적으로 이런 아픈사람들이 병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주는 게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병원 활용 못하도록 막아놓았는데 이게 좋은 제도는 아니죠. 병원 갔는데 돈 아까워 죽겠더라. 15000원 줬는데.. 생돈주고.. 내 개인적으로 하라는데 할말이 없더라니까.. 의료보험없이 개인적으로 안하면 진료 접수가 안되는 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면담자체가 안된다는데.. 병원에서.. 15000원 내버렸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진 한 장 보여주고 2종인데 수술합니다. 수술합니다. 수술시켜줄게요 이 말한마디 하고 15000원 줬다니까요. 그 말한마디하는 것도 의료보험으로 안되는 거라 접수도 안되는 거라. 진료 보는 것도 무조건 15000원 내야되고.. 수급자니까.. 수급자니까 안된다 이거라..

□ 수급자 16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근로 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5년부터 약 2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39	여성	자활근로	
딸	9	여성	중학생	
아들	5	남성	유치원생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는 동사무소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서 응답자의 주거 환경을 정확히 파악할수는 없었음. - 동사무소의 수급자를 면접하는 상담실은 전면이 유리로 개방되어서 밖에서 안을 쉽게 들여다 볼수 있었음. 또한 통풍이 안되고 내부가 심히 더워서, 본 면접은 동장실에서 이루어짐. - 응답자의 현주거지는 일반아파트(저층, 임대X)로 18평 방2개임.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의 사투리는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말의 속도가 빠르고 간간히 사용하는 사투리 때문에 녹취시 일부 어려울 수 있음.- 응답자가 면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조사는 어렵지는 않았음.- 본 파일은 두개로 이루어져 있음. 면접 중 동장님이 상담실에 들어오시고 서로 인사하는 부분은 녹음에서 제외하였음.- 본 면접자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도우미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전반적인 면접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응답자는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응답을 하였다고 평가하지만 일부 드러내지 않은 감정이나 사실이 있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본 조사는 분석에 사용할 만함. 또한 재조사 필요시 동일인으로 하여도 무방할것 같음.(응답자에게 양해도 구하였음)

* 음질이 좋지 않아 조사자와 수급자의 이야기 모두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녹취록에서 부정확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전체적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이름이나 그런거 이야기 안해도 되나요?

Q: 네. 비공개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도우미로 있습니다.

Q: 녹음이 잘 안되니까 가까이..

A: 그냥.. 사회복지 도우미라고..

Q: 사회복지 도우미요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

A: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쪽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사들이.. 그 업무 보조 하는 것입니다.

Q: 행정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복사라던가.. 차를 탄다거나..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서만 일을 하시는지요?

A: 바쁜 일 있을 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원래 덕천1동이 수급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일이라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거

Q: 문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행정을 담당하시는건가요?

A: 신청접수를 받는 다던가 그냥 단순 업무죠.. 수급자 전반적 관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사회복지사들이 다하시고 그 외에 손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 같은 복지도우미가 돕습니다.

Q: 이 동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A: 저랑 또 행정직에도 한분 계시구요. 그 분은 등초본 떼는걸 도와주세요. 그분은 계속 계시지는 않구요. 세시쯤 가시기도 하고, 저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도우미여서 정직원들과 같이 출퇴근 합니다.

Q: 그럼 매일 오시는 거네요

A: 예

Q: 다른 분도 제가 연락해 봤는데 휴가중이시고..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A: 휴가는 아직 보고.. 한가할 때 다녀올려고요.

Q: 며칠정도 가요?

A: 원래는 휴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장님의 권한에 의해 제가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하셨나요

A: 작년 2006년 3월달

Q: 2006년이요?

A: 예 작년에 처음으로 수급자 책정이 됐거든요

Q: 그럼 이제 1년 반정도 수급자 측정되고나서 수급자 되고 나서 바로 동사무소로 오신거예요?

A: 제가 바로 수급자로 온건 아니었거든요 개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가정분리가 되는 바람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하고 5살 짜리하고 작년엔 이제 8살 4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해야되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보육시설에 애 맡기는 게 있어서 작은애 보육 그거 신청하러 왔는데 그거 신청해가지고 보육료 감면 혜택이 되면 직장 구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내 담당, 동

담당 복지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구요. 나는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 했
죠 이래가지고 지금 상태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애가 있어서 보육료감면 신
청을 하러 왔다 보육료 감면 뿐 아니라 수급자 측정 기준에 되는 기준이니까는
뭐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하더라구요

**Q: 동사무소 분들이 먼저, 직접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
니까 받아보라 이런식으로 먼저 말씀하셨나요?**

A: 공짜 돈준다는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전에.. 사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사회
복지과를 공부했거든요 그당시에는.. 배웠는데 제가 거기 해당 한다고는 생
각도 못했어요

Q: 과거에는 상당히 되기가 어려웠죠.

A: 옛날에는 없고 그런 보호를 받는 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 .. 근데 작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진짜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Q: 능력이 있으시니까

A: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해가지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하니까는 여기 계신 분이 나이도 있고 밖에 나가서 구해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동사무소에서 자활로 일하는게 어떠겠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Q: 먼저 제안을 하셨던거

A: 예

Q: 일은 보람 되시구요 지금 하시는 일은..

A: 처음 예는 좀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동사무소에는 옛날에는 사회복지가 흔하지
않은, 이렇게 많이 안되었었으니까 그냥 사회복지전담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
무소에 한분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요.

Q: 죄송한데 이 동네 오래사셨나요?

A: 예 그런데 어느샌가 동사무소가 완전히 사회복지쪽으로 확대가 되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동사무소는 등초본만 때는 줄 알았어요.

Q: (십년전.. 지원만 받고 보조만..)

A: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보다는 사회복지쪽 일이 더 확대 되있더라구요.

Q: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A: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를 몰라가지고 다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도 되요?

Q: 예

A: 보면 우리나라는 한심해.. 한심해.. 대부분 보면 있죠 보면 한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었다 보니까 사회에 다 맡겨버린거 같아요

Q: 과거에 비해서..

A: 그렇죠 저같은 경우도 좀 그런거 같애. 봐가지고 보면 거의다가 모자자. 모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Q: 수급받으시는 분들이 가구가 모자가구가 많나요?

A: 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 남자들이..약간은 등한시 하는 거 같애요

Q: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가족해체니 모부자가 정이니 여성 차별이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 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새로운, 사회가 바뀌면서, 신사회위험이라고 과거와 다른 사회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것

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여자분들도 뭐라그럴까 한 가정에서 남편만 바라보지 않고 같이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 사회가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런식으로.. 국가에서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걸 찾아서..

A: 또 여쭙보세요

Q: 작년에 자제분 보육료 감면받으려고 오신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A: 그거는 일반인인데도 큰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감면 다 받잖아요 일반인들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일반인자격으로 그거 감면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딱 찍혀가지고.. 다른데서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다는 여기서 일하는게 퇴직금 없는게 그렇지만은..

Q: 1년이상 근무를 해도 원래 퇴직금 생기는 게 맞는데

A: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Q: 자활근로기 때문에./ 아 자활근로기 때문에..

A: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나오더라도요 생계비라던지.. 그걸 넘어서면 안되니까..

Q: 실례지만 한달에 얼마정도, 나라에서 수입들어오는 건 얼마정도..

A: 자활수입이 더 많거든요

Q: 다 하시면 어느정도돈가요

A: 3인 가구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거 지침표 같은데 안에 보면 나와요

Q: 실제로 받으시는 거는 어느정도세요

A: 100만원 조금 넘어요

Q: 100만원 조금 넘어요. 자활하는 급여까지 합쳐가지고

A: 예

Q: 공제받으시는 거

A: 공제는 의료보험료라든지, 세금은 안 떼는 거 같아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 일반 시장에서 명세서 같은 거 떼잖아요 근데 자활하면서는 그것도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의료급여도 같이 받으니까 중학교 랑 초등학생은 수업료가 없지만 고등학생도 수업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Q: 면제가.. 교육급여를 따로 주니까 / 백만원 정도 받으시면 어떻게 생활하기가 좀.. 근근히 살아가실수 있으세요 아니면 부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A: 쓰는 걸 줄이니까요

Q: 보통 한달에 어떤 거에 지출하시는 지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자체분 교육시키는데 돈 ..

A: 근데 학원도..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당시에도 주공아파트 앞에 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사회복지쪽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사회복지를 받는 반대야.. 지금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학급시설이라던지 선생님, 강사 분들이 어느 사설 학원보다도

Q: 나쁜진 않죠 오히려 좋은 분들도 있죠?

A: 그런데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다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 다니면서 애들 다 다 사회복지쪽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그분들도 공무원, 준공무원 수준으로 하니까는 제가 볼때는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 월급보다 복지관 선생님들의 월급이 더 많더라고요

Q: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

A: 아니 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집 좀 그렇더라구요 그게 구청의 본보기고 막 해가지고, 준공무원처럼 되있어서 그러다보니까는 일반사설에는 원장선생님 하나 있고 뭐 아끼려고 하다보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도 가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관 안에 선생님들은 그런면은 없을 거 같고

Q: 사회복지관 선생님들을 굉장히 믿으시는 편이시네요?

A: 그렇죠 채용하는 것도 선생님 수준을 봐가지고 채용을 하니까는 그래서 그쪽으로 애들을 좀 보냈거든요

Q: 큰애가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A: 아들

Q: 작은애는

A: 딸

Q: 따님이 지금 어린이집 가는거고 복지관안에.. 큰 따님도 혹시 복지관에..

A: 위에는 아들 , 아들도 다 복지관쪽에..

Q: 어떤 거.. 그럼 피아노 태권도 이런거..

A: 지금은.. 태권도는 사설 보내고 있고 그리고 피아노 보내고 있어요

Q: 피아노요..

<중간에 동장님이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연구원분들과 인사 함)

(녹음 파일 1 종료 , 녹음 파일 2 시작)

Q: (연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자제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이어서 질문함.)

A: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애들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지사 선생님이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애들 처음부터 아니까는 부탁해보면 선생님이 애들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사회복지가는 (생활수급자)니까는 면제를 시켜주더라구요 프로그램 하나정도는 면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피아노하고 컴퓨터같이 보냈는데 지금은 피아노만.. 그건 큰 애가 5살때부터 했기 때문에

Q: 그럼 잘 치겠어요

A: 아직 못해요.

Q: 체르니 뭐..

A: 이제 체르니 들어간답니다

Q: 30이요? 아니면 100?

A: 아니요

Q: 다른 수급자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 듣다보면 복지관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낙인이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내야 되지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 거리도 너무.. 여기 근교에 복지관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하고 보내기 꺼림칙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신뢰하시던데..

A: 근데 복지관 안에서는 좀 그런데.. 복지관 주변이 주로 영세민 아파트다 보니까..

Q: 도개공 아파트 말씀하시는거죠?

A: 예 그렇죠.

Q: 복지관도 거기 있나요?

A: 예 저는 도개공쪽은 안 하고 일반 아파트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금곡동 살다가 거기에 있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생겨 가지고..

Q: 작년에

A: 그렇죠 재작년에 일이 생겨서요. 그거 수습 다 하고 거의 빈손으로 덕천동에 친정댁이 있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친정어머니 있는 집으로 애들 데리고 온거죠 작년 초 쯤에 정리를 다 했죠

Q: 빚정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A: 예 그러니까 남편이 빚을 해놓고 도망가고 없고 제가 그 뒤처리를 몇 개월 동안.. 경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Q: 많이 힘드셨겠어요..

A: 뭐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정리다하고 지금도 외할머니하고 애들 하고 저하고 4식구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각했었거든요. 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살짝 오셔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애들 키우기에는 그렇다고 .. 애들 키우기에는 환경이 위험하다. 되도록이면 일반아파트 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Q: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건 전세 아니면 자가 ?

A: 자가

Q: 그나마 좀 나오시겠네요

A: 아니에요 (똑같은데)

Q: 아까 용자금 계속 갚으신다고..

A: 예 그러니까 좀 그런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옛날에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하자.. 저거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하는 데 힘이 생기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고 대출 좀 받고..

Q: 분양받아서 가신건가요?

A: 아니요 용자 받았어요. 했어요. 한 20년 넘게 갚는걸로요. 6년단위로 갚게요.

Q: 용자 끼고 들어가신 건가요?

A: 예

Q: 아, 국민은행에서 있는 저소득 대출자금 프로그램 같은거요?

A: 예 그걸로 했어요... 다 알아 보고 해야죠.

Q: 이번에 최저생계비가 기준으로 아마.. 올해부터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셨나봐요.

A: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가도 어쩔때는 새로운걸 알게될때도 많아요.

Q: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알게.. 선생님이 직접?

A: 여기서 많이 알게 됐어요.

Q: 아.. 동사무소에서 ...

A: 예 여기서 슬쩍슬쩍 책도 보고.. 넘겨도 보고.. 처음에는 엄마집에 (임대용자)로 있었어요 근데 생계비에서 무료 임대료가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그게 14만 얼마더라구요 3인가족이니까 왜 빠질까.. 담당자한테

테 물어보니까 무료임대래.. 이거 안 빠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세를 한다던지 전세 계약을 내 명의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사는 건 어떠냐고 해서 집사는 것도 기준이 있는데 3800에서 2000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집이 워낙 낡다보니까 얼마 안해요. 거기다 대출까지 없으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한도까지는 안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 명의로 집을 했는데 만 4천원이 또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는데 자가이면 또 빠진대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 집을 구할 때 전세로 할 건데..

Q: 자가가 아무래도 편하시지 않으세요?

A: 예.. 마음이 좁..

Q: 다 갚으시면 자기계 되는 거니까.

A: 근데 그거는 빨리 안 갚을 거 같아요 저도 여기 있어야 되니까..

Q: 많이 알아 보셨네요. 저희보다 제도도 많이 아시는거 같고요. 그러면 생활하시는데 용자도 내셔야 되고 교육비도 내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보통 한달에 얼마정도 사용하세요? 아파트면 임대료도 들어가지 않으세요?

A: 비밀인데.. 예. 옛날에는 외할머니댁이 고층아파트여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층짜리 옛날 아파트거든요. 관리비 작게 내려고.. 그래서 관리비 한달에 4만원 정도.. 사설 교육비가 워낙 비싸더라구요 태권도 하나만 다녀도

Q: 태권도 하나만 다녀도 8만원, 7만원 하잖아요.

A: 어떻게 아셨습니까 8만원

Q: 저희 애들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A: 8만원이고.. 그거 복지관에서 하고 또 요즘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것도 작년에는 돈을 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면제되더라구요 거

기서 방과후 수업하나 그것도 면제된거.. 일반학원은 안보내요 제가 집에 가서 가르치니까

Q: 공부도 가르치세요?

A: 예..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직 가르칠만 해요.

Q: 다른 친척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 관계는요?

A: 형제는 남동생 하나 있어요

Q: 따로 지원받으시는 건.. 도와주는 건..

A: 지원받는 건 없어요

Q: 동생분들도 나름대로 생활하시기..

A: 예 동생은 동생 생활하니까.. 가족도 있고.. 대신에 엄마한테 용돈 조금 드리고 있고

Q: 동생분이 근처에 사세요?

A: 해운대에 있어요. 같은 부산에 있어요

Q: 죄송한데 예전 시대분들하고는 교류가 어떻게..

A: 예 없습니다

Q: 전혀 없으세요?

A: 예 시대 쪽에서는 ..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킨 거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대가 하는 짓이 말이 안되요. 아예 상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한번도 (연락을 안 해요).. 2년된거 같아요 연락끊은지..

Q: 혹시 죄송한데 예전 남편분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다 된건가요? 이혼..

A: 예 다 했어요. 조금 미련이 있었는데 보니까 영 인간 같지 않아서 처리 했죠.

Q: 연락 전혀 안 하시고..

A: 연락 한번 왔었어요

Q: 남편분한테..

A: 예 한번 왔었는데 왜 왔는가 하나면 집 경매넘어가면 집 받은 사람한테 이사비용을 받아가지고 생활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매수처리 다하고 처리 다하고 나한테 전환 왔더라구요. 내가 알아서 처리 다했으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끊어버리고는 전화번호 바꿔버렸거든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을 거 같아가지고..

Q: 나중에 자제분들이 크면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A: 우리애들은 찾지 않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될 모르겠지만 아빠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을 좀 큰데서 살았어요 아파트도 깨끗하고.. 큰데서 살 다가 아빠의 실수로 이런데서 살기도 바쁘고 이런데서 있는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빠의 실수..

Q: 그렇게 알고 있어요?

A: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교육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커서 자기아빠의 그런 실수로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도 커서 그런 실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

Q: 혹시 집에서 가족분들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A: 아직 없어요.

Q: 장애 이력이 있거나 그런..

A: 그런거 없어요

Q: 아까 제가 중간에 여쭙보다가 말았었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지출하시는지

A: 제가 조금 일반사람하고 생각이 약간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지독하다 할 수도 있고

Q: 아껴서 사용하시는

A: 예 거의 뭐..

Q: 갑자기 애들이 아프거나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급히 가시거나..

A: 그때는 해야죠

Q: 그런 돈은 따로 모아두시는

A: 예 비상금은 항상..

Q: 저축은 그럼 조금씩 어려우시더라도 하시는 건가요?

A: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든든해요

Q: 약착같이 생활하시나요?

A: 예 워낙..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해요 어릴때부터 넉넉한 집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모으는 걸 잘 해요. 근데 그럴꺼 같아요. 제가 예전엔 살던게 개미와 배짱이 같아요. 개미(본인)는 실컷모아가지고 그랬는데 배짱이(남편)가 와가지고 다 날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화가 날때도 많아요

Q: 지금 용자를 받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느정도

A: 천만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어요 한달에 43340원 정도 나가요.

Q: 그럼 2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A: 그렇죠. 그리고 3년인가 지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 그때가면 7만원 정도 더 매달 이자가 나올것 같아요.

Q: 상환거치 몇 년 하셨나요?

A: 예 한 20년정도 더 갚아야 될것 같아요

Q: 그럼 그거 외에 다른 부채같은건..

A: 다른 부채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리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 다 갚고

Q: 거기서 일하시는 거 이외에 따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하시구요

A: 시간이 없어요

Q: 6시 끝나고 .. 자제분들하고 같이 집에 있으신가요?

A: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되거든요. 사실은 .. 안되요..

Q: 넘어갈수가 있으니까

A: 그렇죠

Q: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인가요?

A: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몰래 하죠 근데 사실은 거의 몰래 해요. 그런걸... 이걸 말을 해야되나

Q: 저희는 다 알거든요 저희는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 안하니까 .. 생활하는게 어려운걸 저희도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A: 저는 어쩔 때 화가나요. 왜 화가 나면 저는 여기서 9시 출근하고 6시까지 일하고 생계 안 넘어가는 한도에서 일한거 만큼 받고 국가에서 생계비는 조금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진단서를 내거든요 밖에서 일할 능력 없다고 뭔가

내잖아요.

Q: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

A: 예 진단서 6개월 이상 낸다든가.. 일일 고용 해가지고 나름대로 끊어오거든요. 그럼 그게 돈이 얼마 안들거든요. 30만원, 한달에 일해가지고 30만원 밖에 안 번다. 근데 요즘 30만원 버는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신고를 대부분 그정도 밖에 안해요 50만원, 30만원 그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회사 가면 확인이 되는데 일일 고용 확인 안되잖아요 여기 일하면서 알아도 다 파고들 수는.. 또 조사하면 왜 나만 그러냐 누구누구도 그러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Q: 그럼 공무원들도 그런걸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A: 약간은 알고 있죠. 너무 그렇게 한사람만 지목해가지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보면 진단서 내고 일하러 다니고 그럼 여기서도 진단서 냈으니까 집에서 아프니까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겠지 하는 분도 진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Q: 아까 행정일 말고 공무원분들하고 가정방문이라던가 가보신적 있으세요?

A: 한번이요 도개공아파트..

Q: 어떤거 같아요?

A: 가지각색의 생활을 다 하고 계시니까

Q: 생활하시는 걸 관찰하신건가요?

A: 아니요 설문조사 이쪽에.. 같이 하고 설문조사 안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내용만 체크하고 오면 되니까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

Q: 1년에 한번씩 하는 확인 조사 말씀하시는거죠

A: 예 작년 겨울에 한번 갔던것 같아요.

Q: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게 돈이 좀 모자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축하시는 것만으로 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A: 그런데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수록 좋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제일 아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옷을 덜입는다던가 이렇게 하는게..

Q: 앞으로도 여기서 쪽 일하실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복지관 같은데 취업해서 정식으로 일자리 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A: 근데 그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일자리를 그런쪽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나이제한이 있더라구요. 나이제한도 있고.. 여성... 4년제 갓 졸업한 대학생들도 많이 일하고.. 특히 운전 다해야 되거든요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 우리 그래서 잡꾼이라고 완전히 막 동네 심부름꾼이거든요. 차도 몰줄 알아야 되고 주로 여자도 있어야 되지만 남자가.. 사회복지관에 남자가 좀 필요한거 같더라구요.

Q: 여자분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A: 많죠 옛날에 복지관에 근무하기에는 남자들이 근무하기에는 월급이 작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Q: 지금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몇 년있다가.. 요즘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뒤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는데

A: 그런 제도 잘 모르겠어요

Q: 저도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법이 바뀌어서 뭐 2년뒤면 정규직 된다..

A: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건 옛날 시대나.. 그런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것도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공무원들 어떠했는가 하면 옆에서 약간의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위에서 해주라 하면 밑에 직원이 해주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구요 동사무소 동장님 찾아와서 누가 어렵다더라 수급자 해줘야 된다 통장님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되요 그건 담당 사회복지사 선에서.. 받을거는 다

받고.. 조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조사하다보면 신청했는데도 탈락도 되고 그래요.

Q: 그런분들이 오셔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던가요?

A: 많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Q: 근처 임대아파트 있죠 그러면 되게 심할 거 같은데..

A: 그분들은 수급자 책정된 있는 분들이니까

Q: (수급자가) 됐어도 뭐 (돈이나 물품등을) 더달라고 오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A: 더 달라는 분들요... 있죠. 근데 주로 할머니들이..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 부양의무라는데 있어요. 자식들이 많으면.. 부양비를 한번씩 조사를 하다보면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월급이 올라가지고 늘어난거 만큼 생계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그거 줄어들었다고 어제도 오셨는데 그럼 자제분 누구누구가 좀 올라서 생계비가 줄어들었다 이야기 하면 어떤 사람은 할머니는 이해하고 가는데 어떤 분은 자제들도 그것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저것들한테 용돈 10원이라도 받는 줄 아냐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그렇게 해야죠.

Q: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자제분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여기서 쪽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자제분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야되고 대학생이 아니면 안되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최소 많이 나오니까 국가로부터

A: 많이는 안나와요

Q: 안나와? 어느정도는

A: 좀 크면 수업료 지원 정도로 바뀌겠죠

Q: 수업료도 나오고.. 따로.. 교육비나.. 이런거

A: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있는 수급자도 있고 일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수월치는 않겠다 일반인 같은 경우 수업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석달인가 네달 생활비 아껴가지고 학업에 쓰는 돈 주어야해야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런것들은 없어서.. 그래서 왜 내라그러냐고..

Q: 아직 어려서.. 애가 학교때 뭐 느끼거나 그런 걱정은 안하세요? 일부 어떤 가구들은 그렇게도 생활하고 그렇더라고요.

A: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수급자 포기각서 쓰고 그러기도..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가르킬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가르칠수 있는 한도 까지는 배우는데 있어서 돈은 어떤 돈이라도 상관 없어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커가지고 수급자라는 딱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 시키는데 쓸 돈은 지출해야 할 것 같아요.

Q: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낙인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권리라고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과거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 혹시 가족분들이 어머니께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A: 예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Q: 자제분들도 알고 있나요?

A: 몰라요 자세한거는.. 동사무소에서 일한다. 엄마 방학이니까 엄마일하는데 가서 갈 거야 이러거든요 오지마라 그래요 애들 어렸을 때 (내가 지금 일하는걸)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Q: 어머니는 어떠세요?

A: 저는 그런게 없어요

Q: 아니 선생님의 어머니가

A: 친정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맘은 그래요.. 수급자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한다는 게 (그나마 좀 낫죠)

Q: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여건은 좀 좋으신것 같아요.

A: 예 괜찮은것 같아요.

Q: 동생분도 알고 계시나요?

A: 동생들.. 모르겠어요. 자기들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은 안하는 거 같아요

Q: 그래도 일할 능력이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번듯하다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A: 예 정신적으로는 조금 괴롭지만.. 일이 힘들다기 보다는 .. 저도 같은 수급자 입장이지만 진짜 조금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대 놓고 이야기 못해요. 그분들한테.. 그랬다가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달래고 설득하고.. 우리들이 볼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에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대하시나? 그런데 있죠. 그런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고민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는 여기 와가지고 (부가) 수입이 없잖아요 다른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단서 떼가지고 다른데서 일하고 제가 억수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수급자한테..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느냐 이러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거기 오라고 해도 안간다.. 왜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그냥 그 때 집에 있길래 자활이라도 하고, 바깥에서 봉사하는 자활은 3시간하거든요. 3시되면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혼자 집에 있는 거 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동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안 좋겠느냐 그 사람 동사무소 자활을 이야기 하려

고 하는데 먼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해가지고 받는 거 그것보다는 진단서 한장 꺼내놓고 알바를 해라 생계비는 오니까 그거 받고 .. 동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몇 푼 더 받는 거 보다는 알바를 하던가 아니면 임시직에 들어가서 번다던가 하면 두 배로 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Q: 그런 말씀하시던가요

A: 예

Q: 그럼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가요?

A: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그래요. 일단 알면 안되죠..

Q: 제도에 대해 많이 아셨겠네요

A: 제도는 반듯하게 있는데 근데 수급자들이

Q: 알고서..

A: 예 처음에 한 두달은 고맙습니다. 수급자도 되고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알아지거든요. 이거 해놓고 다른 데서 일해도 된다 .. 그럴때는 제가 또 바보같아요.

Q: 근데 선생님이 맞는건데..

A: 맞는데 바보죠. 요즘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에 사람 다 그러는데 밑에 최말단 수급자들도 그렇게 사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Q: 생계적으로 다 받으시는거 말고요. 아파서 병원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 혹시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계시죠?

A: 예 2중에.. 그러니까.. 조금 내고.. 약도 조금 내고.. 돈은 다 내야되요.

Q: 지금 생계급여 많이 받으시나요 만약에 급여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교육급여는 있는데 아직 못받으신거고 직접적인 생계급여라던지 주거와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신것들 있으신가요? 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A: 근데요 일반인들은 못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한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것도 지원해주고 해서. 아직까지는 좋은것 같아요.

Q: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A: 예 PC죠. 옛날에 그게 경매로 다 넘어가고 지금 능력으로는 그게 안되더라구요 애한테 사준다하고 못사주다가 여기오니까 PC도 중고지만 수급자 장애인 이런 차상위.. 지원도 해주고 집수리 그런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들한테는 없는 혜택이거든요.

Q: 컴퓨터도 장만..

A: 아직.. 아 있습니다. 아직 인터넷 연결을 못해서 그렇지

Q: 인터넷 하시면 다 나올텐데요.. 감면혜택이 있을 텐데..

A: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기초생활수급자 하려 그래요.

Q: 따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현물인데 컴퓨터라든지.. 현금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건 없으세요?

A: 저는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 보다는 받는 한계 안에서만 받고 싶어요

Q: 아 선생님같은 경우는.. 다른 (수급자)분들한테 들으시기에 이게 부족하다느니 더 줘야된다는니 이런 말씀 안하세요?

A: 근데 그건 완전히.. 너무 공짜만 좋아하는 거고

Q: 다른 분들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계속 공무원분들하고 접근하셔서

A: 일부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요 그런게 조금 많아요. 그럼 조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도 내가 받는 혜택 다른사람도 같이 받아야 되니까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까는..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Q: 그럼 어떠세요? 이렇게 수급을 받으시면서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받으니까 내가 좀 더 일할 능력이 있는데 다른 직업을 찾지 않아도 될거 같다 이런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A: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 다른데.. 마음은 찾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론 그게 안 되거든요.

Q: 나이라던가.. 자격이라던가..

A: 예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약간의.. 몇 개월 동안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Q: 구직기간이요?

A: 그렇죠. 구직기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기술을 터득하려면 그것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Q: (기회가 주어지면)..

A: 기회가 주어지면 그 모든걸 다 카바할 수 있으면은 근데 현실은 그게 안되죠

Q: 만약에 새로운 ..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직업을 찾고 싶으세요? 지금 선생님의 능력도 약간은 고려가 되어되겠지만, 약간 기술을 배우고 구직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A: 평생 일할 수 있는 거는 장사하는 거밖에 없죠

Q: 장사도 여러 종류 잦아요 먹는 장사도 있고 옷 같은 거 파는 것도 있고

A: 근데 지금 계획 세워 놓지를 알아가지고.. 그 장사도 좀 모아가지고 하는 것 보
다도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니까 안되죠.

Q: 정리를 하면 수급을 받으시면서 좋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좋았던 거는 조금 안정이 됐죠. 그리고 받는 거 보다는 여기에 와서 일하는 게
더 안정.. 공짜로 나라돈 받는 게 아니라 일해가지고.. 근데 어쩔때는 그래요.
내가 받는 거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 같다. 조금..

Q: 혹시 실례지만 정기적으로 병원다니시는 데가 있으세요?

A: 없어요

Q: 건강검진같은거 따로 안 받으시구요?

A: 따로 안 받아요

Q: 4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A: 예 근데 받기가 .. 그냥 안 아프면 건강하다 하고..

Q: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게 지금 연세가 39살이시잖아요..

A: 예 근데 고생을 많이 했죠

Q: 뭐 다른 좋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까요? 아까 보니까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비 약간 지원 된것들 .. 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A: 약 의료비.. 약국.. 애들.. 감기약같은 .. 감기걸려서 가면 옛날에 비해서 치과라
던가 병원비가 적게 드는거..

Q: 의료비가 본인부담이 약간 늘지 않았습니까

A: 그건 1종이고 저는 2종이니깐.. 계속 부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짜는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거 같아요. 저도 약간의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Q: 신체적으로요?

A: 아니 수급자요 공짜를 좋아하게 되요.

Q: 당연히 나라에서 받는다는.. 당연히 되는..

A: 당연시도 되고 그런거 있잖아요. 뭐 지원이 나왔다 하면 나도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있다보니까 내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건 내 담당하는 복지사가 챙겨줬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그런데 말을 못해요

Q: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은 신청하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A: 미안하잖아요 얼굴 맨날 보는데 그냥 나도줘 나도줘 할 수 없는거고

Q: 예를 들어서 뭐가.. 그런거 아까 말씀하신.. 받을 수 있는 데 그냥..

A: 받을 수 있는데가 아니고요 워낙에 수급자가 많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몇 명만 추려야 되니까 그거 나도 있으면..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뭐 나왔다..

Q: 김장지원 같은거 말씀하시는 거죠?

A: 예.. 저도 김장지원 받고 싶은데 작년에 못받았어요. 애들 때문에 김장못한다 이야기 했는데도 안해주더라구요 너무 챙피하더라구요 해주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야기했는데 안되니까..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Q: 여기 계시다 보면 정부로부터 오는 거 외에 민간 복지관, 기업체 혹은 교회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가봐요?

A: 예 많진 않아도 연말이나 추석때.. 명절때 오거든요. 그럼 수급자 워낙에 많으니

까 보고 지원을 주는게 있죠.

Q: 구청에 자체적으로 따로 (쓰시는) 분은 없으시나..

A: 구청에서.. 구청은 동사무소랑 다 연계되었으니까

Q: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 구청 나름 따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

A: 제일 말단이 동사무소니까.. 거의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해요..

Q: 그럼 좋았었을 때는 그렇고, 수급을 받으시면서 약간 안 좋게 된건 어떻게 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짜를 좋아한다.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거.. 다른 거 혹시 있으세요?

A: 마음이 좀 안좋아요. 같은 수급자 입장에서 나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제가 어느쪽에 입장에 서야 될지가 좀 그래요

Q: 수급자한테 뭐 가르쳐줘야 될지나 수급자편이나.. 아니면..

A: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말이 안통하는 수급자들 오시잖아요 가시고 나면 조금 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 좋죠 같은 인격 .. 라벨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안 좋죠.

Q: 그럼 그거 외 다른.. 부정적인.. 안 좋은 점은 ..

A: 안 좋은 점은.. 그렇게 안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Q: 아까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수급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A: 그렇죠. 로또에 당첨 안되는 이상은 그래요 .. 계속 해야 될 거 같거든요

Q: 로또 하시나요?

A: 예 일주일에 4천원씩은 투자합니다. 못할때도 있고 깜박하고..

Q: 수급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있으세요?

A: 나와가지고 생계가 안되니까는.. 몇 개월은 버티겠죠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되요.

Q: 그럼 어떠세요? 계속 받으시면 급여도 어느 정도 제한..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은 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같은 것도 있으실 거 같은데

A: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나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신경정신과 치료 몇 번 받으면 진단서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약간 약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의사선생님이 몇 개월 진단서 끊어준다.

Q: 수급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A: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가 안 나오면 그렇게 끊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정보가 그런 수급자들끼리 돌고 돌죠... 또 워낙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밀집되어 있으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다 되잖아요

Q: 임대아파트.. 여기같은 경우 도개공아파트인데 그런 분들끼리 담합된다고 하네요. 서로서로 소문들이 전염이 많이 되가지고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A: 예 안좋은게.. 어떻게 하면 일 안하고 돈 받아먹을까... 난 그게 참 안좋아요. 보통 장애인 6급정도는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6급해놓고 진단서 내놓고 일안해요. 특히 남자들.. 난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갑자기 2000년도부터 확 이렇게 됐는데 그걸 진짜 받아야 될 사람하고요 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데도 안하고 그런거만 바라고 빈둥빈둥 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까지 보호를 하니까 어쩔때는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Q: 제도상으로는 안되는거네요?

A: 그런거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수급자로서.. 정부.. 이런 제도가 있는거 너무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이지 않고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그 제도에 맞게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Q: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수급을 계속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고민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자녀 교육 .. 제일 많이 하시던데

A: 교육도 그렇고 .. 애들이 어리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 돈까지는 안벌고 돈 벌 때 되면 제가 이일을 못하니까.. 안되고.. 빨리 좀 컸으면.. 나도 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매여 있고 사생활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있어요. 하던가, 아예 하지를 말던가 해야 되는데

Q: 혹시 .. 아까 질문한 거랑 비슷한데 일을 수급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었나요?

A: 많이 했어요. 상고나왔거든요? 상고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다녔어요

Q: 경리쪽 일..

A: 경리쪽 아니고 무역업 수출입업 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세간하고 이런데.. 많이 돌아다녔죠 .. 주로 금융기관하고.. 제가 학교다닐때는 많이 암전했어요 말도 안하고.. 근데 직장생활하면서 밖에 외근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그거 하닥.. 보험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Q: 보험설계사 말씀하시는거죠?

A: 예 근데 그게 체질에 안 맞더라구요. 몇번 하다 말았죠 그거 하고.. 그거하다가 사회복지관에서.. 그때는 사회복지관 전반적인 행정업무.. 돈 관리 다 했어요.

Q: 경리파트쪽 하셨나요?

A: 예 경리파트쪽에서.. 복지 행사라든지 지출되는 거는 제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거 3년 다니다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다가..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에 있다가.. 그랬죠

Q: 일을 많이 하셨네요

A: 예 일을 거의 했어요

Q: 다른 건 또 한거 없으시구요?

A: 그러다가 사회복지관에 있었어요. 학교다녔거든요 거기서 보니까는 사회복지사들이..

Q: 그러면서 사회복지 공부하신 거예요?

A: 그렇죠 거기 다니면서. 옆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일이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안되겠더라고요 진짜 사회복지사로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일종의 월급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진짜 사회복지를 하면 다 나름 헌신을 다하고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해버리고 말고.. 그러다가 조금 쉬다가 홀라당 말아먹어(이혼 및 경매)먹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Q: 지금 말씀들어보면 굳이 여기 안 계셔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직종하셔도 잘하실거 같은데..

A: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면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요. 그래요 제가 .. 나는 공무원 안된 게 천만다행이다. 이러거든요.. 내 일은 뒷전이고.. 그렇게 할 거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렇게 수급자로 사회복지 도우미로 일해도 막 열을 내고 분개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 쳐주질 않으니..

Q: 그래도 다양한 일 하셨으면 굉장히 일을 여러군데서 찾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A: 근데 안되요.. 요즘은 젊고.. 워낙에 많아서..

Q: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A: 예... 근데 나이가 안되더라구요 나이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20대 초반이 제일 잘 되는.. 일단 30 딱 넘어가니까는 일반 직장은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40이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마 시댁에서도 제가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일하고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니가 나가가지고 ..

Q: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A: 그쵸. 제 나이 또래는 거의 다 그래요. 뭐 식당같은 데서 일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제가 버젓하게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정식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요. 저 여기에 일하게 해준 그분도 가서 힘들게 일 해가지고 병생기는 것 보다 여기서 깨끗하게 일 하는 게 낫다

Q: 그분이 공무원 분이신가요?

A: 예

Q: 공무원분이 자기들 왔는데 직접 소개해주고 이렇게 제도를 도와주시고 신청하시고 실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공무원분이 친절하셨나봐요. 친분이 예전부터 있으셨나요?

A: 처음엔 몰랐는데 처음에 보육료 그거 신청하러 왔을 적에 제가 금곡동의 복지관에 있었거든요. 그당시 금곡동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몇 번씩 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쪽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Q: 안면이 좀 있으셨어요?

A: 예 안면이 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사회복지쪽에 공부를 했으니까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반 사람이 하는 거 보다는 아는 사람이 하는게 안 낮겠나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일했죠 처음에는 참 고맙더라구요 지금도 고맙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라고..

Q: 그 때 다른거 찾았으면..

A: 다른거 찾았으면 좀 더 벌던가, 숨겨가지고 생계비 받고 그랬을 건데 저는 미리 여기에 와서 일하게 됐으니깐..

Q: 발을 들여놔 버려서..

A: 그러니까는.. 미리 알거 다 아니까는 나는 진짜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들 한테도 내가 진짜 바보라고.. 다른 수급자들은 그렇게 하가지고 2중 3중 돈버는데 나는 여기와가지고 정직하게 그런것만 받고 앉아있다고

Q: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A: 좋은 말로는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사업은 일찌감치 정리했었고 저한테는 하고 있다고만 계속 해가지고

Q: 다른.. 말씀을 잘 안하셨나요?

A: 말을 안했지요 '알아서 뭐하게' 뭐 그런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가보면 도박 돈으로 내가 내준거 같애요 .. 남편은 몇 년동안..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데 위탁금걸어야 된다. 직원들 월급 줘야 된다.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있는 거 돈 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Q: 그런식으로 조금조금씩 재산 뺏었던 건가요

A: 예 다 빼셨죠. 그리고 제 카드 석장 카드 갖다 쓰고 근데 보니까 도박인거 같애요 카드 고지서가 오는데 보니까 다 로또예요 세 개다.. 그러니까 한달에 로또를 300만원 이상 끊은 거예요. 그걸 한 몇 개월 했어요 근데 (뭉치돈) 빌린 돈

갚아주더라구요 제 현금 갖다가.. 카드값을.. 그런데 그 갚아준 그 돈도 친정엄마한테 또 빌려가지고 빌린돈 천만원 빌렸으면 카드 값 500만원

Q: 카드 석장이랑 친인척에게 빌려서 돌려막거나 그렇게 하신거네요?

A: 그렇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척들 안 빌린 데가 없더라구요. 우리 동생 엄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형제가 1명밖에 없어서 다행이라 그래요 많이 뒀으면 돈을 다 졌을 거니까.. 죄를 다 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야기 하지 마라.. 걱정하니까는.. 이러니까 역수로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죠. 주위에 사람들은.. 아내를 역수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 몰래 보험도 해지시키고.. 그러니까는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 가지고 제 카드값 갚아줬잖아요 저는 그게 어디서 일해주고 돈을 받아 온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한테 빌린 돈이에요. 지금도 못갚고 있어요. 한번씩 엄마 드리라고 용돈도 주더라고 난 이게 정말 고마워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자예요. 엄마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준거니까 뭐 뭐 쓰다가 이자는 니가 내야된다. 그게 이자더라구..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람을 감쪽 같이 속이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역수로 분개를 하는 점이지요. 돈 쓴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사람 속여가지고 집도 처음에는 작은집 살다가 큰 집 살면서 자기 명의로 했어요. 큰 집 살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금도 깨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다 해놓으니까는 2달만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 왔는데 대출을 저 몰래 1억을 했더라구요. 집을 담보로.. 근데 그것도 은행에서 한 게 아니고 제 2금융권에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 싸요. 그 이자도 제가 6개월거를 갚아 넣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아 나도 이제 못하겠다. 그 집에 대한 대출 이자보다는 개인 그거 있잖아요. 미르코프니 현대 캐피탈이니 이런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Q: 이자가 굉장히 세죠

A: 예 그때가서 결국 포기했어요. 돈 갚는 것도

Q: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이혼을 하긴거군요?)

A: 예.. 미르코프까지는 제가 갚아 줬는데 애들꺼 다 깨가지고.. 갚고 갚고 해가지고 150만원 남은거 못갚았나봐요 그래서 내가 다는 못갚겠으니까 조금만 양보해달라 하니까 100만원만 갚아달래요. 고맙다고 100만원만 갚았죠. 근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거 갚아준것도 화가나요.. 난 그것밖에 (부채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미르코프꺼 갚아주고 나니까 현대캐피탈이 남아있더라구.. 하나 갚아주니까 하나 오고 또 오고.. 뭐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또 오니까는 완전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 정나미가 툭 떨어졌죠.

Q: 혹시 그 예전 남편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시고

A: 그렇진 않았어요

Q: 가족에게 폭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A: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그런게 없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사기꾼..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많이 빌리고 자기 형제들하고 일가 친척들한테도 빌리고 하니까 동네 술집에 술집하는 여자들한테 돈빌리고 다니고 수단이 좋죠. 엄마가 그래 '니 왜 그거 몰랐는데' '엄마는 왜 모르고 돈을 빌려주냐.. 나한테 일단 물어보고 돈을 빌려주던가 하지' 그랬더니 '너 알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 그런쪽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있는 걸 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빌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그 집을 사면서 돈이 빨리 안 빠져 가지고 엄마 돈을 빌렸어요. 그 돈가지고 집을 산 뒤에 돈이 빠졌죠 그 엄마돈을 제가 갚았거든요. 근데 그 갚은 돈..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엄마한테 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빌린거예요.

Q: 그럼 죄송한데 선생님의 친정엄마 되시는 분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집에만 계시는 거죠

A: 우리엄마 연세 많아요 70... 36년생이거든요

Q: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요?

A: 일찍 안 돌아가셨어요.

Q: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셨나요?

A: 칠순하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만큼은 사셨다고.. 조금 병이 있었죠

Q: 지병이요.

A: 지병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워낙에 건강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암이었어.. 말기 이래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수술 안된다고 해서..

Q: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A: 예 근데 그것도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알았어요.

Q: 그럼 거의 말기였네요

A: 그렇죠

Q: 어떻게 몰랐었지.. 아버님이 건강하셨나요?

A: 워낙에 건강하신데다가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했구요

Q: 일을 계속 하셨나봐요

A: 예 거의 오랜 기간동안 하셨지요 큰애가 9살이니까는 그 애 태어나고 부터는 안한거 같아요

Q: 장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구요 저희가 아마 다 하다보면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강성민 선생님이 몇 가지 여쭙볼 것도 있을 겁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하구 혹시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관련된.... 저희가 복지

부도 가서 아무래도 다 말하게 되거든요.

A: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요 놀고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Q: 제도안에서..

A: 그렇죠. 제도안에서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들 .. 그러니까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사람한테 생계비주지 마라 생계비 주는 거 맨날 술먹고 동네 시끄럽다. 그런사람들.. 주로 알콜릭이 있는 사람들.. 차라리 알콜리즘이 있어서 정신이 없으면 수용시설에 치료를 받던가. 근데 애지간한 사람들은 돈있으면 가서 술마시고.. 할일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네 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놀고 먹는게 거의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Q: 만성이 됐기 때문에..

A: 그게 조금 그래요.. 도개공 그쪽으로 낮에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들.. 20대는 아니고 40대.. 그런 사람들 할일 없으니까 가게 앞에 앉아서 삼삼오오 앉아서 술 먹고 있어요.

Q: 그럼 도개공 아파트에도 임대아파트 돌아다니다 보면 알콜릭.. 알콜 중독이 신분이 많거든요. 여기도 많으세요? 이 아파트에도 많으세요?

A: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는..

Q: 교정시설에서 계시다 오신 분도 많구요?

A: 그쪽으론 저도 잘 모르겠어요

Q: 북한 이탈주민도 있구요?

A: 있어요 많진 않고 몇분 있는거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사람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쩔때는 우리나라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전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Q: 혹시 저희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많이 듣기는 했는데 더 여쭙보고 싶은게 있거나 그러면 전화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A: 예

Q: 선생님이 오래 계셔서 여쭙보는 건데 원래 공급자분에게 여쭙보는 건데 아까 동장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보통 공무원분들, 동장님이라던가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분들이 많나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선생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A: 그런데 동장님은 확실한 표현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런 수급자 중에서 동사무소 찾아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그렇게 해도 공무원들은 그걸 다 감수해야 되니까는 더 그러는 거 같아요.

□ 수급자 17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일반근로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2005년부터 총 3년 정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등급 및 내용)
본인	55	남	무	무
처		여	무	유(뇌병변)
시어머니		여	무	딸집에서 지내시기도 함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 (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
- 국민임대주택아파트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 대해 호의적이고 질문에 대해 이해도 높았으며,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판단됨. - 수급에 대한 수치심이 약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하며, 임대주택 단지에서 낮 시간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근로의욕이 높지만 부인이 몸이 불편해 매일매일 시간에 매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줍기, 건설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음. • 부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충분히 고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급탈피 욕구가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세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며, 4년 후엔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군에 있는 아들이 그때쯤 취업하게 되면 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규모 과일가게 등을 꾸려 부인을 돌보며 일하기를 바라고 있음. -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음. - 현재 청소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수급 전 제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음. 부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던 중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수급하게 되었다고 함.

Q: 그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구요, (예) 그냥 수급 받으셨던 때랑, 그리고 이제 수급... 그런 것들에 저희가 여쭙볼꺼예요. 그럼 수급을 언제부터 받으시게 된 거예요?

A: 우리가 수급을 한 일년, 일년 됐지예. (처: 여기 온지가 3년... 10월 11일에 3년 되거든요. 한 일단 3년째 되가는 갑다)

Q: 아, 그럼 수급 받으시면서 여기 주공아파트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A: (처: 예 예) 예...

Q: 여기 사시는 거는 그럼 편하세요?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건 어떠세요?

A: 저기, 저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게... (처: 내가 못 움직이니까) 거기 서는 인자 뭐 일반적으로 쪼끄만한데 거 지하에 전세 뭐 이렇게 살았는데... 화장실 가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가 인자 동사무소에 가....

Q: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TV 좀 꺼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두 분만 살고 계세요?

A: 아니, 어머니가 있는데... 인자 며느리가 이러니까 딸 집에도 갔다가... 인자, 여 있다가 딸 집에 갔다가, 뭐 불편하니까 어머니가 뭐... 나이가 뭐 (처: 팔십이예요.) 그러니까 그래 인자 생활 자체가... 할때도 지금 며느리가 저 모양이 되 있으니 좀 보기 싫지.

Q: 뭐 사고 당하신거예요?

A: 아니 (처: 뇌변병...뇌변병) 뇌변성인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인자... 처음에 와가지고 좀 그래 됐었는데 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인자 완전히 인자 못 움직이니까... 양쪽 뇌가 다 인자 그기 되가지고 있거든?

Q: 그럼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그러시는...?

A: 어, 병원에는 약을 인자 처음에 일차 왔을 때도 약을 갖다가 인자... 원래 그렇

거든. 이기 영구히 죽을 때까지 인자 묶어야 되는 약인데 내가 생각에는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이라니까, 혈압 약만 먹다 보니까 또 다시 인자 오른 거지. 근데 이게 참말로 무식해서, 병에 대해서 몰라서 인자 그래된 현상이 온거지. 두 번째 다시 재발하고 나니 인자 전혀 인자... 지금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좀.. 마이 도움을 주고... 이래해가지고 운동을 자꾸 하니깐 이제 지팡이라도 의지해가 건건히 인자... 뭐 움직이고... 생활 하는데는.... (처: 뭐 이제 집밖에 나가기... 집밖에 나가기 휠체어가 안 있거든요. 휠체어가 많이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인제 보건소 갔다가..)

Q: 여기 근데 언덕이 심해서 왔다갔다 힘드실꺼 같아요.

A: (처: 언덕이.. 언덕인데도, 요정도 올라오기에는...) 근데 이제 저쪽 손도, 살아있는 손이라도 힘이 없거든. 힘이 안 주어줘...

Q: 아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신 거예요?

A: 그 오른쪽이 마비가... 인자 왼쪽 뇌가 하면 오른쪽이 마비되는데... (처: 처음에는... 인자 왼쪽 뇌가...) 인자, 왼쪽 뇌가 처음에... 처음에 마비가 되가지고 왔었는데, (처: 재발했을 때는 오른쪽 뇌가 또 다쳐뿌렸네) 오른쪽 뇌가 그랬지 이제... (처: 그래서 양쪽 뇌가 다 다쳤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요거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예...다행이시네요...) (처: 양쪽 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잘 못하고 인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어 있어야 해야 될건데... 힘이 없다 해도 이거가지고 인자 휠체어 그... 저 뭐 그거는 끄시고 다니니까...) (아, 전동?) (처: 예, 전동 휠체어. 예, 예예... 고거는 끄시고 다니니까 인자 다행이지.) 그니까 보건소 까지.. 그것도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니깐 인자 좀 되고... 보건소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긴 주고...

Q: 여기 오다 보니까 복지관이랑 뭐 이렇게 있더라구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용안하세요?

A: 저기에서는 반찬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실제적인

내용상으로 이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쪼개, 한 도시락 요만치 갖다 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안되지. 차라리 그거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줄라면 매일매일 주야 그것도 이래 반찬이 되든지 우짜든지 하지... 뭐 일주일에 한번 요만큼 쪼개 갖다 주는 거 뭐.. 한 끼 먹을 정도만 요래 딱 갖다 주니까 그거 뭐,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고...간혹 가다가 청소... (처: 일주일에 한번씩...) (처: 요 복지관에서 안 하고 저쪽에 인자, 구포 있는 복지관에서 인자 일주일에 한 번...) (음, 다른데서요?) (처: 고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안 나오는 것보다도... 이거를 움직이지 못 하거든요...) 내가, 내가 수급자가 되가 있는데도, 그렇다 해가지고 인자 맨날 인자... 그 웬 소리냐. 왜냐면은 벌이 자체가 이제 불투명 할 수밖에 없는 게... (처: 수급자도... 수급자인데도 돈을 작년에는.. 십일 만원인가 나왔거든요..올해는 올랐더라. 약간 올라가지고 26만원. 그니까 14만원 올라가지고 26만원. 그 26만원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Q: 여기... 월세...?

A: 월세가 십, 십 한 오륙 만원 돈 들어가지. (처: 오륙 만원 나올 때도 있고, 여름 때는 이제 십..십 일 만원 이 만 원씩 나오고, 겨울 되면은 이제 난방비가 있으니까 고래가지고 한 십 육만원 돈 나오고...)

Q: 아, 그러면 정부에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이십 얼마...?

A: 그러니까 이제 구청하고, 정부에서 들어오는 건 십... 그거 합해가지고 구청해서도 인자 이제 뭐냐면은... (처: 구청에서도 십, 십 십만 몇 천 원 들어오고, 또 인자 장애수당 해가지고 십 이만원... 아이, 어, 얼마더라?) 모, 몰라 거 잘 모르겠고.. (처: 어, 어 십 육 만원, 아이 십 육만원인가?) 어 그래... (처: 고래가지고 고계 이제 정부에서 26만원...)

Q: 그거 장애수당까지 합쳐서 26만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A: 네, 그렇지... 그래서 다른 어떤 그거는 뭐.. 그래 그거 가지고는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안되지않아요) 안 되니깐 인자, 뭔가 시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뭐 일이, 노가다라도 있으면 가가 뭐 한다 던지, 하다 못해가 종이라도 주워가 팔아야 뭐, 생활 되지. 한 달에 그래 기본적으로 여기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거... 그것도 안주면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야. 그니깐 인자 그것 가지고 인자 참 아파트 달세는 해결되니까... (우리 먹는 거는 좀 인자... 쌀을 인자.. 쌀을 거기에서 인자, 정부미 저거, 한 달에 두 자루. 두 자루 그거를 받아가... 쌀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순 없으니까... 밥은 뭐 움직이면 해야 하고 하니까... 한 달에 어쨌든 뭐 이래 살아도,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니까 자꾸 인자 아프고, 몸이 아프거든 나이 팔십 먹은 저기니까... 내 자신도 지금은 뭐, 실제적으로 어느 뭐 종합검사를 받아보면 뭐 어떤 현상이 올란지 나도 나이 육십인데 인자 뭐, 안 되겠나 이제. 그래 이제 병원 가기가 겁나지 이제, 참말로 뭐 검사라도 받아보면 '어디 나쁘요' 이래 하고 하면 오히려 인자 마음의 병이된다, 인자 움직일 때까지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애들도 인자, 저가 뭐 엄마 십 년째 저라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뭐, 다만 얼마라도 생활이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주면은 모하지만은... 그렇지, 요새 이, 요새 이 뭐, 누구나 다 가정에 뭐. 기분 내키면 몇 만원 갖다 주고 뭐 안 그라든 뭐 안주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좀, 좀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그거는 있지.

Q: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A: 우리 막내이는 지금.. 인자 군에 가가 있거든.군에 가가 있으니까... 위에는 또 딸이니까, 인자 또 결혼 해뿌고... 뭐 이래하니까, 뭐... 저그 살림이고. (처: 아, 딸 둘인데 하나는 시집가고, 하나는 집에 있고, 인자 하나는 군에 가고 이제. 고래 딸이.. 딸이 돈을 번다해도 인자... 인제 집에는 안 보태준다 이말 아이가. 내 딸이...)

Q: 그럼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요?

A: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이, 이제 딸하고 같이는 안 살고. 애가 인자.. 이 사람이 난 아 같으면은 엄마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을란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난 아가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혀 뭐, 그기 없어져버리는거지. 없어져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즈그는 즈그대로 나가자 뭐, 생활하니까 전혀 아무 그게 안되는 거지.

Q: 부산에는 계세요?

A: (처: 예, 부산에 있어서 한 번씩 집에 오고 있고...)실질적으로 인자 이 사람이 난 아는 지금 군에 가자 있으니까, 그게 인자 지별이를 하며는 즈그 엄마가 이러니께. 또 생활에 도움이, 받침이 될란가... (처: 이제 대학교 1학년 하고 군에 갔는데, 뭐. 인제 스물 두 살이니께 군 나와 가지고도 몇 년 있어야 되, 몇 년. 그래 돈 벌이가지고 엄마하고 들어... 그래 뭐, 지 잘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모르고, 잘 된다 해도 몇 년 뒤에나 인자...) 그때까지 잘해가 하여튼 뭐.. 우리 집에 인제 할때야 언제까지 사실란지... 그것도 나 마... 내가 생활에 여유가 마이 있고 이럴 거 같으면야 뭐 참, 거 하지만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인자 뭐 힘대로 인자 살아보고...

Q: 그럼 3년 전에 수급... 이거 정부에서 돈 받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A: 예전에는 인자, 병이 오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 볼라고 노력도 하고 이랬지예. 그런데 IMF 오고, 내가 그 당시에 저, 이 사람이 인자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념의 빚을 얻어가 가게를 했었는데.. 병이 덜컥 오니까 이제 가게 정리를 해 버렸지. 그 당시에 인제 내가 덤프차를 사가지고 내가 운전을 했었거든... 덤프차를 사가지고 한다꼬 하는데 그것도 IMF 딱 와버리니까 전혀 안 되는 거라. 안 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뭐, 적자가 나버리지. 적자가 나가지고, 참 폐업 정리도 안 해줄라 그러는 거라.. 그거이 참, 차는 그 해버리고 인자 폐업 정리가 됐는데... 그라고 난 뒤에 인자, 사람이 안 될라 하든 이런 것이 이 있거든. 왜냐하며는 그래가 인자 정리하고 막상 인자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라니께 모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운전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다가 그때, 돈을 갖다가 천만 원인가 생계자금으로 빌리 준다 해가지고, 그래가 천, 천만원인가? (처: 천 이백 만원) 천 이 백만 원을 빌렸는데,

그래가 용달차를 샀어. 용달차를 사가지고 하니까, 용달차가 천지에 안 되는 거야. 뭐 이거는 차를 끄시고 나가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현실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쥐고 있을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차는... 그것도 천 이백 만 원 빌리가지고 이제 차를 용달차를 샀는데, 이노무 자숙 거, 지...해가지고 그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차를... 하다가 이제 팔라 하니까, 차 살 때야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인자 빚만 남아 뿐기라. 빚만. 옹게 인자 그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 빚만,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에 그것도 받아서 인자 빚이 한 달에 이십 몇 만원씩 갚아 나가야 돼. 그거 갚아 나가는 게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빚이라는 것이... 뭐 수입이 정확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거 같으면은 그거 한데... 그렇다고 안죽까지 뭐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신용불량자 되고.. 그런 그것도 전혀 없어요 나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까지 념의 빚은 갚아 나가야 안 되나... 응, 빌려 쓸 때 마음이지... 뭐 내 안 갚겠다 그러면, 내 못 갚겠다 이래 한다고 하고... 누가 그 되겠어요? 그래 지금 그게, 한 달에 이십... 한, (처: 한 오륙 만원) 한 이십, 이십 뭐 몇 만원씩... (처: 오 만원, 오 만원 아이가?) 그래 갚아 나갈라니께, 그거 갚아나가야 되제... 이렇게 살라고 나가서 벌여 와가지고 벌여와도 푼돈인데 인자, 우쨌든 그거를 갚아야지, 작년부턴가 그기 상한이 오..년 갚아야 되는거 아이가.. (처: 오년 갚아야 되, 이제 일년 갚았다) 그러니께 이제 한 몇 년 인자 갚아 그 나가는데, 그기 인자, 그거 다 갚고 나면 인자 나도 살 길이 열리지 싶다. (웃음)

Q: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거 갚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짐세도 뭐 한... (짐세는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만 대략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오륙십 만원이 훌쩍 넘는데... (훌쩍넘지요) 지금 수급 받으시는 비용이 아까... 이십 얼마밖에 (처: 이십 육만) 안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혀 정말... (안 벌이고는 안되지) 그니까, 그 모자르는 돈은 그 버시는 걸로 다 충당이 되세요?

A: 안되, 안되도... 어쨌든 간에 은행 빚은 갚아야 되고, 우리 먹는 거를 줄있으면 줄이지... 그러니께 정부에서 쌀은 인자 두 달에 주니까 뭐 반찬이야 있든지 없

든지, 먹는 거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거거든... 먹고 쓰는걸... 그래 인자 종이 주우러 땡기다보든, 이 뭐 옷 같은 것도 요새는 막 좋은 것 내비리고나고 이런 거 다 주워가 입은 옷이거든. 주워가 입어야 되고 싶어가지고. 뭐 그거는, 내가 내 뭐 사 입겠다 이거는... 안되지. 그거 생활 자체는 안 되는기고. 다행히 이제 그거를 하니까 이 사람도 한 달 약 받으면 뭐 약값이 인자 얼마... 그것도 인자 보험 2종이 되다 있으니까 진료비 거 하고 조금 저.. 그 전에는 병원에 가고 하면 몇 만원씩 주고... 약도 사고 몇 만원씩 주야 되는데. 지금은 인자, 뭐 약값이라도 인자 오백 원, 뭐 천원 이래주고. 우리 어무이도 그렇게. 그래 되가지고 사람이 인자 전혀 뭐, 참말로 뭐 아프다 해가지고 이발도 안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그니깐 이제 이 사람이... 목욕탕이라도 한 번 데리갈라든, 목욕탕에 가지고 목욕탕에 가다 목욕을 좀 씻겨달라... 때미는 아줌마보고 씻겨 달라 하든 안 씻겨줄라 하거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샤워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인자 샤워를 씻기고... 나도 상당히 인제 살아가는데 내 생활 자체가 지치요. 지치는데.. 그래도 뭐 그건 내 업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 한 오년은 인자 요 빛 값고 나가면 인자, 우리 아가 인자 곧 제대 할끼고... 그렇게 생활을...

Q: 근데, 그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버시는 수입이 매번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A: 그렇지, 그렇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얼마 벌인다, 또 내가 며칠 일 하러 나갈 수 있다 그것도 알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일 있으면 나가고, 또 이제 종이도 주우러 가보면은 많이 줘는 날도 있고 적게 줘는 날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생활에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어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 왜냐하면 집에 또 저 어떤... 거기 있고 이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떤, 뭐 어떤 내가 뭐 일을 한다 해도 고정적인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그리 안 되는 거야. 안되니까, 점점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거지... 왜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일정한 어떤 일이 되고, 집이 집에서도 인자 실제적으로 인자, 이래 온다고 해도 이사람 뭘 목욕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 성한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씻기기도 쉽지만은, 아픈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은 목욕탕에, 탕에 앉아 죽을 뻔했지 인자. 인자 씻기주겠다 해가 갔는데, 탕 안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니까 인자... 그런 일도 있고, 이라다보니까... 거기 안 되지. 안 되는 거, 나도 일을 해도 인자 뭐, 어디 누가 일하러 가자 하마, 며칠 동안 일 한다 이런 거는 되질 않애. 그냥 마 오늘 갔다 저녁에 온 온다던지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잠깐씩 가서 보고, 내일 또 일이 있으면 그거 하고... 그래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생활 자체도 인자 뭐 자꾸 좋아진다는 어떤 그거 보다는 이 이상은 이제 안 나빠지면은 괜찮다 정도인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인제 도와주는게...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 도와주니까 좀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저 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전부 전부다 뭐... 다 그럴 때마다 넉넉하게 다 도와줄 수도 없는 정부 입장도 그럴꺼고 이라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해주는 거를 가지고, 어쨌든 집은 집세에 나가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되. 해결이 되는데... 다른 거는 인자 다 자급자족 해야지, 어쩔 수 있어.

Q: 생활비가... 뭐 병원도, 다 약값 얼마 안 들어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총 얼마나 드시는 거 같아요, 한 달에?

A: 한 달에 생활비가... 우리 넷, 그래 우리 아가, 한 아가 군에 가가 있으니까 인자 뭐 어짜피 그거는 인자 군에서 그거 하고, 우리 어무이하고 내하고 이 사람하고 살라면은 최하라도 인자 한 칠팔십 만 원은 되야 인제 생활 되거든. 다른 거는 다 재끼더라도. 그런데 인자 뭐 이래 있다 보면은 칠팔십 만원 정도는 생활비가 들어가야 전혀 인자 마이너스가안 갈 그거는 되는데, 뭐 어쨌든 한 달에 뭐 일주일일 일을 하든지 열흘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Q: 근데요, 일을 안 하면 수급비가 조금 올라갈텐데... 그래도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보통 일을 하시면...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이 돼서...

A: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이제 그거를 하더라도... 왜, 왜 그런가 하든, 내가

인자 누구 말맛따나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택시 운전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 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라. 왜냐면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을, 고정적으로 이래 내 내 불일 있다고 하고, 내 불일 없다고... 불일 있다고 일 못하고 이러면 어느 회사 사람이 좋아하겠느냐 얘기야. 내가 우리 집사람 몸이 오늘은 병원 가야 되니까 내일은 놀아야겠다. 아, 이기 있으니 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녀의 회사에 이래 고정적으로 취직을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인제 하기 좋은 말로 '운전 할 줄 아니까는 택시라도 하면 될꺼 아니냐..' 그 택시도 오늘 내가 일해야, 꼭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몸이 또 병원 가야 될 상황이 된 다든지... 자꾸 그거 하면 어느 사장이 좋아 할꺼냐 얘기야. 내가 내일은 일 못합니다. 내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럼 노가다밖에 할게 없는기라. 노가다 밖에 할 수가 없고, 노가다도 내일 꼭 와서는 내일 일하러 갑시다 이라는데 '또 내일은 안 됩니다.' 그러다 부정기적으로, 그거는 뭐 요새 인력 그거 하는 데라든지 뭐 가가지고 내 일하고 싶으면, 인자 거, 거서 팔리 가면은 또 일 하고, 안 팔리가면 뭐 또 집에 오면 되고. 이제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안 그러면 인자 박스나 주위가 갖다 파는 수밖에 없는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내가 어디 뭐 당신 부르는 데 있는데 취직 하면 되는데, 내가... 딱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되지마는 내가 사장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 데리고 쓸라 하겠어요? 안 데리고 쓴다는 거지. 당연히 안 데리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안되는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

Q: 근데, 그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신거잖아요....

A: 그렇지. 그거는 인자 내가 나이가, 이 사람이 십년 전부터 이랬으니까 판단을 할 때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놀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쪽으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가 있다는거지. 동사무소에서는 당신은 일하러 가면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일을, 일을 안 하

느냐... 이라는데, 그거는 입장을 서로 뒤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는 거는 답이 나올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인자 이 사람하고 내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인자 참, 다음에 우리 아가 좀 크고 이라면은 인자 어디 뭐 시골이나 이래 뭐 집이라도 하나 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그건 꿈이지, 꿈인데. 그래 잘하든 하다 못해 구멍... 처음에 이제 정부 돈을 빌 리가, 생계자금 빌리 가지고 그 용달차를 안사고,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했으면, 그거라도 했으면 참, 이 사람 데리고 씻기 가가면서, 밥해먹어 가면서, 가게 문 열어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게도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안되고... 그리고 인자 참, 지금은 뭐 차라도 하나, 뭐 용달차라도 하나 사가지고 인자, 참말로 뭐를 할라 해도 인자 생활 자체가 인자 지금 이제 자꾸 휘말려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자 다시 이제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정부에서 또 돈 빌려 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자 좀...

Q: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저씨가 근로 능력 있다라고 판정을 하신 건데,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거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생각하기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한 거 같으세요?

A: 근데 내가 생각 할 때에는 지금 현재, 현재는 근로 능력이 있다 손 치도, 현실적으로 인자 어떤 아무 거기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난... 근로 능력이 얼마든지 될 수가, 될 수가 있지. 있는데, 내는 지금 근로능력이 있다 해도 지금 나이 많다 뭐다 다 이라면 누가 그것도 안해줄뿐더러, 할 것이 없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론 사람이 3D 업종이라도 이렇게 해볼라 해도, 나이 많으면 '몇 살 인데요' 이라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된다) 어, 나이가 있으면... 아이고 말도 꺼내기 전에 아예 안 되는 거야. 안되니까 지금 금방 내가 이야기 하든 그런 그것도... 지금 노가다 그것도 왜냐하면은 젊은 아들도.. 마흔 몇 살 목은 아들도 노가다 하고 이러는 현실인데, 취업이 안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일하러 갈라 해도 그게 인자 되게 답답하고, 면면이 어디서 있어가지고 오늘은 갑시다

이러면 인자 어디로... 그냥 가가지고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지. 젊은 사람 데리고 가지, 왜 데리고 갈라고 하겠냐...

Q: 그러면, 그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정부에서 자활 지원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A: 내가 인자, 이사람 병을, 병 오고 난 뒤에... 이 사람 처음 일차 병 왔을 때에 나야 불끼라고... 내가 병원에 근무를 했다고... 저 양산에 있는 그 이제 정신과 병동인데.

Q: 원래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직업이셨어요?

A: 의사가 아니고... 그 이제 병동에 인자 환자들 이렇게 하는 그 저, 그거를 했었는데, 그래 이제 의사들 상대로 하다 보면 마, 좀 의 의학상식도 마이 알게 되고 그래 안 좋아지겠나 해가지고... 그래 인자 있으니까, 그기에 거기에 계속 해서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 병원도 역시나 인자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그것도 있고 그라니까, 용역으로 인제 전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는 들어갈 때 인제 직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다 찢리뿐거지. 인자 (음.. IMF때?) 다 찢리뿐거지. 그래가 인자... (처: IMF때 아니다, 내 병 오고 나서 아이가...) 그래, 병 오고 나서. 그래가 인자, 딱 나오고 나니까 갈 때가 없는 거야. 갈 때가 없는 거지 인자. 갈 때가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인자, 정부에 돈을 빌 리가 인자... 용달하고 했는데 그것도 사업의 실패지, 잘 됐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냐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안되다 보니까, 자꾸 뭐 그 안 되는 걸 쥐고 있을 수도 없고... 차 덜렁 팔아버리고 나니까, 돈은 인자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버렸고... 빚만 딱 남아 버렸지. (그렇죠)

Q: 동사무소 직원이... 뭐 자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기억은 없으세

요?

A: 그런 거는... 서면으로 자기들이 인자 (처: 응, 날라 오지, 날라와.) '일하러 갈 생각 있으면은 신청해라.' 뭐 이라는데... 그거이 정부에서, 내가 알기는 공공근로 (예...) 그것도 오랫동안 못 하고... 하다 못해 종이를 주우러 땡겨도 내 구역이 있어. 거기 뭐, 그냥 막 이래 아무 때나 주워가... 그러다 보면 큰 싸움 나는 거라. 큰 싸움 나지. 왜냐면은 그 집에 청소도 해주고, 그래 하면 이렇게 저 줌 나와 갖고... 그 다음에 가 가가 인자 이래 하는 건데... 참 동사무소에 그 공공근로 뭐 석 달 인가 밖에 못 하고. 뭐 일 년에 석 달 인가 그것 밖에 못 한다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이 생활 자체 그거를 못 해나가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Q: 그럼 만약에요. 공공근로 사업을 장기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A: 그렇지. 그게 뭐 일 년이고 이 년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든 하면 좋지.

Q: 음... 근데 단기간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못하시는...

A: 예, 그러지. 그게 인자 왜냐하면은, 이거 수거 하면, 인자 그 그거 하고 난 뒤에 내 구역 다 뺏기고 난 뒤에 (그렇죠, 다 뺏기고 나면...) 응, 뺏기고 난 뒤에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Q: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일자리를 해줘서 인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월급은 주는데 그게 인제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지예) 근데 그렇게 되면, 생계비가 조금 더 깎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일을 하시겠어요?

A: 그 인제 거기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인자 오픈이 되든지 뭐 한 달에 그러든 내가 하는 이야기 말 맛 따라, 한 달에 인자 일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자, 한 달에 뭐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진다 이래

되면 뭐 딱 거보다 시간적 여유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있지.

Q: 그렇죠, 음.. 생계비가 좀 깎이더라도?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A: 그렇지, 생계비가 깎이고 그래도 고정적으로 한다면 (처: 아니, 공공근로도 그렇고...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한 육십 만 원 된다드라)

Q: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박스도 주우시고, 뭐 어떤 때 일도 나가시고 이러면 그것보다는 좀...

A: 그거보다는 더 낫지. 내가 낫기 때문에 인자 그거를 갈라 그러는거지, 고생이 되더라도. 공공 근로하는거 보다는.

Q: 그 혹시, 아저씨가 한 이 정도 한 달에 모, 육 칠십 만원 이렇게 버시는 거... 그 공무원이 알고 계세요?

A: 그, 신고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이거 그거 할 때에도, 이거 인자 이 사람 그거 하고 할 때에도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 볼 적에, 그 고정적인 어떤 수입은 안 되도 한 달에 한 오륙십은 벌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Q: 그럼 수급을 지금 받으신 지 한 3년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처음 받으실 때 기억나세요? 수급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A: 이거는... (처: 나는 그걸 몰랐어. 몰랐고... 또 아파트에... 내가 인제 이래 됐으니까. 인제 두 번 째 오년 있다가 재발 했으니까... 처음 오년은 이제 걸어나니.. 걸어다녔거든요. 그때는 우리 아저씨가 일도 했고 됐는데, 내가 앓고 하니까... 이 아파트를 이제 신청하러 한번 간다고 동사무소를 갔드만은... 거기에서 인제 저 뭐고... 아파트... 이것도 모르고 인제 신청해봤어요. 신청 해놓고 이래봤드만... 거기에서 인자...) 인자 집에 조사하러 온거야. 왔는데 이 사람이 전혀... 인자 참 우리집 거 저 살고, 세 살던 집을 인자... 와 가지고 집도 인자,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집인가 인자, 그 아주 옛날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인자 참말

로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여기 오기 전에?) 예... 화장실에다가 막 턱이 이래 되
가 있고, 이 사람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지 이러니까, 조사 나온 사람
이 도저히 이걸 안 된다, 아파트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 자기
관내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 되고 이래 되면은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좀 하고 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인자 아파트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없겠느냐, 돈은 없고. 영구 임대아파트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니까 인자 거기에서 동사무소하고, 그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조사가 나왔
더라고. 집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조사를 해보드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또 장애
1급이지 이라니까.. 아파트 들어가도록 신청해라 이래가 이제 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Q: 아, 그러면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먼저 아신 게 아니라, (예...예) 아파트 땀
에... 먼저 아파트 땀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네요?**

A: (처: 아파트 땀에 연결을 하면서 인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업도 없고, 딱
내가 매여가 있고, 할매 있제... 뭐 생활 자체가 뭐 전혀... 그게 되다 보니까 인
자...

Q: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알고... 주공아파트에 들어온... 신청하신 거예요?

A: 아니, 그렇게 신청하러 갔다가 여기에 꼭 이 아파트가 아니고... 몇 군데 이래
신청을 해라 하더라고...

**Q: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아파트
신청하는 게 있다고?**

A: 그건, 이 사람 몸이 아프고 이라니까, 아파트에 영구임대아파트 그 이제 그게
장애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해주는 그게 있다... (누가, 옆에 사는 사람
이?) 그렇지. 알아봐라.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
었지. 안 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 내... 우리들... 나이에서는 아파트보다 일반집
이 편안하다 이래 생각했었거든... 전혀 그것이 혜택이 안가는 거라. 그러니까 화

장실도 안 되지. 뭐, 그러다가 인자 참말로 뭐 옛날같이 요강을 갖다 논다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되고. 의자에다가 다리 떼내 버리고도 맨들어도 보고.. 오만 짓 그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고 한번 알아봐라... 아파트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꺼다.' 왜, 그 정부에서 있는데... 이런 그런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래 싸서 동사무소 가가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내가 입장이 이러는데 이 아파트 좀 들어갈 수 없겠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조사하러 나오더라고. 조사 나와 가지고 다 보고 인자 그래가, 이제 서류 다 만들어 주고.

Q: 거기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면 직접 다 만드셨어요, 서류를?

A: 그 우리가 이제 병원 가가 뭐 뭐 해오라고 하면, 그래서 인자 병원 가가 하고, 그 다 해가 그렇게 인자 하니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

Q: 그 때 신청하실 때 공무원... 생각 나시잖아요.

A: 생각은 나도 이름도 잘 몰라요.

Q: 근데 그런 공무원들이 갔을 때 요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가면 되게 막 어깨에 막 힘들어가서...

A: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않았고, 참 친절하더라고. 친절하고... 조사하러도 나와 가지고 현실을 쳐다보고, 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선에 뭐 또 우리 집사람이, 그 저 세월이 지금 흘러서 그렇지. 참 젊은 사람이 이런 병이 오다 보니까, 이런 병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볼 때에 아주 나나 우리 어무이가 이런 병이 와 있는 거 같으면은 또 문제가 다른데... 며느리가 수발을 하고 하든 되는데, 할매는 어디 이제 이... 이 며느리라고 이제 젊은 사람도 이 모양이지 이라니께,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쳐다봐도 안타깝지. 인제 내도 내대로 메이가 꿈쩍도 못하고 있지 이라니께 인자, 그 당시에도 인자 그런 공공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인자 내는, 인자 짬짬이 인자 그 해가지고 생활을 시간 빼가지고 이 집에 어떤 그 살아가는 뭐 빨

래도 해야 되제 뭐 이래,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되제. 이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인자 공공근로 뭐, 이래도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지. 어쩔 때는 내가 막 하루 나나가 하루 벌일 수 있으면 벌이고... 노가다 같은 것도 가면은, 실제적으로 어떤가 하면은 자 뭐, 소개서에서 저거 띠고 해도 하루 뭐 어떨 때는 육 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만원 받을 때도 있고 육 만원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래가 인자 내가 시간적으로 열흘만 일 해도 인자 내 생활, 공공근로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까... (처: 공공근로보면은, 청소하러 남자도 나오거든, 남자는 할 일이 없어. 서가 있다 구경만 하고 있다 여자들 청소하고 이래 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여자들 쳐다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참 저일 해가 했을 때, 응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그래야되지... 일을 안 하고 좀 뭐라 할까? 그게 좀 동사무소에 가도, 이 쓰레기 줍기 한다 이거 아 납니까. 쓰레기 주우러 가서 여자들하고 같이 갈 때도, 남자들옹게 일을 하는 거 같이 안보이고... 내 남편이 그래 보이는거... 싫드라)

Q: 일의 종류가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시겠어요? 지금은...

A: 인자 수입이 고정적으로 되고, 고 뭐 다만 뭐 몇 년이라도 이렇게 쪽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게 다르지. 내가 실제 내 친구들도 여 뭐 저, 경비하고 이런 아들도 있거든. 경비를 하러 간다고 해도 요새도 뭐 그냥 일반 어떤 이런데 경비 하러 가면 한 칠 팔십 만원 한 달에 받잖애. 경비, 경비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왜냐면... 뭔가 이게 인자 매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책임감이 없이 어떤 그건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냐하면은 인자 자꾸 뭐, 이렇게 생활하게 되나 하면은... 딱 이래 구속이 되가지고는 내 생활 자체가 더 힘들어. (아, 그렇죠) 차라리 내 혼자... 뭐, (처: 돈이 좀 적다고 해도... 내가 뭐 무슨 예를 들면, '지금 어디소 할라 그러는 거 같으면은' 그 택시를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며는 뭐 그 매여 있으면... 자기가 뭐 이래 전화를 하면은 집에 '어 그래' 하면서 뛰어올 수 있는 그런게 되야 되거든. 실지로, 지금은 내가 멀쩡하게 있는 거 같애도 이 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사고가 몇 번이 났는데.. (아, 그러시구나...) 119 구급차에도 받혔
 제... 이 몇 번 사고 났어요. (처: 또 요 밑에 내려가다가 머리 깨져가지고... 또
 119 타고 또 병원까지 가고... 그래서 뭐 일에 매이는 거는...) 좀 작아도, 이제
 그냥 그거라도...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내가 몸을 뺄 때는 뺄 수가 있고, 할
 수 있고, 이렇지. 몸이 부득이 매이면은... 차라리 인자... 왜냐 그 방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뺏다고 생각하만, 지금 현실은 인종 어려운데 사람이 자꾸 밝은 현실
 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래가 그거 해주는 거라. 실제적으로 이
 거 복지부에서 해주는 어떤 제도 중에서 제일 내가, 내 몸에 와닿는 부분은 뭐
 고 하면 보호 1종이든지, 2종이든지 해주면은, 병원에 실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기가 그거 한데 병원비가 많이 할인이 되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생활,
 생계비 지원 뭐, 이런거는 지가 열심히 벌이가지고 살라고 노력을 하다보면은
 어떤 거기 될 수가 있는데... 병원비 이거는 몸 아픈 사람이 언제 어느새 아프
 고, 실제적으로 인제 우리 어무이도 한번 봐봐. 한달에 병원에 뭐, 장기적으로
 뭐 이, 우리 어머니하고 이 사람하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서 그거 또 적어가지
 고 연장 시키고 이래 해야 되거든, 그러니 인자 진료 일수가 뭐, 아픈데만 아픈
 게 아니고 또 뭐 이빨도 아팠다가 눈도 아팠다가 그래 다 아픈데... 이제 그러
 다보니까 이제 지금은 인자 그전에는 인자 다른 개인병원 가다가 그것도 지정
 해서 가라... 막 우리가 막 이제 아예 보건소에 가가지고, 옛날에 이제 입원했던
 그 병원에 또 거기에 한번씩 간혹가다가 가가 (진료 확인서) 어, 그거 또 처방
 전 받아가지고, 또 보건소 또 가가... 이제 보건소 의사가 인자 실제적으로 이
 사람하고 전공, 전공이 틀린다 아이가. (그렇죠) 이 사람 진찰 하는 사람은 신경
 신경외과고. 보건소 의사는 내과 의사일수도 있을꺼고, 외과 의사가 있을수도 있
 고 이러니까. 처방전을 인자 간혹가다 받아와가지고 몇 달 약을 보건소에서 처
 방전 해주면은 인자 약을 묵고... 물리치료 같은거는 보건소에서도 운동 재활
 치료 잘 해주더라고. 그래서 하고, 또 그래도 몸이 영 안 좋으면은 또 다른 병
 원 한번씩 가고 이라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 좋고. (네.. 의료
 혜택 받으시는게 가장...) 예, 그렇지. 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이런것
 도... 도와줬으면 좋기야 좋지마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 같은 경우에도 뭐 쌀

한자루 팔아먹을라고 하면은 지금 새 사만원, 사만 오천원씩 이렇게 하는데, 정부 저기에서 이만원에 이렇게 해주니까 괜찮지... 좋은데. 실제적으로 다, 자기 잘되가 고정적으로 어떤 벌이가 안 되도 내가 열심히 살라고 하면은 아무리 거 해도, 백 만원 미만으로 벌어 먹는거는 자기가 부지런하면은 벌어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일하러 가... 열심히 한 달에 삼십일만 꾸준하게 막 다 벌이는거 같으면은 한 달에 백 한 일이십만원도 벌 수 있지. 거기 마음대로는 되는 건 아니고, 내도 인자 욕심은 안부리고 한달에 이 달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칠 팔십만원 벌어지면은 또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런거지. 뭐가 목표를, 얼마를 벌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뺄수는 없어.

Q: 그러면 일을 하시면, 그니까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니까 수급자에서 탈피를 할 수 있을...

A: 그렇게 할려고 인자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고...(처: 그랬으면 지금까지 못 버텼지). 근데 인자 왜냐면은 못 버텨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

Q: 굉장히 긍정적이신 거 같아요. 두분 다...

A: 응, 내가 볼 때에는... (처: 긍정적이긴 긍정적이는데, 지금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이백 만원 삼백 만 원벌어 오는 것도 아이고, 항상 벌어 오는기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 하니깐...) 그래도 이 빛이, 빛이 갠 아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갠가지고 나면은 다시 빼가지고, 그 때 되서 또 우리 살그로... 다만 뭐, 가게라도 하나 하기 위해 돈 천 만원 다시 빌리기도 하믄, 그 때 빌리가지고 또 그게 잘 되면은 어떤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나이에 맞춰 가지고 사는 거지... 그냥 나이에 맞춰서... 이래 해가지고 지가 또 이렇게 하다보면... 맨날 뭐 정부에 돈 얻어가지고 살아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사람 삶이 아니지. 아이고, 물론 내가, 내도 나이가 들어가지마는 그래도 요새는 몇 년이고 앞으로 뭐, 몇 년 후에는 차라리 이거 (수급 안받고..) 응, 안 받고 내가 뭐 정부에서 예로 들어서, 목돈을 전부는 몰라도, 이 빛 다 갠 나면 '천만 원 더 빌리 주소, 내가 내 사업 밀친 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돼서

또 빌 리가 또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이 이뤄져야 되는 거지. 내가 매 달 이거 받아가지고 뭐, 이거 받아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이 안 되는거야.

Q: 그때 공무원이 뭐, 수급 신청하셨을 때 조사 이것저것 하셨잖아요. 그 수급 받으려면 기준이... 막 소득도 조사하고...

A: 예, 내가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병원에도 갑자기 노사분규 났더라 말이야... 그 용역을 하고 이래나니까...

Q: 아, 그때 신청하실 때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A: (처: 아니 병원에...) 아니지, 이 전에 인자 병이 와가지고, 10년 전에... (처: 처음 5년 동안에는 병이 와가지고 5년 동안에는... 움직이고... 수급자 아니거든.) 이 사람 조금 움직이고, 그때는 수급자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내 별어가 살았었는데... 또 막 병이 오더니만, 이 사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그래하다가 병원에서도 쫓기나고 이 직업도 없어져버리고, 병은 또 다시 또 재발을 해가지고 오갈 때가 없이 그 당시에 우리 전세 살던 집, 천만 원에 달세가 한 달에 삼십만원인가... 뭐 그랬어. 그래가지고 참, 달 세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전세는 자꾸 까이고 이라다가, 내 이 지역 이사올 적에 여기 지금 200만원인가 걸어놨어요. 200만원인가... 그것 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 버렸지. 사람이 살다보면, 그때는 이제 수급자가 안 되가고 있고, 살다보니까 생활비는 들어가야 되는기고... 어디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돈만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사올 때에도 참말로 뭐, 여 와가 인자 그때 이백, 이백 몇 십 만원인가 그랬제 (처: 이백 삼십만원인가?) 이백 삼 십 만원인가 걸고, 여기 이사 들어오면서 이 사람 매일 뭐, 그 당시만 해도 누워가지고 똥, 오줌 못 가렸으니까... 이래 있다 보니까 뭐 저 세탁기 저거 한개 사고, 또 냉장고 이거 그 옛날 쓰던 거 갖고 왔었는데 드르륵 소리가나고 고장이 나버렸어. 고장이 나니까, 이 사람 친정 오빠가 하나 사주고. 에어컨도 옛날 집에서 꿈쩍 못하니까네 이제 금년에 이제 하나 사주는 거라. 친정 오빠.... (오빠분이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가 이제 (처: 오빠 아들이 저 삼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삼성전자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 보내주고... 그래, 보내줘도 저거 그림의 떡이라. 틀라 해도 뭐 전기세 때문에 틀 생각도 못하고... 그래도 이집은 인자 층 수가 있으니 까 저 앞에 문 열고 이 문 열면 하면 바람이라도 불어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살던 집은 참말로 옛날에 그것도 철거해가지고 위에 지붕에 아무것도 단 열도 안 되 있는 합판만 해가지고... 이 위에 시멘트를 얹어놨는 그게 되가지고, 덩워서 막 거는 진짜 사람 살 그것도 못됐을거라.

Q: 그러면은요... 수급을...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수급을 신청을 해서 생계비를 받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수급자로 통보가 됐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A: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1인당 그때 생계 그거로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어떤 그랬는데... 그 당시 칠만 얼마가...(처: 아니다... 전에 할 때는 저 십, 십 일 만원 하고... 합해가지고, 이십...) 장애수당하고, (처: 응, 장애수당하고 합해가지고 이십...) 그래 나오드라고. (처: 하여튼 이십 일이 만 원 됐거든에, 고래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두 번 인가 깎아버렸는 거야. 그래 왜, 동사무소 내가 가가지고 왜 이래 살기가 어려운데 돈을 깎노 하니께, 그래 뭐 이래이래 하면서...) 내가 그래 내보고 근로능력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 그걸 깎아버린거라. (처: 예, 깎아버리고 깎드만은 인제 올해 인자 조금 올랐는가... 처음부터...) 그러니, 처음에는 인자, 그 당시에 신고할 적에 월 소득이 얼마 뭐 이래 그래 나는 부정기적이라도 한 달에 근로소득 있다고 내가 적어줬거든. 근로소득이 이 정도 있다... (처: 그때는 그 정도 소득도 안됐지) (했더니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된 거군요?) (처: 예, 맞아) 어, 그래 인자 처음에 신청할 때 그래 적어냈어요. 적어 냈는데, 뭐 한 달 삼십일 풀로는 일을 못 해도 뭐 한 달에 뭐, 열흘 뭐, 조금 일 좀 많이 하면 보름은 할 수 안 있겠느냐, 내 생각에... .벌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그 물론 일을 좀, 이제 집에 아무 그게 없고, 조금 일도 연결이 잘 되가 좀 어떤 달에는 뭐 한 보름이라도 하면은 조금 수입이 조금 났고... 또 연결이 안 되고, 그 일이 제대로 안되고 이라면은 또 뭐 좀 그거 하고...

Q: 근데 그거를 얘기 안하셨으면 수급비 안 깎였을 수도 있잖아요. 후회 안하세요?

A: 그래,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정부 돈 받아가 그 얼마를 준다 이런 거 생각도 안하고... 내 있는 그대로 이야기기해준 거거든... 그대로... 내가 정부 돈을 얼마, 얼마 받아 묵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던 거니까... (처: 처음에, 처음에 인자, 우리 아저씨 적어 냈기는 오륙십만원 해가 적어 냈는데... 오륙십만원 못 벌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식구 이제 너이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삼십 만원씩 한 달에 한 백 만원 정도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내 생각에....그래 난 그렇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떡 통장을 떡 찍어 보여주는데 십 육 만원? 십육 만원... 어, 십육 만원이든가? 이십 삼 만원... 그 은행에 떡 찍히 나왔는기라. 그래 내가... 아, 이건 아니다. 요번 달에 십 육 만원 넣어주고, 다음 달에는 백 만원 정도 나올기라 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니까 '다음 달부터 돈 넣어 줄꺼를 이번 달부터 넣어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이소' 이러는기라. 아, 이게 다 들어왔는갑다. 그래 그때부터... 아차 싶었어. 정말 실망했지. 첫 달에 실망하고 또 둘째 달 실망하고... 그러다가 인자 지금 현재는 올해 인자 일일부터 요기 십 육 만원 올랐으니까, 올랐는데 난 너무 감사하지. 난 이제... 그렇다니께네...) 그래, 인자 나는 얼마가 뭐, 정부에서 뭐 얼마나 보태줄꺼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그 당시는 인자 이 아파트에... (아파트에 들어오시는거...) 그 당시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은, 아무리 신랑 각시라 해도 지 어떤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는기 인간의 본능인데, 이기 뭐 첫째 화장실 가기를 하느디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니까. 급한 상황이 되자, 막 내가 백방으로 이래이래 하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럼 아파트 한번 알아봐봐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때문에 그래 되고... 그래 실제적인 서류를 이래 맨들다 보니까, 전혀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다 보니까 영세민 되버린 거지.

Q: 서류 만드실 때요, 좀 이 기준은 좀 막 너무 불합리하다거나... 이권 말이 안되는 거 같다...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A: 그런 거는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서류를 만들 때에 불합리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하고, 내가 마, 사람이 참 우리나라도 제도가 이렇게... (처: 우린 수급잔 줄 그것도 모르고...) 응, 그것도 모르고 (처: 동사무소에서 신청 해주면서, 의료 혜택은 딱 보호를 해주고. 보험이 거기에서 수급자다 하고 딱 지명해가... 우리는 수급자 있는 그것도 몰랐지...)

Q: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거의 인제 다 수급자시잖아요.. 그럼 정보를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A: (처: 안 들습니다. 전혀...) 전혀 우리는... (처: 전혀 이야기 안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뭐 어떤니 저찌니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는 모르고...

Q: 어, 그래요? 다른 분들이 얘기 안하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만 온 게 아니고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저씨 같은 경우는, '내가 그만큼 못 벌어도 이 정돈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신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그걸 얘기 안했으면 돈 안깎였을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도, 사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 안하면은 아무도 모르는거거든요. 그래 갖고 주위에 이렇게 임대주택아파트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아우 나 일 못한다고 배짜라... 이렇게 하고서는 뒤로 그렇게 숨어서 일 하고 이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기서?

A: (처: 아아... 나는 못 봤고, 아니 여 여기 몇 사람 있는데... 인자 그 사람들은 뭐 일하러 아예 안가고 정부에서 돈 보태 주는 그거 가지고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을 하실 수 있어 보이는데? 그니까 있어 보여요?

A: (처: 아 몰라, 그건 그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수급잔지, 수급자 아닌지 어떻게 아노? 그러는... (처: 그.. 아니, 난 보기 멀쩡한 사람들이 논다 싶으니까...) 불

맨 그래도... 그거는 아주매가 판단하는 그런 거기 아니단 말이야. 그라고 얼마든지 노동 할 수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음, 일을 해야 된다...) 요새 파출부라도, 여자들도 파트타임이라도 말이야 일을 할라꼬 하는 세월인데, 내가 놀아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끝이 없는 거라. 사람이 삶의,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몇 년이라도 이래 지나다가, 이거를 탈피를 해가지고, 뭐 내가 영세민 거... 내보다 어려운 사람은 또 생기고. 자꾸 생기는 그런 세월인데. 그런 사람, 실제적으로 구포시장 같은데 가보면은, 할매들 앞가지고 파는 사람들 보면은, 참 누구 말 맞따나 뭐, 자식이 참, 자식이 뭐 좀 듣든하니 살고 이래도 혜택을 못 보는 할매들도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찌다가 현실적으로 그 뭐 저 새끼가 즈그 어마이 안 뚜드려 패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제, 뚜드려 패제, 뭐, 수상한 사람들 상당히 많다고.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도, 그건 다만 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탈피를 해야, 탈피를 해야 만이 거기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맨날 이 생활, 내 정부에서 얼마 받아먹는데, 내 이거 받아먹고 내 노력 안 해야 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여.

Q: 근데 신청하실 때요, 그 소득이랑 재산은 뭐 없으셔서 이제 쉽게 무리 없게 되셨는데... 자식 분들 있으면 또 그것도 걸려서 그것도 잘 안되고 이러는데 그건 문제 없으셨어요?

A: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이야기 하잖애. 딸 아들이 이 사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을 떠난지가 오래됐지. 우리하고 같이 안 살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그렇다 보니까 (처: 우리 아들은 그때 당시, 여기에 들어올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 됐고, 그러니까 수급자...)

Q: 그때 공무원이 따님 분들 갖고는 뭐 별로 말씀...

A: 그것도 조사 다 하더라고... 조사 다하고 (처: 다 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다 하고... 고모들 다...) 다 해가지고 다 자기들 조사 다 하더라고. 그 그래가지고...

Q: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어요?

A: 기분은 상당히 나쁘지. 내 여동생들도 즈그 신랑 뭐 소득, 그런 거 가지고 정부에서 조사 한다고 말이야, 왜 그걸 할라고 하느냐... 막 썩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고, 또 그거는 내가 지금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살 형편도 안 되고, 아파트 들어갈라 하다 보니까 너 꺼를 조사를 하나보다.... 아 그럼 뭐, 형제간 끼리 우애가 좋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한 개 사주는 거 같으면야 문제가 다르지. 그런 입장도 아니면서 인자 괜히 저꺼를 왜, 저거 신랑들꺼를 조사를 하고, 그래 하도록 만들어 오빠가 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좀 분란이 많았어요. 분란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인자 내는, 내도 외동인데 딸 아들이 현실적으로 올케라도 저가 이렇게 도와... 아프니까 어떻 쯤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제 있는 거 같으면야 아무문제 없지, 근데 전혀 뭐 즈그 살림하고 별개다 보니까는 조사만 한다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 거 하고는... 그렇다고 가들이 저거 어디 아프다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약이라도 한 번 사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쌀을 한덩어리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래 되자 인자...

Q: 급하게 좀 뭐, 약값이 뭐 더... 이렇게 좀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가야 되거나 이러면 돈이 더 수 있잖아요...

A: 그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우리 처남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 (친척 분들이 그래도 좀...) 그렇지. 내가 나도, 남매 내 하난데... 내 동생들 있지만 살아가는데 도와줄 수 없어. 지금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뭐, 그래도 뭐 의무적으로 딸 집이라고 거하지마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인자 활동 못하지, 현 생활이 아프면 친정쪽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 간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웃에 주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것도 해보고, 또 인자 빌렸다 하면 벌어 갚는 것도 인자 내한테 부담이거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벌어가지고 갚아나가야 되는기고, 또 돈이란 건 빌 리가 쓰고 또 갚아 나가고 그런건데... 또 이 문제는 그래.

Q: 그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요 전화하거나 가끔 찾아오거나 뭐 그래요?

A: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인자 전화 해가지고 무슨 서류 띠온나, 무슨 서류 띠온나 하는 그런건 뭐...

Q: 그러면은 뭐 수급 받고 나서... 이런 거 좀 더 뭐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물어보려고 뭐 찾아갔다거나...

A: 아까 이 사람 이야기 하듯이 진료비 깎였다고 한번 항의를 했다. 나도 있는 그대로, 현실대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뭐 한 달 정기적으로 일은 안 되도... 하면은 그 정도는 벌일 수 있다 이라고 나니까 툭 깎이 가지고 나왔는 거라. 툭 깎이가 나왔는데...(웃음)

Q: 그렇게 전화해서 왜 깎였냐고 뭐 이럴 때, 공무원이 태도가 너무 불성실...

A: (처: 태도는 뭐 그렇지 않아요...)

Q: 그래요? 공무원 분이 그래도 되게 친절하신가봐요.

A: (처: 예, 예 친절하더라고...)

Q: 아니 정말 공무원들 되게 까칠한 사람 많아요. 전주에 갔을 때는 되게...

A: 전화해서 뭐 갖다 달라... 보면 복지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다 친절하게 하더라고...

Q: 그러면은 그렇게 조사하고 가서, 수급 신청 됐다고 연락이 오셨잖아요? (예...) 그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던 거 같아요?

A: 우리요?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신청 해가지고 들어올 때 좀, 들어 올적에 좀 딴 사람들 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Q: 그러면은 그 신청, 이제 막 조사 했잖아요. 그리고서 공무원이 이제 수급 통지... 이렇게 됐다고, 여기 됐다고 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A: (처: 한, 한 달...? 한 일 개월? 하여간 정말 빨리 됐어요.)

Q: 아파트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아... 그렇게 되신 거구나... 혹시 몇 년 더 빚을 갚으시면 아저씨께서는 이제 또 돈을 좀 더 빌려서 사업 같은 거 할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내가?) 예...

A: 어쨌든 내가 뭐, 인자 뭐 하겠노 인자. (뭐 이렇게 돈 뭐 갚으신 후에 또 얼마큼 빌려서...) 인제 그래 해가 이 사람하고, 인자 다른 거는 할 거 없고, 뭐 과일 장사를 하든지, 그거 그거는 크게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뭐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밑천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은,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 뭐 어쨌다 이걸 안 되고... 그거는 뭐 몇 상자만 사다 노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고... 가게 전세 하나만 걸어가지고 마 얻을 수만 있는 그게 되면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Q: 그러면은 자립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그래도 도움은 되시겠네요.

A: 그렇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묵고, 한 달 묵고 한 달 다 써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어떤 살아가는 어떤... 다만 한 달에 십 만원이라도 저금을 해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Q: 그럼 지금 저금도 하세요?

A: 저금은 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금을 할라고 노력을 한다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늘어가면은 하다못해, 이게 지금 영구 임대라 이러지만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참말로 뭐 임대아파트 말고 여 옆에 1단지 같은데 지금은 얼마 안하니까 청약저축이라도... (처: 청소라도 그 여기서도... 여기서 돈 하는데 뭐 좀 넓은 거 뭐 할라꼬) 그래도 기분에는... (처: 기분에는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야 인자 자꾸 살아가는 거지, 다 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 저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다 그래 살아가고 물론 이쪽에 뭐 사는 사람들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그러하지만은... 개중에는 보면 레벨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마이 있거든... 이 말이야 술만 먹고, 생활수준에 어떤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느껴요.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Q: 수급 받으시고 나서 의료비 이런 거는 좀 많이 절약 되서 좋으시다고 하셨
잖아요... 근데 좀 나쁜 점이랄까 그런건 없으세요?**

A: 그러니까 인자 수급 받으니까 어떨 때는 안 받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차별하
는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뭔가 모르게... 그래서 차라리 이걸 안
받으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빨리,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내 떳떳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

**Q: 그, 이거 처음 받으실 때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등
학생이면, 한창 사춘기 땀데... 그때 자제분이 이거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한창 예민할 시기잖아요...**

A: 그래 이제, 우리 아가 착해요. 저그 엄마가 인자 이렇게 딱 병이 오고 난 뒤에
(처: 처음에 병이 올 때는 우리 아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 초등학교
때는 뭘 몰랐으니까. 그래도 자가 크기는 잘 컸지, 안 빗나가고... 지금 스무살
인데. 지금은 엄마가 이렇다 해도 휠체어, 전동 휠체어 말고... 저 작년에 즈그
누나 결혼했거든. 큰누나. 결혼 했을 때도 즈그 엄마 내도록 밀고다니고... (착하
네...) 예, 착하게... 빗나가고 그렇진 않았습시다. 사춘기라 해도...)

**Q: 지금요, 필요한 뭐... 지금 청소 도우미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청소 도우미
또 오고...) 뭐 또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는 없으세요?**

A: (처: 목욕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목욕 도우미는 있어요. 복지관에) (처: 복지관
에 있는데, 한 달에 한번인가 그렇고) 집사람이돈 주면서 씻겨달라고 해도 안
씻겨 줄라고 하는데... (처: 그래, 돈 쥐가지고 같이 목욕탕 간다든지 이라는 거
하면은...) 실제로 인자 살아가는데 뭐 몸이 불편하다보면 애로사항이야 많
지. 많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내 생각에, 나도 어떤 고집인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는 반찬도 인자 그 지가 해나 노니께네, 가 오는데 보니까는 처음에 갈

때 반찬 준다 이러니께 매일 매일 갖다 주는가...이랬거든. 그것도 마,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툭 갖다 주고 가빠고 이러니께... 그 마 어쨌든 시장에 가서... 안 받고 고마 마... 그것도 뭐 받을 라고 하든 뭐 매 서류 맨들어 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처: 도장 찍어야 되요. 맨... 도장을. 한번 와가지고... 네 개 찍어 간다 아닙니까. 네 개. 고 다음달, 다음 달 가면 또 하나 둘 셋 네 개. 일주일에 한 개니까... 또 네 개 찍어가고... 내 도장 찍어야 되고. 내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까지 갔다가 여까지 왔다가 막 도저히 못 하겠는기라... 그런 것도 있고 마... 말아 버렸다니까...)

Q: 아...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그래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한니까 만족은 하세요? 일에 대해서는...?

A: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그거라도 뭐 어쨌든 하면... 내가 누구한테 뭐 디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내 자급자족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자립 할라고 (그 빚만 갚으시면... 빚만 갚으시면 될꺼 같아요.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러게. 몇 년 더, 그거 갚고 나면 뭐 그때 돼서 또 한번 또 도움을 한번 청해보고... (처: 지금도 빌려가카 카드회사에서...)

Q: 카드회사에서? 그거 하지마요. 그게 빚이 얼마데...

A: (처: 그래, 이제 그게 뭐고. 신용불량자 아니라고...) 정부에서 생계 자금으로 빌리가, 전세 별면은전세, 가게 전세라도 딱 별면은... 큰 돈 안드는 거... 우리가 또 나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쪽으로 택해가 하면은 뭐 한 달에 다만 뭐, 칠팔십 만원 벌어드는 거는. 또 그거이 일하는 거 이래 찾으러 안 댕기고, 그거는 뭐 가게 문 열면, 열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서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생각은 지금 그래 가지고 있어요.

Q: 근데 자제분이 이제 제대를 하시면 아까 대학생이라 하셨잖아요. (처: 예,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할텐데 그럼 등록금은 어떻게?

A: 농협에 그 저, 처음에 장학생으로 들어 갔거든요. 장학생으로 들어 가가지고

(처: 지금 아들 자랑 같은데... 그 의사 하는 우리 제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군 의관으로 진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진해에 있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자네가 요번에 성국이 그 한다고 욕봤다면서' 이라니까 '내가 뭐 욕본 거 있습니까' 그래 하는데... 이제 그 마누라가 '아이고, 언니는 아들 하나 군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기원을 했는고, 정말로 좋은데 뽑혔다' 이러면서... 그런데 '아들이 공부는 잘했는갑다' 그러면서... 거서 공무원 같이 출퇴근이라 하면서...) (해군이예요?) (처: 해군인데...) (오...) (처: 그래 인자, 그래 공부를 갖다가, 저 1500명에서 80명 뽑드라 하데예... 80명데에 4명, 4명 뽑는데 또 걸렸다 아닙니까) 거기 인자 농협에 학자금 지가 취직해가... 장학생이 되나노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 기숙사에 내 있고 뭐 이러니까... (처: 아들 뭐, 대학교 시키는데 뭐 그래 신경 안쓰이. 이렇게 있으도, 돈 살아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장학금은 지가 이제 또 하겠지) (응, 알바하고...) (처: 예, 알바해가지고... 지 용돈이라도 벌어 쓰고... 그래 하겠지) 거하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Q: 그래도 이렇게 두 분 뵈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되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신 거 같아서 되게 좋아 뵈요...

A: 그래 해야 정부에서 도와준 보람도 있고... (웃음) 그런 거지... (처: 또 우리가 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닙니까?) 그래 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좀 받고 또 도와줄 수 있고... 이래 되야 되는거지. 이 뭐 계속해서 뭐, 정부 도움만 받아가지고 먹고 쓰고... 그래 살든 그래 살아 되는 것도 아니고....

Q: 아저씨가 건강을 잘 지켜셔야겠네요.

A: 하, 그러니. 내 죽어가, 내 죽으면 따라 죽으라 그런다. (처: 따라 죽어야 된다. (웃음)).

Q: 아이고, 그러시면 안되죠. 아저씨가 딱 이 정신력으로, 딱 버티셔야겠네요.

A: 그래, 흔들렸으면 벌써 흔들렸지. 근데 이제, 이 어쩔든 살아남아야, 그때 만해도 아들도 어리고 이러니까... 어쩔든 살아 남아야만이 뭐 끝이 있는 거지...

Q: 몇 년 만 고생하시면, 좋은 일만 이제 있으시겠네요...

A: 그래 인제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 가게라도 하나 그거 하면은 좀 될꺼 같애. 그라고 뭐 굳이 벌러 안 나가도 되고 뭐, 아침에 가게에서 밥해가 같이 묵고... 같이 장사하고, 뭐 저녁에 잘 때 되면 다시 오고 이러면 되니까... 이제 그거를 맨들라고 노력을 해야겠지... (처: 가게 빌릴려면 또 돈을 벌려야 된다 아이가...)
(웃음) 아, 빌리든지 갚아 나가면 되지. 아들 안 있나 아들. 인자 아들이 또 취직해가 갚아가고... (그렇죠..)

□ 수급자 18

- 조사지역 : 광역시
- 가구유형 : 장애가구
- 수급유형 : 현재수급
- 수급기간 : 3년
- 응답자 가구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직업 및 경제활동	장애여부 (등급 및 내용)
본인	51 (실제 52)	남	없음	6등급. 군복무시 다리부상
모	90	여	없음	

※ 응답자 본인을 1번으로 기록할 것

- 주거상태

<p>주거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 수도시설 등)과 주거지환경에 대한 간단한 묘사(교통입지나 직장, 학교와의 거리 등)</p>
<p>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13평정도. 작은방 1, 큰방 겸 거실, 화장실, 주방. 난방 및 취사는 도시가스. 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음. 동사무소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 주로 통원하는 병원은 버스이용</p>

○ 조사평가

조사전반에 대한 느낌 -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직접 기록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음. 단, 수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듣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Q: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한거를 1번, 2번 체크하고 그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다른 조사들 하는 거랑 다르게 정해진 주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씀 듣고 그 중에서 반영해드릴 만한 것들이나 이런걸.. / 개인정보 보호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연구목적외에는 달리 사용되는 게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장애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떤 장애십니까..

A: 다리. 오른쪽 다리를 군대생활할 때 다쳐가지고.

Q: 오래되셨네요 지금 수급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A: 4-5년.

Q: 그럼 급여는 수급하시기 전에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A: 그전에는 공무원이었어요. IMF 당시에 주위 친지들 빚보증서고 채무관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경매로 다 날아가고. 직장도 사표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그 외에도 지금도 빚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게.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 거기다가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다행인게 잘 보장되어져 가지고 이런 제도 하에서 그나마 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요.

Q: 여기 임대아파트 들어오신건 그 때 그 시기에 들어오신건가요..

A: 예

Q: 그럼 들어오신지 4-5년 정도 되겠네요

A: 예

Q: 이웃하고 교류가 좀 있으십니까? 주변에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받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데는 교류를

하십니까

A: 안하고 있어요..

**Q: 동사무소는 수급관련된것만.. / 불편하시면 많이.. 활동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불일보러 다니시거나...**

A: 걸을 때 약간 약간 다리가 뻣기고. 앉을 때 바로 앉을 수 없는 그 정도. 경미한
편이죠. 아직까는.

**Q: 그럼 예전에 거기서 계실때도 약간 불편하신 상태로.. 일을 계속 하셨던 거
겠네요 ?**

A: 예

**Q: 그럼 그 이후에 일을 하시는 거는 그 때 안 좋은 일 있으시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새로 일을 하시거나 하기에 몸이 더 불편해지신건가요?**

A: 그렇죠. 더 불편해졌고,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을 할 형편이 아니죠. 여러 가
지로 건강이 안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마땅
한 일을 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것
이. 지금 뭐 4인 가족이 얼마로 알고 계신..

Q: 120만원 정도 되요.

A: 그렇죠. 한 2인 가족이면 60여만원 되는데.. 4인 가족이라고 칠 때, 120만원이라
고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이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100만원짜리 취업을 한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테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120만원짜리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점
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 4인 가족도 아니고 2인 가족이라서 60여만원인데 4인
가족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120만원 받는다고 하면 120만원 받게 되면 우선 영
구임대 주택인데, 집도 없으니까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
예요. 사람 살려면. 그런데 영구임대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없어

지는 거죠. 그럼 당장 120만원 돈 받으면서 어디 나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내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을 때, 소득이 있는 만큼 제하게 되어 있으니깐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수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급자처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단돈 60-80만원 벌었을 때 벌면 그거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부 측에서 합리적으로 좀 수급자들한테도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전액 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급자로서 그런 또 입장이니까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Q: 근데 지금 뭐.. 소득을 뭐.. 벌게 됐을 때 일정 기간 그냥 소득을 벌면서 좀 더 수급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또 공직에 계셨으니깐 잘 아시겠지만 무한정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략 생각하시기에 쉽게 금방 자리잡으시긴 어려우시겠지만 몇 년 정도는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라든지 뭐 그렇게 좀 있으신가요?

A: 고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다고 생각했지 기간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는데 고런 문제점이 분명 있긴 있는 거예요.

Q: 그럼 소득 말고 지금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편찮으시기도 하고 본인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병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하고, 여기 주택 부분하고.. 그런게 더 수급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게 더 문제가 되시는 거죠?

A: 그렇죠.

Q: 소득이야 뭐 일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 받으시는 게 현금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2인가구이다보니까. 근데 그 정도 소득은 밖에서 버실 수 있으면 버실 수 있어도 문제는 병원 다니시는 거랑 여기 아파트 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더 걱정이 되시는 거죠?

A: 예 그런 것은 비단 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른 가구에 있어서, 다른 수급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하고 하는 이야기에요. 참 여기는 국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참 이렇게 기초수급권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복지혜택을 갖다가 직접 현금으로 바로 도와주게 되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까지 계속 확대해나가다 보면 국가재정이 좀 문제가 될거란 생각도 들더라구요. 기초수급자들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막막한 국민들이니까 국가에서도 보호를 하는 것이지만, 차상위계층은 거기에 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Q: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게 60여만원 되고, 그거 말고 다른 수입은 없으십니까?

A: 없지요.

Q: 주변에서 친지나 친인척들 중에서 조금씩 지원받으시는건 없으신지요?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A: 그 당시에 주식도 하고. 그 당시에 같이 망해가지고. 친지들도 누가 있어. 빚이 몇 억 되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조용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나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Q: 부채는 그럼 지금 어떻게... 아직 정리는 못하신거 같은데...

A: 예

Q: 그럼 이자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나요?

A: 계속 그렇게 빚이 있죠. 일부분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가지고 보호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고 개인적인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 처지가

이렇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법이 없네요 참.

Q: 그럼 급여 받으시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갑니까?

A: 기초생계비 받아가지고요?

Q: 예. 여기 월세는... 관리비 내시죠?

A: 예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십 몇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Q: 관리비 포함해서..

A: 예 관리비 임대료. 영구임대 아파트도 임대료가 있거든요.

Q: 그다음 지원금 받으신 것에서 임대료 일단 십여만원정도 내시고. / 그다음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A: 추가로 들어가는 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돈이 한정 없이 드는 거니까. 조용히 파묻혀 사는 거죠

Q: 그럼 제일 크게 들어가는 돈이 주거와 관련된 집세하고 관리비 내는 거 하고 드시는 거하고... /

A: 의료비하고...

Q: 의료비는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A: 바뀌었다고.. 본인이 얼마씩 더 내고 그러더라고요.

Q: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자주 가시나요? 그것도 꽤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A: 자주 가는 편이죠.

Q: 병원 여기 근처에 한솔병원하고 이렇게 있던데 주로 어딜 가십니까?

A: 요 병원에 있는 병원들 단골이죠. 덕천동에 있는 병원도 다니고.

Q: 차타고 ..

A: 예 차타고 가서..

Q: 워낙 받으시는 돈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쓰시다보면 크게 여유가 없을 텐데 혹시 갑자기 또 무슨 큰돈이 쓸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A: 항상 조심하면서 조용하게 살아가서 큰일도 안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Q: 조금씩이라도 단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저축은 하시나요?

A: 힘들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게 경조사비도 있고 누구라도 옛날부터 공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도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건 조금 힘든거죠.

Q: 연료는..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고..

A: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

Q: 겨울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난방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A: 중앙난방식이라서 연료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죠. 관리비 중에서.

Q: 겨울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우시겠네요. 관리비가...

A: 그렇죠.

Q: 다른데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시고..

A: 예

Q: 어머님은 어디 다른데가 많이 편찮으시죠?

A: 예. 배가 좀 아프시다고. 배탈나셨다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왔고.

Q: 워낙에 다른 지병이 있으신가요?

A: 다른 건 특별히 없으신데 노환이시죠.

Q: 실례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안계시나요?

A: 부인이 있죠.

Q: 자녀분들은 따로 출가를 하시고?

A: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Q: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수급 신청 하실 때 제도를 원래 아시고 계셨습니까?
제도가 있다고.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누가 소개를 해주셨나요?

A: 누가 소개로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거 같아요.

Q: 공직에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수급자 신청하시거나 그러시면 좀 부담스러우
시거나 하시지 않으셨나요?

A: 맨 처음에는 그랬었죠.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나
와가지고 당장 집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했죠.

Q: 그럼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누가 또 돌보고 계시고 그러셨나
요?

A: 예 그냥 뭐 형제 집에, 형님댁에 계셨는데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어머니
모셔가지고 와야겠다. 가끔 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
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Q: 그럼 그때 수급 신청 하시고 나서 여기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자 되시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시게 된건가요?

A: 예, 신청을 했는데 마침 자리가 나가지고.

Q: 그것도 신청한다고 금방 되는게 아닌데 / 맞아요 .. 대개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밀렸던데..

A: 신청할 그 당시에는 이쪽은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일년 채 못기다려가지고 들어온거 같아요.

Q: 그럼 그 사이에는 어머니는 형님택에 가 계시고, 아버님께서는 병원에 계시고 그러셨군요.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A: 12평

Q: 12평에 임대료. 관리비 말고 임대료로 나가는게 한 십여만원 되나요?

A: 임대료 자체만 한 4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기세는 관리비에 들어가고. 관리비가 한 12만원 정도.

Q: 받으시는거, 지원금 받으시는 거에 거의 뭐 상당부분이 관리비로 들어가는군요.

A: 그렇더라고요. 수급자가 되는게 원래부터 못살아서 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시민으로 살다가도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소위 알거지가 되가지고, 거지가 되가지고 이제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생활해왔던 방식도 있고 사람 같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Q: 이쪽 지역에서 공직에 계셨어요?

A: 예

Q: 조금 더 바깥 활동 하시기에 힘드실 수 있겠네요.

A: 그렇게 됐어요.

Q: 처음에 신청하러 가셨을 때 금곡동에서 신청하셨겠네요?

A: 예. 그때 덕천동에서 했나? 아마 여기 와서 했을겁니다.

Q: 갈 때, 그때 신청할 때 서류작성 같은거 하셔야 되는데 안내는 다 제대로 받으시고.. 작성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었습니까?

A:

Q: 가셨을 때 따로 상담실에서 하시던가요. 아니면 공무원 앉은 자리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A: 내가 옆에서 같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인 조사를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제도에 맞춰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합당하게...

Q: 뭐 설명은 잘 들으셨고요?

A: 예

Q: 친절하게 잘 해주던가요?

A: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명색이 사회복지사인데 복지면에 있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자세들을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Q: 신청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요.

A: 그렇죠. 처음엔 완전히 비참한 심정이죠 뭐.

Q: 조금이지만 그래도 지원이 된다는 점에 안도감이 있으신가요?

A: 그렇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Q: 예전에는 생활보호 제도였고, 그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전국에서 필요한 사람 지원해 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급권자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급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갖는게 마땅하다. 아니면 권리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그게 참. 어디가서 보면 권리라고 하는게 뻔뻔한거. 그건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고 하면 권리가 주어진 상태이면 권리죠.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권리를 찾아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군대생활을 좀 오래했고, 장교생활을 좀 오래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참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서 비록, 제가 연금을 안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연금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한테 크게 미안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속으로 나름대로 자위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Q: 그러니까 그때 연금을 신청하셨으면 좀 나오셨을텐데요.

A: 연금까지는 군대생활을 안했고. 한 십여년 생활했고.

Q: 이쪽에 4단지 수급자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그러던데 주변의 다른 수급자들을 보실 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보시면 어떠십니까? 다양하실거 같은데. 진짜로 참 어려워서, 편찮으셔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떠신가요?

A: 뭐. 제가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Q: 지금 아까 뭐 조용히 묻혀서 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기에 바

깎활동,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댁에서라도 하실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준비해서 하실 수 있는 거라든지 해보시고 싶은 거라든지. 좀 없으신가요? 예전에 또 공직에 계셨으니까 워낙 많은 정보도 있으실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A: 나이도 있으니까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건강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현재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A: 건강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거 같아요. 돈을 몇 백만원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허락만 한다면 가야되겠지만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없고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산도 있고 하니까 시골이라서 요양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Q: 여기는 오르막길이어서 다니시기 힘들텐데, 그래도 공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A: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낙동강도 있고.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처음엔 정말 못살것 같고 죽는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Q: 여기 처음 들어오실때요?

A: 그렇죠. 그 당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데 노모도 계시고. 먼저 죽는 것도 그렇고 그런대로 그냥 마음 달래가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종교적인 거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Q: 절에 한번씩 가시나요?

A: 예.. 절에는 가끔씩 가죠.

Q: 예전에 군에서 다치신거 관련해가지고 그 전이랑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 이후에라도.. 지원받으시거나 그럴 수 있는건 없나요?

A: 그것이 그 당시는 진급을 해야되니까 그냥 다친거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해버리면 진급이 안되니까. 그냥 아무소리 안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Q: 아예 기록이 없겠군요.

A: 그 당시에 기록은 있어요. 기록이 있어도 뭐 별로...

Q: 알아보고는 계신가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조금 그런가요?

A: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 그 당시에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저도 군에 있을 때 다쳐봐서 군병원에 가 보고 그랬는데 보면 아주 많이 다치신 분들은 공상처리해가지고 연금 받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상태가 심하면 연금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지원받고 그러시는게 있는데 그 당시엔 진급도 있고 그러셔서 그런거에 신경 안쓰고 아픈거 티내면 바로 진급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나오실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하셨을 테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A: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나와가지고 공무원으로 계속 생활을 할 줄 알았죠.

Q: 전역하시고는 다른 일 안하셨습니다..

A: 전역하고는 공무원을 했어요

Q: 다시 신청하실 때 그때 당시에 수급자 선정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 많으면 안되고, 소득이 일정액 이상 되면 안되고, 부양의무자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등등. 그런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까?

A: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제출 할 수 있는 거 제출하고 조사를 그분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수급자로 적합할 때 수급자로 결정이 되니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빚만 몇 억 있으니까.

Q: 그런 문제가 선정이나 그쪽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하고 그럴 때 복잡하고 그런 문제는 없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워낙 큰 일을 겪으셔가지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A: 명백하게 경매되어 가지고 저기한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빚 독촉장 날라오는 거.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Q: 진단서도...

A: 예 그런거 하고. 입원했다. 더 안좋은 상태여서. 스트레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Q: 스트레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이 나오니까?

A: 신경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요.

Q: 워낙에 고향은 이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A: 충청도예요.

Q: 그럼 공직 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쪽 부산으로 들어오신건가요?

A: 예

Q: 그럼 고향이 아니시고. 그러시네요..

A: 예 고향이 어디세요?

Q: 저는 인천입니다. / 저는 부산입니다. 바로 산넘어 장전동입니다.

A: 참 여러 가지가 다 나오네요. 형님이 부산에 사셔가지고 형님 밑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Q: 충청도에서 이쪽으로

A: 예 제 2의 고향.

Q: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면 그런.. 힘든 일 겪고 그러셨을 때 고향쪽으로 가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이런 받으시는 지원 이런거 말고 따로 어떤 부분. 활동 불편하신거라든지 어머니 돌보시는 거 관련해서 생각 나시는게 있으시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몸도 불편하고 장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불편이 가중되는 거 같아서. 근데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각 시도마다 책정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부산 같은 곳은 경미한 것은 2만원 그다음에 중증인 것은 6만원이라고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크거든요. 장애가 없는 사람은 나가서 일 할 여건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장애자. 기초수급자에서 장애자는 좀 더 어려운 형편이니까 장애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지원이 통합으로 되었으니까, 장애나 이렇게 따로 고려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아쉬운 부분이신 것 같네요. 아니면 그거 말고, 혹시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런거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A: 뭐, 아는 척 잘난척 하고 뭐 해달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연구 목적 상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와서 대대적으로 의견을 창출하시고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Q: 동사무소에서 방문.. 자주 찾아 뵙고 이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나 방문하거나..

A: 와서 방문해가지고 저기하고 가고하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Q: 아니면 혹시 갈등 같은거, 혹시 섭섭하신 거 없으십니까? 동사무소 담당자분들과 다투신 일이라던가...

A: 다룰수도 없고. 약자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 하나. 최은숙인가 하는. 깐깐하고 무조건 티를 잡으려고 이러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버려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자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Q: 제도나 그런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만나본 다른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해도 하고 계시고 그게 혼자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이런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누구한테 주로 들으시나요?

A: 책에 뭐 사회보장법에 다 나와있는데.

Q: 다른 분들에 비하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A: 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내용을 보면 여러 부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기본 측정 하는 것이 누구는 학력이 높아서, 누구는 학력이 낮아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되는 사람한테 기초적으로 생활을 보장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말하기가 민망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Q: 그럼 여기 전담공무원은 한달에 한두번씩 연락이라던지 아니면...

A: 지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거 같더라고요.

Q: 그래도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한두번씩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통화 가끔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A: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를 하면 잘 해결해 주는 편이고 그 사람들도 많으니까.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날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 별로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사회복지관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접촉해보신적 없으십니까?

A: 없어요.

Q: 찾아온 경우도 없구요?

A: 아마 좀 특별한 수급권자를 만나시기 힘들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의 수급권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Q: 개인적으로 뵈고 드는 생각은 건강만 조금 괜찮으시면 괜찮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란게 소득이 아주 높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게 점 점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실 수 있고 그럴거 같은데, 워낙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시면 건강 안좋으시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과거에 활동하시거나 군에서 경력도 있으시고 공직에도 계시고 그래서...

(수급권자와 그의 어머니가 대화중)

Q: 어머니가 거의 못나가지겠네요.

A: 예

Q: 그럼 제일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는 건강이시겠네요?

A: 예

Q: 혹시 정부에서 지원받으시는거 그거에 대해서까지 빗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시죠?

A: 아. 지원받는 그 금액에서요?

Q: 예

A: 저거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겠죠 뭐.

Q: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 근데 그동안은 이제. 보증금이 임대아파트일망정 백몇십만원인가 되요. 백칠팔십만원. 근데 그거 까지 옛날에는 차압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그래서 가압류가 된 상태면 이게 2년마다 갱신을 해야되는데 살수 있도록.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어있어도 갱신계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어도 갱신계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이게 기초생활이라는게 먹는 것만 기초생활이 아니라 주거도 기초생활 문제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있는데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그 자체에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할텐데 왜 그게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Q: 그게 아마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이 달라서 그럴겁니다. 매달 받으시는 지원금은 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법이나 뭐 관련된 조항에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최소의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놨을 텐데, 이 영구임대 아파트는 또 아마 건교부라던지 뭐 이런 쪽 관련이 되 있을 거고...

A: 그것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활하는 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주거문제도 보장이 되어야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살면 그게 기초생활이 보장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아울러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재기를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4인 가족 120만원 받고 있다가 150만원 짜리 직장을 얻게 됐다고 하면, 당장 이게 나가든가 뭐 어떻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던 사람은 집을 살 돈은 없거든요. 한달에 150만원이든 100만원을 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이 많은데 편법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도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Q: 아니면 좀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A: 유예기간도...

Q: 주택같은 경우 단기간에 모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게 아니니까...

A: 그렇더라고요.

Q: 만약에 정부에서 생계 관련된 부분 말고 지금 월세나 관리비 15만원 정도 내신다면, 그런 정도에 대해서 매달 주거 급여, 주거비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된다면 그럼 여기 말고 다른데 일반 거주지 이런 데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A: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Q: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장 일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벌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들 때문에...

A: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Q: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죠. / 주거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A: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수급권자 몇 개월 조사들어갔다고 해서 다 수급권자 될 만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됐겠지만, 그런 사람이 취직을 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됐다고 해서 2-3년만에 집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가서 집을 얻을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지고 보증금도 비싸지고 또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또 압류가 들어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버리고. 그런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수급권자들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뭔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Q: 어렵지 않은 방법인거 같은데 아마 그런거 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매달 나가는 급여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게 해놨으니까...

A: 그 차원하고 같은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잠도 자야되니까.

Q: 그것 때문에 다음번에 갱신할 때 나가야 되고 그건..

A: 그러니까요. 갱신은 2년마다, 이게 뭐 이게 영구임대라고 해서 한번 들어오면 그 효력이 계속 되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영구임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이 안된다 말이야. 안되면 나가야 되고. 그건 참 문제거든요.

Q: 그런 문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고 전부다 이 쪽 관리사무소 이쪽하고 이야기 하시죠?

A: 그렇죠.

Q: 임대료나 보증금 문제..

A: 예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갱신이 된다고, 작년까지는 안되는, 가압류가 된 세대는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Q: 그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A: 근데 가압류가 되어도 갱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가압류 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더 연구 좀 해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되는게 그 사람의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학력이 낮으면 기초수급권자 해주고 높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러는게 아니라 경제력에 의해서 기초수급권자를... 학력이 뭐 무학이라도 돈이 몇억 몇십억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Q: 지금 그럼 채무관계나 그런거 때문에 일을 겪으시고 나서 지금 생활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동료나 친구분들이나 많이 알고 계신 편이신가요?

A: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도... 친한친구 한둘이나 알지만은 모든 친구들한테 말할 수는 없죠, 창피한 사항이니까.

Q: 그러면 기회만 되시면 지금의 상황에서 좀 예전만큼의 경제력은 아니시더라도 벗어나시거나 그런 생각은 있으신데 현실은 건강이나 이렇게 참 안 좋으시니까 그러시겠네요. 저희가 오늘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문제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말씀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미처 말씀 못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거 같다. 이런걸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4인인 경우에 120만원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1인 가구에서 받는 경우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30얼마라고 하던데...

Q: 40만원 조금 더 될겁니다.

A: 뭐 떼고 실제로 받는...

Q: 아 실제로 받는 거는 조금 안 될 겁니다.

A: 그것은 혼자 살기 15만원 정도 뭐가 나가니까 혼자사는 사람한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더 부족하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Q: 지금 여기 12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일 작은 건가요?

A: 예

Q: 그럼 여기 주변에 혼자 들어와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A: 모두가 혼자건 둘이건 12평이고. 13평짜리가 저쪽에 401동인가 402동에 거기 한

평이 더 크다고 봐야되겠죠.

Q: 말씀하신대로 혼자 들어와 있어도 내는 건 똑같이 내니까...

A: 똑같이 내는데. 생계비 자체가 좀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건 비슷하거든. 둘이 사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Q: 많이 지적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네요. 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전에 좀 까칠하게 했다고 하는 사회복지사는 자꾸 뭐 혹시 일 안하시나 소득이 있지 않냐 이런거 물어보고 그랬었나요?

A: 그렇다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Q: 저희가 궁금한거는 어쨌든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A: 소득이 있고 없고 그런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대하는게 보통 수급권자들을 대했는데, 나같이 특별한 케이스를 본 거겠죠. 나도 몸이 안 좋고 계속 저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깊은 사정은 모르니까. 지금 말하자면, 글썄 모르겠어요. 말하기가 참. 수급권자한테 1종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KT 전화 기본료가 면제되는게 있어서 내가 그거 신청하려 그랬더니 1종 그거 나중에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Q: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에 대해서 금방 일하실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A: 그랬던 모양인데. 근데 법적으로 분명히 내가 자기들 요건에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의료보호 1종이면 그거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안해주는 걸 가지고 싸우자니 그렇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Q: 그럼 그걸 신청하셨습니까?

A: 요 며칠전에 했어요. 그런 것이.

Q: 그게 뭐 해줄수 있는 숫자나 이런거에 제한이 있나요?

A: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닌데 저기하면 될텐데 자꾸 치사하게 그렇게 나오면 여기서 따지고 뭐 저기하는 것도 우습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크다면 큰건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계비 딱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담으로 생각하시고. 알아두시고. 좋게. 다른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긴 거 같더라구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법령을 어겨가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법령을 어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해주니까 섭섭하고 따지기 저거 하니까 그만 두고 그랬었는데 그런거예요. 사람이 살다보면 젊으신 우리선생님은 나이가 좀 들어보이시는 구만...

Q: 보기만 그렇습니다.

A: 옛날 성현들이 인생은 살얼음을 걷는 듯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용기 있게 뭐든지 잘 될거 같고 잘 할거 같고 그러다보면 낭떠러지나 이런데 떨어지게 될 수도 있듯이 한방에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Q: 뭐 부도나고 뭐하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더라도 건강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텐데, 진짜 중요한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A: 건강을 좀 회복하려고 산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계속 약을 먹고 있는 거죠.

Q: 병원은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씩 가시나요? 어머님 약도 같이 받아오시나요?

A: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는 꼴이에요.

Q: 진료도 받으시고 약도 받으시고..

A: 예. 약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Q: 약은 한달치씩 받아오시나요?

A: 보름치씩. 다리가 좋지 않으니깐 다리에 관계된 약,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음증이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깜빡 정신을 잃어버리는, 어지러워 가지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Q: 그전에는 다리불편하신거 말고는 그쪽으로는 편찮으시고 그런건 없으셨던거죠?

A: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런 어지러움 증이 생겼어요.

Q: 이제 일하시기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다리는 다니시게에 불편하신거고...

A: 신경을 쓰면 머리가. 정신이 이상이 있고 그런건 아닌데 어지러워 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수가 있어요.

Q: 복잡하고 신경쓰서 뭔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거네요. 말씀도 많이 듣고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부할 것도 많이 생기고...

A: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인거 같아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태는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셔야 실태를 잘 아실 테니까.

Q: 여기 오늘 말씀해주신게 사회복지사보다 저희가 더 많이 알고 가는 거 같습니다.

A: 그렇죠. 누구한테도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연구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

니까 그래서 때로는. 물론 회사 사장하다가도. 뭐 회사사장하면 자기 돈은 빼돌려도. 모르겠고. 때로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Q: 좋은 말씀도 듣고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가는 거구요 / 요거는 많진 않지만 조사 답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인데 여기 하나로 마트가 있더라고요. 거리가 있긴 한데 필요하시면..

A: 아유 이런 것 까지 다 주시구..

Q: 다 예산 받아서 하는거라서... /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미리 양해도 못구하고, 미리 연락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A: 미리 연락을 주셨으니까.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Q: 예 감사합니다.